

진리의 전달자(누가복음 강해 1)

성경말씀: 눅1:1-4

2014년에는 누가복음을 강해하려고 마음먹었다.

구약, 신약의 여러 인물, 사건, 교훈,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다.” 시작과 끝, 기초와 기둥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지요, 참 사람이시다.

요14:1-9, 도마와 빌립,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요17:3).

드문드문 공부하는 것보다 1년 정도 시간을 정해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그래서 약 1년 동안 오전에 누가복음을 강해하려고 함, <진리의 전달자: 누가>

누가복음

기록자: 누가,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4년

수신자: 데오빌로와 그리스 사람들. 누가는 완전한 사람을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을 향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시하였다.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성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빛’을 뜻하는 누가는 의사였으며(골 4:14) 고등 교육을 받아 문화를 잘 이해한 사람이다. 그는 삶의 후반부를 바울과 함께 했다.

주제: 그리스도의 진리 전달

목적: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원자임을 보여 주는 것

내용: 누가복음의 첫 네 절은 이 복음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 준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연대기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출생 이전의 사건들을 포함한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다윗과 아담에까지 이르는 마리아의 계보를 보여 주며 또 그리스도의 기도의 삶(3:21; 5:12-16), 가난한 자들의 배려(6:20-25; 12:16-21), 여인들의 위치를 높이는 것(1:24-58; 2:1-7, 36-38, 46-52), 음악(1-2장) 등도 담고 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부터 초대 교회의 설립에 이르는 역사를 잘 정리해서 보여 준다.

핵심 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19:10), 핵심 단어: 찾아 구원하다, 누가복음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19:10), 영적 교훈: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이다.”

누가

1. 의사: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 ‘사랑받는 의사’라고 불렀다(골4:14).

그런데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의 병을 고치는 의사였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에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천대받던 여인들의 기사가 많이 나온다. 또한 아이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배려가 많이 나온다: 부자와 나사로(16장), 가난한 과부의 기도 이야기(18장), 나인 성의 과부(7장)

2. 음악가. 그의 복음서에는 하나님 찬양이 많이 나온다. 마리아의 노래(1:46-55), 사가랴의 노래(1:68-79), 천사들의 노래(2:14); 시므온의 노래(2:29-32)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감사의 기쁨의 찬양이 나온다. 삭개오의 감격의 기쁨(눅19:9-10)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눅15:10).

3. 이방인(골4:11). 성경기록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기록함. 사도, 대언자, 초기 사역자들의 대부분이 유대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 그런데 유대인 예수님에 관한 기록과 그분의 교회 설립에 관한 기록은 이방인 누가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차이가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고후5:17)

4. 성경기록자요 역사가.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으며(신약 성경의 4분의 1) 사도행전의 여행의 대부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다. 행16:11에는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며 여행하고 고난당하

며 결국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끝까지 그와 함께하며 그의 임종을 지켜본 인물이다(딤후 4:11).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 전과 후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식과 판단과 충성과 의료 기술 등으로 인해 초대 교회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는 것이다.

누가복음의 특징

1. 복음(gospel)이란 좋은 소식 혹은 복된 소식을 뜻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좋은 소식을 담은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눅19:10).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2:10)
개인과 군중, 남녀노소, 가난한 자와 부자, 병든 자와 건강한 자, 죄인과 성도 등 다양한 사람의 복음
2.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다. 장 수로는 마태가 길지만 내용은 누가가 가장 길다. 그만큼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았다.
3. 단순히 긴 것만이 특징이 아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기사들이 있다: 침례자 요한의 출생, 마리아 수태고지, 탕자 이야기, 삭개오, 회개하는 강도,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 등 누가의 기록이 없으면 이런 귀한 사건들이 전달 될 수 없었다.
4. 여러 사람들이 차례대로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함(2).
누가는 모든 일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차례대로 써서 알림(3).
5.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는가?
복음서 수신자: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눅1:3; 행1:1). 아마도 그는 팔레스타인에 거하는 유명 인사였으며 이교주의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름 자체가 개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즉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
6. 이러한 작업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이 수반된다. 왜 그는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였을까?
그는 성도들 가운데서 확실히 믿게 된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다(1).
우리도 알고 있는가?
확신을 갖게 되니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든 진리를 알려야겠다는 강한 확신
그 일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4).
이 복음서를 통해 이미 믿고 있는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더 든든히 갖게 하는 것(4)
 - a.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2:10-11)
 - b.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2:34-35)
 - c. 성령님의 역사: 요한(1:15); 사가랴(1:41, 67); 시므온(2:25-27); 예수님의 수태(1:35); 침례(3:22); 광야 인도(4:1), 그리고 오순절(행2)로 이어짐

진리의 전달 사명

결국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였다(벧후1:20-21)

그는 자기만 진리를 알지 않고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AD 90년경에 성경이 완결되고 그 이후로 번역되면서 전 세상에 퍼짐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진리가 퍼지는 것을 원치 않음

진리의 전달자들이 피를 흘리며 진리를 전달함

위클리프: 1380년경에 신구약이 완역된 최초의 영어 성경을 만든 사람,

위클리프의 주장: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땅의 어떤 사람이든 하늘의 어떤 천사이든 성경과 모순되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피하고 멀리하되 마치 지옥으로부터 온 괴물을 멀리하듯 멀리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에게 준 진리와 자유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영국에서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인 14세기에 체포된 롤라드 파 사람들은 산 채로 화형을 당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위클리프의 성경 역본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그 성경책을 목에 매단 채 책과 사람이 다 화형당했다.

1428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뼈를 기어이 찾아내서 불태웠다.

틴데일: 보통 사람들에게 영어 성경을 들려주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 천주교회 박사의 말 “성경이란 필요 없소.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오.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소.”
틴데일의 말: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결코 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의 단 한 음절도 바꾸지 않았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즉 명예와 쾌락과 재산을 내게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화형대에서 죽음

누가, 바울, 베드로, 요한, 위클리프, 진리의 전달자들의 희생과 수고로 1611년에 영어로 완전하게 보존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됨.

이 성경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 들어 있다.

우리는 누가처럼 확실히 믿는 바가 있는가?

확신시키려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누가처럼 이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바울이 죽기까지 누가가 성경의 복음 선포자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쓴 것처럼 애를 쓰고 있는가?

불신자든 신자든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실히 알리게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맡은 가장 큰 일은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누가와 바울, 위클리프, 틴데일같이 우리에게 전달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애를 쓰자

새 일에 필요한 의로운 사람들(누가복음 강해 ㄱ)

성경말씀: 눅1:5-25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4000년을 끝내고 신약을 시작하려 하신다(갈4:4).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인물들이 나타난다.

서정주 시인의 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눅1-3장은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진귀한 기록,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목자들, 천사들, 시므온,

안나, 침례자 요한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눅1:3). 초임의 주인공, 새 일

우리는 지금 재림의 주인공을 바라며 새 일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

어떤 사람들이 새 일을 할 수 있을까? <새 일에 필요한 의로운 사람들>

시대적 상황

예수님의 초림 당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때였다.

BC 606년 바빌론 포로생활 70년, 메대 페르시아 고레스 BC 536년 예루살렘 귀환, 성전, 성벽 건축
하만이 일어나 온 세상의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 함,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BC331), BC 323 요절
남(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과 북(시리아 셀레오쿠스)으로 나뉘, 중간에 낀 이스라엘은 늘 전쟁
북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등장, 헬레니즘, BC 168-164년 이스라엘의 성전 훼파
제사장들의 타락, 마카비 등장, 그러나 나라의 운세가 기울어 결국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함. 그리고 BC 40년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됨

포로 귀환 이후 여전히 배도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대언자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대언자가 등장하지 않음

요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제사장 타락, 끊임없는 전쟁, 메시아 대신 에돔 사람이 왕이 됨
백성들의 상태는 절망 그 자체였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러데 바로 이런 때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AD 300년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탄압, 중세 암흑시대 1000년 이상, 암울한 시대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이루신다. 말씀의 부흥
우리나라 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절망적이다. 진리를 찾는 자가 드물다(렘5:1-2).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 영적, 육적 모든 문제, 성경 말씀의 부흥

우리의 사람을 살펴보자: 이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가랴와 엘리사벳(5)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

사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엘리사벳: 하나님의 맹세, 합치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기억하신다.’

언제 맹세하셨는가? 시89:33-37: 다윗의 씨가 메시아로 와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고 다스린다.

이들의 특징(6): 주님의 모든 명령에 따라 흠 없이 걸으며 의로웠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성경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이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딤후2:14)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써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누가는 5-6절에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서 보여 준다.

헤롯: 그 당시 그는 왕이었으나 가장 사악한 자 중 하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난했으나 의로운 자
하나는 재능이 많아 많은 일을 수행한 괴물 통치자요, 다른 하나는 이름도 없이 조용히 경건하게 지내는
의로운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미워한 자, 사랑한 자, 자기 아들과 아내와 여러 명을 죽인 살인자,
다른 하나는 겸손하게 성전에서 봉사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제사장, 하나는 에서의 후예, 하나는 야곱의
후예, 하나는 전갈 같은 아들들을 이스라엘에게 남겨 준 자,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침례자 요한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남긴 자, 하나는 메시아를 직접 죽이려 한자, 다른 하나는 메시아의 메시지를 전한
자(67-79).

그런데 역사가 누가는 헤롯에 대해서는 ‘유대 왕 헤롯’이라고 짧게 쓰고는 사가야 이야기만 함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문제(7)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이 없었다. 더욱이 연로하여 소망이 없었다. 65세가 되면 농인, 80세가 되면 매우 연로함. 이들의 소망은 아브라함과 사라였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었을 것이다.

사가랴의 제사장 직무 수행(8-10)

구약 시대 성전을 짓기 바로 전에 다윗은 제사장을 24개 계열(조)로 나누어서 한 조가 일주일 씩 일 년에 두 차례 성전에서 봉사하게 함(대상24:8).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전 제사장 아비아 계열(8째), 그 당시 8000명 제사장, 각 계열 330명, 사가랴에게 제비가 떨어져 그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게 됨, 어쩌면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영광, 마지막 영광, 그는 이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의롭게 걸을 때 이런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 사역을 외치고 다니지 말라. 조용히 의롭게 가정생활하며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 기회가 온다. 성전 밖에는 경건한 무리들이 기도하며 사가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주의 천사(11-17)

분향을 마쳤을 때 주의 천사가 향단의 오른쪽에 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사로 인해 두려워 함 천사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Fear not, 총 63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아브라함 창15:1, 이스라엘 사43:1, 5, 요셉 마1:20, 여인들 마28:5)

그 이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우리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메시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13-17).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줄 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

누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로운 성도에게,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올바른 성도에게 주님의 기도 응답: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선한 행위가 나와야 한다(엡2:8-10).

사가랴의 의심(18-20)

사가랴의 응답: “표적을 주십시오.”, 사가랴는 아들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였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13). 기도가 응답되자 오히려 의심하며 표적을 구한다. 제사장, 성경 박사, 의인, 기도, 아이러니,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의 반응(롬8:26)

처음에는 사가랴가 놀랐으나 이번에는 가브리엘이 놀람, 이게 무슨 말인가?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음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표적을 준다(19-20).

믿음이 있고 의로워도 실수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 아브라함과 하갈, 반석을 내리치는 모세, 밧세바 와 간음한 다윗, 세 번 부인한 베드로 다 의인이지만 실수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천사의 말 응답(21-25)

백성의 반응(21),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22)

사가랴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할 수 있었지만 불신으로 인해 잠시 말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잠시 책망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 백성의 표적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엘리사벳이 수태하게 됨(24-25)

그 뒤 예언대로 침례자 요한의 출생함(57-66)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그가 말을 하게 됨(64).

그의 선포의 핵심(67-79): 죄들의 사면을 통한 구원(77), 이유: 메시아 탄생(78-79)

하나님의 두려움이 퍼짐(65). 새 일에는 이런 두려움이 따라야 한다.

결론

우리의 삶이 암울할 때, 교회의 영적 상태가 암울할 때, 기도하자

예수님의 피로 다시 나서 의롭게 되어 묵묵히 의로운 일을 하는 자, 실수해도 쓰신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누가복음 강해 3)

성경말씀: 눅1:26-38

지난주, 예수님의 초림, 매우 암울한 시대, 침례자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께서 맹세를 기억하신다’, 메시아 왕국의 새 일에 필요한 사람의 특징: 성경 신자, 구원받고 선한 행위가 넘쳐나서 의로운 사람(1:6)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람의 죄 문제, 죄로 인해 질병, 슬픔, 고통, 아픔, 사망, 대신속죄의 필요성

사람이나 짐승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완전한 희생예물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함 아들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려면 사람의 몸을 입어야 한다(히10:4-5). 이를 위해 어머니가 필요함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 놀라우며 귀중한 것, 특히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38),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유대인들의 예측: 성전, 예루살렘, 제사장 가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갈릴리’에서 이야기가 시작됨(26) 예수님 탄생 당시의 갈릴리: 유대인들이 경멸한 곳, 보통 이방인들의 갈릴리(마4:15), 특히 나사렛은 무명의 도시(No 언급), 빌립과 나다나엘: 나사렛의 예수님 소개, 나사렛 떨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요1:45-46)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온다. 15세 정도, 성경지식이 적음, 가난함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고 가난한 아이들 출산, 그리고 죽을 보통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영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 대제사장이나 왕의 딸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가?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출생하는 큰일을 했다: 두 극단

1. 카톨릭: 마리아 숭배, 하나님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 공동 구원자, 무염시태, 몽소승천, 예수님은 2인자 아기 예수,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 ‘To Jesus Through Mary!’ No!

에베소 교회(계2:1-7), 첫 사랑을 잃은 교회,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우리라(5), 디모데, 요한 에베소 공회(주후 431년), 7대 불가사의 ‘다이아나 신전’ 마리아 숭배 채택, 지진/화산으로 멸망

2. 많은 기독교인: 마리아 무시(1:42, 43, 48)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고 다만 ‘복 받은 여인’이라고 믿는다(28, 48): 예수님의 얼굴의 근원 마리아는 유다 지파 출신, 처녀(27절, 사7:14), 나사렛의 목수인 요셉과 정혼함(마13:55), 둘 다 가난함 이 당시 결혼 풍습: 정혼, 곧바로 남편과 아내가 됨, 육체적 결합은 남편이 거할 곳을 마련한 뒤 이루어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뱐 것이 드러나매”(마1:18)

가브리엘의 등장(26-29)

엘리사벳의 수태 뒤 여섯째 달(26)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남(26-27). 가브리엘은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또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위엄 있는 존재로 나타남(11절). 성경의 천사는 다 젊은 남자로 나타남. 천사의 딸(28), 28절 카톨릭 역본 “은혜가 충만한 자여” No! 중세 마리아 숭배의 근원

성경 번역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

마리아의 복의 원인: 주님이 함께하심.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해야 함. 그래야 성공한다.

창39:23, 막내딸에게 보낸 글: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보니 세상사는 게 힘들다. 세상의 재물과

지위, 명예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돈, 직장, 배우자 걱정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마리아가 불안해함(29): 컴퓨터, TV, 책 등이 없던 시대

마리아는 깊이 생각함: 대단히 중요한 구절,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깊이 생각해야 함.

수태고지(30-34)

천사의 설명(30-31), 두려워하지 말라(13절),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는다.

예수: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그 당시 흔한 이름, 여기서 그쳤으면 큰 일이 못 됨.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32-33): 위대한 분,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좌, 영원무궁토록 이스라엘 통치, 메시아 왕국이 무궁함

예수: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신다”(마1:21).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 그러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눅2:68-69; 롬15:8)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마1:23),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요1:1; 14).

마리아의 반응(34):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은 알지만 방법을 모름
“세상에서 이런 일은 처음 듣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질문: 어떻게 처녀탄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까요?(요3:9)

이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사려깊게 생각하고 물어야 한다.

천사의 설명(35-37)

천사의 설명(35): 성령님이 덮는다는 그분의 임재, 하나님의 파위가 함께한다(창조, 휴거,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파워).

그 거룩한 것(창3:15의 여자의 씨)은 하나님의 아들

남자와의 결합에 의한 출생이 아니라 처녀탄생: 기독교의 근본 교리 중 하나, 이것을 부인하면 불신자
죄 없이 출생, 죄 없이 생활, 자신의 죄 없이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해 죽음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성도의 둘째 탄생과 비슷함: 성령님의 다시 태어나게 하심,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이 체험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이 체험은 위로부터 온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의 ‘다시’는 ‘위로부터’이다(요3:7).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요5:18):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로 들어오심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 신성과 인성 이 둘을 가지신 유일한 분(요20:28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엘리사벳의 임신을 보라. 마리아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미리 예를 준비하신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1. 사라의 웃음: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창18:14).

마리아의 겸손과 믿음(38):

‘주의 여종’, 마리아는 죽음을 감수하고 받아들였다. 그 당시 결혼하지 않고 사생아를 낳으면 죽음에 처해짐.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로마 시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고통을 당하며 같은 것을 고백하였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다. 우리의 주

마리아는 몸(38)과 혼(46)과 영(47)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였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38).

하나님의 뜻만 선다. 주기도문(마5:10), 심지어 예수님도 그리 기도하셨다(마26:39),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리아는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눅2:34-35).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혼의 고통을 당함(요19:25).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 곧 구원자로 믿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자리에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하였다(행1:14).

하나님의 일꾼의 성품

1. 영이 가난하고 겸손하였다(마5:3).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2. 말씀을 깊이 생각하였다.
3.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다.
4.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누가복음 강해 4)

성경말씀: 눅2:1-20

어릴 때 주일 학교에서 12월이 되면 학생들이 크리스마스이브 발표회를 위해 여러 날 연습하곤 했다.

그때 꼭 성경 암송을 하곤 했는데 오늘 읽은 눅2:1-20이 바로 그 구절이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 말씀,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의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낭송하는 구절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는 누구인가? 바로 이 아기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11)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 탄생의 여러 요소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메시아

사람의 죄, 타락, 메시아 약속(창3:15), 여자의 씨 뱀의 머리, 메시아는 천사나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계시가 진행되면서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유대인(창12:1-3; 민24:17), 유다 지파(창 49:10), 다윗의 자손(삼하7:1-17), 처녀 탄생(사7:14),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 탄생(미5:2)

1. 탄생 시기(1): 그 무렵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제국 유지를 위해 조세 등록이 필요하였다.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함. 구레뇨는 두 번 시리아 총독을 지냄, 처음 BC 4, 알렉산더 이후로 유대는 시리아의 부속 지방으로 평가됨. 도올 등의 AD 6년 주장 No!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아 계열(1:5), 임신, 그 뒤 6개월 뒤에 마리아 수태, 침례자 요한 BC 4년 유월절 경에 출생, 예수님은 BC 4년, 장막절 즈음에 태어났다(10월 중순). 33년 반을 사시고 AD 30년 4월의 유월절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2. 하나님의 섭리(1-4): 역사(History)는 그분의 이야기(His story)이다.

그 당시 카이사르가 통치하였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를 사용하여 조세 등록 요셉과 마리아 역시 세상 치리자의 명령에 따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자기 고향으로 감(100km)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자연스레 이루신다. 이것을 '섭리'라고 함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

마리아와 요셉: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무슨 큰 목표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로 이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사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롬8:28의 섭리를 믿자.

또한 초림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이 시대에 재림의 역사도 조용히 이루심을 믿자.

“거룩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사는 성도가 되자.”

3. 베들레헴(4): 롯과 보아스의 고향, 다윗의 고향, 목동으로 아름다운 시를 쓰던 곳

뜻: 빵집,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는 빵이 나온다. 그냥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

요6장: 예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요6:35-40

이 빵을 먹은 적이 있는가? 누구든지 오기 바란다.

4. 여관에 방이 없었다(7).

크리스마스 발표회, 한 아이가 이 대목을 맡았다.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극이 시작되자 그 아이는 도저히 마리아에게 방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여기서 예수님을 낳으세요.” 연극은 망쳤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심정이 있는가?

큰 교회는 많다. 성도들도 성숙하다고 한다. 목사도 설교를 잘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5. 하나님이 구유에 들어갔다(7).

구유는 소, 말의 여물 통, 온 세상/우주의 소유자, 존재하게 하신 분이 가장 천한 구유에 들어갔다.

가장 비천한 자리, 그리고 가장 참혹한 사형 틀에서 죽으셨다.

인간으로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다.

막10:35-40,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한 자리 주십시오. 제자들의 시기(41)

예수님의 말씀(10:42-44)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한다(히13:13).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치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먼저 수치의 십자가(cross), 그 뒤에 영광의 왕관(crown)을 받는 사람

6.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남(8-9). 놀라운 소식을 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10)

복음의 핵심 내용: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메시아), 주(11)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생긴다.

“모든 일이 잘된다는 말이 아니다.”, 행16의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혀도 기쁘다는 말이다.

세상 일이 잘 안 돼도 궁극적으로 기쁘다. 천국이 내 것이다. 아이러니 중의 아이러니

복음은 종교의 속박을 물리친다. 종교는 슬프게 만든다. 아무 희망이 없다.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다. 이 생명은 잠시 뿐이고 죽은 뒤가 영원하다. 그래서 죽은 뒤에 영원한

기쁨을 보장해 주는 종교가 산 종교이다. 오직 기독교만이 그 기쁨의 길을 준다(요11:25-26).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주님이시다(행4:12).

7. 구원자 탄생의 목적(14)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사람과 세상과 우주와 모든 창조물의 존재 목적: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 그래서 특히 공예배가 중요하다. 통영, 광양에서도 온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자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는다.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시는 일 총정리(고후5:19)

그 결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다(롬5:1)

사람들은 스스로 화평이 거하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이 땅에 화평이 있다.

그분은 평화의 통치자(사9:6)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히7:1), 멜기세덱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다(7:2).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늘 평안이 있다(요14:27; 16:33).

세상 종교는 사람을 무섭게 만든다. 믿음+행위, 환난 통과

결론

예수님 탄생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알고 기억해야 한다.

1.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인도하신다. “욕심내지 말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자.”
2.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가 바로 참 하나님, 참 사람, 구원자, 메시아 주님
3.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시다. 그분을 먹었는가?
4.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있는가?
5.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인가?
6. 우리는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아는가?
7.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영광의 흰머리(누가복음 강해 5)

성경말씀: 눅2:21-38

대부분의 사람들(젊은이들)이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며 산다. 나 역시 그랬다. 30년이 지났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나 늙고 결국 죽는다는 것이다.

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 복지, 삶 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심지어 자식들의 외면 속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나와 노인 따로 없다.” 노인은 나 자신, 나의 과거, 나의 미래이다.

성경은 노인들 공경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긴다.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레19:32).

가정에서 교회에서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나쁜 자(딤후5:8)

요즘 저의 어머니 소원: 아프지 않고 죽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원

행복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죽을 때 걱정 없이 죽는 사람’

“나 죽어 시신 되고 시신 전에 나였으니 나와 시신 따로 없다.”,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인들이 나온다.

하나님께서서는 메시아를 보내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침례자 요한,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 동방의 지혜자

들, 그리고 끝에 다시 한 번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인들 이야기를 다루신다. 노년을 잘 준비해야 한다.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잠16:31). <영광의 흰머리>

하나님을 섬기다가 평안히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 이야기, 가장 큰 행복

배경

21절: 여드렛날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와 맺으신 언약의 증표(창17:12, 99세)

바로 그 날 요셉과 마리아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확정함(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철저한 유대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요4:22). 이만희, 안상홍 이방인 메시아는 No!

22-24절: 레12장의 여인의 정결례, 아들의 경우 40일이 지난 뒤 번제 헌물(1년된 어린양)과 죄 헌물(집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가난하였으므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드림

25-38: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남

시므온의 나이는 나오지 않으나 29절을 보면 나이 들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노인임을 알 수 있다.

안나는 36-37절에 따라 매우 나이가 많았다. 15세 시집, 7년 결혼, 과부 84년, 106세 기적

이 두 사람의 특징: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분을 눈으로 보고 평안히 죽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어떤가?

지금은 재림의 때이다. 우리와 교회의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주님께서 우리 때에 오시면

죽지 않고 휴거 받아 주님을 볼 것이고 재림을 늦추시면 죽었다가 부활하여 주님을 볼 것이다.

후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 평안히 죽어야 한다. 평안하다는 말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마10:28).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암4:12).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수 있을까? 평안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성

23절: 시므온(듣는다)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1. 침례자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들은 말씀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눅1:6).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쓰신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나와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송을 받아야 한다.

2. 독실하다: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다”, 구체적인 사례가 37절의 안나(구약의 한나, 은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은 성전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대언자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메시아가 성전에 임할

줄로 믿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말3:1).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이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신약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노인들의 특성

구원받아야 한다.

딤후2:2-5

바로 이런 사람이 평안히 죽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다.

4. 한마디로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25).

26절: 꿈이 존재하던 구약시대,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을 계시해 주셨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마귀의 그리스도도 있다: 적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도 있다:

거짓 그리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귀에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 완전한 계시 성경을 주셨다.

5.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계시해 주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복이 되고 평안이 된다.

시므온과 안나의 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전쟁과 가난으로 살기가 힘들

6. 이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의롭고 독실하게 주님을 기다렸다.

이 주님이 곧 이스라엘의 위로(25),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분(38)

7.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예수님 승천 후 2,000년이 지났다. 세상이 변화였다: 진화론, 범신론, 상대주의, 도덕과 윤리의

타락, 성경 변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들의 교회에 오시면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들고 이 땅에 햇불처럼 타오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재림의 때를 분별하고 있는가?

8. 우리 마음속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잘못된 예수는 인생을 망치게 한다.

성경속의 예수님, 참 하나님, 참 사람, 창조자, 구원자, 재림자, 심판자. 우리의 형제

9.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과 육체의 죽음이 평안이 될 수 있다.

29절의 시므온의 고백: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게 허락하옵소서.

평안히 죽으려면 혹은 평안히 휴거를 받으려면 주님의 구원을 보아야 한다(30).

예수라는 이름이 곧 구원이시다. 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구원받고 평안히 죽을 수 있다.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요, 이방인들의 구원자이시다(32).

행4:12

10. 예수님이 하시는 일:

1. 많은 사람을 넘어서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34).

예수님이 가면 사람이 둘로 나뉜다. 실족하는 사람과 일어나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틀에 박힌 종교인,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비방의 표적이다(34). 십자가를 선포함이 어리석은 일이다(고전1:18).

일어나는 사람(죄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신뢰하는 자들,

이단이라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자)

2.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히4:14).

의인: 그리스도의 심판석, 죄인: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석

사람 마음의 모든 동기가 다 드러난다(렐17:9-10).

결론

사람은 다 죽는다. 예외가 없다.

가장 행복한 사람: 죽을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야 한다.

천국행 티켓은 유일하게 어린양의 피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며 죽어서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여야 한다.

사랑침례교회의 모든 노인들이, 앞으로 노인이 될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 원한다.

1. 자리양보하기
2. 무거운 짐 들어드리기
3. 길 찾아드리기
4.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어 드린다.
5. 계단을 이용하실 때 부축해드린다.
6. 어르신과 함께 거주할 경우 단절된 느낌을 받게 하지 않는다.(문을 닫고 컴퓨터를 한다거나 다른방에서 TV를 본다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꺼린다거나 하는 행동을 자제한다.)
7. 선택에 있어서 항상 어르신의 의견을 먼저 여쭙어본다. (어르신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8. 어르신들의 특성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는다. (귀가 잘 안들리신다는 것, 어르신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 이가 점차 빠지시는 것, 손발톱에 무좀이 쉽게 번지는 것등)
9.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등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
10. 가족일 경우 축일을 챙겨드린다.

한국경로복지회가 제정한 '경로 지침'(제정 1990년 5월 8일)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나와 노인 따로 없다.
 나 죽어 시신 되고 시신 전에 나였으니 시신 따로 없다.

노인과 나는 너와 내가 아닌 나 자신이다.

1. 노인은 나 자신이요, 나의 과거요, 나의 미래입니다.
2. 노인은 인생의 길잡이이며 조상의 얼을 지닌 가정과 민족의 뿌리입니다.
3. 노인을 공경함은 나의 효도요, 자녀의 교육입니다.
4. 노인을 공경하면 훗날 내가 공경을 받을 것입니다.
5. 노인을 멸시-천시-학대함은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행위입니다.
6. 노인을 외롭고 고독하게 버려둠은 자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7. 노인의 여생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살핌은 미래에 받을 축복입니다.
8. 노인과 어린이를 함께 지내게 하면 인생과 조상의 슬기가 함께 교육될 것입니다.
9. 인생은 늙음으로 시작해 늙음으로 마칩니다.
10. 젊음이 항상 일 수 없고 늙음이 느리게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젊음의 황금 시기에 황혼의 안식처를 마련한다는 것은 슬기롭고, 지혜롭고, 보람되고, 자랑스런 일이라 하겠습니까.

노인께 길을 안내할 때 : 길을 안내하면서 모셔드린다.

노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 안전하고 천천히 모신다.

노인의 말씀에 의문이 생겼을 때 : 노인의 말씀이 끝나고 물어본다.

노인에게 친구를 소개할 때 : 자세하게 소개 해드린다.

첫째 민족은 하늘을 공경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둘째 우리민족은 평화를 사랑하고 의리와 지조를 숭상하며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해가려는 생각을 가졌다

셋째, 우리민족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일상생활에서 풍류와 멋을 즐기며 살아왔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누가복음 강해 6)

성경말씀: 눅2:39-52

지난 주: 가장 행복한 사람: 죽을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나이 들어서도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신을 차리고 의롭게 살며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며 죽어서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혹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다. 100% 하나님, 100%
사람, 유일무이한 존재,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단이 됨. 또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움.

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무디의 설명, 개미들, 홍수

예수님은 중재자여야 한다. 중재자가 공평하게 중재하려면 양쪽을 다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완벽한 지혜, 말, 하나님임을 인식한 것으로
오해함, No!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기록으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고 죽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열두 살 이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40)

1. 키가 자랐다. 모든 사람처럼 태어나서 기저귀에 똥도 싸고 오줌도 누고 배고프면 울기도 하고 먹고
키가 자랐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옷을 갈아 입혀 주었고, 아기가 입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려 하면
“예수야! 그것을 입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말이다.” 그 아기는 다른 아기들과 똑같았다.
2. 영이 강하게 되었다. 인격체는 지정을 갖는다. 생각과 마음과 감정
3. 지혜가 충만하였다. 지식과 분별력, 이 둘은 성령님이 함께하셔야 가능함(요3:34). 한량없이 받음
4.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자신의 아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넘쳐흘러남
5. 참 사람이셨다(누가의 반복): 눅2:52에 기록된 대로 지혜와 키가 성장했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다. 다만 죄는 없으셨다.
6. 어떤 사람의 말: “나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었음을 믿지 못한다. 나는
그분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만 믿는다.” No!
7. 그분은 분명히 아기로 오셨고 한 여인이 그를 돌보아야만 했다. 한 여인이 그를 보살피고, 먹여주고,
씻어주어야만 했다. 한 미천한 여인이 하나님을 씻어 주어야 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한다(딤후3:16).
8. 예수님은 요1:1; 17:5처럼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요1:14)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고전1:25). 유일한 방법
- 9 그 이유: 100% 사람이야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구원할 수 있다(히
4:15-16). 히5:7-10의 필요성
10.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바울은 빌2:5-11에서 설명한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며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형체를 비우셨다. 그래서 울기도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목 말라 하기도 하시며 잠도 주무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믿음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100%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순종하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

이러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권위 있게 기적들과 함께 행하셨다.

이 같은 두 본성의 연합은 출생 시에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는 이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여느 아이와 같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100% 사람이셨다(2:52).

드디어 12살에 예수님의 두 본성 인식: 예루살렘 방문(41-50)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일 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갔다: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예수님도 12살에 올라가심: 보통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는 12살이 지나면 성인으로 간주됨

물론 그 전에도 양아버지 요셉과 함께 올라갔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이 중요하므로 누가가 기록함

예루살렘 경배 후 돌아가는 데 예수님은 그대로 남음: 하룻길을 간 뒤에 없어진 것을 앎.
마리아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어머니로 섬기는 종교가 있다: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여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허사다.

사흘 동안 찾다가 드디어 그분을 성전에서 만남(46): 성경박사들과 함께 앉아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함. 그분의 말은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람(47): 눅20장에도 동일한 일, 성령님의 지혜 성전에서 무엇을 읽으셨을까? 당연히 구약성경 두루마리

창3:15, 시2:7, 사6:4; 9:6, 53:4-5

이런 구절들을 읽고 박사들과 대화하며 메시아 사역을 이야기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생아가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해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고 말한다 (48). 예수님은 자기의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다(49).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다. 33절, 43절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개역성경 NIV, 그의 부모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

must라는 단어가 사용됨. 예수님은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반드시 왕국을 선포해야 한다(눅4:43).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눅9:22). 나무위로 들려야만 한다(요 3:14)

그 사명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일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히10:5, 9),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세상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어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일, 본성에 참여하게 하는 것 드디어 12살에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과 사람이심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을 깨닫지 못함

심지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깨닫지 못함(마16:21-22).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분의 사명을 확실히 아는가?

12살부터 30살까지의 삶(51-52)

마리아와 요셉에게 복향하며 삶: 요셉은 가난한 목수, 예수님도 목수로 가업을 이어가며 복종함.

예수님의 특징(52):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다. 호감 있는 존재 골2:3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52). 부모에게 순종

바르게 듣고 물을 줄 알아야 한다(46).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순종하며 바른 것을 묻고 대답하며 키가 지혜가 자라서 18년이 지나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수행하게 될 때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눅3:22)

우리 역시 이런 칭찬을 듣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으셨다.

1. 가정교육, 2. 순종 교육, 3. 땀 흘리는 교육, 4. 사회 의식 교육, 5. 외로움 교육: 요셉과 마리아 심지어 6명의 동생들도 그분을 알지 못함, 6. 회당 교육, 7. 자연 교육, 8. 반복되는 일상의 교육, 9. 18년간 기다림의 교육, 10. 시험과 유혹의 교육, 11. 경험의 교육, 12. 섭리의 교육
- 바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완벽한 남자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성장해서 드디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회개의 선포자 침례자 요한(누가복음 강해 7)

성경말씀: 눅3:1-14

지난 주: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런 분은 없었다. 이유: 아버지의 일을 이루며 대신 속죄를 이루기 위해(유일한 방법, 지혜), 그것을 위해 처녀 탄생의 기적이 필요하였다.

배경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탄생,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천사들과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 동방의 지혜자들이 다 필요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먼저 달려가 길을 예비할 전령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이 전령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다. 침례자 요한 우리도 그분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한다. 결국 주님에게 불명예를 안긴다. 이것을 피하려면 본보기를 잘 따라야 한다. 그 본보기 중의 한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다.

<회개의 선포자 침례자 요한>, 그의 사역의 준비와 사역의 핵심인 회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침례자 요한의 준비 과정

눅1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성전 봉사, 천사, 천사의 말(1:15-17)

1. 주 앞에서 큰 자, 2. 나사르 사람(민6:1-21): 삼손 등, 3.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말4:5-6)

드디어 예언대로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BC 4년경 4월에 침례자 요한이 출생함(1:57-66):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함(66)

사가랴의 대언: 메시아 왕국(68-75), 회개의 사역자(76-77), 주 예수 그리스도(78-79)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 유대 광야에서 고독의 시간을 보냄(80). 아마 10세 이후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고독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광야: 예수님 40일, 바울 다마스쿠스 사건 이후 아라비아 광야, 모세는 40년, 요한 20여 년 물리적인 광야도 중요하지만 광야의 원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면서 뼈를 깎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필요함.

와신상담: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의 왕 부차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월나라의 왕 구천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하였고, 그에게 패배한 월나라의 왕 구천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한 데서 유래한다. 세상일도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하나님의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오늘 신학원 학생, 신입생, 성경 연구를 위해, 인격 함양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상 공부 이상으로 하며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해야 한다. 신학원 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영이 강하게 될 때까지(80)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좋은 일꾼은 그냥 되지 않는다. 책상에 앉아야 한다. 그것이 광야이다.

드디어 때가 왔다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때가 왔다.

1-2절: 티베리우스 시대, ... 여러 유명한 자들이 언급됨.

4분 영주: 원래는 한 왕국을 넷으로 쪼개어 4분의 1을 다스리던 왕, 그 이후에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 헤롯 대제의 사후에 시리아는 4조각으로 나뉘어서 4명(빌라도,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루사니아)이 다스림. 이두래: 가이사라 빌립보 위, 드라고닛: 시리아 남부, 아빌레네; 다마스쿠스 동쪽 레바논 산 근처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음: 공식적으로는 대제사장이 한 명, 종신직, 타락한 후에는 특히 로마 제국에서는 몇 년 간의 임기가 있었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불리며 일정 부분 권위를 행사함,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는 그의 장인 (요18:13)

누가는 유명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로 초점
물론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 이들을 언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뜻도 있다.

1. 하나님의 일에서 세상의 유명 인사들은 다 들러리다.
2.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3. 이 일을 위해 광야가 필요 하였다.
4.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다(메시아 대언).

요한의 사역

3절: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침례가 아니라 회개가 초점이다. 회개한 뒤에 상징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의식을 거함
이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물 침례가 아니다. 침례자 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양임을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 구약 성도이다. 그는 침례 성도의 조상이 아니다.
요한의 침례의 목적: 요1:31, 그의 사역은 오직 유대인들과만 상관이 있었다.

4절: 대언자 이사야의 예언(사40:3-5),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니 그분을 맞이하라.

그분이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며 이때에는 땅의 지형마저 변하게 된다.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임
그때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예수님이 곧 100% 하나님이다.

종교인들에 대한 정죄

7-8절: 종교인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부류, 침례자 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독사들의 세대: 예수님도, 이들은 다 유대인으로 철저한 종교인

이들의 특징: 종교 규율, 열심, 가문, 직위, 전통 자랑,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열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다(마23:15)

하나님의 말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종교심을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어떤가? 킹제임스 성경, 근본주의, 세대주의, 독립 교회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면 파멸한다.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 있다(9). 주님을 모르는 자는 오늘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

회개와 회개의 열매

파멸을 피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8)

회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는 것

이렇게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그분의 생명이 들어간다. 그분의 삶, 개, 돼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다 걸레 누더기, 개똥(개차반),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든다고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

11절: 그 당시 유대 사회는 400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며 전쟁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많았음
그러므로 진정을 회개하면 나보다 가난한 자를 배려해야 한다. 친족을 배려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적인 가난을 보면 구제해야 한다.

영적인 가난도 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영적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니는 사람, 이들에게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만 배불리 먹고 지내면 안 된다.

이사야 대언자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물으실 때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해야 한다.

이런 일을 위해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위한 희생이 커야 한다. 5월, 12월의 헌금

12-13절: 세리들,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필요 이상으로 거둬, 14절: 군사들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말: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변한다는 말: 남편, 아내, 자식, 변해야 산다.

결론

크리스천 믿음의 기본: 회개와 믿음(행20:21)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회개(행)가 있고 매일 일어나는 회개가 있다.

회개가 강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회개가 약하면 개인과 교회가 무너진다. 회개를 잘하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야 한다. 옥토가 되어야 한다.

침례자 요한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며 자기를 준비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 침례자 요한(누가복음 강해 Ⅱ)

성경말씀: 눅3:15-18

지난 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전령으로 백성의 마음을 예비한 침례자 요한, 그의 선포 핵심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크리스천 믿음의 기본: 회개와 믿음(행20:21)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회개(행11:18)가 있고 매일 일어나는 회개가 있다. 구원 이후에도(계2-3) 회개가 강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는 어떤가?

배경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종종 주님의 일이 자기 일이 되며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은 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사람들의 칭찬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이 대신 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사42:8; 48:11).

행12:20-23, 헤롯 왕의 연설,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23절의 저주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영광과 칭찬을 받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요한의 자기 위치 설정

유대 광야에 요한이 등장함, 400년 동안 대언자가 없었음,

하나님의 대언이 나오니 말 그대로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함

15절: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다. 무엇을? 메시아를 기대함.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음.

일이 잘될 때 내 위치를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는 죄를 짓기 가장 좋은 때

심지어 종교지도자들도 사람을 보내 요한에게 물음(요1:19-27)

요한의 대답: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20). 목사나 사역자는 이 점이 분명해야 한다.

나의 정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23).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

나의 위치: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눅3:16; 요1:27)

나는 주님 앞에 달려가서 백성의 마음을 예비하는 책무를 지닌 자,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각인시켜야 한다(주방, 설거지, 주차, 교사, 찬양대, 방송실, 집사, 지역 인도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

교회가 주님의 일을 마땅히 감당하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없이 그리스도나 교회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개인이 망하고 교회가 망한다.

요한의 메시지

그의 삶은 온전히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었다.

1. 자기의 일 확정, 나는 겨우 물 침례를 준다(16). 물 침례 자체는 구원을 주지 못한다. 오직 회개하라고 말씀만 선포할 뿐이다. 회개한 자들에게 회개의 상징으로 물로 침례를 줄 뿐이다.

2.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주의 일을 하려는 모든 사람의 마음 자세

내 일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그분에게 사로잡혀 그분의 능력으로 일한다.

3. 그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렸다. 하나님의 어린양(요1:29), 하나님의 아들(요1:34)

주님의 일을 하려면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일

1. 성령 침례를 주신다. 침례는 잠그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이 마련하신 유일한 죄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신다. 우리가 그분 안에 푹 잠긴다. 이러한 일을 성령 침례라고 한다.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난다. 요3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3, 5)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4)

물에서 나고 성령님에게서 나와야 한다(5). 양수 침례, 성령 침례, 두 번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는 '하늘에서'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영원히 성도 안에 들어와 거주하신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봉인으로 봉인되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 침례는 구약과 공생애 기간 중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신약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시는 말씀(행1:4-5; 행2:1-4).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약 교회에 속하게 된다.

성령침례는 어떻게 받는가? 기도원 가서 데굴데굴 굴러야 하는가? 불처럼 뜨거워져야 하는가?

아니다. 사람의 말이나 지혜나 행위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다.

롬10:8-10, 13, 선포자가 있어야 한다. 17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 선포를 들어야 한다.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의 위치를 깨들으며 주님의 은혜와 공휼을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죽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의 영을 살리시면 그는 성령 침례를 받아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첫째 임무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심으로 성령 침례를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님의 침례 사역과 교회 형성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성령 침례를 받았는가? 구원받았는가?

이 사람들만이 알곡으로 그분의 공간에 들어간다(17).

2. 불 침례를 주신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공의롭다. 그러므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롬2:6-11,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와 격노와 진노를 받는 자

하나님은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영존하는 불을 예비하셨다(마25:41).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마귀를 따를 때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를 불속에 집어넣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예수님의 둘째 사역은 불신자를 위한 것이다(17).

알곡이 아닌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신다.

불 속에 푹 잠겨야 하므로 이것은 불 침례이다. 오순절/은사집회의 불 세례를 받으면 큰일 난다. 마귀에게 푹 잠기는 일이다. 신사도운동, 빈야드, 펜사콜라 부흥, 헤브리티치 등 모두 마귀의 불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경고(마10:28),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오늘 지옥불의 심판을 면해야 한다. 오늘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

요한의 삶 요약

1.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다.
2. 그는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3.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히 알고 오직 그분만을 선포하였다.
4. 이러한 삶의 정수는 그의 선언에서 드러난다(요3:30).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5.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특권을 받음. 나를 낮추어야 하나님이 올리신다.
6.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자세가 되어 있는가? 특히 일이 잘될 때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시험(누가복음 강해 4)

성경말씀: 눅4:1-13

지난 주: 침례자 요한의 위치 설정(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다, 전령이다). 그리스도만 높인다.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 침례, 불 침례 선포,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한다.” 우리는 어떤가?

배경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온 우주의 초미의 관심사, 사가라,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침례자 요한, 목자들, 동방의 지혜자들, 가브리엘, 천사들, 삼위일체 하나님(눅3:21-22), 마귀가 등장할 차례 예수님은 침례 이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와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로 가심 성령 충만: 침례자 요한, 오순절 이후 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엡5:18).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질적으로 다르다. “성령님이 무한정 계시는 분”(요3:34) 이런 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다.

여러 시험, 그중 대표적인 것 3가지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마6:13)와 달리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 A. 대제사장의 직무 완성을 위해 반드시 시험을 당하셔야 한다(히4:15).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는 분이셔야만 우리를 위해 중보할 수 있다.
- B.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히2:18)
- C. 누가의 시험 순서는 마태의 것과 다르다. 마태는 중요성 순서, 누가는 신학적 순서(창3, 요일2)
- D. 여기의 세 시험은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당하는 시험, 히4:15의 모든 시험

첫 사람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원인(창3:6), 욱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요일2:16). 인류의 구원자라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시험을 이겨야 한다. 아담과 모든 사람 실패 <그리스도의 시험>

첫째 시험(욕신의 정욕, 3-4절)

1. 의심을 품게 만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의 수법, “하나님이 말씀 하셨느냐?”(창3:1)
2. 네 마음대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빵을 만들 능력이 있다. 그러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3. 예수님은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요6:1-13). 이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준 것과 비교된다. 실제로 이런 일은 7년 환난기의 후반부에 이스라엘에 광야로 쫓겨날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실 것이다(계12:14). 그러므로 주님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4. 마귀는 해도 되는 것을 적당하지 않은 때에 하라고 한다.
5. 마귀 퇴치 방법은 “기록된바”의 성경 기록이다(4). 신8:3, “기록된바”의 의미: 모세가 1500년 전에 기록한 것이 지금 그대로 있다. 원본이 아니라 사본에 있어도 말씀들이 모두 보존되었다.
6. 개역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완전한 성령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것을 제거하면 사람이 살 수 없다. 잠30:5,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7. 요6:63, 마24:35,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들(단어들)을 보존하신다.
8. 우리 손에 그 단어들(단어들)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믿는가?

둘째 시험(안목의 정욕, 5-7절)

1.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 줌
2.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다. 마귀의 것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한다(요2:15-17).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요12:31; 14:30; 16:11), 이 세상의 신(고후 4:4), 그래서 예수님 없는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 문화를 생산해 낸다. 특히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는 더욱 더 마귀 문화가 세상을 사로잡는다. 동성애, 도덕과 윤리의 타락, 살인죄의 증가, 종교 통합, 사탄 숭배
3. 마귀는 예수님에게 온 세상 왕국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실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분에게 속할 것이다(계11:15). 또 한 번 좋은 것을 적당하지 않은 때에 요구하게 한다.

4. 조건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은 실로 마귀에게 자신을 내주었다. 유명 연예인 중에는 사탄에게 몸을 파는 자들도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 숭배
5. 주님의 방법은 선 고난, 후 영광, 마귀는 그 반대. 주님은 먼저 갈보리 고난, 초림 사역, 후에 재림과 영광,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먼저 고난과 희생, 뒤에 영광, 우리 교회: 먼저 성경(고난 작업), 그 뒤 교회, 지금의 교회가 있기까지 고난이 먼저, 그 뒤 영광(딤후4:7-8), 그래서 젊은이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신학원 학생들도 마찬가지, 지도자가 되기 원하면 마찬가지
6. 우리 주님의 말씀, “기록된바” (신6:13; 10:20),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주님께서 마귀에게 “바로 내가 네 주 즉 너를 창조한 존재이다”라고 하시면서 경배를 요구함
7.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둘 중 하나를 경배하며 산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기 위해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다. 마귀의 타락의 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경배를 찬탈함(사1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한다. 중간 지대는 없다.
8.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가?

셋째 시험(인생의 자랑, 9-12절)

1. 높은 곳(성전 꼭대기)으로 데려가 뛰어내리라고 한다.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말3:1-2,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고 다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인기 짱
2. 이것 또한 재림의 문맥, 초림에 적용하고 있다.
3. 그리고 마귀는 심지어 성경까지 사용한다(10-11). 이 시대 마귀의 사역자들 역시 성경을 사용하고 그럴듯하게 나타나 성도들을 유혹한다(고후11:13-15).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4. 그런데 성경을 변개한다. 시91:11-12, 11절에서 ‘네 모든 길에서’를 삭제함, 우리의 인생 여정의 모든 것에서(심지어 슬픔 고통에서도, 유금희 자매 어머니 소천, 강미선, 김진용, 강경희 자매), 12절에서 ‘언제라도’ 추가, 언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된다.
5. 이단들의 특징: 성경 왜곡, 그 결과는 파멸이다(벧후3:15-16), 빠지는 이유: 그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6. 예수님의 말씀,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신6:16), “내가 네 주다.”
7.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해야 한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의로 프리바 물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서는 안 된다(출17:1-7).
8.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것을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다.
9.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는가?

결론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시험을 받는다.

인간의 공통 시험, 아담 이래로 모두 실패, 예수님 승리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겨야 한다.

우리에게는 완전히 보존된 말씀이 있다.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기신 주님께 달려가야 한다(히4:15-16).

우리 주님이 이 시험들을 이기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성경 기록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누가복음 강해 10)

성경말씀: 눅4:14-30

지난 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탄생, 초미의 관심사,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침례자 요한, 목자들, 동방의 지혜자들, 가브리엘, 천사들, 삼위일체 하나님(눅3:21-22), 마귀가 등장할 차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기시고 우리를 구조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심. 둘째 아담

배경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성령 충만 속에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심(14). 요1:19-4:54 내용이 이때 일어남. 누가만 그분의 고향 나사렛에서의 일을 기록한다.

주님의 일 혹은 사역(18): 복음 선포, 마태: 하늘의 왕국의 복음, 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막1:1)=하나님의 왕국의 복음(1:14), 누가: 복음(4:18; 7:22)

복음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기준은 무엇인가? 마음대로 규칙을 짜고 행하는가? 아니다! 메시아가 와서 선포하고 해야 할 일도 규정되어 있다. 성경 기록에! 성경 기록을 벗어난 메시아는 No!

복음: 고전15:3-4,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성경 기록대로 하는 성경 신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는 썩을 대로 썩었다(사1:10-12; 롬10:1-3).

예수님은 이것을 개혁하실 책무를 가진 분이다. 지금 성령 충만해서 광야에서 돌아왔다. 기적을 행하신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14-15). 이쯤 되면 기존 틀을 모두 무시하고 새 판을 짜야 하지 않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다. 한 번만이 아니라 매번, 자기의 관례대로(16)

물론 율법의 성취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예배를 중히 여기셨다. 개인 예배 중요, 그런데 공예배는 규칙적으로 습관을 만들어 참여해야 한다.

이 시대 교회가 썩었다. 사실이다. 그래도 가능한 한 공예배를 가야 한다.

공예배를 게을리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된다(히10:24-25).

회당 예배 및 성경 기록 성취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회당이 세워짐. 예배: 개회 기도, 믿음 고백(신6:4-9), 기도, 구약성경 낭독, 회당의 치리자나 방문하는 랍비의 간단한 설교(행13:14-16), 기도

이 날 예수님은 방문자 랍비, 섬기는 자가 이사야서 두루마리, 예수님은 사61:1-2를 설교 본문(눅 4:18-19)으로 택함, 이것이 메시아 사역의 현장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사61:1-2를 메시아 구절로 이해하고 있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택하더니 읽으시고 21절에서 “이 성경 기록이 이 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고 선언하심.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선언한 것이다.

메시아 사역의 내용(18-19)

[주]의 [영]께서 임하사 기름을 부으심(한량없는 성령 충만).

1.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선포(구약시대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 땅의 백성, 공의와 공흠, 십일조의 일부, 초대 교회에서도 가난한 자들 배려, 교회는 사회사업 단체가 아니지만 마찬가지 배려),
2.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3. 포로 된 자들 구출, 4.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5.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6. [주]의 받아 주시는 해 선포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의 희년 제도 성취

- I. 유대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으며 이때에 온 땅은 경작되지 않고 안식하였다(출23:10-11; 레25:1-7). 유대인들이 온 세상의 창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주관하는 것을 보여 주시게 하기 위해 안식년 제정. 안식년에 땅에서 저절로 자란 과일이나 곡식을 가난한 자들과 종들에게 그냥 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인정을 베풀게 하셨다.

- II. 희년(Jubilee) 50년마다 치르는 히브리 사람들의 명절. 이것은 7년이 일곱 번 지난 뒤에 왔다(레 25:8-17). 안식년 다음 해의 희년도 안식년, ‘주빌리’라는 말은 ‘소리 나다’ 혹은 ‘흐르다’를 뜻하며 희년이 다가옴을 알리는 나팔소리(양 뿔 나팔)를 가리켰다. 희년에는 아무도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았으며 땅은 저절로 내는 것들로 채워졌다.

(a) 개인의 자유 회복: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속물을 되찾았고 히브리 사람으로 종이 된 사람들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자유를 얻었다(레25:1-55). 7월 10일(레25:9)은 속죄일이고 산헤드린은 이때에 나팔을 불게 하였으며 종들은 곧바로 자유를 얻고 땅은 본 주인에게 돌아갔다(13, 47-55). 이것은 공황의 법, 히브리 사람들 간의 평등 유지, 주님은 모든 것을 배분해 주는 분, 자기들은 청지기, (b) 재산의 회복(25:15), (c) 빚 면제

안식년/희년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 기록을 완전히 성취하러 오심. 즉 희년 제도의 완성(사61:1-2)

그래서 주님은 좋은 소식을 선포하며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오셨다. 눅4:31-42, 마귀, 병여기의 희년은 오직 메시아만 완전히 이를 수 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동일하다. 우리는 사회사업을 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긴다.

사랑침례교회 존재의 목적: 기쁨의 해 선포, 4:18-19 낭독

나사렛 유대인들의 문제

1. 복음 선포를 들음. 메시아 기적을 봄. 그런데 믿지 않음
2. 고향 사람들의 생각: 저자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사람이 되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대신 속죄의 의미

현시대 사람들의 문제: 사대성인, 좋은 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3. 그들의 또 다른 주장: 가버나움에서 행한 많은 기적을 여기서도 행하라. 예수님의 거절 불신자들에게는 불신이 고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긴다. 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마12:39),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눅16:29-31

4.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인도 포함한다. 유대인들의 관점: 아브라함의 씨, 선민, 이방인은 개돼지.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셨다.

구약시대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 a. 엘리야 시대: 바알 숭배, 3년 반 동안 기근, 음식이 없다. 고아와 과부 양산, 왕상17:8-16,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의 과부에게 보낸다. 과부의 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빵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빵을 만들라. 순종할 때에 비가 올 때까지 가루 통이 고갈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음.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냐? 이방인이다.

- b. 엘리사 시대: 왕하5장,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구출받았다. 그는 이방인이었다. 왜 구원받았느냐? 너희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 c. 선민, 조상, 재산, 업적, 명예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나의 가난한 상태, 병들어 신음하는 상태,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복음의 혜택을 누린다.

5. 유대인들의 반응: 회개는커녕 예수님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하려 함.

6. 하나님의 복음이 제시되면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난다. 한 부류 순종, 다른 부류 저항과 불순종, 극도의 증오, 우리는 어떤가? 이 좋은 소식이 우리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허락하는가?

처음에 진리를 들으면 잠시 좋아하다가 곧 진리로 삶을 바꾸라고 하면 증오하는 자들이 많다.

결론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우리도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한다.

창조와 양심과 성경을 통해 사람이 알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한다. 진리가 삶을 바꾸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그러나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한다(요8:31-32; 14:6). 영적인 파산 상태, 죄의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제자의 조건, 임무, 자세(누가복음 강해 11)

성경말씀: 눅5:1-11

지난 주: 그리스도의 사역 1. 영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선포, 2.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침 3. 포로 된 자들 구출 4.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 선포, 5.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함, 6. 주님께서 받아 주시는 기쁨의 해 선포, 두 반응, 오히려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죽이려는 자들

배경

마귀 들린 자(눅4:33-37; 40-41), 병든 자(38-39), 왕국 선포(42-44)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놀람(32), 권세와 권능에 마귀들이 쫓겨나감(36)

사람들이 구름베처럼 몰려들, 결국 땅에서 설교를 못하고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설교하심(3)

드디어 왕국 선포에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함. 시몬과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등장, 제자

제자: 스승의 길을 배워 따르는 사람, 행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전에는 제자라 불림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두고 따라가는 제자, “제자 삼자”는 말이 얼마나 유행하는가?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제자의 조건, 임무, 자세는 무엇인가? <제자의 조건, 임무, 자세>

제자의 조건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아마 어부의 가정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어부로 잔뼈가 굵음

고기 잡는 데는 도사, 특히 게네사렛 호수(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끌어당기라(4).

갈릴리 바다의 고기잡이: 밤에 얕은 데서 한다고 함. 지금 아침에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심

내 경험과 전혀 맞지 않음. 그러나 그는 5절에 따라 그대로 한다.

베드로는 일생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해야 했다.

사람의 판단에는 그의 배경, 지식, 위치, 혈통 등이 크게 작용한다.

심지어 세상일도 잘 판단하며 살아야 한다. 더욱이 영적인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이때에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베드로는 바르게 판단하였다. 무엇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5절)

그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자기의 경험을 무시하고 바르게 실행하였다.

창15의 아브라함,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

요3의 니고데모: 권세, 유대인들의 치리자, 쉽지 않다.

요4의 수가 성의 여인: 사마리아 백그라운드

눅19의 삭개오: 세리

행9의 바울: 종교인, 열정, 쉽지 않다

공통점: “경험, 지식, 권세, 배경, 혈통에 맞지 않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눅4장의 나사렛 거주민들: 요셉의 아들, 배척하고 죽이려 함,

요7장의 수제사장, 바리새인들(7:45-52):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도 속았느냐? 갈릴리

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처녀 탄생, 갈릴리 목수의 아들, 대신 속죄, 이해가 안

된다. 아예 들어보 생각도 안 한다.

순종의 결과: 6-7절,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담을 정도로 많이 잡힘

회심: 8절,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니 제 경험이 다 소용없습니다.” 지식, 명예, 권세

“주님은 심지어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

요1장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제자 혹은 일꾼은 아니었다.

주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의 특징: 나의 무능함과 추악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인 되심을 체험해야 함

사6의 이사야의 주님 체험: 이미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 1-3,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의 반응: 5절, 7절의 위로의 말씀, 그 뒤에는 그는 60장을 더 기록함, 예수님의 대언 중

가장 중요한 대언은 이사야서에 기록됨

우리는 어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 받은 뒤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자의 임무

모든 어부들이 놀람,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10).

예수님의 임무 부여: “이제는 네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낚으리라.”

주님의 말씀의 요모함: “사람들을 구원시키리라. 자유를 주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No!

“낚으리라.” 베드로는 어부, 그가 가장 잘하는 일, 고기 낚는 것, 그때의 쾌감, ‘사람들을 사냥하라’

이해가 어려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라. 장기를 살려서 사람을 구하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최대 장점을 살려서 사람을 낚아야 한다. 지식, 명예, 재물, 인품, 섬김

목회/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돼서 설교로 구하려 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다.

무엇이든 내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교회의 임무: 교육과 교제(성도의 성숙)와 선교(진리 선포)

교회는 목사에 의해 성격이 결정된다: 설교/강해/성경공부/저술, 전도, 섬김 및 심방 위로

우리 교회의 장점: 설교/강해/성경공부/저술 미디어 선교, 개인의 구령

요즘 김항수 형제님의 유튜브 동영상: 많은 사람이 변화된다. 그분의 장점

김대용, 이성준, 이정원, 장용철, 남윤수, 박장균, 정다운소라, 이청원, 김경민, 주경선, 곽윤찬, 유나얼,

김재욱, 잘할 수 있는 일로 사역

주방, 주차, 아이들 교육, 방송실, 집사, 지역 인도, 교사, 찬양, 주일 예배 참석, 현금

큰일을 하려 하지 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섬겨라.

그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사랑침례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동의 보상을 받는다.

제자의 태도

고기도 그냥 낚을 수 없다. 지식이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성경 지식, 세상 지식 그리고 인품이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품 곧 성화. 인품의 변화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본인은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데가 있다: 한킹의 말씀보존학회

“개역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면 “이 새끼, 저 새끼,” 안하무인
이런 사람들, 이런 맛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언행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전하니 들어가는가?

사람은 외모를 본다. 말과 행실이 고와야 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자유, 무슨 책, 무슨 사이트 자율적으로 한다.

다만 여러분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험한 말이 오가는 책, 사이트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약3:9-10, 사도 바울, 예수님 어느 누구도 이런 품행을 보인 적이 없다. ‘성도의 언행’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골4:6).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 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4:29).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리라. 37 네 말들로 네가 의롭게 되며 네 말들로 네가 정죄 받으리라, 하시니라(마12:36-37).

결론

사6:8,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구원받기 원하는가?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한다. 주인,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나는 죄인입니다. 무능합니다. 더럽습니다.”

사람을 낚으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이러려면 성경 지식과 인품, 특히 언어 습관
회개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풍성이 주어질 것이다.

나병에서 벗어나기(누가복음 강해 1군)

성경말씀: 눅5:12-15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주님의 영이 임하시매 그분께서 1. 영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선포, 2.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침 3. 포로 된 자들 구출 4.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 선포, 5.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함, 6. 주님께서 받아 주시는 기쁨의 해 선포, 육신의 병(나병)을 고쳐 주실

배경

나병: 출4:6-8에 모세의 표적으로 처음 등장, 이스라엘과 이집트에게 보여 주는 표적

Leprosy 39번, leper(17, 6), leprous(6), 총 68회

구약에서는 악한 일이 생길 때 나병이 발생함

미리암(민12:10-15), 나아만과 게하시(왕하5), 웃시아(왕하15)

한센 병(1871년): 초기에 발견하면 약으로 치료 가능, 발전하면 격리되어 환자 촌으로 들어가야 함

특징: 신경을 죽이므로 아무 고통 없이 살이 녹아내림

지금은 많지 않으나(인도 등)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았다(마8:21; 막1:40; 눅5:12; 17:12)

벤허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 사53, (1) 그분은 슬픔의 사람, 고통을 잘 아는 분(53:3)

메시아의 사명 중 하나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는 일(사53:5)

사35를 보면 메시아 표적(사35:3-6), 질병 치유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을 눅4의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 예언하심

<나병에서 벗어나기>, 육체의 질병, 죄의 질병에서 벗어나기

나병과 죄

나병의 출처: 출15장, 이집트 탈출, 수르 광야 3일 동안 물이 없음. 마라의 쓴 물, 불평, 나무를 물에 던짐, 질병 치료 약속(출15:26), '이집트의 모든 질병 치료',

아마도 나병 역시 이집트 산, 그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었다. 몹쓸 병, 가장 무서운 병

치명적인 병은 많은 경우 아프리카에서 온다: 에이즈, 에볼라, 아마 나병도(모세의 나병 표적)

이집트는 세상을 뜻하며 실제로 무서운 병도 거기서 많이 왔다. 함의 저주

나병 판단 및 정결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나병이 발생함

레13(나병 판단), 14(나병 치료 후 정결례)

엄격한 규정을 둔 이유: 나병은 사람의 힘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

나병의 치료는 '정결하게 씻는 것'(cleansing)으로 표현됨, 이 말은 사람의 죄를 씻는 것과 같은 말
그래서 자세히 나병을 살펴보면 사람의 죄와 특징이 매우 비슷하다.

1. 사1:4-6에서 이사야는 유다의 죄를 나병에 비유함(6)

2. 피부보다 깊은 데 있다(레13:3). 그래서 표면에 약을 바른 것으로는 치료 불가능

3. 서서히 퍼진다(레13:7-8).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퍼진다.

4.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레13:44-45). 형태 변형, 수치, 치욕

5. 환자의 출회/격리(레13:46), 지옥

6. 살아 있으나 죽은 자처럼 여겨짐(민12:12)

7. 환자의 웃은 불로 태움(레13:52), 죄로 인한 결과는 다 불태워진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오직 '정결하다', '부정하다' 선언하는 것

부정한 자로 판명되면 출회를 당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함(레13:45-46)

그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나아만 이야기

그래서 나병은 정결례 의식에서 죄와 마찬가지로 속죄(atonement)를 해야 했다(레14:18-21, 29, 31, 57). 이 속죄에 필요한 것은 어린양의 피와 기름(레14:12, 14, 15)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1) 나병을 고쳐주시며 (2) 모든 사람의 나병인 죄 문제를 보여 주신다.

나병에서 나오려면

1. 나병 환자는 자기 병에서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병을 지닌 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기 원치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 없다.
12절의 나병 환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어기고는 예수님을 찾아 왔다.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그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어려운 질병이 생기면 병 고침을 바라며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와야 한다.
또한 죄의 병을 알고 있으면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
2. 그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에게 왔다. 사람들의 소문: 마귀들, 질병(눅4), “나도 나올 수 있다.”
이집트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세리, 창녀, 나병 환자, 누구든지 문제 있는 사람)
마9:13
3. 그는 예수님에게 앞드려 긍휼을 간청하였다. 오직 긍휼, “제 것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영혼의 병을 고치기 원하는 사람도 나와야 한다(눅18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4.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아볼 때 병을 포함한 인생의 문제들이 풀린다.
풍랑 속의 제자들(마8:25), 가나안 여인(마15:22)
십자가의 강도(눅23:42), 다마스쿠스 도상의 바울(행9:6)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 나와야 한다.
요일5:14, “다 낫는다는 말이 아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고칠 수 있다.
우리의 죄병도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
구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롬10:9-10, 13).
5.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13).
그분 스스로 부정하게 되셨다(고후5:21; 뱀전2:24).
“내가 원하노니 정결하지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구하실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지금도 하실 수 있다.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 병약함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병에서 구하실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지금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홀로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루셨다!”.
6.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는 영원히 나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주님이 우리의 죄병을 치유하면 그 즉시 단번에 영원무궁토록 죄병에서 벗어난다.
7. 그 이후에 그는 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이며 정결례 의식을 행하였다.
신약에서는 침례를 행하여 죄병에서 나음을 만천하에 알린다.
8.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므로 알리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는 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림(15)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
우리의 죄병이 나오면 말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죄병도 고친다.

결론

나병은 무서운 병, 격리, 주님만 고치는 병, 인생에서 육신의 질병을 앓을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

죄병은 무서운 병, 지옥 격리, 주님만 고치는 병, 누구나 죄병을 타고난다. 죄병에서 낫기 위해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와야 한다. 오늘 이 시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누가복음 강해 13)

성경말씀: 눅5:17-26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주님의 영이 임하시매 그분께서 1. 영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선포, 2.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침 3. 포로 된 자들 구출 4.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 선포, 5.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함, 6. 주님께서 받아 주시는 기쁨의 해 선포

지난 시간: 나병을 고쳐 주심,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나병과 죄는 매우 비슷하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오늘은 나병 치유 이후 실제로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살펴보려 함

죄

죄: 사람은 자꾸 약화시키려 하고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크게 비난하고 심판하시는 것

1. 우연히 생긴 일; 가증한 것, 2. 실수; 나병, 3. 결점 혹은 부족; 불법, 4. 우연; 선택, 5. 잘못; 원수 되게 하는 것, 6. 매력적인 것; 치명적인 것, 7. 연약함; 의도적인 것

a. 죄는 성경에 적어도 700번 이상 나온다(단수 죄 448회, 복수 sins 172회, 다른 명사).

b. 죄라는 단어는 창4:7에 가인과 함께 처음 나온다. 창18:20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두 번째로 나온다. d. 마지막으로 죄는 계18:5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언급된다.

c. 성경은 죄 이야기: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 '죄'는 무엇인가?

d. 성경 조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죄성의 대비: 한 존재의 순수성과 다른 존재의 더러움

e. 2000년 전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마리아의 순결함을 이야기함(마1:20-21).

f. 예수님이 오신 근본 목적: 죄 문제 해결, 그 뒤 30년이 지나서 요1:29

2. 죄의 정의: '과녁에서 벗어나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롬3:23) '창조물이 의도적으로 창조자가 마련한 한계 안에 거하지 않으려는 것이 죄다.'-L. S. Chafer

3. 죄의 기원, A. 우주에 들어온 죄의 기원: 땅의 창조 이전에 루시퍼와 그의 추종 천사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음, 그 이후로 사탄은 죄의 원천과 기력이 됨(사14:12-14; 겔28:12-18)

B. 이 세상 죄의 기원: 사람이 선악과 먹음으로써 죄를 땅에 가져옴(창3:6).

4. 죄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롬3:23).

5. 죄의 사악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죄성의 깊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죄와 불법(사59:2).

A.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의 타락,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엄청난 독). 이 정도로 죄는 심각한 문제이다.

B. 하나님의 해결책

1. 하나님의 아들이 극도의 고난을 겪고 죽어서 이것을 제거한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정도로 죄는 하나님 편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2.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 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3. 불신자의 심판: 영원한 지옥 불(마25:41),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

6. 죄의 결과: 죄의 삯은 사망(롬6:23)

1. 육적 죽음(창5:5; 시90:10)

2. 영적 죽음: 둘째 사망, 불신자(마7:23; 마25:41; 계2:11; 20:6, 14; 21:8)

a. 영적 죽음은 미래에 있지만 불신자는 이 시간 이미 죄와 범법 가운데서 죽어 있다(엡 2:1-12).

b.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잘린 꽃과 같다. 잠시 화려해도 곧 말라버린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7. 죄 사면의 필요 요소: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히9:22).

본문

1.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박사, 서기관(눅5:17, 21)

백성의 지도자로서 거짓 대언자들을 구별할 필요와 의무가 있었음(신13, 18).

침례자 요한에게로 사람이 몰려들자 그를 심문함(요1:19-34): 그리스도, 엘리야, 그 대언자

누가복음에서 처음 바리새인이 나옴: '분리하는 자', 포로 생활 이후 말라기 대언자 당시 '하시딤', 처음에는 좋았지만 가면서 율법주의자가 됨. 글자의 포로가 됨, 서기관도 마찬가지(마23:23)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들었다고 좋은 성도가 되지 않는다. 위선자가 될 수 있다.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아무 소용없다. 성경 왜곡, 해석 왜곡, 자기 뜻 관철, 결국 바리새인의 말로

2.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며 병을 고침(17): 눅4:18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헤브리 터치', 안수, 아수라장 인위적 꾸밈 No!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신다. 목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3. 나병을 고친 뒤 이번에는 마비 병 환자가 그분께 옴(18)
나병은 더러움 자체, 마비 병은 죄로 인한 무기력, 이것 역시 하나님만 고친다(3복음서 기록 중요함).
4. 무리로 인해 지붕으로 가서 덮개를 들어내고 자리에 누인 채 주님 앞으로 내려 보냄(19)
병 고침을 받으려면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죄병도 마찬가지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야 한다. 죄병도 마찬가지, 그리고 믿음을 갖고 외야 한다. 죄병도 마찬가지
이때에 주변 사람들이 도울 수 있다. 죄병도 마찬가지
5.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선언하심(2)
병이 먼저가 아니라 죄가 먼저임
이 사람이 병 고침/죄 용서 받은 이유: 믿음, 하나님은 돈, 학식, 지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신다.
이 사람이 확고한 믿음을 가졌을 때 주변 사람들도 감동받아 그를 도우며 믿음을 발휘함
이때 그 친구들 앞에는 방해물이 없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친구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한다.
병이 있고 거기서 나아가 함을 알리는 교회
낫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교회, 미디어 선교 현금, 서울의 한마음 미션, 한마음 침례교회
6.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 신성모독, 하나님만 죄들을 용서하신다. 자기가 하나님인가?(21)
바로 이 점을 보여 주시고자 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십자가 처형의 원인
7. '죄들을 용서 받아라'와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사람 편에서는 둘 다 어렵다(23).
그래도 사람 편에서는 말로 '죄들을 용서 받아라'고 하는 것이 쉽다. 증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둘 다 쉽다. 그런데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은 죄들의 용서: 이것이 없으면 둘째 사망
예수님은 이미 이 환자의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죄들도 용서하셨다.
믿음 없이 죄들의 용서 불가능(히11:6)
8. 내가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것을 보여 주려 한다. '일어나 걸어가라'(24)
사람 편에서는 정말로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셔서 자신의 권능(파워)을 보여 주심
이로써 예수님은 육신의 병과 죄의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 주심
예수님은 마귀들도 내쫓으심(눅4:33-36)
즉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메시아(24절의 사람의 아들)요, 살아 계신 하나님임을 입증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고전4:20; 롬14:17).
우리의 믿음 사역(성경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한다.
죄병과 육신의 병에 들린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한다.
마귀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경 사역과 교회 사역을 방해하는 일에서 물러가기를 원한다.
9.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감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며 영원하고 즉시 새 삶을 보여 주었다.
10. 우리가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한다. 7년 역사, 아침하는 말, 타협, 오직 말씀,
킹제임스 성경, 교회가 된다. 병자가 낫는다. 복음이 선포된다. "이상하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말씀으로 육신의 병도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한다(누가복음 강해 14)

성경말씀: 눅5:27-39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주님의 영이 임하시매 그분께서 1. 영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선포, 2.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침 3. 포로 된 자들 구출 4.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 선포, 5.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함, 6. 주님께서 받아 주시는 기쁨의 해 선포

지난 시간: 나병을 고쳐 주심, 죄들을 용서하심,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한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고 새 일을 새롭게 바르게 하게 하시는 일

유대교

유대인: 아브라함부터 시작, 500년쯤 지나서 모세 시대에 시내 산에 율법, 출19:5-6

십계명, 성막, 성전 예배, 일곱 명절, 안식일, 안식년, 희년, 희생예물(죄, 범법, 화평, 음식, 자원) 시민법, 이런 복합 제도를 유대교라고 하며 여기의 중심은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은 유대교는 낡은 것으로 사라져야 하고 기독교 혹은 기독교의 구원은 새로운 창조임을 보여 주심

마태를 부르심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 세금을 충실히 거두고 있었음(27). 세금 부과율은 어느 정도 세금 징수자(세리)에 따라 달랐다. 그래서 세리는 원하면 쉽게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아마 세리의 세금 징수에는 늘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눅3:12-13). 그러나 정직하게 거둔다 해도 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비쳐져서 유대인들이 싫어함. 죄인으로 매도함

여기의 레위는 세금을 도둑질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럼에도 창녀와 세리는 가장 큰 죄인이라는 유대인들의 기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는 죄인으로 평가되었다. 이 말은 곧 그는 왕따를 당해 친구들이 없었다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는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과 권능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것이다. 다만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감히 그분께 갈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를 찾아오시고는 그의 이름을 마태(하나님의 선물)로 바꾸어 주심(27). 기독교의 특징: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다. 그리고 과분한 복을 주신다.

이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름(28).

그리고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 자기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29).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림: “어찌 너희가 창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음, 종교 지도자들은 기존 틀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음 사랑침례교회의 가치: 신약교회를 한다. 영혼의 자유, 목사의 제사장 탈피, 현금의 원리(십일조)

이런 것이 그리 어려운가? 아니다. 그런데 왜 못하는가?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서 예수님은 기존의 낡은 틀을 깨뜨리는 분이시다. 죄인으로 정죄하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을 찾아와 구원하시고 12제자의 반열에 넣어 복음 사역을 하게 하신다(마19:28).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예수님은 이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네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신다.

1. 나는 의사로 죄 병을 고치러 왔다

기존 종교 지도자들은 마태와 세리, 창녀를 정죄 받은 죄인으로 보았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병자로 보심, 병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미 12-16절의 나병 환자 치료, 17-26절의 마비병 환자 치료, 죄들의 용서 가능함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우리는 전통대로 율법을 지키므로 안전하고 너희는 죄인이다.

겉을 보면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었다(마23:25-28). 그러나 그들 역시 죄인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병이 걸려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엡2:1-2).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필요를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부터 이스라엘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다.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진단을 내림(렘6:14), 조금 고치고는 다 고쳤다고 함 이 시대에도 오순절/은사주의 목사들이 거짓 진단을 내린다. 영이 피폐한데도 땅에서의 번영 신학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계3:17-18)

좋은 목사/친구는 바르게 진단해 주는 사람, 좋은 약은 씬

세상 부귀가 먼지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가 먼지이다. 죄, 사망, 둘째 사망
진단받은 뒤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 가야 한다.

그리고 유일한 치료약인 십자가의 보혈로 피 뿌림을 받아야 한다(히9:22).

주님의 말씀(31-32), 우리는 어떤가? 한 때 병든 자들이었는가, 온전한 자들이었는가?

눈먼 자들이었는가, 눈 뜬 자들이었는가? 예수님을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러 오셨다.

2. 나는 신랑으로 기쁨을 주러 왔다.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의 모임을 싫어했고 동시에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우리 주님은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이 가는 곳에는 늘 기쁨이 넘쳤다.

종교는 금욕과 고행을 요구한다(천주교, 불교, 이슬람, 각종 이단들, 금요 집회, 철야, 40일 금식,

계룡산) 등.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정상적인 생활과 기쁨을 준다. 신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싫다. 틀에 박힌 근엄함, 예배 형식, 기쁨이 있는가?(예배, 헌금, 섬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1주일 동안 진행됨. 말 그대로 기쁨이 흘러넘침

하나님께서서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기뻐하시고 신랑은 군대의 의무도 1년간 면제해 줌(신24:5)
물론 유대인 제자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빼앗기고 울며 슬퍼하고 금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랑이 정혼한 뒤 지금 함께 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 집에
계신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부활/휴거를 통해 자신의 신부를 모두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전4:13, 18,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의 신부가 된 자들을 종교인들처럼

고행으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교회에 오면, 어디든지 형제/자매들이 모이면 기뻐야 한다.

3. 나는 새 옷을 주러 왔다.

옷이 낡으면 구멍이 난다. 낡은 옷의 구멍을 새 형질으로 기우면 둘 다 망가짐.

a 새 옷이 강하므로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놓음

b. 새 옷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음

c. 기독교는 유대교의 구멍을 메우는 종교가 아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 틀이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보혈이 옛 사람의 뽕 뚫린 구멍을 메꾸어 주는 것이 아니다.

고후5:17, 새로운 창조물, 모든 것이 새롭게 됨, 땀땀이 아니라, 아예 새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만 바꾸고 모든 것은 과거 틀 그대로 하면 땀땀이다(여러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

여러 목사님들이 새롭게 교회를 하기 원한다. 그러려면 땀땀이 아니라 완전히 다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신약 교회이다. 유대교의 연장, 수정, 보완, 땀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4. 가죽부대

고대 중동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잘 다듬은 뒤 다리가 있던 부분을 꺾어서 부대로 사용했으며

여기서 목 부분은 부대에 액체를 넣거나 빼는 데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쉽게 이런 부대를 메고 다녔다.

부대가 오래되면 딱딱해지면서 망가지기 쉬움

여기에 새 포도즙을 넣으면 가스가 생기면서 가죽 부대가 터짐. 포도즙과 부대 모두 망가짐(32)

그러므로 새 포도즙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33).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 옛 것이 좋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옛 것에 안주하려 함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교회 운영, 섬김 등 모든 것 상식과 이성).

예수님은 낡은 가죽부대인 유대교 시스템의 종말이 올 것을 예고하셨다(히8:13; 9:1).

결국 유대교는 AD70년에 망함.

유대교의 율법: 도덕법, 의식법(예수님 성취), 시민법(사라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시대(벧전2:5, 9)

목사가 성도들을 강제로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아니다(고후1:21).

5. 요약: 죄인들 고침, 신랑으로 기쁨, 새 옷, 새 포도즙은 새 가죽 부대에

안식일의 참된 의미(누가복음 강해 15)

성경말씀: 눅6:1-12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세운다. 유대교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세운다.

새 것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어울린다.

기독교는 샤머니즘, 유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소크라테스 뽀빠이 아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옛 사람을 뽀빠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이다. 예가 필요함
새 것을 새 것에 담아야 함을 보여 주시기 위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심, <안식일의 참된 의미>
안식일

‘안식’(Sabbath, rest)이라는 말은 ‘멈추다, 그치다, 쉬다’는 히브리 동사(샤우바스)에서 나온
‘안식일’은 말 그대로 ‘늘 하던 일에서 떠나 쉬는 날’이다.

A. 안식일은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이다(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창1:5, 8 등).

a. 창2:2-3 안식일(일곱째 날, 히4:4).

b. 안식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째 날이다. 변한 적이 없다(마24:20). 지금도 이스라엘

B.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법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심(창20:8-11). 1차적으로 모세 율법의 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출31:13; 겔20:12, 19-21).

a.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1주일에 하루를 떼어 안식함. 그러나 법은 아님

b. 법으로 지키는 것의 의미: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출31:14-15; 민15:32-36).

c. 교리적으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며 이방인들(세상)과 교회(그리스도인)와는 무관

C.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a. 자신들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했다(출20:8-11).

b. 자신들의 구속자를 기억해야 했다(신5:15).

c. 우리도 이런 정신을 본받아 일주일에 하루를 쉬며 창조자와 구속자를 기억해야 한다.

d.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안식 제도’는 결혼 제도와 마찬가지로 창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막2:27).

D. 유대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으며 이때에 온 땅은 경작되지 않고 안식하였다(출23:10-11).
; 레25:1-7). 7일 창조, 7일 1주, 안식년, 희년, 7 명절

a.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BC 606-536)의 원인: 렘25:11-12; 대하36:21

F.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잊고 형식만 갖추기 시작하였다.

a. 금지 규정 39가지: 1) 바느질, 2) (밭)가는 일, 3) 곡식 타작, 4) 골라내는 일, 5) 빵 반죽, 굽는 일, 6) 양털 깎기, 7) 불끄기, 쪼기, 8) 땅치질, 9) 1km 이상 걷는 일 등, 안식일이 고통이 되고 맑, 형식화

b. 지금 식으로 말하면 6일 동안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고 주일 성수, 십일조 하는 것과 비슷함

c. 이런 전통이 금식과 안식일로 나타남.

금식(사58:3-7), 안식일(사58:13-14)

d. 결과 속이 다른 위선의 종교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함: 기도, 구제, 금식

e. 오락을 금하는 것은 좋은 일, 그러나 극단으로 나가면 안 된다.

f. 주일(안식일) 성수, 금식, 십일조 등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G. 신약 성도들의 안식일 준수: No!

a. 구약의 율법 명령들은 이제 폐기되었고(고후3) 크리스천들은 이제 율법 하에 있지 않음(롬6:14).

b. 실제로 유대인들 외에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없음(거리 문제 약 1km, 전등, 차, 가스 레인지, 불 등)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그 주변에 모여 살았다.

c. 안식교, 안증회 등 토요일 예배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 발상

d.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였음(150년경에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거의 확정됨).

안식일의 왜곡과 정정

1-2절: 곡식 밭을 지날 때 곡식을 따서 비벼 먹음, 바리새인들의 지적: 안식을 범함

타인의 곡식을 먹어도 됨(신23:24-25), 그러나 안식일에는 안 됨

3-4절: 다윗이 행한 일(삼상21:1-6), 다윗이 도망가서 놓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감, 모두가 지친 상태, “빵 5개나 무엇이든 주십시오(3), 제사장이 빵을 줌”

‘보여 주는 빵’(12지파 혹은 12달의 12개)을 안식일에 성막의 성소에 둠(레24:5-9).

의미: 하나님의 얼굴(임재), 빵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그분의 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레24:8)

제사장만 먹을 수 있음(9),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빵을 먹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곤궁에 처함.

대제사장이 허락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 의미: 사람이 사람의 규정보다 더 중요하다.

5절: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라.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나? 사람을 위해 하루를 제정하신 것이 아니냐?(창2:2-9, 막2:27-28)

나는 안식일의 주니라: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자다.

너희의 전통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 간호사, 소방대원 주일성수 불가

새벽기도, 금요 철야, 구약의 십일조 등 한국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철폐하려고 내가 왔다.

행15의 예루살렘 회의: 베드로의 말(행10), 야고보의 판결(19): 우상, 음행, 피 등 금지(28)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사람의 전통이 사람을 얽어매서는 안 된다(우리의 이성과 상식).

6-11절: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고침, 숨어서 몰래 고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침

예수님의 포인트(9절)

하나님의 법 혹은 규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얽어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복장: 단정하게, 자매들 가능하면 무릎 아래 치마, 아이들도 걸러 있는 셔츠 신발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믿음의 유무 판단).

구원받으셨습니까? 낱짜, 구원 성경 구절, 절대 의심하면 안 됨, 공식대로 나와야 하는 규정

사람을 잡는 규정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놓쳤다(마23:24-26): 모기에 긴장, 낙타는 삼킴

예수님의 말씀: 마9:12-13

종교인들의 거부 반응이 심하게 나타남(11): 병자가 나왔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화를 냄.

우리는 어떤가? 교회의 규정, 내가 세운 규정이 사람을 망치게 하지는 않는가?

구원: 내가 배운 대로 해야만 구원, 성장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주신다.

그 뒤에 말씀을 먹고 성장하면서 법도 지키고 좋은 성도가 된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조금 홀로 두어야 한다.

“구원받고 나니 더 힘들어요.”, “며칠만 기쁘고 더 힘들어요”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다: 예배, 기도, 말씀, 헌금, 교제 등을 속 중심에서 우러나서 하라는 말이다.

결론

예수님이 오신 목적: 복된 소식 선포, 구원

새 것은 새 것에 답아야 한다. 그래야 보존된다. 어울린다.

우리는 새 사람인가? 우리는 신약 교회인가?

우리는 안식일 규정으로 사람을 잡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는 규정은 없는가?

속이 겉보다 중요하다. 강제임스 성경을 손에 든 것보다 그것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 선택의 기준(누가복음 강해 16)

성경말씀: 눅6:13-16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세운다. 유대교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세운다. 새 것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어울린다.

이 일을 위해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마16:18) 승천 후에도 교회가 지속되게 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다. 성경의 하나님: 사람을 세워 자신의 일을 하게 하신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12제자를 임명함 <제자 선택의 기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나도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무엇이 기준인가?

제자 선택 과정

예수님은 이미 여러 제자들을 택하셨다(13). 눅5:11(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27-32 마태 13절을 보면 그중에서 특별히 열둘을 택하셨다.

제자: 선생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 이중에서 특별 선택을 받은 사람이 열둘 있었다.

주님은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13). 특별 임무를 띠고 파송 받은 사람

조건: 주님을 본 사람(행1), 사도의 표적(고후12:12), 현시대 신사도운동은 이단 사이비

12절: 병든 자, 마귀 들린 자, 종교인들과의 만남, 이제는 일을 위임할 필요가 생김

그래서 주님은 밤새 기도하심: 반대가 거세짐, 십자가 처형, 이길 힘을 달라고

자신의 교회를 이끌 사람들 선택: 하나님의 인도, 이중 하나는 마귀, 처음부터 아심(요6:64), 신중 12 사도 선정(마10:1-4; 막3:13-19; 눅6:12-16): 중요함

베드로(작은 돌)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 인도(요1), 그리스 사람들 인도(요12)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천둥의 아들, 헤롯에게 죽임을 당함,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복음, 계시록 벧세다 출신의 빌립: 사도행전 6-8장의 복음 전도자 빌립이 아니다. 요14:8-9, 보여 주소서

바돌로매(나다나엘 요1:45-49): 간사함이 없는 사람, 세리 마태(레위): 천대받는 직업

의심의 대왕 도마: 디두모, 길을 모른다(요14:1-6),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요21:28)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유다(다대오): 모름, 셀롯 시몬: 열심당원 혹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가룟 유다: 카리옷 출신, 그는 또한 배신자

평가: 7명은 어부, 한 명은 세리, 네 명은 직업을 모름, 서로 다른 성품

보통 사람들(고전1:26-29),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Yes!!! 자랑 No!!!

12 사도의 사명(마10:1)

막3:14,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교제), 복음 선포, 병 고치며 마귀들 내쫓음

마10:5-26, 왕국의 복음 선포, 부활하신 뒤에는 경륜이 바뀌면서 마28:18-20

은 세상,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사명: 킹제임스 성경, 교회, 미디어 사역: 1억 원, 27,000권, CD 41,000개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중국: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 CD 1500개, 각종 책자, 바른 교회, 바른 교리

12 사도의 보상

메시아 통치 때에 열두 지파를 재판한다(마19:27-28).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상의 약속이 있다(계22:12). 그리스도의 심판석(고전3:10-15)

12 사도의 순교

예수님의 순교 예언(마20:20-23), 죽음의 침례를 받는다. 아무것도 모르고 Yes!!!

폭스의 순교사화(23-34쪽)

1. 스테반: 행8장, 2. 야고보: AD 44년 헤롯에게 죽임을 당함(행12).

3. 빌립: AD 54년 프리기아의 헬리오폴리스에서 십자가형 순교

4. 마태: 파르티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사역, AD 60년 에티오피아에서 전투용 도끼로 살해당함

5. 작은 야고보: 94세의 나이에 유대인에게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음

6. 안드레: 많은 아시아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소아시아에서 X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7. 베드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8. 유다: 즉 다대오는 페르시아에서 십자가형을 당함.
9. 바돌로매: 그는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마태복음을 힌두어로 번역했으며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다 열성적인 우상숭배자들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10. 도마: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교도 제사장들의 분노를 샀던 그는 창에 찔려 순교했다.
11. 누가: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인 제사장들에 의해 올리브 나무에 달려 죽은 것으로 전해짐.
12. 시몬: 아프리카와 멀리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AD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
13. 바울: 로마에서 참수형, 맛디아: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고 참수형을 당했다.
14. 마가: 무자비한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그들의 우상인 세라피스를 숭배하는 연례 축제 때 질질 끌려 다니며 갈기갈기 찢겨 생을 마감했다.
15. 요한: 요한은 소아시아의 계시록의 일곱 교회 설립, 참혹한 죽음을 면한 유일한 사도
그 이후 수많은 성도들이 천주교의 박해 속에서 순교하였다.

특히 우리 침례성도들은 유아세례, 미사, 신자의 교회 회원권 반대, 수 없이 많이 죽음
이 시대에 마귀는 박해보다는 유희 작전으로 오히려 기독교를 약화시킴(너무 편하다). 말씀의 약화, 무방비
이 시대에 바른 성경을 가지고 지키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열심을 다해 보상을 바라면서 할 일을 감당하자. 이것이 우리의 할 일
제자 선택의 기준(요6)

예수님, 병 고침, 마귀를 내쫓음,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말씀하심

로마 정치와 유대 종교에 찌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듬(요6:2)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킴: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5000명을 먹임(요6:5-14)

백성들의 반응: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14; 신18:15), 왕을 삼으려 함(15)

예수님은 물러가심: 지도자의 자세, 세상의 영광 No! 지도자는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이 오해함: 기적들을 보고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에만 치중함(26). 은사주의
주님의 권고 말씀(27):

“나는 하늘의 빵이다.”(35),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다”(40),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51, 53)

제자들의 반응: 말씀이 어렵도다(60)

예수님의 말씀(63)

그 결과(66):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질문함(67)

베드로의 대답(68-69)

1.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2.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선생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제자였다. 그러나 물러가서 다시는 오지 않은 제자가 많았다.

오늘 신학원 2기 8명이 졸업한다. 2년 동안 10과목, 300시간, 책들, 자기 성찰

신학원의 목적: 목사가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러나 가능하면 졸업자 중에 좋은 목사 즉 제자가 나오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계시, 영감, 본존, 번역, 지금 완전한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인터넷 설교 듣는 모든 사람에게 바라는 것: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없으면 바른 교리, 성장, 교회, 교제, 선교 할 수 없다.

우리 교회, 신학원, 주일학교, 각종 모임: 말씀에 대한 확신

교회, 목사는 없어져도 말씀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된다.

이 확신이 들면 성령님의 열매, 인격의 변화, 교제 섬김, 선교/전도, 교회 등

결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신학원 졸업생

제자의 마음자세(누가복음 강해 17)

성경말씀: 눅6:17-26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세운다. 유대교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세운다. 이 일을 위해 교회 설립, 많은 제자들, 요한복음 6장 많은 제자들의 반응: 말씀이 어렵도다(60),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음

베드로의 대답(68-69): 1.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2.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와 자세이다. 하나님도 일의 양이 아니라 동기, 사람의 마음자세 12사도를 택하신 뒤 그들에게 제자의 마음자세를 가르치시고 참된 복을 말씀하신다. <제자의 마음자세>

배경

제자들 중에서 12사도 임명, 평야로 내려오심(17): 많은 무리, 동심원의 형태로, 평야 설교 시작 눅6은 산상수훈(마5-7)과 비슷하지만 청중과 장소 등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마태 3장, 누가 1장, 마태 9복, 누가 4복, 마태에는 긍정적인 복도 있는데(온유한 자들, 땅 상속) 누가는 부정적인 복만 이야기한다(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울고 따돌림 받고 등).

마태 ...하는 자들은(3인칭) , 누가 ...하는 너희는(2인칭)

마태 영적인 측면(영이 가난한 자), 누가는 물질적인 측면(그냥 가난한 자),

마태는 무리들과 제자들(마5:1), 누가는 구체적으로 제자들(6:20)

아마도 이 둘은 핵심은 비슷해도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대상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됨 눅6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울고 따돌림 받는 너희가 복이 있다”고 하심 이것은 마치 원자폭탄과도 같은 설교, 특히 교회에 물질의 복, 육적인 복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1.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20, 24), 첫째 폭탄선언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고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다.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야 한다. 꼭 가난해야만 하나?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가난은 저주이지 복이 아니었다(잠10:22).

이집트 탈출 시: 이집트 사람들의 보물(출12:35, 36), 젓과 꿀이 흐르는 땅(신8:7-10)

다윗과 솔로몬 당시의 영화: 복의 상징(대상29:13-16), 주님을 잘 섬긴 유대인들은 대개 부유함 실제로 가난을 겪은 사람에게는 가난 자체가 복이 될 수 없다.

균형 있게 주님의 말씀의 바른 의미를 찾아야 함.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함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로는 가난 자체가 영적으로 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일단 포로가 되어 가난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 당시 부자들은 대부분 바빌론 문화와 타협한 자,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귀환자도 대개 가난한 자들, 부자들은 거기 남음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여전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함, 바로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함, 권세를 잡고 잘 사는 사람들은 메시아 No! 예수님의 복음 선포 선언(눅4:18):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심(실제로 가난한 자)

이들의 특징: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메시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눅1), 요셉과 마리아(눅1:46-48), 시므온(눅2:25)과 안나(눅2:36-38)

목자들, 침례자 요한 등 다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으로 부자는 대개 무언가 잘못된 사람들(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레위 사람 등 무언가 특권을 가진 사람들, 영적 타락의 수혜자)

성경은 결코 부자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아브라함, 요셉, 다윗,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바울). 그러므로 이 말씀의 복을 받기 위해 가난하고 매일 우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부자도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하면 된다. 실제로 나도 여러분과 자녀들이 부유하기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이 주님을 찾기는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어렵다(막10:23-24).

예수님 당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대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다: 메시아 외에는 소망이 없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되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일을 하심(고후8:9)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 가난한 목수, 십자가 형), 눅9:58, 여우 굴, 공중의 새 보금자리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신뢰, 베드로의 믿음 고백(영생의 말씀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들 그리 하잖아요”를 외치지 않은 자들, 실로 자기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눅5:11, 28)

부자의 무제: 1. 돈 때문에 늘 시험을 받는다. 2. 많으면 필요를 못 느낀다. 3. 많으면 자랑한다. 4.

안락 추구, 우리는 어떤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부요하여 부자의 문제에 빠지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20절).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2.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21, 25), 둘째 폭탄선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굶주림이 있다. 배가 고파서 몸이 다 아프다.

시42:1-3, 63:1-2, 다윗의 영적 굶주림은 그를 몸살 나게 하였다.

예수님은 굶주리는 자들, 목말라 하는 자들의 필요를 영원히 만족시켜 주신다(요4:13-14; 7:37-38).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빵이다(요6:35). 만나를 먹고 굶주렸으나 나는 완전하다(요6:35; 49-50).

골3:1-2의 굶주림

3.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다(21, 25), 셋째 폭탄선언

항상 울고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다(잠17:22). 행16의 바울과 실라,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런데 이런 기쁨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영이 슬피 우는 사람에게만 임한다.

온 세상의 하나님 배격, 진화론, 동성애, 성경 변개, 아랑곳하지 않는 성도들, 애통하는 마음
자기의 조국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눅19:41-44)

바울(롬9:1-4)

메르스, 동성애의 창궐, 지도자들의 갈팡질팡, 매체들의 선동, 이북의 핵위협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미디어 선교(중국 선교)

근본적인 해결책: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4. 따돌림을 당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22, 26), 넷째 폭탄선언

사람들이 미워할 짓을 하고는 주님을 위해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 안 된다.

복음 기구 이야기(Joseph Bayly): 조그만 마을, 복음 전하기 위해 기구를 띄움, 성경 구절, 전도지를

뿌리더니 어느 날 확성기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함, 그러자 지역 주민들이 지역
신문에 반대 사설을 내고 급기야 기구를 터뜨림

이것이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인가?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센스를 주셨다.

이런 일은 남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의가 없고 교만하며 판단하기 일쑤고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다.

그리고도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한다.

여기의 박해는 사람의 아들 때문이다(22).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품으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일할 때 당하는 핍박이 복이 된다. 무례하게 하는 것 No! 오자마자 구원, 치마 등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그분처럼 일하면서 핍박을 당하는가?

그렇게 일하면 정당한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딤후3:12).

반대로 핍박을 피하기 위해 타협하면 사람에게서는 칭찬을 받으나 하나님께는 저주를 받는다(26).

종교통합, 빌리 그래함, 조엘 오스틴, 삼박자 구원, 프렌차이즈 교회, 신사도, 오순정 은사주의
현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교황, 사제).

“죽은 개도 파도에 밀려 수영할 수 있다. 산 개의 특징은 파도를 거스르고 수영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조류를 이겨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 신약 교회, 침례, 주의 만찬, 교리 등

결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인격으로 인해 영이 가난한가? 굶주리는가? 슬피 우는가? 따돌림을 당하는가?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다.

급진적으로 사랑하기(누가복음 10)

성경말씀: 눅6:27-36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세운다. 유대교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세운다. 제자들 임명(눅6:13-19), 제자의 마음 자세(눅6:20-26), 제자의 인간관계

신약과 구약의 인간관계

신약과 구약은 인간관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신약은 어느 면에서 불가능한 인간관계를 요구한다. 구약 시대의 규정: 제 정신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다(마22:34-40).

1. 창조주 하나님 사랑, 2. 옆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 원수가 아닌 이웃

3. “눈에는 눈, 이에는 이”(레24:20; 신19:21), 다른 이방인들은 죽임. 큰 향상

4. 이방인들의 인간관계 규정, 인지상정: 27-30절을 거꾸로 하는 것, 자연적인 관계

예수님의 요구: 31절,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 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 “내가 잘못해도 용서” 등 구체적으로 이것은 35절에서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마5:43-44)로 집약됨.

‘급진적’ 사랑, “생각이 너무 급진적이야! 그럴 수가 있어?”, ‘초자연적 사랑’, ‘불가능한 사랑’ 이것은 마5의 산상수훈처럼 어느 면에서 메시아가 다스릴 천년왕국에서의 윤리 규범이라 볼 수 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신약시대에는 35절에 있는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지는 않는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이런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해 왔다.

세상 권력이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세상과 대조되는 급진적인 삶을 살.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초월하는 신앙

엄밀히 말해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개조가 아니다. 여기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과 세상 권력이 탄압해도 가능하면 세상 방법과 역행하는 급진적인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예: 요13:1-17에서 죽기 전에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심, 그리고는 사랑하라고 하심(요 13:34-35). 유다는 마귀임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다(13:1).

눅23:34에서 십자가 처형을 수행하는 죄인들을 향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심, 급진적 사랑

스테반(눅7:59-60), “주여, 이 죄들의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소서”, 급진적 사랑

바울 포함 초대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 하에 죽어갔고 중세 성도들이 카톨릭 교회의 탄압 아래 죽어갔다.

그러면서도 35절 말씀대로 급진적 사랑, 초자연적 사랑, 불가능한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급진적인 사랑의 기준

32절: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33절: 죄인들도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감사한다.

34절: 죄인들도 빌려 줄 때에 다시 받을 것을 예상하고 빌려 준다.

32-34절: 자연적인 사랑에는 칭찬할 것이 없다.

스탈린도, 히틀러도, 김일성도, 김정은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 이상을 해야 한다. 새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오늘은 세대주의적 해석/구원 해석을 제쳐두고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 이대로 해 볼 것을 생각하려 한다. <급진적으로 사랑하기> 혹은 <잘 맞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기독교의 사랑: 급진적인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처음부터 초자연적인 사랑,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과 원수가 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다(요3:16).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다.

롬5:6-8, 10, 다른 종교 및 철학에서는 상상 불가능, 급진적인 사랑, 초자연적인 실행 성경은 이것을 아가페 사랑, 채리티라고 표현한다.

채리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본성은 원치 않아도 의지적으로 급진적으로 사랑하는 것

본성대로 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신약 성경의 성도: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자 우리는 급진적인 사랑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초자연적인 행위(27절): 선을 행함, 초자연적인 말(28절): 축복, 초자연적인 기도(28절)

급진적인 사랑의 예(눅6:29-31)

매만 맞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의미함.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을 맞본 사람이라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1, 35절이 핵심: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1989년 베를린 장벽, 호네커 동독 국가 평의회 의장(서기장)과 그의 부인은 갈 곳이 없음
우에 홀머(Uwe Holmer) 목사는 자기 집으로 이들을 데려옴. 호네커의 부인은 26년 동안 교육 시스템
관장, 홀머 목사의 10아이 중 8명이 반 크리스천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함.
이런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급진적인 사랑, 초자연적인 사랑
홀머 부부는 그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였다(27-28).

초자연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 하늘의 보상이 크다(35).

돈을 바라고 결혼하면 탐욕가이다. 결혼은 사랑을 위해 해야 한다. 그러면 결혼 자체가 사랑의 보상이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때의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 소유, 이것이 큰 보상이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급진적 사랑으로 사람을 급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

유대인들의 용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같은 성품의 존재가 된다는 것

홀머 목사 부부의 호네커 부부 대접: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본성으로 행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능할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벧후1:4), 구원받으면 이런 가능성이 생겨난다.

이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갖는다(36). “남이 나보다 나올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마5:47-48,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지난 주 하와이 여행: 아내와 무지 많이 다투었다. 여행 가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같이 안
다니겠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나는 일 중심, 아내는 사람 중심, “오늘 일끝내고 몇
시까지 어디 어디 구경 가자”고 하면 나는 그 시간까지 거기 가는 것이 목표,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아내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늦어도 되고 안 늦어도 되고. 사람 중심, “이해가 안 된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은 이런 마찰이 거의 없었는데 거기서 8일을 함께하니 너무 맞지 않음.

아내가 아이들에게 이름(이것도 이해가 안 됨). “결혼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서 배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결혼에 성공한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이 식으로는 결혼 성공 불가능”

2년 전에 결혼 시리즈에서 내가 설교한 내용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급진적 사랑”,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나를 그리 사랑하셨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봄: 이제껏 내 일 하느라 살지 않았는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영원토록 그들의 뇌리에 좋은 인간으로 기억되게 해야겠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본 설계 목적: 큰 업적, 교회 중요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더 중요
성도들도 조금 더 너그럽게: 지금까지 원리 원칙대로 차갑게 대한 것 반성, 조금 더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져야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기본 인성

결론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옆의 성도, 심지어 믿지 않는 이웃을 지독히 미워하고 저주하는가?

주님의 요청: 구원받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였으면 이제는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어라.

급진적인 사랑의 소유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급진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부부 간에 이 사랑이 더욱 넘쳐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건설적으로 풀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남편, 아내,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급진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이 급진적으로 사랑하셨다.

과거부터 우리가 부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형제님이 내게 보내 준 편지:

저도 일찍부터 아내와의 기나긴 투쟁(?)을 거쳤고 이제야 부족함이 조금 채워진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와 능력에서 서로의 성장 환경이 너무 달라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은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와 포용의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보게 되고 한 인간으로서 아내의 영혼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내가 불쌍하게 여겨졌고 나의 도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태도도 바뀐 것 같습니다.

5월 어느 날 시골에 가 있는 아내에게 “당신은 5월의 여왕입니다”라는 몇 문장의 엽서와 꽃을, 어설피지만 예쁘게 포장해 보낸 게 아내에게 조금 감동을 주었는가 봅니다.

부부 간의 문제는 단칼에 해결될 과제는 아니며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산은 높아 보입니다.

결국 부부 간의 문제에서 장사는 없고 나도 예외가 아니며 언제든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했을 때,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죽고 싶었을 때에는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전9:4)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살아 있는 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성품의 제자 되기(누가복음 14)

성경말씀: 눅6:37-42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세운다. 유대교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세운다. 제자들 임명(눅6:13-19), 제자의 마음 자세(눅6:20-26), 제자의 인간관계: 급진적(파격적)으로 사랑하기(6:27-36), 본성 이상으로 해야 한다(32-34).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35)
요약: 36절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좋은 교회

교회: 그리스도의 사람들,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개독교, 먹사, 기독교 혐오증에 시달린다. 우리의 고민: 사도 바울 우리 모두가 몇 십 년 동안 바른 교회를 찾아 헤맸다. “바른 말씀이 있으면 바른 교회?”

바른 교회라고 왔는데 사람들의 언어, 행실, 교회 운영이 비상식, 비합리적이면 어떻게 할까?

킹제임스 성경 아니라 그 무엇을 이야기해도 거기서 퍼지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옳고 남은 틀린다. 긍휼 없이 비판, 비판, 비판, 사람(교회)을 망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른 교회보다는 좋은 교회를 해야 한다.”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으로 구성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중 하나는 좋은 사람, 특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

그래야 본인, 가정, 교회, 국가가 좋게 된다. <좋은 사람 되기>

좋은 사람의 특징(눅6:37-38)

원수도 사랑,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그 뒤 곧바로 급진적 사랑, 좋은 성품의 예가 나온다(37-38).

1. 판단하지 않는다. 2. 용서한다. 3. 주고 베푼다.

1. 수용할 줄 아는 사람(37),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37절 말씀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오용되는 말씀

무언가 비판을 받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성도들도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권면하면 이 구절 인용, 누구나 판단받는 것 싫어함
그러면 성도들은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매일 판단하며 산다: 먹고 입고 다니고 일하고, 결혼, 직장, 학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판단해서. 나의 죄, 구원자, 베팅, 성화도 판단(그리스도의 심판석)

왜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나? (1) 바로 뒤의 43-45를 보면 열매로 판단하라고 하신다.

(2) 바울의 판단, 고전5장: 음행한 자 판단, 6장: 법정 고소, 판단

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삶이 망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구원 성화, 보상도 없다.

심지어 성경도 판단해야 한다. 바른 성경, 빠진 데가 있는 성경, 동성애, 종교통합 등 판단
그러므로 항상 주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이 구절은 무엇을 뜻하나?

성경 말씀은 항상 문맥으로 이해해야 한다.

27-36절: 급진적으로, 파격적으로 사랑해라. 결론: 긍휼을 베풀어라(36).

그리고는 “판단하지 말라”가 나옴. 성경 전체와 문맥으로 볼 때 이 말은 좋은 제자가 되려면 ‘긍휼 없이 판단만하고 정죄하는 기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능하면 용서하라는 말이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판단해서 조치를 취할 일들이 있다. 바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매사를 긍휼없이 비판의 눈으로 보고 정죄하면 그 사람과 교회에 기쁨이 없다.

즉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부모처럼.

비판적 시각은 많은 경우 알지 못하게 그 사람 자체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낸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많은 경우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윗과 밧세바, 나단 대언자(삼하12:1-7), 부유한 자(많은 양), 가난한 자(암양 하나, 딸처럼 키움),

부자에게 손님, 가난한 자의 어린양을 빼앗아 잔치, 5-7

바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에게 무한 관대, 남에게 무한 비판

대개 욕심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욕심을 비판한다. 야망, 거짓말쟁이 비판은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쉽게 전염된다.

릭크맨 목사, 훌륭한 분, 그런데 책의 삼분의 일이 남 비판, 그분의 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비판주의자가 된다. “나만 옳고 다 틀린다.”, 그분을 사도 바울의 반열에 앉힌다. No!

우리는 어떤가?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정죄하려고 하는가? 공홀을 베푸는가? 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 행하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런 성품의 사람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살기가 힘들다. 부부, 자식 간은 어떤가?

2. 용서할 줄 아는 사람(37),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역시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들을 용서하는가?(마6:12) 교리적으로 아니다. 그러나 좋은 제자가 되려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용서가 쉬운가? 대단히 어렵다.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의 과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용서하려고 해야 한다. 이것이 좋은 사람의 요건 이것 역시 공홀히 여기는 심정에서 나온다.

3. 베풀 줄 아는 사람(38), 줄 줄 아는 사람

누구나 받는 것은 좋아 한다. 성도라면 무엇이든지 즐기고 노력해야 한다.

1. 하나님께(고후9:6-7)

2.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로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고후8:1-2)

3. 바울의 고백(행20:33-35), 35절, 말씀도 주어야 한다. 미디어 선교, 전도 가능하면 무료로 이리 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주어진다(38).

4.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특징: 이 세상의 가장 큰 심판자, 우리의 죄들을 판단하시지만 공홀을 아끼지 않으신다. 용서하시고 주시되 자기의 몸까지 주신다. 우리도 이런 좋은 품성을 가져야 한다.

5.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찬양한다.

좋은 사람: 눈이 좋은 사람(39-40)

사람의 여러 지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 먼 자가 눈 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 너무나 당연한 말 육적인 눈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바로 보지 않으면 다른 데로 빠지고 다른 데로 데려간다. 성경, 신구약, 율법과 은혜, 구원과 성화 딤후2:15, 바울의 기도(엡1:17-19)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 말씀으로 눈이 열렸다(시119:105; 98-101). 내 발에 등불, 내 길에 빛

성령이 열리면 문맹, 독재, 폭정도 퇴치된다. 교회의 모든 문제 사라진다.

이런 사람이 스승같이 된다(40). 그 당시 모든 지식은 스승에게 있었다.

스승처럼 되면 성공, 우리의 스승은 누구인가? 예수님,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41-42)

눈이 열리면 자기를 볼 줄 알게 된다.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남의 티를 빼낼 수 있을까?

티만 보이는 사람이 곧 비판, 정죄, 불용서, 자기에게만 관대함

예수님의 판단: 위선자(가장 나쁜 말), 성도라도 위선자가 되면 모두에게 해롭다.

결론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구원 OK, 그 뒤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 가정, 교회, 국가 가능하면 수용하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 눈이 열려서 자의 추한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보여야 이 일

가능, 우리 교회의 성장 원인: 좋은 리더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듣자.

나무는 열매로 안다(누가복음 강해 20)

성경말씀: 눅6:43-45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 완성 및 신약 시작, 유대교 폐지 및 기독교 시작 제자들 임명(눅6:13-19), 제자의 마음 자세(눅6:20-26), 인간관계(27-36), 급진적(파격적)으로 사랑하기, 공흠을 베풀 줄 아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수용, 용서, 베풀, 열린 눈(6:37-42)

좋은 사람의 조건

예수님의 초점: 내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세상사람 이상의 인정과 공흠을 베풀어야 한다.

마9:9-13, 공흠을 원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 파괴적인 비판, 공흠이 없는 비판은 모두에게 무익하다.

긍정적인 비판: 교리, 도적, 마음의 동기, 말, 행동 등을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 그런데 매사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1. 내가 남보다 낫다: 자기 것을 보지 못한다(들보, 티, 42절).
2. 위선적이다(롬2:1-3; 21-24). 많은 죄
3. 사소한 것도 비판: 그리스도인에게 영혼의 자유, 법으로 정할 수 없는 것, 롬14: 먹는 것, 날
4. 모든 것 불신(고전13:7)

이 말씀 다음에 곧바로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말씀이 나온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 이 말은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라는 말이다. 37절과 배치되는 말씀: 그러므로 판단해야 한다.

나무의 열매를 판단해야만 나무의 상태, 질을 알 수 있다.

그 뒤 사귄 사람,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

좋은 나무와 변질된 나무(43), 가시나무 무화과 No, 가시떨기나무 포도 No!(44)

변질된 나무(부패한 나무), 좋지 않은 나무(눅3:9)는 베여 불 속으로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좋은(선한) 사람 좋은 보고에서 좋은 것, 악한(나쁜) 자는 악한 보고에서 나쁜 것

좋은 보물 창고: 주님의 두려움(거룩함),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향한 애착, 재림과 부활 소망
악한 보고: 탐욕, 완악함,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롬2:7-9

말세에는 동성에 합법화 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개심이 그대로 열매로 표출되어 나온다(45절).

미국 대법원, 여러 선진국,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들은 반대,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 반동성애법 제정, 반기문, 오바마 4억 달러 원조 끊겠다.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런 시대를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특히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상태, 질을 보여 준다(전5:2).

그리스도인이 되면 언어 습관에 변화가 생겨야 한다.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가 유심히 보아야 한다.

소금을 치듯(엡4:29; 골3:8; 4:6)

이런 변화가 전혀 없으면 내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이다.

고치려는 노력이 나타나야 한다.

특히 SNS 등의 공간에서 내 언어 습관이 어떤가 살펴보아야 한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더라도 변해야 한다(약1:26; 3:1-2; 6-12).

한 사람의 언어가 더러우면 그의 마음도 더럽다.

예의, 상식, 배려 없이 더러운 말, 음담패설, 신성모독이 쏟아져 나오면 그에게서 떠나야 한다. 안하무

인

주님의 경고(마12:33-37)

바른 판단의 규칙

1. 겸손하게 판단한다: 나도 죄인이다. 연약하다.
2. 기도하며 판단한다.
3. 말씀에 따라 판단한다(딤후3:16-17): 확실한 것(동성애, 종교통합, 구원 교리 부족, 중상모략 등)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음식 문제, 날 문제 등(롬14:1-4)
4. 가능한 한 사적으로 한다.
5. 긍휼히 여기며 판단한다.

이런 일들이 넘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최종 심판자,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한다.

그분에게서 좋은 판단을 받으려면 이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

결론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구원 OK, 그 뒤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 가정, 교회, 국가

좋은 사람을 열매 알 수 있다: 특히 말이 사람의 내면을 보여 준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듣자.

와서 듣고 행하는 사람 되기(누가복음 강해 2)

성경말씀: 눅6:46-49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 완성 및 신약 시작, 유대교 폐지 및 기독교 시작
제자들 임명(눅6:13-19), 제자의 마음 자세(눅6:20-26), 인간관계(27-36), 급진적(파격적)으로

사랑하기, 궁핍을 베풀 줄 아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수용, 용서, 베풀, 열린 눈(6:37-42)
마음의 선한 보고: 주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향한 애착, 재림과 부활 소망

나무는 열매로 안다. 언어,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갈5:22-23)

듣고 행하는 것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 제자, 성도가 되려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매주 서너 번씩 교회에 가고 매일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급진적 사랑’, ‘궁핍 베풀기’, ‘선한 보고 채우기’ 등 듣고는 곧장 잊는다.

마음의 보고에 제대로 채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약1:22-25).

듣고 행하는 사람은 열매를 내며 그 결과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평생 교회에 다녀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다.

오래 다녀도 성도로서 성화된 모습, 섬기는 모습이 없다. <와서 듣고 행하는 사람 되기>

주님의 의미(46)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분을 주라고 불렀다.

그런데 주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46). 돌아가는 제자들(요6:66)

주님(Lord)의 의미: 이스라엘 국가, 주인과 종, 로마 제국: 주인과 종(삼분의 일이 종)

특히 로마 제국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로 100%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존재

신약성경의 주: 주인, 소유주,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구원은 오직 주님께에서 나온다(눅23:42-4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롬10:13).

“주여, 주여”, “주여 3창”이 아니다. 샴니즘

주님이라는 전 인격체를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것

고전12:3, 말로는 주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주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주인으로 인정하는

주. 이분을 주라고 하면 그분의 전 인격을 수용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요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주

요일5:1-3, 자기, 가정, 지체들, 불신자들

마7:21-23, 고후11:4, 13-15

롬16:17-18, 빌3:18-19, 교회나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

살전2:3-6, 아침, 탐욕, 사람의 영광, 성도들 부담

두 종류의 사람(47-49)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지금은 흥하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망하는 사람)

후자가 되면 안 된다.

어떻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가?(47)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1. 주님께 온다. 주님의 제자들, 12, 3, 요한,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 주님의 좋은 제자, 성도가 되려면 가까이 와야 한다. 예배에,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나를 개방하고 교제하며 섬겨야 한다.

이왕이면 더 친밀하게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2. 들어야 한다. 나를 비롯해서 현시대 사람들의 특징, 수없이 말을 하지만 듣지는 않는다. 듣는 기술이 없다.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마11:15; 13:9; 13:43)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계2-3장 7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롬10:17).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기도로 생기지 않는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모든 행위
말세의 특징(딤후4:3-4)
설교를 듣는 것은 노동이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야 한다. 푹 쉬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와야 한다.
3. 행해야 한다.
사과, 고백, 기도, 용서, 긍휼, 언어 변화, 옷차림, 섬김, 헌금, 예배
제자로서 급진적인 사랑(눅6:27-28), 긍휼(6:38), 판단
4.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설 수 있다(48).

적용

누가복음 6장 제자 삼기: 예수님처럼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그 뒤에 좋은 열매가 나온다.

7장 이후의 모든 열매는 6장에 달려 있다.

나무는 열매를 위해 심는다. 즉 성도는 섬김을 위해 존재한다.

좋은 섬김의 기초: 좋은 성품

교회가 커진다. 커지는 것 자체를 반대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어떻게 신실하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가?”

목사, 집사, 인도자, 교사, 전도사만 섬기는 것이 아니다.

1. 새로 온 사람 살펴보고 교제(가정 초대), 문자/전화, 교제 모임, 성경 공부
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지체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 그 지체가 다른 데 가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2. 새로 오신 분들 역시 질서 존중, 분란 야기 No! 교회 문화 존중
3. 불신자, 기초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 전도/선교 자료 제작 및 전달: 역할이 다르지만 다 해야 한다.
4. 아이들 바르게 교육하기

결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사람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나?(렘23:29)

1. 27-28절
2. 31
3. 36
4. 37
5. 39
6. 42
7. 45
8. 46

이렇게 기초를 단단히 놓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너진다.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다.

믿음 생활에서 실족하고 본인과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더 좋은 성경을 가졌으면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책임을 소유하였으므로 더 많은 회개 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강해 22)

성경말씀: 눅7:1-10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 완성 및 신약 시작, 제자들 임명(눅6:13-19), 제자의 마음 자세, 인간관계, 급진적(파격적)으로 사랑하기, 공홀을 베풀 줄 아는 좋은 사람: 수용, 용서, 베풀, 열린 눈(6:37-42), 마음의 선한 보고: 주님의 두려움, 말씀, 천국 애착, 재림과 부활 소망, 나무는 열매로 안다. 언어, 성령의 열매, 이제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배경

평야에서(17) 백성이 듣는 데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감, 주님의 갈릴리 사역 본거지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으뜸 도시.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주님은 이곳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마17:24; 막1:21-35; 요6:17, 59). ‘그분의 도시’(마4:12-16; 9:1; 막2:1). 이런 명예에도 불구하고 거기 거주민들의 대부분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불신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마11:20-24).

백부장과 그의 종(2), 지금 군대의 중대장(대위),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됨(마비병 마8:6) 세 부류의 사람들(유대인들의 장로들, 백부장, 예수님), <믿음이란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장로들: 외적인 모습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병 고침을 부탁함(3),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 장로들이 부탁하러 갈 정도이면 이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

그들이 절박하게 간청함(4).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는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이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다(5).

1. 유대인을 사랑한다: 이교도들은 잡신 우상 숭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한다.

행10:2의 고넬료: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2. 회당 건축: 포로생활 이후 등장, 나이가 들고 경건하며 학식이 있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세울 수 있었고 큰 마을에는 여러 개 회당이 있었다. 회당은 교회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회당을 세우는 일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간주되기도 하였고(눅7:5) 천국의 열쇠로 생각되기도 하였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회당이 건립되었다. 그래서 한때 예루살렘에만 460-480개의 회당이 있었다.

유대인 장로들의 문제: 이런 외적 치적, 업적을 거론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실 줄로 착각함

지금 식으로 말하면 성전 건축 헌금, 사회봉사 헌금, 주차장 봉사, 조찬 기도회, 4대째 기독교 집안, 주중 대사, 교수, 대학원장 등이 예수님의 호의(천국)를 받기 위한 조건

성경은 이런 식의 사람의 외적 치적을 내세우는 것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것은 결만 보는 것이다. 영적인 일에서는 결만 보는 것이 눈 먼 것보다 더 나쁘다(요9:39-40). 하나님께 올 때는 우리의 내부를 하나님께 제시해야 한다.

백부장의 자기 인식(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사랑해서 가신다.

어찌 된 일인지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수고하지 말고 자기 집에 오지 말 것을 간청함(6).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이방인과 교제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에 위배됨(행10:28)

그러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됨,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것은 아닌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증언을 한다: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자격이 없다. 말씀만 하옵소서”(6-7).

백부장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였다(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가치).

외적 행위는 멋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신다.

교만, 음행, 탐욕, 천박함(경박함), 게으름 등 겉으로는 안 나타나도 속에 내재된 것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흠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남보다는 낫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 나를 모른다. 남의 것들만 크게 보는 위선자(41-42)

과거의 물 판별: 투명하면 좋은 물, 현미경이 나온 뒤 물을 보니 세균 투성이

우리가 그렇다. 겉으로는 그럴 듯한데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으로 보면 죄 투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살인범들, “나도 그 상황에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들도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음행으로 보시는 분: “이런 분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사6:5, 내게 화가 있도다. 망하게 되었고도다.

그래서 과거의 청교도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죽을 때까지 자신의 더러운 모습 때문에 슬퍼하였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기독교에 합당하지 않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죄로 보는 극단에 빠져도 안 된다. 인생이 비참해진다.

그리스도인은 극단적인 비관주의자, 낙관주의자, 여기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탈출구를 허락해 주신다(롬5:8).

세상의 지위로 보면 그는 예수님보다 훨씬 낫다: 로마의 백부장(갈릴리 목수), 식민지 지배자, 종속자
세상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경의를 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들을 보았다(요3의 니고데모)
생명과 사망을 손에 쥐고 계신 분,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분(눅
4:12-32), 무슨 병이든 그분의 말씀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질병이든 죄병이든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1) 자기를 아는 것, (2)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나를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마16:16), 베드로, 그분의 제자들, 에티오피아 내시, 바울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말로 표현하였다(7-8).

“가까이 계시든 멀리 있든 말씀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심지어 질병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였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기 바란다.

“구원, 재정, 결혼, 직장, 질병 등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받자.” 히4:15-16

예수님의 판단(7-10)

이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셨다(9). 기이히 여기셨다. “이런 믿음은 처음이다.”

예수님이 놀랄 정도면 굉장한 것이다. 우리도 해 보면 어떨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분이 놀란 일은 두 번 나옴(막6:6).

고향에서 말씀 선포(막6:1-6),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 놀라며 이상히 여기심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놀라게 해 드릴까? 불신 혹은 믿음

믿지 않음으로 그분을 놀라게 하는 일은 멸망의 길이다.

놀라신 이유

1. 이방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 성령이 없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알았다.
2. 직업: 식민지 지배자, 권력자, 예수님께 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인식
3. 재물: 회당을 지어줌, 부자가 구원받는 일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움(눅
18:24-25). “그들은 재물을 신뢰한다.”
4. 믿음의 강도: “말씀만 하시면 나올 줄 믿습니다.”(히11:1)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말씀으로 지으시고 유지하시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였다: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자: 모세(24-27)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가?(재물, 지위, 명예, 학식, 가정, 직분, 교회 봉사 등)
다른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것에 취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하나님, 창조자, 구원자, 재림, 휴거, 부활, 심판자)

요일5:19-20, 요17:2

생명의 주 그리스도(누가복음 강해 23)

성경말씀: 눅7:11-16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사역, 6장에서 제자들 선택, 지침, 7장부터 공동 사역 시작
백부장의 종 고침, 주님의 호의를 얻는 방법: 자신의 철저히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함(6-8).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 모든 창조물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병도, 마귀도, 거리 문제없다.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10절: 종이 온전히 회복됨. 99%가 아니라 온전히 100% 회복됨.

배경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히2:14-15).

주님이 오신 목적 중 하나: 사람 편에서는 죽음 극복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무의미, 이것 말고는 사실 다 무의미

공생애 사역 시작과 더불어 핵심 목표를 이루심, 나인 도시의 청년을 살림, <생명의 통치자 그리스도>
11절 백부장 사건 뒤 나인이라는 도시로 들어감,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40킬로미터, 나사렛 부근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아마 새벽부터 8시간 정도 걸어서 오후 3-4시경에 도착함

어떤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신다.

요4장의 사마리아 방문(요4:4), 유대에서 갈릴리, 사마리아 통과

12절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관에 실려 도시 밖 매장터로 나가고 있음.

도시의 많은 사람들, 돈을 받고 애곡하는 사람들, 피리, 심벌즈 등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기쁨의 무리와 죽음의 사자를 따르는 슬픔의 무리가 도시의 문에서 맞닥쳤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무리 중 하나에 속해 있다(승리, 패배).

주님 안에 있으면 산 자들이 있는 도시로 들어가고, 밖에 있으면 묘지로 들어간다. 당신은 어떤가?
특히 슬픔에 잠겨 비통한 여인, 아무도 없다. 남편도 다른 자식도 없다. 절망 속에 있다.

이 세상에 슬픔이 많지만 가장 큰 슬픔은 아이를 잃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주변의 한 성도, 아들을 잃고 늘 보고 싶어 하는 모습

더욱이 이 여인은 남편 없는 과부요, 자식이 없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절망의 순간

13절 주님께서 그녀를 붙잡고 여김: 창자가 끊어지는 연민의 정

마9:36, 목자 없이 흩어진 무리를 보시고

마14:14, 오병이어 기적, 병을 고쳐 주심, 오병 이어

마20:34: 예리고에서 눈 먼 두 사람, 눈을 열어 줌

눅15:20, 탕자의 아버지

우리는 이런 심정이 있는가? 주님의 섬김의 대상, 우리도 마찬가지

14절 “울지 말라”하시고 관에 손을 댄, 이것 자체가 울법을 범하는 것임. 사람들이 멈추어 섬
주님은 울법 너머의 사랑을 베푸신다.

세리 마태, 죄인들과 함께 거한다. “나는 희생물이 아니고 긍휼을 원한다”(마9:13).

14절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청년이 곧바로 앉아서 말하기 시작함.

어머니에게 넘겨줌.

주님의 사역에서 부활의 큰 기적은 말씀만으로 이루신다. 실로암 소경 사건 등

막5:41, 야이로의 딸, 12살, 방금 죽음, 그녀의 집에서, 달리다굼(소녀야, 일어나라)

눅7장의 나인 성 청년, 무덤으로 실려 가는 중에

요11:43의 나사로, 나이가 든 어른, 죽은 지 나흘, 냄새가 남,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창조함.

온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

아무리 죽은 지 오래 되었어도 문제가 없다.

심지어 죽은 자도 그분의 말을 듣는다. 죽어 있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 있다(눅

20:38).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두 명의 독생자가 나온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통치자(하나님). 과부의 독생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아들을 고쳐 주심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한다. 그것도 그분의 독생자를(요3:16).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심지어 죽었어도 다시 살아난다.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 있다(엡2:1). 다시 태어나야 한다.

15절 주님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창백한 얼굴의 청년이 일어나 앉더니 말을 하기 시작함.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배가 고파요. 어머니 피곤해 보이네요. 이들은 다 누구예요?”

바로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일어난다.

살전4:16-18, “일어나라. 올라오라” 이로써 성도들의 모든 슬픔이 끝나고 만다.

산에 묻힌 자들, 바다에 빠져 익사한 자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은 성도들의 모든 원자들이 움직여
부활한 몸을 이룬다. 몸의 부활, 영화로운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질병, 고통 No!)

고전15:51-54, 57-58

구약의 대표 인물: 모세와 엘리야, 특히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함

900년 전에 엘리야는 사렙다라는 조그만 마을에 감(왕상17:19-24). 과부 여인과 그의 아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음, 과부 여인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기를 그를 살림.

21절: 몸을 세 번 펴서 아이 위로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함: 예수님처럼 명령하지 못함

아이가 살아남: 24절 여인의 말

나인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다. 너무나 무서웠다. 처음 보는 일,

그리고는 영광을 돌렸다.

그들의 말: “큰 대언자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16).

신18:18-19,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그런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마1:23). 눅1:68

결론

우리는 지금도 말 못하며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심정이 있는가?

육적, 재정적, 영적 신음 소리, 교제와 섬김

찬송가 256장, 석진영 여사, 6.25동란 중 피난지 부산에서 절망과 혼돈에 빠져 있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할 용기와 사명감을 일깨운 애절한 호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와 각성을 촉구하는 외침

1.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 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2.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마는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3.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4.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시어 인애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 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는 오직 말씀만으로 사망도 제압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가?

우리의 죽을 몸을 일으키시는 권능을 믿는가? “일어나라. 올라오라” 하시면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날
것이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가져가면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에 선하게 이루어주실 것이다.

성도의 의심과 예수님의 위로(24)

성경말씀: 눅7:19-35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복음 선포 및 구원, 구약 완성 및 신약 시작, 제자들 임명(눅6:13-19),

제자의 마음 자세, 인간관계, 급진적(파격적)으로 사랑하기, 공흘을 베풀 줄 아는 좋은 사람

나무는 열매로 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그렇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음

7장부터는 공흘의 사역을 시작함: 백부장의 종을 고침, 나인 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림

<성도의 의심과 예수님의 위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의심 속에 잠긴 하나님의 사람 위로

침례자 요한

그는 누가복음 시작부터 나옴, 사가랴와 엘리사벳(1:6), 이스라엘의 기쁨(1:14-16)

구약시대 엘리야의 영과 권능(17), 백성을 돌이키는 사역

광야에서 지내다가(1:80)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회개의 침례(마3:1-2)

메시아의 하늘의 왕국 메시지, 성령 침례와 불 침례(3:16-17), 알곡과 겹질, 특히 겹질 심판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 적어도 2년 정도는 지난 시점

헤롯 안디바, 헤로디아의 일로 감옥에 갇힘(마14:1-12)

정보를 듣는데 의심이 생김, 광야 생활에서 감옥으로 적응이 되지 않음(정신적, 육체적 갈등)

눅4:18,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준다면 바로 침례자 요한이 첫째 후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의심과 낙담에 빠지곤 하였다.

모세(민11:10-15): “이집트가 그림자. 죽여 주세요.” 엘리야(왕상19), 바울(고후1:8-9)

의심과 불신의 차이

a. 의심은 생각 속의 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b. 불신: 의지의 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겠다.”

c. 의심은 OK, 불신은 No! d. 침례자 요한은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 생겼다. “왜 이럴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두 측면을 보고 있다: 초림과 재림

침례자 요한은 초림(하나님의 어린양)보다는 심판을 가져오는 재림의 그리스도(메시아)

심판과 구출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공흘을 베풀고 구출해 주지 않는다.

초림의 어린양과 재림의 왕, 어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일이 꼬여요. 아이들이, 남편이 속을 썩여요.

힘들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데 힘들어요. 목사가 너무 힘들게 해요. 신약 교회 힘들어요”

결국 침례자 요한은 의심을 풀기 위해 자기의 두 제자를 보내 물어보았다(19-20).

우리도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져가자.

예수님의 대답(21-23)

1. 바로 그 시각에 친히 놀라운 기적들을 행함(21): 경험

2. 내가 메시아의 기적들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라(22). 사26:19; 29:18; 35:5; 61:1

예수님의 기적들은 1차로 메시아 기적, 그것들을 복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3. 그런데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 요한을 구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음

4.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23).

요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을 믿고 순종하며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5. 구원 받았는데: 병, 재정, 배우자, 자식, 부모,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이들

목사도 도와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의롭게 처리해 주신다. 믿어라.

예수님의 획증(24-29)

요한의 제자들이 없을 때에 요한에 대해 칭찬함. 대개는 칭찬이 사람을 병들게 함

1. 확신의 사람: 갈대가 아니다(24), 바위 같은 사람, 헤롯과 헤로디아의 일

2.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화려한 옷 거부(25), 광야의 사람, 주님을 위해 자기 부인

3. 대언자(26):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특권, 제사장 출생이지만 대언자, 구약은 대언자 시대
4. 대언자 이상 가는 자(27), 말3:1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대언자가 없던 시대에 메시아를 직접 보고 그분을 선포하는 대언자.
5. 구약시대에 그보다 더 큰 대언자는 없었다(28):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해서
6. 그럼에도 그는 왕국의 선포자, 왕국의 시민은 아니다. 그는 구약성도, 이 차원에서 신약성도가 낫다. 신랑의 신부가 아니라 친구(요3:29-30)

백성의 확증과 거부(29-30)

1.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29):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일은 다 옳다.
2. 지도자들(30):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함, 메시아, 왕국 등 다 거절
3. 둘의 차이: 요한의 침례 인정 여부, 그것은 회개의 침례(눅3:3), 회개에 합당한 열매(3:8)
말씀으로 삶이 변한 자들: 어떤 말씀? “독사의 자식들이 회개하라!” 죄 선포 공감, 회개, 변화
그렇지 않은 자들(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전통, 명예, 기득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의 요구는 완전함, 그래서 그들은 실패함
 - a. 교회 예식, 전통 등에 익숙함: 특히 목사, 지도자, 오래된 성도
 - b. 죄에 대한 인식이 낮음: “이 정도는 OK”, 하나님은 죄를 차마 보지 못한다.
 - c. 자기 의: “저들보다는 내가 낫지”, d. 죄의 속박(롬3:10-18)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31-34)

1. 주님을 거부하는 세대들은 누구와 같은가?(31-32) 장터에 앉은 아이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음, 애곡해도 울지 않음, 무슨 일을 해도 같이 게임을 하려 하지 않는 아이들,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피리를 불고 애곡하며 거기에 따른 일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편 아이들은 전혀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 무슨 일이 생겨도 하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굳힘
2. 침례자 요한: 나사르 사람, 빵과 포도즙 먹지 않음(1:15),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헌신 및 회개 강조
거부자들의 말(33): 정신이 나갔다. 마귀 들렸다.
3. 예수님: 먹고 마시고 보통 사람들의 친구(34), 음식을 탐하는 자, 술주정뱅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
4. 누가 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는 “너무 단순해. 심오한 철학이 없어”, 바울의 심오한 설명을 듣고는 “뭐 이리 복잡해. 복음이 쉽지 않네.”, “목사가 회개를 너무 강조하네, 거룩함만 강조해, 너무 교리적이야. 알아야 한다고만 해.” “교회가 사랑이 없어. 냉랭해.” “그리스도인들은 다 위선자야”, “조선 시대 사람들, 아마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진화론은 틀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야” “킹제임스 성경이 옳아도 나는 믿지 않기로 했어”
5.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죄를 두고 애곡할 때 울어야 한다. 구원의 피리 소리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기뻐 춤추어야 한다. 동기가 주어질 때 바르게 수용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에 의해 인정받는다(35)

1. “그러나”, 불신자들의 하나님의 일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는다.
2. 지혜는 자식들이 있다. 즉 지혜에 의한 결과들이 있다.
3. 여기의 지혜는 주님 자신(잠8:1, 12-13, 17, 22-23, 30, 32-33, 35)
지혜의 자녀들은 그분의 말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 이들의 말과 삶을 보면 그분이 다 옳으심을 알 수 있다.
4. 지혜는 그 자녀들 속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 자녀들은 다 동일하게 외친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롬3:4)
5.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가? 주님 때문에 바뀐 것이 드러나는가?
그분의 영광이 되는가?

결론

1. 의심 OK, 불신 No!, 2. 내 뜻대로 안 돼도 침례자 요한은 순종하고 죽으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다.

받은 은혜와 주님 사랑의 상관관계(25)

성경말씀: 눅7:36-50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사역, 복음 사역, 인격, 7장부터는 공회를 베푸는 사역
백부장의 종, 나인 성 과부의 죽은 아들, 의심에 찬 침례자 요한 위로: 메시아 기적, 칭찬, 회개의 침례를
두고 두 부류로 나뉘, 지혜는 자기 자녀들에 의해 옳다고 인정받는다(35):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바리새인의 등장

예수님의 바리새인 평가(30), 바리새인: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분리하는 사람들', 좋게 시작되었으나
후에 위선자 그룹으로 전락함. 그러나 니고데모나 바울 같이 귀한 바리새인도 있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등장(36), 그의 이름은 시몬(40),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심(34)
무슨 이유에선지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함: 그 당시 순회 랍비 초청 유행, 자기 과시, 예수님 시험
전체 문맥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위한 초청
유대에서는 귀한 손님을 초청하면 집 주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44-46)

1. 발 씻을 물, 2. 입 맞추며 환대, 3. 머리에 기름을 부어 냄새 제거, 초대인 주인이 되게 함
시몬은 기본 예의를 하나도 갖추지 않음, 골탕 먹이려고 했음 명백함 <받은 은혜와 주님 사랑의 상관관계>

여인의 등장

귀한 사람을 초대하면 집 문을 열어놓고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

바로 이때에 옥합을 가진 한 여인이 들어와 시몬의 눈에 가증한 일을 행함

옥합(37): 옥합은 복음서에 두 번 나옴, 초반과 후반, 막14:5를 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 10달 봉급

1.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함(38): 이 여인도 초대받지 않음. 물이 없음.
“주님께 대한 대접이 말이 아님을 보고 자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음”

2. 발을 말리기 위해 수건 대신 머리털로 발을 닦음: 먼지와 머리털이 뒤범벅이 됨

3.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 보통은 볼에 입을 맞추. “자격이 없습니다.”

4. 향유를 발에 부음: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음. 예수님은 10달치 봉급 이상의 대접을 받을 분”

시몬의 반응(39):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여인과 예수님을 정죄함

이 여인은 말 그대로 몸을 파는 거리의 여자(39),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대상, 심지어 예수님도 멸시
주님이 언급한 두 부류가 나옴(29-30):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예수님의 비유(40-42)

주님의 반응: 모든 것을 꿰뚫어보시며, “할 말이 있다”, “말씀하소서”

빛을 준 어떤 사람: 빛을 진 두 사람,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50만원, 500만원)

이들의 문제: 전혀 값을 것이 없다(42).

그래서 빛을 준 사람이 둘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다(42).

누가 그를 더 사랑할까?(42) 시몬의 대답(43): “많이 탕감받은 자, 용서받은 자”

“네 말이 맞다”(43)

자 이제 너와 이 여인을 비교하겠다(44-46): 발 씻을 물, 발, 머리털, 입 맞추기, 기름 바르기

주님의 선언: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47). 그 이유: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다.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비유의 설명

빛을 주고 용서하는 자: 예수님, 두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죄인

주님의 선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빛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큰 죄인, 작은 죄인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냥 다 ‘빛진 자’이다(41). 롬3:10-12, 23

이들의 문제: 값을 것이 전혀 없다. 이들의 노력, 선행 등 사람의 것으로는 빛을 값을 수가 없다.

빛 준 사람의 용서: 그래서 너그러이 둘 다 용서해 주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은혜는 창6:8,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120년 동안 복음 선포, 8명만 구원받았다.

얼마나 너그러운가? 요1:29; 3:16, 롬10:13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뒤에 여전히 두 행태가 나타난다.

많이 용서 받는 자: 많이 사랑한다. 적게 용서 받는 자: 적게 용서한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은혜의 가치를 느끼면 10달치 봉급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바리새인이던 바울은 구원받고 얼마나 좋은지 과거에 좋아하던 모든 것을 뚱으로 여겼다(빌3:5-9).

고후11:23-27,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도 감사(고후12:9)

결국 그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좋았다(딤후4:6-8).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안 사람들: 다른 성도들이 모르는 진리, 영혼의 자유, 신약 교회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리를 알고 나면 주님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현상 즉 방종이 나타난다.

1. 말씀 상고 게으름 혹은 지식의 축적
2. 상고한 뒤 적용 부재,
3. 재림을 사모하며 세상과 분리 부재(언행과 사고),
4. 공 예배 출석 게으름,
5. 현금 생활 게으름,
6. 섬김의 부족,
7. 전도의 열정 식음,
8. 지역 교회에 대한 갈증

“왜 이럴까?” 이것이 목사의 마음속 갈등: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지만 답답하다.

왜 그런가? 지식과 자유를 사랑하지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사랑, 덜 사랑, 즉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리되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기 쉽다.

주님의 답변: 많이 용서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사람인 목사의 눈에도 보인다.

그러면 많이 용서받으려고 많이 죄를 저야 하는가?(롬6:1-2)

대부분의 간증자: 엄청난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 받음, 녹15의 탕자, 둘째 아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며 성경으로 구원받은 자: 간증이 밋밋하다. 받아들

그러면 전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며 성경 읽고 구원받아 죄에 덜 물드는 것

그러면 죄에 덜 물든 사람도 크게 사랑할 수 있는가? 바울과 디모테의 경우

나의 예: 어려서부터 믿음, 소위 ‘악한 죄’라 불리는 죄를 상대적으로 덜 지었다.

그러나 아주 큰 빛을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되어 전 삶을 주님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고 매일 매 시간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한다. 부족하지만 그러려고 애를 쓴다.

그 이유: 무한대의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죄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고 이 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다. 어디서 오는가? 정신 차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온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에 들어온 사람은 선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자”, “두렵지 않은가?” 1/∞

목사는 이것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본인이 깨달아야 한다.

시몬처럼 주님이 “너는 적게 사랑하는구나” 책망하시면 큰 일, 지시막 혹은 자유만 사랑하면 문제 특히 휴거 받은 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일이 부끄러우면 어떻게 될까?(요일2:28)

주님의 판결

“네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48)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올 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 죄가 아니라 죄들 즉 모든 죄가 이미 다 영원히 제거되었다.

사람들의 판단(49); 어찌 사람이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는가?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시몬의 마음속 생각을 꿰뚫어보시는 분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도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보라 죄들의 용서는 믿음에서 온다(50): 말씀이 선포되며 죄들을 용서하시는 분이 제시될 때 나의 불신을 버리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을 원하신다. 믿음에서 믿음까지(롬1:16-17)

평안히 가라: 구원받고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참 평안이 온다.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에 내 자리가 하나 있음을 알면 평안이 온다.” 청년들, 30대, 참 평안은 주님께에서 온다.

재물로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26)

성경말씀: 눅8:1-3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공훈의 사역, 백부장의 종, 나인 성 과부의 죽은 아들, 의심에 찬 침례자 요한 위로, 죄인인 한 여자의 예수님 사랑, 300데나리온 옥합, 많이 사랑하기에 많이 희생하고 섬긴다. 믿음에서 나온다. 전적으로 은혜로 된다. 그 결과 평안을 얻는다.

예수님이 하신 일 요약

1. 모든 도시(큰 동네)와 마을(작은 동네)을 다 다니심, 꾸준히 매일 하심, 지치지 않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한국의 모든 도시에 신약의 복음이 전달되어 지역 교들이 서기를 간절히 원한다.
2.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 죄, 사망, 염려, 병, 불안으로 물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눅4:18), 하나님이 형상이 복원되어 궁극적으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자들
3. 12제자가 함께함: 그분의 사역에 필수적인 존재들, 이들에게 복음 사역이 무엇인가 몸소 보여 주심

재물로 돕는 여인들

1. 12제자만으로는 사역 불가능, 예수님 포함 12제자는 전임 사역자
누군가가 물질을 제공해야 함, 아주 실제적인 문제, 정교한 역사가 누가(눅1:2-3)는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기록함, <재물로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
2.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수산나, 다른 많은 사람들(many others, 그리스어로 보면 여자): 자고로 여인들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음, 누가는 이것을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3. 이들의 특징: a. 눅7장의 죄인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음, b. 주님과 그분의 일을 도와야겠다는 생각, c. 다른 이들도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d. 결국 자기의 물질로 예수님을 섬김
4. 이들은 예수님의 환자들(2): 정신적, 육체적, 영적 환자
a. 주님께 나오면서 치유를 받아 주님의 공훈과 권능의 기념비가 됨
b. 영과 혼과 영의 의사에게 치유를 받고는 그분을 섬겨야겠다고 작정함
c. 눅7장의 옥합을 깬 여인처럼 매우 정상적인 반응
5.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미리암의 그리스 이름, a.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b.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c.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d.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던 막달라 마리아.
e. 이 여인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섬긴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명예를 차지한 인물이었다(마 28:1-10; 막15:47; 16:1-10; 눅24:1-12). 예수님께서 그녀의 속에 들어 있는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셨으므로 그녀는 특별히 예수님에게 헌신하였다(눅8:2-3). 그녀는 부활의 날 아침 일찍 그분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첫째 사람이 되었다(요20:1-2, 11-18). 이 여인이 눅7장의 방탕한 여인이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는 없다.
6. 요안나: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녀는 그분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감(눅24:1-10).
7.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 자기들의 재물로 예수님을 섬김
8. 예수님은 가장 부요한 분이셨으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고후8:9) 사람들의 구제물로 사심 그들이 옥합을, 재물을 가져올 때에 수용하심
9.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갈6:6).

하나님의 일과 재물의 필요

BC 1495년경, 이집트 탈출 이후에 엄밀한 의미의 구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났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예배를 위해서는 성막과 제사장이 필요하였다.

출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야기: 이것은 다 물질로 이루어진다.

1. 성막 재료: 총 14종류(보석, 실 등), 금 3톤, 은 4-5톤, 동 4톤, 기타 보석, 재목 등을 합하여 엄청난 액수이다(약7조원).
2.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선정: 죽지 않은 장자들을 대신해서 주님만 섬기게 함
그 결과 나머지 11지파가 이들을 먹여 살림, 특히 제사장의 의복, 관 등 귀한 것들 예비해야 함
여기서 십일조가 생김, 백성이 약 10분의 일을 바쳐야만 신정 국가 유지 가능

3. 하나님의 말씀(출25:2): 마음에서 즐거이 내는 모든 자들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 a. 모세의 전달(출35:5)
 - b. 백성의 헌물(출35:21-22, 29)
 - c. 회중의 문제(출36:3-4, 6)
 - d. 이때에도 특별한 여인들이 있었다(출38:8)
4. 구약: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과 헌물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여인들
5.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과 헌물이 있어야 한다. 여인들
6. 신약시대: 초창기 10년은 교회가 유대인들로 구성됨, 이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김, 그래서 행2:44-46, 공동 소유, 나누어 줌, 매일 애찬,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다.
7. 그 이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이방인 중심의 교회 시대
 - a. 교회 역시 말씀 사역자가 필요하다.
8. 고전9장: 자비량 바울, 11-14, 다만 자기는 복음을 가로막을까봐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음(15)
 - a. 처음에는 집 교회, 건물 불필요, 그러나 후에 자유롭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 건물 필요
 - b.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 c. 우리 교회: 건물, 식사 교제, 아이들 교육, 사무원, 차량
 - d.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 영혼 구령, 선교 헌금(1억 원), 특히 중국 선교
 - e. 누군가가 해야 한다.

누가 하는가?

구약시대: 이집트 탈출의 은혜,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회심한 사람

- a.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느끼는 사람, b. 이런 교회를 유지해야겠다고 느끼는 사람, c. 이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d. 아이들 교육 원하는 사람
- 한 마디로 지금 교회의 헌금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 꿈, 내 철학,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 쓰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가?

헌금의 원리: 고후8:1-3

방법: 고후9:6-7

약속: 고후9:8-11

헌금은 직무이다(12). 적어도 10분의 1, 이것의 실행이 믿음의 척도이다(13).

복음 사역자 바울의 평가(빌4:15-19)

남자와 여자

이전이나 지금이나 역시 교회의 일은 여인들이 더 많이 한다.

초대 교회(행1:13-14): 여인들이 다수

사도 바울의 유럽 사역: 자주장사 루디아, 브리스길라,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게

일반 교회: 여인들이 70-80%, 우리 교회: 50%

그 이유: 남자들은 직장, 사회생활, 여인들의 일편단심, 성품 면에서 더 뜨겁다.

우리 교회도 처리하는 일, 주차 봉사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은 자매님들이 한다.

더 많이 하기 원한다.

자매님들이 마음껏 주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형제들은 원한다.

12명의 남자 제자들과 재물로 섬긴 여인들을 통해 주님의 일이 진척되었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결론

눅7장의 여인, 8장의 여러 여인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서 섬기게 된다.

이런 자발적인 섬김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과 마음의 상관관계(27)

성경말씀: 눅8:4-18

누가복음 24장, 1-6장 준비, 7-24장 공훈의 사역, 1. 모든 도시(큰 동네)와 마을(작은 동네)을 다 다니심, 2.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 3. 12제자, 4. 재물로 사역을 도운 여러 여인들(빌4:2-3)

씨 뿌리는 자의 비유(4-15)

오늘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 막, 눅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됨. 중요함.

마13의 비유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것이고(13:19 왕국의 말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 즉 새로운 출생에 대한 것이다(8:11, 하나님의 말씀). 12 구원

여기서 주님은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화론도 믿음, 다만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 결과가 다르다. 믿음(롬10:17), 4-21절에는 '듣다'(hear)가 12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용하는 자세로 음미하며 듣는 것,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8).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18)

씨와 밭의 관계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또 복음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

씨는 하나님의 말씀(11): 씨처럼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런데 심겨야만 열매를 낼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씨가 마음에 심긴다. 열매는 밭에 따라 달리 난다.

원래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마13:18), '밭의 비유' 혹은 '마음 밭의 비유'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다. 씨는 문제가 없으므로 밭만 잘 준비되면 많은 열매를 낸다.

1. 길가, 새들이 먹음, 2. 바위, 곧 시들, 3. 가시나무들, 숨 막혀 죽음, 4. 좋은 땅, 100배 결실
사람의 마음은 4종류, 1-2는 열매를 내고 2-3은 내지 못함, 구원으로 보자면 2은 구원, 2은 멸망
핵심은 말씀과 밭의 관계, 먼저 마음 밭이 좋아야 열매를 낸다. 그 뒤에 그 씨를 다른 데 뿌려야 한다.
신약 교회를 하는 우리는 씨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 중국, 미국, 이북

0. 제자들의 의문(9-10)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비유는 듣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것들을 이용해서 진리를 그림으로 만들어 알려주는 것: 씨, 흙, 열매
비유의 그림을 잘 보면 그것이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 된다.

종교인들은 그런 거울로 자기를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

그 거울로 자기를 잘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보며 회개하고 믿음
그래서 비유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해야 한다.

10절은 사6:9에서 가져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1-3), 본인의 죄성(5), 하나님의 용서(6-7), 하나님의 사명 부여(8), 이상한 책무(10), 그 결과(11-12)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 주님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혹독한 심판, 7년 환난기의 큰 환난을 견디고 결국 메시아를 받아들임

예수님의 결론(10): 구원받는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제자들에게는 열려 있다.

<말씀과 마음의 상관관계> 구원, 성장, 성화, 보상

1. 길가(5)

씨가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림. 씨가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함(12). 마귀의 주요 관심사는 말씀 제거

음란 동영상, 영화, 낙태, 동성애, 연쇄살인 등은 다 육체의 일(물론 뒤에 마귀가 있지만)

마귀의 일 요약: 1. 일단 듣지 못하게 막는다. 2.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다(즉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3. 의심하게 만든다. 4. 결국 믿으면, 잊어버리게 만든다. 5. 불순종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일: 성경 보존, 한 성경, 마귀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일: 성경 변개, 수많은 성경들

변개 내용의 핵심: 구원(행위, 뎀전2:2; 빌2:12), 주 예수 그리스도 신성 약화, 지옥 제거 등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바위(6)

팔레스타인의 밭, 바로 밑에 바위가 많다.

얇은 흙, 기빠하는데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간다(13).

씨를 내는데 뿌리가 없다: 뿌리는 예수님, 겉으로 믿음 고백을 하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로 인한 죄들의 사면이 없다(히9:22).

감정적인 사람, 해가 쨍쨍 내리되면 시들어 버림.

말씀으로 인해 시험(누가)이나 환난이나 핍박(마태)이 일어나면 실족한다. 구원 No!

3. 가시덤불(7)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음. 그런데 나무가 자랄 공간이 없음. 복잡한 흙 구원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음(뿌리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14).

그런데 끝에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가 없다. 두 종류 해석 가능, 오늘은 구원 받은 것으로 해석함 성경의 완전함은 죄가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마땅히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딤후3:16-17),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지 못한다.

수확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지 못한 자들: 어린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파당, 간음, 법정 고소, 음식 문제, 우상 숭배, 방언, 부활 의심 등)

이리저리 교리의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자들,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힘(14)

1. 삶의 염려: 아이들이 아프다, 부부 싸움, 직장 해고, 세탁기 고장 등, 잘 살수록 더 많다.

바울의 권고(빌4: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

2. 재물의 속임수: 하나님보다 돈을 신뢰하게 만들

많은 목사와 교회의 실수(딤후6:9-10), 오순절 은사주의의 변영 신학

3. 쾌락(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딤후3:1-4

4. 좋은 땅(8)

이 땅만 열매를 풍성히 낸다.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에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낸다(15).

양은 다르지만 30, 60, 100배(마13:8), 반드시 열매를 풍성히 낸다.

마음이 가장 큰 문제(렘17:9),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에게 원래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 없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예비해 주신다.

아무리 심성이 고와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씨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 의,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요16:8-11).

죄: 불신, 의: 승천 후 재림, 심판: 마귀 심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살전2:13).

그 결과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살전1:3)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킨다: 변개, 식제, 첨가, 영해 No!

이 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찬송가 작업 2년, 반복, 누군가가 인내하며 반복해서 작업해야 열매 성경 작업 20년 이상, 바르게 전해 주려고 6판 교정 작업

결론(16-18)

등잔불을 켜면 등잔대 위에 둔다. 사람들이 보라고. 그 빛은 누구인가? 예수님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드러난다(17).

이 일을 위해 가장 주요한 것: 말씀을 듣는 것(18),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8)

씨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사명: 씨를 뿌려야 한다.

1. 씨는 많이 뿌려야 한다. 2. 환경에 상관없이 뿌려야 한다. 3. 나이에 상관없이 뿌려야 한다.

4. 그냥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사55:11).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5.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좋은 땅에서 반드시 구원을 이룬다(벧전1:23-25).

우리는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겸손한가? 열매를 맺는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28)

성경말씀: 눅8:22-25

두 주 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의 씨, 사람의 마음은 씨를 받는 밭과 같다.

씨는 문제가 없으므로 밭만 잘 준비되면 많은 열매를 낸다.

1. 길가, 새들이 먹음(마귀의 말씀 제거), 열매 No! 2. 바위, 즉시 기뻐하는데 뿌리가 없어 잠시 민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간다. 열매 No! 3. 가시나무들,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음. 그런데 나무가 자랄 공간이 없음. 복잡한 흙, 숨 막혀 죽음, 열매 적거나 나쁨! 4. 좋은 땅, 100배 결실

1-2는 열매를 내고 2-3은 내지 못함, 핵심은 말씀과 밭의 관계, 마음 밭이 좋아야 열매를 낸다.

마음이 가장 큰 문제(잠4:23), 딱딱한 마음을 깨야 한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한다(8, 18). 롬10:17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옴(19-21)

어머니와 형제들의 정의: 21절, 듣고 행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이 진정한 어머니요 형제 배경(22)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세 복음서, 중요한 사건

22절: 사역을 하는 어느 날 북서쪽의 가버나움을 떠나 호수 건너편으로 갈 일이 생김(마8장 참조).

갈릴리: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잇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의 땅),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이방인들의 갈릴리', 경계가 두로와 시돈이었고 또 거기에 페니키아, 시리아, 아랍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 사람들은 용감하고 근면했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그들이 우둔하고 예의가 없고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사투리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었고(행1:11; 2:7) 물론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을 모욕하는 이름이 되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어려서부터 서른 살이 되기까지 여기서 살았고 공생애 중에도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갈릴리 호수: 요르단 강이 북쪽에서 나와 이것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흘러가며 이 호수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1킬로미터와 10킬로미터이고 깊이는 50미터이다. 바다라고 불림. 이 호수에는 가끔씩 폭풍이나 회오리바람이 불며 이것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 주님은 종종 이 바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안식하셨고 여기를 건너 이동하곤 하셨다. 또 그분께서는 말씀으로 이곳을 잔잔하게 하시고 기적과 가르침으로 이 바다가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다. 물론 여기에서 그분의 제자들 중의 몇 사람이 부름을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마4:18; 14:22; 눅8:22; 요21:1).

23절: 주님은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폭풍이 내리침, 호수는 해발 -150~209미터, 레바논 산에서 찬 공기가 깔때기 같은 계곡을 따라 내려와 더운 공기를 만나면 큰 폭풍이 일어남. 그들이 위험에 빠짐,

24절: 주님을 깨우니 주님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고요하게 됨

25절: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4-21절의 듣는 것과 마음, 그 결과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부족함 믿음의 부족: 공생애 시작, 눅4장: 부정한 마귀의 영 내쫓음(36),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꾸짖음(39), 병자들을 고치심(40), 마귀들을 꾸짖으사 내쫓으심(41), 눅5장: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 주심(1-11),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심(12-15), 마비병 환자를 고치고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심(17-26), 눅6장: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침(6-12), 눅7장: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침(1-10),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림(11-16)

구원받고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아직도 제자들 자신이 체험한 것은 없었다.

폭풍우 사건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직접 일어난 사건, 이때에 성도의 믿음이 드러난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어려움이 생겨야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이 드러난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시니 그것들이 단숨에 그분께 순종함

제자들이 의아히 여긴 이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의 목수, 십자가에 죽은 우리의 구원자로, 희생양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서로 다른 인격체(지정의) 권능과 영광 등 본질에서 동등함
 인류의 구속을 위해 초림 시 사람을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셨다가 재림 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동안에만 직무 면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름
 그러나 1000년 왕국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직무상의 이런 우열 관계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 세상의 창조자시요, 주인이시므로 종은 주인의 말에 따른다.
 시148편: 예수님은 천사들을 포함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다(요1:1-3).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 몸의 부활을 이루실 수 있다.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수 있다(휴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폭풍이 와도 이길 수 있다.

롬5:1-6

인생의 폭풍

불신자의 경우도 살펴보면 성공한 사람들 모두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시련을 겪었다: 여름에 '이병철 자서전'
 가난, 슬픔, 비통함, 배신, 노력해도 안 돼서 죽고 싶은 마음, 부부 갈등, 부모자식 갈등, 교회 갈등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변영 신학, 만사형통 신학과 정면충돌

바울의 경험(고후1:8-10)

제자들의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신다: '우리의 본보기'

그 이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므로 평안하다.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 지금까지 무엇을 보았느냐?

구약 시대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수 하나를 제어하지 못한단 말인가?

내 인생의 폭풍

반공 포로로 풀려난 무일푼의 아버지, 조실부모하여 역시 무일푼의 어머니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폭풍: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가난과 싸우며 살았다.

1976년 고2 봄에는 어머니가 화상을 당해 거의 돌아가실 뻔함

1982년 유학 갈 무렵에는 아버지가 만성 신부전으로 거의 돌아가실 뻔함

석사 과정 중에 실험이 되지 않아 고민함

박사 과정을 위해 미국 비자가 필요한데 받을 수 없어서 캘거리로 이주, 영하 30-40도

차도 없이 사는데 첫 아이 1달 조산함, 아내가 그 추운 거리를 걸어서 병원에 다님

돈이 없어서 생후 3주된 아이를 데리고 야반도주, 미국행 비행기

1988년 박사를 마치고 수백 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취직이 안 됨

한국에 들어와서 다닐 교회가 없어서 10여 년을 고생함

2001년 9월부터 목사가 되어 교회를 시작했다가 1년 반 이후 망함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아내와의 갈등이 최고조, 화병이 생겨 죽을 지경

몇 년간 수고하여 2000년 8월 흥정역 성경 초판을 출간하였으나 판매 부진

그 이후로 지금까지 4번 더 교정하여 2011년 400주년 판까지 냄, 목사들/선교사들의 반란

새롭게 사랑침례교회를 하는 동안 400주년 성경을 내 이후 불면증의 엄습(6개월 동안 치료)

2년 전에는 에스더 차가 눈길에서 미끄러져서 전복되는 사고

이런 고통,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특히 한국에 와서 교회와 성경 사역 하는 동안 많은 배신과 모욕 그리고 중상모략을 당했다.

그런데 돌아켜보면 이것이 나를 성장하게 한 원동력: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주님이 함께계셨다.

결론

인생에 폭풍이 온다. 오지 않으면 좋지만 오게 되어 있다. 오면 이길 힘을 주신다(롬8:28)

성도는 바른 정신의 소유자다(24)

성경말씀: 눅8:26-39

주님의 생애의 여러 사건: 복된 소식을 선포하시며 메시아로서 여러 기적을 베푸신다.

지난 주: 주님과 함께 있어도 폭풍이 온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자. 믿음은 곰곰이 생각한 뒤
전적으로 베풀는 것,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 자연계의 폭풍과 파도도 주님의 말에 순종한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 우리의 생사화복, 과거, 현재, 미래를 손에 쥐신 분, 이 예수님을 아는가?

배경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뒤 다음날 아침에 가다라 지방에 도착함(26)
가다라: 데가볼리(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 순수한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 섞여 삶. 게르게스는 호수 근처의 도시(마8:28)

여기서 주님은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신다: 역시 3복음서에 기록된 중요 사건, 마귀론의 모든 것
자연의 폭풍을 다스리신 뒤에 이제 한 사람에게 닥친 인생의 폭풍을 다스리신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귀 들린 사람이 2명이다. 마가와 누가는 이 중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 초점

마귀와 마귀들

마귀의 존재: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너무 빠지는 사람도 있다.

성경은 죽은 조상들의 혼인 귀신은 없다고 말하나(샤머니즘) 악한 영인 마귀들은 있다고 말한다.

사14, 겔28, 계12 종합, 우주의 창조 이전 어느 시점, 사탄과 천사들의 삼분의 일 타락

마귀들: 타락한 천사, 부정함 영, 더러운 영

마귀와 그의 천사들(마25:41);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영존하는 지옥 불을 예비하심

마귀와 마귀들이 있다. 마귀들: 사탄 마귀의 부하들 혹은 닮은 자들

하나님의 계획, 갖가지 지혜, 우주와 사람 창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인 마귀들은 사람을 멸하려 함

주님과의 만남 및 마귀 들린 자의 특성

주님은 마귀 들린 이 사람을 구원하러 배를 타고 오시며 폭풍우까지 감내하심, 오직 이 사람을 위해(40절)

마귀 들린 자를 만남(27): 이 사람은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26-27). 일단 마귀 들리면 영과 육이 더러워진다.

1. 옷을 벗는다. 정신을 차리면 옷을 입는다(35절). 창세기의 옷
2. 무덤에 산다. 죽기도 전에 이미 사망 속에서 산다. 뱀파이어, 드라큘라, 엑소시스트 추구하지
말라, 할로우데이(10월 31일): 마귀들의 축제, 사망을 사랑하지 말라(잠8:36).
3.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몸에 상처를 내고 비참한 생활을 한다(막5:5).

왕상18:25의 바알 숭배자들, 몸을 베고 소리를 지르며 날뛰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공포와
위협

(4) 마귀 들리면 초자연적인 힘 행사(29절), 표적과 기적, 초자연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문제가 생긴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니다(고후11:14-15): 고도의 전술, 교황, 목사, 신부 등을
통한 종교 통합,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부인.

마귀가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

마귀는 교만의 결과 타락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음

사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형상, 성품과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그리하는 것을 싫어한다.

마귀 들림/영향의 가장 큰 현상: 병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 짐승같이 됨(바른 생각 No!)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존귀함)을 제거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다 죄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해야 한다.

마귀들은 교리에 관한 한 근본주의자들이다(28): 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 안다

1. 마귀들도 믿음이 있다(약2:19).
2.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명령하면 쫓겨남과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다(29).

그 심판의 장소는 깊음이며 고통의 장소(눅8:31): 31절의 깊음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다.
여기의 '아부소스'는 마귀들이 심판을 기다리며 고통을 받는 곳이다.

3. 또한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다(31).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불신자인 자들
예수님의 질문(30): 네 이름이 무엇이냐? 로마의 군단 6,000명, 120명의 기병, 여러 기술자, 큰 무리
정확히 6000명의 마귀들이 들어갔는지는 모른다. 다만 많은 마귀들. 2000마리 돼지 떼
마귀들이 돼지 떼에 들어감(33), 깜짝 놀란 돼지들이 떼를 지어 호수로 내리달아 하나씩 물에 빠져 죽음,
마귀들은 깊음 속에 갇힘, 돼지 치던 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도시에 알림(34)
도시 사람들이 와서 보니 마귀 들린 자가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음(35)
그 결과: 올바른 정신(딤후1:2, 잠9:10-11): 구원받으면 진리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
고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신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올바르다. 진리와 오류를 구분한다.
거짓을 미워한다. 교만을 피하려 한다. 교회에서 섬기려 한다. 진리 추구(개역성경 오류, 베레아
사람들), 기독교의 핵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하고 행한다.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면 반드시 사람들이 둘로 나뉜다.

1.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37): 부흥 No!, 기쁨 No, 오히려 주님이 떠나기만을 구함(37)
 - a. 무언가 변화를 보았지만 본인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예감하고 떠나실 것을 요청함: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손실, 2,000마리 돼지 손실, 더 큰일이 날지도 모름
 - b. 부흥이 오면 더러운 것들이 떠나야 한다. 정말로 우리는 그런 부흥을 원하는가?
 - c. 우리 주님은 마귀 들린 이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김, 2,000마리 돼지보다 중하다.
 - d. 마귀 들린 사람의 회복은 많은 재물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짐. 오늘 중국 선교
 - e.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다.
2. 변화가 되어 제자가 되는 사람(38)
 - a.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열망(38): 공통적인 현상, 변화산의 3제자, 요20의 막달라 마리아
 - b. 저 장미꽃 위의 이슬(499장), c. 주님의 명령: 가서 증언하라(39).
 - d. 증언의 내용: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큰일을 행하셨는가? 주께서(막5:19)
 - e. 증언의 순서(행1:8):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 f. 이 사람의 증언 실행: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함(39):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주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g. 이 증언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막5:20)

결론

지난 주: 자연계에 대한 주님의 능력, 오늘: 마귀와 마귀들과 병에 대한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마귀의 일을 멸하고(요일3:8)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해 주심

그 결과 마귀 들린 사람에게는 바른 정신이 생겨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통과 교제,
죄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 받으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다.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 악한 말, 부정직한 행위, 성 문제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가능하다(고전6:9-11).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에서도 우리를 구출할 수 있다: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두 부류의 사람들: 가다라 사람들 혹은 마귀 들린 사람

우리는 어떤 부류인가? “주님께서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셨는지 알고 전할 수 있는가?”

1.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2.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미약한 믿음도 예수님이 받으신다(30)

성경말씀: 눅8:40-56

주님의 생애의 여러 사건: 복된 소식을 선포하신다. 사람을 살리신다. 병, 마귀, 죄
지난 주: 주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배타고 서쪽의 게르게스(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가심, 군대 마귀 들린 사람: 더럽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짐승처럼 산다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의 형상 파괴, 예수님의 말씀에 마귀들이 돼지 떼로 들어가 역사함.
그러자 그가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섬김. 같이 있고 싶어 함. 결국 돌아가 소식 전파
그리스도인의 특징: 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생각함, 그래야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

배경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니 사람들이 환영함(40). 학수고대, 인파 속에 어린 딸로 인해 고통당하는 남자와
병으로 기진맥진한 여자가 있다. 돌아오자마자 이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신다(눅4:18).
남자의 이름은 아이로, 여자는 모른다. 남자는 부자, 양반, 여자는 의사들에게 돈을 다 쓰고 가난함.
아무 소망도 없음, 남자는 자기 딸을 위해, 여자는 자기를 위해
여자아이는 12살, 아이로에게 큰 기쁨,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 말 그대로 피땀하기 그지없다.
믿음이 다 미약하다. <미약한 믿음도 예수님이 받으신다>

혈루증 여인

여자의 문제: 12년 동안 혈루증, 재산 허비(43), 유대인들의 의식법 규례에 따라 부정함(레15:19-22).
종교 행사 및 교제 불가능, 심히 곤고하고 낙심이 되어 죽을 지경, 주님께 와서 필요를 채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들었다. 이분은 고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함, 거의 미신적인 믿음(44; 마9:21).

그런데 종교적으로 부정함 여인, 사람들에게 갈 수 없음. 그래서 몰래 다가감.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도 수용해 주심: 얼마나 딱하면 이렇게라도 고침을 받으려 하는가?
교리가 부정확함, 더러움, 멸시 천대, 가난함, “예수님만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소망이 없어 낙담한 가운데 필사적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수용하심.
우리 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 교회 간증 시간에 보면 성경적 교리와는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분도 더러 있다(은사 체험 등).
그래도 나는 이해하려고 한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한 가지만 확실하면 된다. “내 죄 병, 내 영혼의 병, 내 몸의 병을 예수님만 완전히 고칠 수 있다.”
구원 이후에 자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킹제임스, 삼위일체,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환난 전 휴거 No!
구원 이후에 자란다(벧전2:2).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그러므로 새 성도, 새 신자 모두 참아주고 기다려야 한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한다. 성경 공부, 교제, 섬김 등, 새 사람들도 성장할 의무가 있다.
우리 주님의 반응: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45), 제자들의 반응(45), 주님의 말씀(46)
주님이 정말로 모르셨을까? 그러면 하나님 아니다. 혹시 이것은 여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을까? No!
다만 주님은 그 여인이 자기의 믿음을 표출하기를 원하셨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셨다.

여인의 반응(47), 주님의 말씀(48)

공개적인 고백의 결과: 이 여인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평안의 메시지를 받음
무리와 여인 비교: 말 그대로 벌떼처럼 밀려드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한다.
아니 그분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연약함의 감정을 가지고 손을 댈다.
히4:15, 직역하면,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여인처럼 그분께
손을 대야 한다. 우리 믿음이 미약해도 손을 대면 그분께서 수용하신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처럼 인생이 힘들고 답답할 때 주님께 가야 한다. 아이들, 젊은이들

아이로

지금 아이가 거의 다 죽어감. 예수님을 직접 초빙함(41). 그런데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나 귀중한 시간을 빼앗음. 속이 타는 데 다행히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음

회당의 치리자: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회당 등장, 공예배, 기도, 성경 낭독, 설교, 회당 관리 등 회당에는 장로들이 있었다. 그는 보통 공부도 많이 하고 재물도 있었다.

베드로의 집(장모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던 것으로 보임,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으나 예수님을 배척함, 예수님의 저주(마11:23), 소돔과 비교, 아마 아이로가 이런 일을 주종했을지도 모른다.

유대교의 수장이 지금 몸을 굽혀 예수님께 딸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 그러나 자기 딸의 죽음 앞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갈릴리 목수에게 와서 머리 숙여 간청한다. 놀라운 자체 재산, 지식, 명예, 권세 등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의 구원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아이로는 지금 마지막 끈나풀을 잡으면서 혹시 예수님이 생명의 창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간청함 이 사람의 믿음도 매우 미약하였다. 많은 분들이 병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 미약한 믿음

주님의 수용: “오직 주님만 살릴 수,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이 미약한 믿음을 수용해 주신다.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여인이 나타나 시간을 잡아먹고 결국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음(49).

그의 친척들과 친지들의 생각: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50): 1. 두려워하지 말라. 2. 믿기만 하라, 3. 네 딸이 낫는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갈 바를 모를 때,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담대한 심정으로 주님께 가야 한다. “주여, 주님만 믿습니다”, “제 생명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예수님만 믿고 집에 갔는데 사정이 좋지 않음: 유대인들의 장례는 가능하면 하루에 끝내야 함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 고용(52),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이들은 더더욱 믿지 않고 비웃음(53).

그 이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모른다(요11:25-26). I am that I am(출3:14).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 1차원적인 사고, “예수도 사람이다”, 생사화복의 주님 우리 주님은 그 아이의 영이 떠난 것을 잔다고 하신다. 성도의 죽음은 잠에 지나지 않는다.

몸이 잠을 잔다. 혼과 영은 떠나서 움직인다. 하나님께 대해 모두 살아 있다(아브라함, 이삭 등). 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하나의 평범한 일이다. 잠의 필요성

어느 면에서 매일 부활 연습, 100세까지 살아야 36,500번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몸이 다시 일어나 영혼육이 결합된다.

더 좋은 것은 죽지 않고 아예 휴거되는 것이다.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꿈(막5:41; 욥바, 행9:40의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안 일어나는가? 나사로의 경우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도 벌떡 일어난다. 주님은 누구인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계1:17-18)

곧바로 소녀에게 영이 돌아오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먹는다.

부활은 영적 죽음에서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다: 나인 성 과부의 아들(눅7), 아이로의 딸, 나사로(요11), 1. 죽은 자들이 다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 2. 일어나면 말하고 걷고 무언가를 좋아하고 야단법석이다. 즉 숨기려야 숨길 수 없다. 나무로 말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결론

예수님의 삶에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 매우 바쁘게 하실 일을 하신다.

모든 것이 빈틈없이 이루어진다. 섭리: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영어 Providence Pro, video, 미리 본다. 하나님이 가다라 지방의 마귀 들린 자, 아이로, 그의 딸, 혈루증 여인 미리 보시고 예비하신다. 우리 성도들의 삶, 믿음의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이 수용하시고 섭리로 인도하신다. 롬8:28

찬송가 363장

1.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면 근심에 싸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2. 내 모든 괴롬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은 사랑 베푸시네
3. 내 짐이 점점 무거워 질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4.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복음 선포의 핵심과 효과(31)

성경말씀: 눅9:1-9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편에서는 만물의 질서 회복, 사람 편에서는 영원한 생명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원하지 않음에도 죄를 짓고 불안해하고 슬퍼한다(성도도).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사망에서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기독교'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 이것에 따라 구원, 교회가 결정된다(요17:2).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셨다. 하늘의 왕국 선포(마태복음)

동시에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왕국 선포: 롬15:8-9

예수님 사역의 요약(눅4:18-19), 이것은 한 마디로 '왕국의 도래'라고 한다.

왕국: 왕, 국민, 영토,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있어야 한다.

성경의 왕국 개념은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주권, 통치(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예언: 여자의 씨(창)로 온 인류 회복, 대언서의 메시아로 유대인 회복(갈4:4-5)

신구약 통합(히9:15), 신약과 구약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왕국(하나님의 통치)을 가져오심

이 일을 위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4-8장까지 왕국 복음을 선포하심: 제자의 조건(인격) 설명(공홀, 좋은 마음, 열매), 죽은 자, 병든 자, 마귀, 종교인의 특성 등 자세히 보여 주심

공생애 시작 후 약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할 시점 9:22처럼 자신의 죽음을 예언함, 제자들에게 왕국 복음 선포를 실제로 행하게 하심

기적과 표적

1절: 유대인들의 지상 왕국 사역을 위해서는 권능과 권위가 필요하다: 기적과 표적

권능(power)은 말 그대로 에너지 힘,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아이 때에는 장난감 자동차 리모컨, TV 리모컨, 20세 쯤 돼서 자동차 운전: 권능과 권위

그런데 이런 권능과 권위는 제자들이 받은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모든 마귀 제압, 질병들 고침, 심지어 이들 중 베드로는 죽게도 하고(행5) 죽은 자도 살림(행8).

행5:15-16, 이것은 사도의 표적(고후12:12)

몇 가지 중요한 것: (1) 이 모든 기적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사도들 자신의 것이 아니다. (2) 목적: 막16:20, 히2:3-4, (3) 중단: 이러한 표적 선물은 사라진다(고후12; 딤후5:23; 딤후4:20).

AD 70년경 이스라엘 멸망, 90년경에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런 표적들이 사라졌다.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다. 방언, 대언, 병 고침의 선물, 사도, 대언자 No! (히13:8), 영원토록 동일

지난 6000년 동안 인류 역사: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던 때는 매우 한정적이다. (1) 모세 시대(40년),

(2)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100년), (3)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40년), 약 200년을 제외하면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은 섭리로 역사하심, (4)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시대의 특징: 모두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다: 구약은 율법과 대언자,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됨, 신약은 예수님과 사도들

(5)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시기에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기적들이 주어짐

(6)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3년 반, AD 30년경, 그 후 40년 이후에 예루살렘 황폐화

(7) 바로 이 시점부터 기적이 등장하지 않음, 성경이 완성됨, 성경의 요약(고전1:22)

(8) 성경에 예언된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 재림 바로 전에 적그리스도가 행함(살후2:8-10; 계13)

(9) 또한 이스라엘과 관련된 7년 환난기에 두 증인의 기적, 적그리스도와 다른 짐승의 기적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가? 행하실 수 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왕국의 도래와 관련된 표적이 아니다.

여인이 자궁을 들어냈다: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 있다. 그러나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이렇게 일하지 않음

현 시대의 오순절 은사운동, 신사도 운동, 헤븐리 터치 등의 모두 마귀의 일이다.

지금은 말씀 선포를 통해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 권능을 주신다. 이 일도 주님이 근원

하나님의 왕국 선포

그들이 한 일 요약: 하나님의 왕국 선포(2), 마6:10,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막1:1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막1:14-15

그 당시에 왕국은 가까이 이르렀고 이미 그들에게 임하였다.

눅11:18-20, 17:20-21

하나님의 왕국의 의미: 아담의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두는 것
롬8:19-24, 창조 세상도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린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히고 통치가 이 땅에서 완벽히 이루어지고(하늘의 왕국)

1000년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뜻만 선다(계21:4-5).

인류에게는 6-7000년의 오랜 시간, 하나님께는 6-7일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왕국 선포, 인류 구원

육신의 필요

여행을 간다: 이들은 전적으로 전임 사역, 모두가 이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부르심: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직업 갖고 가정 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고전7:17)

전임 사역 등을 위해 지팡이, 짐 보따리, 빵, 돈, 옷, 집이 필요하다.

지금도 복음 선포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교회 사역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도
주님의 말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3). 내가 다 책임진다.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마6:31-33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선포하면 물질의 필요는 주님이 채워 주신다(미디어, 건물 등).

개개인이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

사도 바울도 두 손을 천막을 만들며 사역하였다(살후3:10, 12).

조심할 것: 4-5절, 이것은 유대인들의 풍습,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는다고 저주하면 안 됨

그 시대 제자들의 상황 이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런 것 이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왕국 선포의 핵심과 효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자(6) 놀라운 일이 생겨났다.

헤롯의 말(7-8): 복음을 가장 크게 부정하고 침례자 요한을 죽인 하나님의 대적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갈릴리 저 지역 사람들이 내린 결론: 과거에 기적들을 일으키던 대언자들의
시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대언자가 부활했다

이들도 이런 일은 오직 그런 시대에만 가능했음을 인정함

그 결과 헤롯의 고백: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과거의 기적들보다 더 큰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
나도 보고 싶다.

복음 선포의 핵심: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가야 한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단번 속죄, 죄들의 용서, 부활과
휴거, 만물의 회복,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 공동 상속자, 마귀 멸절?”

베드로, 바울, 야고보, 디모데, 스펠전, 로이드존스

사랑침례교회, 킵바이블, 정동수 목사, 성도들 개개인 등이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그릇된 복음을 전한 것이다. 혹은 불완전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들은 뒤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반응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행8:5의 빌립, 35 예수님을
선포하였다. 9:20 바울도 예수님을 선포하였다.

이 예수님이 기독교와 성경의 핵심

우리의 복음/교회 사역: 사람 중심 No!, 하나님 중심 맞지만 여기서 더 나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도 중심, 행26:22-23, 고전2:2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32)

성경말씀: 눅9:10-17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중 가장 놀라운 일, 4복음서에 기록됨

오병이어 기적,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사역, 이후로 두로와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 유대 십자가

헤롯의 질문: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이 내게 들리느냐?”(9), 이에 대한 답변
벳새다(10)는 요르단 강 동쪽의 도시

원래 제자들의 왕국 복음 선포 후에 쉬려고 모임을 가짐(6, 10): 휴식은 사역에도 필요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외딴 곳까지 따라 나섬(약13km):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아주실 줄 안다.
제자들의 태도(12):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기보다 가게 함(눅18:15; 마15:23), 우리는 어떤가?
이들의 상태, 목자 없는 양들(막6:34), 지치고 굶주린 상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의 태도(11), 불쌍히 여기심(막6:34),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1. 받아들이고, 2. 하나님의 왕국, 3. 고치고, 4. 먹임
 - a.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신다(요3:16; 계22:17).
 - b. 진리: 하나님의 왕국 통치의 복음, 회개, 믿음, 인격의 변화(성화)
 - c. 고침: healing, 육신의 병, 영의 병, 병 고침을 주심
 - d. 먹임: 육신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채워 주신다(요10:10) <제목>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육신의 뜻에 따라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 출산, 100세에(이스마엘14세) 이삭 출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 사라의 축출 간청,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냄(창21)

1. 빵과 물 한 부대, 2. 물이 떨어짐, 하갈의 울음소리, 3. 하나님이 그녀의 울음소리와 이스마엘의
음성을 듣고 물을 주심(17)
3. 하갈에게도 창조자로서 불쌍히 여기시며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4. 모든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 이번 가을의 기근(백합, 새, 마6)
5. 심지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자 모인 이들의 육신의 필요를 왜 안 채워 주시겠는가?
자기를 잊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들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먹는 것도 다 잊었다. 말씀이 배 고품보다 더 중요하였다.
6. 우리 역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요6:68)

기적의 현장

빌립에게 먼저 물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요6:6),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남자만 5,000명(14), 적어도 10,000명, 200테나리온 어치(천에서 이천만원)

“음식을 사든지 보내야 한다”(13) “너희가 주어라.”(13)

안드레가 한 소년의 오병 이어(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요6:8-9), 순천 형제,

일은 많은데 자원이 부족한 경우: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우리 교회 건물 등
보잘 것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심: 초대 교회(12명, 120명, 세상 변화), 우리 교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일을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오십 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심(14-15)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은 질서 있게 일어난다. 제대로 정돈된 삶을 사는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질서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함

구원받은 자들: 질서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성화의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 기도하시고 빵을 떼자(부수자) 기적이 일어남(16)

1.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 기도: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이것을 인정해야
함, 개인이든 교회든 부흥이 일어나면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부흥은 곧 사라진다.

2. 주님의 손에 들린 빵이 쪼개지며 부서지자 기적이 일어남(16): 떼다(Break)

한 소년의 희생,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쪼개지자, 부서지자 10,000명을 먹이는 기적
눅7장에서 옥합을 들고 오는 여인,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를 발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함
그런데 이렇게 깨어지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 동반함

3. 틴테일(AD 1494-1536)의 성경 번역: KJV의 70-80%

“성경이란 필요 없소.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오.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소.”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오.”

독일, 벨기에 등을 떠돌아다니며 성경 번역, “평생토록 어떻게 바르게 번역할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결코 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의 단 한 음절도 바꾸지 않았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즉 명예와 쾌락과 재산을 내게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화형대에서 불타 죽음, 이런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가능하다.

4. 우리 예수님도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고전11:23-24, 너희를 위하여 찢긴, 부서진 내 몸이다. 흘린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
히브리서 12:2,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떨치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런 부서지는 희생 위에 이 교회가 창립되었고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희생으로 여기까
지 교회가 왔다. 바로 이런 교회와 성도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요 성도이다.

우리는 어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수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있는가?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욕망을 부수어야 주님의 일이 나타난다(골3:2).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개인과 교회에 부흥의 기적이 일어난다.

5. 예수님이 직접 주시지 않았다: 소년과 제자들을 통해 하셨다(16-17)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과 사람이 할 부분이 있다(고전3:9).

12명의 제자들, 빵 반 조각, 물고기 육분의 1, 한 사람이 500여 명을 먹였다.

한 사람이 먹기에도 모자라는 양,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었다(17).

그리고 빵 조각을 12 바구니에 가득 채웠다.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남도 도울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부흥에는 이런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일해야 한다.

이런 부흥과 기적을 원하는가? 남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며 나서야 한다.

요약

1. 공허, 2. 문제는 기회다, 3. 우리의 것을 내놓고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신다.
4. 육신의 필요도 채워 주신다. 5. 나누어 주는 데도 질서가 있다. 6. 좋은 선물은 하늘에서 온다.
7. 주님의 축복으로 작은 것이 크게 된다. 8. 주님이 함께 하면 배부르게 된다. 심지어 12바구니

기적의 의미

1. 이 기적의 의미: 긍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헤롯을 향한 대답
2. 그 다음 날 유명한 생명의 빵 설교(요6), “너희가 빵을 받은 것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받아야 한다.”
3.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신의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함(요6:14-15).
4. 성경에는 초림과 재림이 있다. 재림의 일들을 초림의 일들로 취하면 안 된다.
5. 우리 주님께서서는 재림 전에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실 것이다(계12:14): 예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33)

성경말씀: 눅9:18-26

3년 반 공생애, 3년간 갈릴리 사역 마감, 헤롯의 질문, 이 사람이 누구냐?(9:9)

오병이어 기적,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 주시는 창조자
가이사라 빌립보, 유대로 가는 길, 제자들에게 자신을 정확히 알려야 함

예수님의 질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저에 대해 무어라 이야기합니까?” 물으면 교만한 일
그러나 주님이 누구시냐고 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요5:39; 17:3)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천국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다(19). 침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모른다.

지금도 마찬가지: 4대 성인, 가장 훌륭한 사람, 대언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의견이 아니라 확신을 고백해야 한다.

지금 주님은 이런 고백이 있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다(18). 그리고 베드로의 확신 고백이 나온다.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

오병이어 기적 이후 베드로는 요6:68-69에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확신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심(마16:18)

우리로 정해야 한다: 예수님에 대한 판단: 희대의 사기꾼(수십억을 속임), 아니면 그리스도
이분을 정확히 알아야 인생의 목표가 결정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 대언자, 왕(즉 하나님의 특별 선택)

예수 그리스도는 3중 직무 수행자

1. 계시의 진보: 타락 이후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구약성경의 핵심 특히 아브라함 이후로, 다윗 이후로, 하나님의 왕국 설립, 왕이신 그리스도(눅1:31-33)
예수님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자가 아니다!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의 예언의 핵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며 자기들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퍼지는 세상 기대(사2:1-5)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성육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심,
메시아 왕국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것이 확실해야 한다. 이것에 의해 기독교가 서고 쓰러진다.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관 신고, 우리도 해야 한다.

때가 이르지 않음(21)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알리지 말라고 하심(21)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자,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자, 빵 문제 해결자
이런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임이 알려지면 큰 문제, 때의 문제

그리고는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심(22). 메시아는 죽었다가 부활해야 함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만희, 안상홍, 문선명, 스미스, 모하메드 No, 마귀의 적그리스도 No!

메시아의 희생과 죽음 예고(22)

침례자 요한, 하나님의 어린양(요1:29), 어린양은 반드시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한다.

“성전을 헐라, 사흘 dks에 다시 세우리라”(요2:19, 21), 멸절되어야 한다.

대언자 요나의 표적(마12:38-40), 죽어서 세 밤과 세 낮 땅의 중심부, 부활

메시아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다(22).

아직 제자들의 이해가 둔하여 깨닫지 못함, 또 하나님은 숨기심
지금의 우리와 달리 그들은 부활 이후에야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이해하였다.

메시아와 십자가 그리고 사명

이 말씀 뒤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신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이다. 즉 구원받은 뒤 우리는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런가?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이루셨기에.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왕관을 약속한다.

그 당시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 아니다. 수치와 모욕과 거부의 상징,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십자가 목걸이는 상상도 못한다. 가장 치욕적인 죽음 형틀
십자가는 무엇인가? 괴롭히는 남편, 자식, 상사, 병 No!,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멸시
진리를 이야기하면 대개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거부를 당한다. 소수만 좋아함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교만, 세우려는 것, 명예, 권세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윤리, 사랑, 섬김, 희생으로
나, 가정, 교회, 사회

바울의 고백(고전2:2).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만 알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분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롬12:1-2).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내 것이라도 유익이 없다(25).

눅16의 부자,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지옥에 가면 허사, 영원의 시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살아야 한다(26).

주님의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부인하신다.

1.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요14:6), 2. 지옥 불의 심판(막9:42-49; 마10:28), 3. 성경 보존(마24:35)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의 핵심: 고난 다음에 영광이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가? 시간, 성경, 애통, 섬김, 희생

요즘 곳곳에 지역 교회 움직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도와야 한다.

결론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고난 다음에 영광, 왕국

그리스도의 영광(34)

성경말씀: 눅9:27-42

3년 반 공생애, 3년간 갈릴리 사역 마감, 헤롯의 질문, “이 사람이 누구냐?”(9:9), 오병이어 기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메시아 왕, 제사장, 대언자, 구약성경의 핵심, 왕국, 왕국을 가져오시고 통치하실 분 메시아는 초림과 재림, 그런데 초림 때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고난 다음 영광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다음 질문

아직도 제자들은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 모른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그분의 영광은 무엇인가? 기적, 표적, 병자, 마귀 들린 자, 죽은 자,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의 일부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영광(glory 402, 총 538),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일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리고 천국 등과 관련되어 사용된 아주 중요한 단어.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 이와 연관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 A. 구약에서 하나님은 시내 산을 덮는 구름, 이스라엘의 성막 위에 머문 구름 등에 의해 친히 자신의 임재를 보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셨는데(출24:16; 40:35) 그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긍휼을 계시하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는 다만 자신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셨으며(출33:17-23) 이런 영광을 접할 때 사람은 그 영광의 광채에 감탄하고(시 111:2-3) 스스로의 죄를 통회하며(수7:19)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시29:1-2, 66:2).
- B.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요1:14)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본체의 형상이시다(히1:3).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롬6:4) 그분의 승천도 그러하며(행1:9) 십자가 역시 죄에 대한 그분의 승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요 12:23).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구속의 사역 속에 빛나게 드러났다(요 1:14; 고후4:6; 히1:3).
- C.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눅24:26; 히2:10)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현재의 고난도 기쁘게 받는다(롬8:17).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고전6:20; 뱀전2:9).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그분의 전지하심 속에서 진리를 고백하라는 것이다(수7:19; 요9:24).
- D. 마6:13,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가장 큰 영광

구약의 영광

보통 쉼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의 영광, 이스라엘의 시작

1. 구름 기둥, 불기둥(출13:21)
2. 모세와 하나님의 영광(출33-34), “주의 영광을 보여 주소서”(33:19-23)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남(34:29-35)
3. 성막의 영광(40:34-35), 주의 영광
4. 성전의 영광(왕상8:10-11), 주의 영광
5. 영광이 떠남(겔11:23), BC 560년경

이렇게 이스라엘을 떠난 영광이 이제는 직접 이스라엘을 방문하신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6. 눅2:8-9,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7. 공생애, 마귀 들린 자, 부활, 병자, 오병이어, 아직 불충분, 드디어 그리스도임을 확증함

그리스도의 영광(28-36)

믿음 고백 후 약 1주일 뒤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보여 주심(27) 공생애 사역에서 우리 주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단 한 번 보여 주심.

이때 예수님은 더 이상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얼굴이 변하고 옷이 희게 되어 빛남(29)

즉 계시록 19장, 올리브 산 강림, 왕들의 왕, 주들의 주(16), 빛 그 자체
제자들의 혼동, “십자가와 왕국은 어떤 관계인가?” “왕국을 이룰 분이 왜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히1:1). 대언자들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30)
구약 성경의 핵심: 창조, 사람, 타락,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 맞는다.

그런데 이것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왕국이다. 왕국을 이루려면 왕이 있어야 한다.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말4, 주의 날, 4절의 모세, 5절의 엘리야,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이들은 지금 가장 큰 성경 회의/공부: 특별 주제

구약 메시아 예언의 두 줄기: 고난당하는 메시아(사53), 영광받는 메시아(시2, 슥14)
예수님은 이 둘을 다 성취하신다(마5:17). “내가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성취는 초림에는 고난받는 메시아, 재림에는 영광의 메시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별세 즉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함(31)
별세 즉 죽는 것의 원래 의미는 떠나는 것, 탈출하는 것

모세의 이집트 탈출, 엘리야의 이방신들 탈출, 예수님의 죄와 사망과 이 세상 탈출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3명은 잠을 자고 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눅22)

우리는 어떤가? 무언가 중요한 것이 선포되면 정신을 차리고 듣고 행해야 한다.

베드로는 깨자마자 제안 시작: “장막 셋을 지을 테니 거기 거하시라(33).

유대인들의 일곱 명절 중 장막절: 미래에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 심지어 이방인도 지켜야 할 명절
베드로의 말의 의미: “메시아의 영광이 종사오니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그 영광에만 참여하자.

우리가 3분을 섬기겠다.” 가끔은 선한 사람들의 좋은 제안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주의의 말씀을 주심(34-35).

빛나는 구름(마17:5)이 다시 나타남, 구름 기둥, 모세가 본 영광, 성막, 성전의 그 영광

그런데 지금은 그 구름이 아니라 영광 그 자체가 그들 곁에 서 있다. 바로 예수님
구름은 많은 경우 영광을 가리킨다: 주님의 승천(행1), 주님의 휴거(살전4:17-18)

하나님의 말씀

그는 내 아들이다. 즉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히1:1-2).

유일한 구원자(요14:6)

안식을 주는 자(마11:28-30)

이 모든 것의 끝에는 주님만 홀로 남음(36). 이분이 영광이므로

베드로의 증언(벧후2:16-19)

경험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계1:17)

바로 이분이 곧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 참 하나님, 성육신, 참 사람, 인류 구속, 마귀 멸절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이분을 확실히 아는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니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고후4:16-18,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변화산 사건의 핵심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별세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1. 베드로의 믿음 고백이 옳다는 것 증명, 하나님의 아들=하나님, 그리스도
2.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격려: 침례(눅3:22), 지금, 십자가 사건 바로 전(요12:23-28)
3.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있음 증명

이사야 42:8, 43:7, 48:11, 66:18, 요1:14; 11:4와 40; 17:5, 22, 24 등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35)

성경말씀: 눅13:1-9

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흘러간다.

여러분의 2015년 평가는 어떤가? 지난해보다 나은가? 경제, 가정생활, 사회생활, 영적 생활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이다. 모든 것이 좋아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없으면 영원히 패배자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눅9장 이후는 갈릴리 사역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3년 동안 메시아, 하나님의 왕국, 제자의 삶과 인격 등을 선포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함 우리는 어떤가? 1년 동안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전달, 변했는가, 변하고 있는가?

킹제임스 성경 사용, 영혼의 자유 교회, 신약 교회를 다녀도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변화되기 원하는가? 변화하려면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살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사람들의 질문

눅13:1-9절은 주님께서 유대로 가기 전 갈릴리의 어느 도시에서 생긴 일

유대인들의 고정 관념, 현실 종교=기복 신앙, 일이 잘되면 하나님의 축복, 안 되면 하나님의 저주 주님의 말씀: 이생에서의 행복과 불행이 영원과는 상관없다. 신약시대의 복은 하늘의 복이다.

13:1의 사건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 하나에 성전에서 일어난 것 같다. 이때에만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도 희생물을 드릴 수 있음, 유월절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리 출신 순례자들의 죽음, 빌라도는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려는 것을 판단하고 죽임

그러므로 이렇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극심한 죄인이 아니었겠느냐?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려 함 예수님의 대답(2-3),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눅5의 나병 환자, 마비병 환자처럼 어떤 경우는 죄로 인해 병이 생긴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내 죄 때문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인간이기에 누구나 겪는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유대에서의 사건(4-5) 제시, 위의 것은 인위적 사고, 다음은 자연 재해 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음, 더 나쁜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의 결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성경: 회개의 책

회개

회개에 대한 오해: 구원의 기초는 회개이고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흔들린다. 눈물을 펄펄 흘리고 이틀 삼일 새벽기도하고 철야기도하면서 소나무 붙잡고 씨름 하면서 흔들다가 뿌리째 나무를 하나 뽑아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회개는 감정보다는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머리의 용도

사영리, 영접 기도는 회개가 아니다. 구원시킨 사람 수 표시, 간증 등 No!

하나님의 구원 초청의 핵심이 회개이다(행17:30-31). 회개의 첫 단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 회개: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

1. 말씀을 듣는 중 성령님의 간섭에 의해 죄와 하나님에 대해,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으로 계획해오던 것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생겨 궁극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행동으로 입증되어 나타나는 것
2.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말로 고백하고 그분이 계신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
3.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것만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뀐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4. 죄를 지으면 좀 어떠냐고 생각하고 죄에 대해 아무 생각 없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안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해 생각이 바뀌어서 죄를 미워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5. 지금까지 마귀가 없다고 하고 지옥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모든 생각이

변화되어 마귀가 있어서 자기를 유혹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곳을 알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행동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것

6. 침례자 요한의 선포(마3:2):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주신 말씀, 회개하라.
7. 사도 바울이 평생 전한 것(행26:19-21; 20:19-21),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
8. 예수님의 선포(마4:17)
9. 우리가 해야 할 일(눅24:46-48), 회개가 있어야 죄들의 사면이 선포된다.
10. 복음이 말하는 회개 즉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행11:18)는 죄를 슬퍼하고 죄 지은 것을 미워하며 그것을 철저히 증오하면서 되돌아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들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뜻한다.
11.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나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들의 용서가 거저 주어진다(마4:17; 행3:19; 11:18; 20:21; 26:20).

회개의 증거: 열매

회개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 비유를 드신다(6-9). 여기서는 영원한 운명에 대한 것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특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무화과나무 주인: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의 좋은 땅에 무화과를 심고 잘 돌보았으니 마땅히 열매를 원한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다. 레19:23-25, 첫 세 해 부정함, 넷째 해 주님—“베어버리라.” 조건이 매우 좋다: 황무지가 아니라 포도원, 잘 돌봄, 영양분
우리의 상황: 킹제임스 성경, 구원, 성경 강해, 가정 강조, 거룩함, 영혼의 자유
마음은 은혜와 긍휼의 열매, 입술은 감사의 열매, 삶은 순종의 열매, 유용함, 섬김의 열매
판단하는 지혜의 열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심판: “베어버리라” 포도원지기의 말(8-9): 예수 그리스도, 놀랄 만한 이야기, 그들이 회개하도록 1년의 기회를 더 허락함 그 1년 동안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심(벧후3:9).

지난 몇 년 동안, 아니면 지금까지의 인생을 우리가 헛되이 보냈어도 예수님이 다시 한 해를 연장해 주신다. 그리고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신다.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데 더는 아니고 딱 1년이다. 2015년을 그대로 보냈으나 2016년에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영양분도 주고 가지도 쳐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고통도 주고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말씀의 순수한 젖(벧전2:2), 성령님의 신음 중보기도, 말씀 이해, 성도들의 권면 그 결과 갈5:22-23의 열매가 나와야 한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좋은 열매가 나와야 한다.

결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보다 일찍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멸망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다. 그 뒤에는 공의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히9:27).

회개는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삶이다. 치절한 투쟁이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단 한 번 돌아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

그리고 매일 매일 돌이키는 생활의 회개가 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 나, 가정, 교회, 사회

2015년의 평가가 좋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2016으로 나가자.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올바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36)

성경말씀: 눅11:1-13

새 해 첫 예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무슨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까? 특히 새 해 첫 예배 목사의 소명(딤후4:1-2),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오늘은 권면과 소망을 전달하고자 함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에 온 여러 사람들의 불평 혹은 불만: 기도가 약하다.

교회에 오면 일단 기도,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기도원 기도 양이 대단하다.

양을 채우지 못하면 안 된다는 소리에 방언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니 뿌듯함
기도에서 비는 내용: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기 자신의 필요가 90% 이상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사역, 여러 제자, 사도: 어떻게 설교, 구원 상담, No! 어떻게 기도(11)

그러므로 바르게 질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침례자 요한: 대언자, 순교자,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기록된 곳이 없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신뢰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궁금하였다.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 침례(눅3:21), 무리들이 몰려오자 기도(5:16), 열두 사도 선택 전(6:12), 제자들
의 믿음 고백 전 기도(9:18), 변화산 기도(9:29), 이 외에도 홀로 기도하심

모든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토픽: 기도, 여러 사례와 패턴

제자들의 궁금증: 침례자 요한보다 크신 예수님은 무어라 기도하실까? 우리도 그것이 궁금하다. 새해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기도했다면 우리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와 기도 응답

기도는 하나님께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며 필요를 알리는 것, 그런데 기도의 응답에는 패턴이
있다. 즉 양이 아니라 질이 좋아야 한다. 새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질에 대해 이야기하시고(2-4), 양(5-8), 응답의 내용(9-13) <올바른 기도와..>

1. 기도의 양식(2-4)

이것은 보통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다(마6:9-13),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가르쳐 주신 기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응답받을 수 있는 요점이 요약되어 있다.

성경의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

기도를 십자가로 생각하며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 먼저 수직적인 요소

1.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단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셔야 한다.

예수님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교리
이스라엘 전체의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 놀라운 계시(롬8:14-15)
나를 만든 분이셔야 한다. 내가 자녀여야 한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있다(요8:44).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기도 가능(롬8:16-17)

2. 기도의 목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2)

"지금 기도 요청, 이게 다 아버지의 이름, 통치, 뜻에 맞는 것입니다."

이름의 의미: 하나님의 전 인격, 그분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과 언행이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

왕국: 하나님의 통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재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경 대언의 확실함, 그것들의 성취 저는 그것을 굳건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의 왕국의 선포, 세상일도 이 왕국의 도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눅9:59-62, 왕국 선포, 머뭇거리면 실패

하나님의 뜻: 왕국,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요청이 이 셋에 위배가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장시간 기도해야 소용없다. 이 세시 맞아야 응답 가능
그러므로 기도를 잘하려면 성경을 잘 읽고 사심 없이 내 기도 요청이 합당한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 대다수 기도 요청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 그러면 기도가 짧아진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소리로 응답하지 않는다.
이미 성경과 목사와 믿음의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한국 사람들 기도의 다수: 뜻을 들으려고, 그런데 내면에서는 이미 자기 뜻 관철

3. 나의 필요 간구: 일용할 빵(3), 우리의 죄 용서(4), 우리 인도 악에서 구원(4)

일용할 빵: 직장, 공부, 배우자, 재정

영적인 빵(용서): 인간관계, 주님의 마음 긍휼과 은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가? 타인 용서

시험(고전10:13): 다윗 사건, 우리의 일을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우리의 기도 패턴은 어떤가?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런 패턴이 되어야 함을 보여 주신 것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수평적인 관계를 기도할 수 있음

2. 끈질긴 기도(5-8)

바른 방법으로 기도했다고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된다. 내 필요를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한다.

신정숙 자매님, 남편 혼수상태, 한 번 기도 No! 매일 매 시간 기도, 호전돼서 뿌리 병원
누구라도 위급 상황이면 기도할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 두 친구, 한 밤중에 친구가 찾아옴, 빵 세 개를 빌려 달라. 상대 친구는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 주지 않지만 귀찮게 졸라대므로 하는 수 없이 준다.

(1) 필요가 생기면 반드시 해야 한다. (2) 구체적으로 빵 세 덩이, (3) 받을 줄로 믿고 한다, (4)
결국 필요대로 다 받는다(8).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도 귀찮게 하면 들어주시겠지 새벽기도, 금요 기도, 기도원 기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친구도 친구가 귀찮게 할 때에 들어 주는 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 사실 그리 하지 않아도 들어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나 행동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다급하고 절실한 마음
수로보니게 여인(막7:24-30)

압복강의 야곱,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다급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밤새 싸워 이김(창32:22-32)

한나의 기도(삼상1:14-15), 느헤미야의 기도(느1:4): 민족의 번영

자기 민족을 향한 바울의 기도(롬9:1-3)

3. 구체적인 기도(9-13)와 기도의 응답

응답 받는 기도 방법(9-10): 구하고(무엇) 찾고(이유) 문을 두드리라(끈질기게).

A(ask)S(seek)K(knock), 계속해서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하늘 아버지의 심정: 세상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11-12)

세상 아버지는 원래 악한 존재 그래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김일성, 김정은이를 보라.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롬8:32) 성령을 주신다. (*) 성령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구약 시대,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충만을 주신다.

마7:11,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주시겠냐? 이름, 통치, 뜻에 합당한 모든 것들

수직적 관계 확실한가?

이름, 왕국, 뜻에 합당한가? 빌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질병, 공부, 직장, 재정, 상사 관계, 부부 관계, 성경 읽기(경건 서적), 전도의 문

킹제임스 성경, 미디어 선교, 교회 모임 장소 확장, 지역 교회들, 목사들, 신학원생들, 좋은 교사들
이슬람 비확장, 동성애, 종교통합,

정치 지도자, 북한 해방, 이런 모든 것에서 응답받는 한 해를 만들자.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37)

성경말씀: 눅12:49-59

목사의 책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리는 것(행20:27), 경륜, 구원, 심판, 축복, 권면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동성애, 도덕의 타락, 가정의 붕괴, 이슬람, 종교통합
구원받아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와 내주하신다.

그러면 생기는 현상이 있다: 영 분별(요일4:1), 옳고 그른 것,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 그러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생긴다. 성경을 조명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제자들의 믿음 고백,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심(눅9:51)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심

오늘은 주님께서 때를 분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려고 함

유대인들의 때 분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늘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는 날씨를 예측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소나기가 올 줄로 알았다(54). 지중해, 갈멜 산 엘리아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이 더울 줄로 예측했고 그리 되었다(55).

예수님의 책망(56):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면서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위선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인 것을 모르냐? 엄청난 아이러니
3년 동안 내가 무엇을 선포하였냐? 하나님의 왕국의 복된 소식, 메시아, 하나님의 긍휼, 회개, 믿음,
구원, 제자로서 인격의 변화, 말씀 보존, 지옥 불의 심판,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증명
결론: 너희 스스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느냐?(57)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고 따라야 하지 않는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어느 때인가? 시대의 표적들, 옳은 것 판단, 행동

우리가 사는 이때

세상의 인구가 60억,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슬람: 16억, 힌두교: 10억, 불교: 5억,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계 23억, 총 53억, 나머지 7억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미국의 2-3천만,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영연방 1천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600만 명, 과연 얼마나 될까? 전 세상의 기독교인 6천만 명 이하, 1% 이하
100명 가운데 1명이 구원받았을 것으로 추측됨.

2000년 동안 가장 널리 읽힌 책 성경, 가장 널리 선교: 기독교, 그런데 온 세상 인구의 1%가 구원
받은 사람(눅18:8)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눅17:22 이하),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

이러한 때에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는 모양은 있는데 실체가 아닌 사람

오래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종교 생활, 주일성수, 십일조, 행위, 봉사, 구약식 교회
이제는 이런 껍질을 벗어야 한다.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바르게 믿고 구원받아 바르게 전해야 한다.

1. 이스라엘의 부활: 1948년 5월, AD 70년 이후 1900년을 떠돌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저 팔레스타
인 땅에 돌아옴.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여러 차례 침공하였으나 곳곳이 주권을 지키고 있다.

1967년 6월 5일, 6일 전쟁, 시나이 반도, 골란 고원, 웨스트뱅크(예루살렘 탈환), 설명할 수 없는
일들, 한 병사,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들, 이들이 모두 손을 들고 항복, 그들을 데리고 부대로
돌아감, 이집트 장교들에게 물음, “그 병사의 뒤에는 총을 든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항복하였다.”, 당해내지 못한다(수23:10), 슥12:1-3,

지금 제3 성전의 완공이 눈앞에 오고 있다. 주님의 재림, 정신을 차리고 바로 살아야 한다.

세상의 역사는 성경대로 진행된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 다 헛것이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심

2. 이슬람의 확장: 100년 전에는 중동 국가들이 빈곤을 면치 못함, 그런데 1908년 5월 26일 페르시아
남부 사막에서 시꺼먼 기름 한 줄기가 솟아올랐고 그 뒤 탐사를 통해 그 지역이 석유 매장량이 많음을
발견함, 현재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65%, 이슬람은 천대받는 종교, 서방 사회에 진출하지 못함.

그러나 석유의 발견과 더불어 중동은 강대국들의 각축장, 결국 이슬람교가 수출되기 시작
현재 영국은 이슬람의 확장으로 인해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다. 런던의
경우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등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무함마드이다.
이민, 다산, 결혼, 개종을 통해 이슬람은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무서운 종교 확산
이슬람은 무력을 정당화는 사악한 종교 체제, 시리아 난민 사태를 통해 유럽을 정복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10년이 지나면 이슬람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갔지만 불신 상태이다. 에스겔서 37-39장에 있듯이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
이슬람의 부흥 역시 성경에 예고된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의 미래는 없다.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에스겔서 38장, 곡과 마곡의 이스라엘 침공(2, 러시아), 이때에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등
아랍 군대, 도갈마(터키)(5-6), 하나님께서 이들을 쓸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이들을 땅에서 치우는
데만 7개월이 걸린다(겔39:12). 모두가 새들의 밥이 된다(39:17).

그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 강림하실 때에 반 이스라엘 국가들은
순식간에 멸절되고 만다(슌14:4, 12).

이슬람의 부흥, 시대의 징조이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서 이겨야 한다.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 이슬람 과격 세력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통령 바른 판단, 필요하면 서명

3. 경계의 한계가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행17:26). 그 이유, 사람이 모이면
항상 주님을 대적한다(27), 바벨 탑 등의 사건,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문화가 융합되어 바벨탑으로
돌아가고 있다. 거주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성경적으로 좋지 않은 것. 국제결혼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하던 세계적인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미국 이민 거부, 종교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환영, 이제는 그들의 종교를 바꿀 자신이 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무장해야 한다.

4. 극심한 빈부 격차(약5:1-6): 대륙끼리, 나라끼리, 민족끼리, 지방끼리, 가족끼리, 양극화 현상

5. 적그리스도의 도래: 결국 온 인류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통치자를 바라보게 된다(이스라엘, 이슬람, 미국, 중국, 한국 등 모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평화를 빌미로 이스라엘을 속이고(단8:25) 전 세상을 속이고 7년 동안 이 땅을 마귀의 권세로
치리한다. 살후5:3,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바르게 깨어서 살아야 한다.

종교 통합, 정치 통합, 성경 붕괴, 도덕 붕괴, 동성애, 진리 거부 등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심(눅2:4), 천사들의 외침, 하늘에는 영광

그러나 그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재림),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거부함
오히려 재림 때까지는 예수님 때문에 불이 붙고 분쟁이 생긴다(49). 분열이 생긴다(51).

예수님만 들어가면 심지어 가족 안에서 분열(52-53). 진리가 들어가면 오류, 우상이 전디지 못함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분리하는 일이 생긴다. 킹제임스 성경, 신약 교회

이것은 진리의 분쟁이다. 인격이 못돼서 욕을 먹으면 안 된다. 다만 좋은 인격을 갖고 진리 수호
그래서 그들이 미워하면 고통 감내, 심지어 예수님도 고통 받음(50), 십자가 사건의 모욕, 고통, 죽음
진리를 수호하던 자들이 지금까지 고통당하였다. 그리고 그 반열에 끼어야 한다(히12:2).

이때에 꼭 생각할 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 마귀의 자식들, 중생 전에는 지옥 행 운명
주님의 권고(58-59), 누구라도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 않느냐?

사람도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그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폭우가 예상되면 방비해야 한다. 변호사를 사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폭우가 온다. 우리를 구원해
줄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요일2:1-2). 때를 분별하고 기도하자.

하늘의 사람들과 이 땅의 현실(3B)

성경말씀: 눅9:37-56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3년 동안 왕국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돌아서는 자들이 많지 않다.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무서운지 보게 된다. 진리를 보여 주고 알려 줘도 기존의 틀, 기득권 제자들의 믿음 고백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직도 정확히 예수님을 모름(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변화산 사건(눅9:27-36)을 통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여 주심 예수님은 더 이상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얼굴이 변하고 옷이 희게 되어 빛남(29),

구약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초림(고난받는 메시아),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35)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년 동안 동행, 12제자의 으뜸, 특별 교육,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집사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한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초림/재림, 신약/구약 구분 못함 눅38, <하늘의 사람들과 이 땅의 현실> 구원받았어도 오래 되었어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1. 마귀와 질병과 고통(37-42)

제자들이 하늘을 경험하고 산에서 내려오자 마귀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옴(37-42).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마귀가 그를 죽이ना이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38-39).

제자들과 우리가 사는 세상: 병이 있고 마귀가 있다. 유혹이 있고 눈물과 고통이 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두가 당하는 일, 심지어 제자들도 고치지 못한다.

여기의 제자들을 나무랄 수 있는가? 없다. 사람이 고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예수님께서 이 아들에게서 마귀를 내쫓아 주신다(41-42).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쥐어뜯는다(42). 심지어 예수님에게 오는 데도.

마침내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주신다.

구원받은 성도도 목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나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로 은혜와 왕좌로 담다하게 나가야 한다. “주여 해결해 주소서” 요일5:14-15, 기독교는 만사형통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빌4:12-13, 고난이 따라온다. 나도 마찬가지, 성경, 교회 사역, 여전히 어려움(육적, 영적 고통)

2. 예수님을 잘 모른다(43-45)

이 말을 귀에 담아 두라, 내가 죽는다(44).

그런데 사람들은 병고치는 권능에만 놀라고(43)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45).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정말로 예수님과 기독교를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갈보리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다.

땅에서 보상과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 보상과 영광이 없다(요12:42-43).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킹제임스 성경이 옳고 기존의 구약식 교회가 틀림을 알면서도 기득권 포기 못함 이것은 야고보의 표현에 따르면 죽은 믿음,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행위가 없다(약2:26).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 고후4:16-18

3. 자리 다툼(46-48)

누가 가장 큰가 하는 일로 논쟁이 일어남(46)

지금 어떤 때인가? 주님이 내가 곧 죽는다고 하는데 자리 다툼을 한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받아들이고 작은 자가 돼서 섬기려고 해야 한다.

특히 교회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란 누구인가?

섬기는 자, 막10:42-45

주님의 원리: 섬기면 리더가 된다. 우리 교회의 원칙: 하고 싶다고 되지 않는다.

섬기는 것은 종류가 많다: 말씀, 가르침, 권면, 음식 대접, 환영, 교회 봉사, 재물, 재능 그런데 여기의 작은 자를 가난한 약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

금요 모임: 신명기 맥 잡기 강해, 15장,

1. 가난한 자들 배려(7-11), 11, 약2:1-5 등,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2. 그럼에도 교회는 구제나 자선 기관이 아니다.
3. 가난하거나 약하다고 무례하게 구하거나 행하거나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한 청년, 형제).
4. 열심히 일하는데도 힘든 경우, 모두의 인정을 받는 경우 돕지만 늘 한계가 있다.

4. 파당(49-50)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다고 막으면 안 된다(49).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50).

카톨릭, 물론, 여중, 안상홍, 신천지 다 예수님을 언급한다. 그래도 같이 못한다.

한국의 기장, 통합은 종교 일치를 실현하려 한다.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같이 못한다.

정상적인 구원의 교리, 실행의 교리: 침례교가 아니라도, 목사가 없어도, 집에서 모여도 인정

심지어 개역성경, 그들의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아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한다.

가장 무서운 이단: “우리만 교회다”, 우리 교회: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5. 영적 우월감과 능력의 오용(51-56)

드디어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함(51).

얼굴을 고정하셨다.: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의 비장한 각오

미리 사마리아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음(52-53): 사마리아 사람들

BC 721년 북 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됨, 아시리아 이주 정책, 아시리아 제국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오서 거하면 피가 섞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 사마리아 종교(그리심 산)

제자들의 분노(54): 엘리야, 갈멜 산에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이 보는 데서 불이 내려옴, 잡아 죽임

“아니 주님이 어떤 분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를 거부해”: 교만과 무지의 극치

작은 자가 되어 섬기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대상을 오직 유대인으로만 한정함

이제 십자가 사건이 생기면서 우리 주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심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 가운데 있음

우리는 어떤가? 세상 사람들을 비하하면 안 된다: 이방인, 이교도, 개나 돼지 No!

그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지 조롱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의 책망(55): “너희가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런 말은 내 사람들에게 부적합

예수님의 결론(56): “내가 온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배, 섬김, 교육, 선교, 구제 등

규정과 절차가 사람을 힘들게 하면 없애야 한다: 특히 오래된 교회의 전통

1년 입교, 2년 집사, 새벽기도, 주일성수, 십일조 주차장 봉사 장로 No!

현금 봉투가 도대체 몇 개인가? 현금 공개 No! 일천 번제, 무리한 새벽기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가? 종교의 열성분자, “우리만 교회다” 주장하는 자(교황)

요16:1-2, 사람을 죽이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함

적용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침례, 바른 교리 등을 외친다.

이러는 가운데 혹시 다른 교회 성도들, 목사들을 마구잡이로 무시하거나 비하하지는 않는가?

과거의 사례: 사악한 무리들,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최초의 신약 교회

입에 담지 못할 욕이 목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다.

주님의 경고(55): “킹제임스 성경으로 마귀의 일을 할지 모른다.” “지금도 그러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의 일은 1차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바른 구원을 가르쳐 일단 살린 뒤에 먹여야 한다.

결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있다(엡2:6).

그럼에도 1. 이 땅에는 슬픔 고통 질병이 있다. 주님께 나가야 한다. 2. 예수님에 대한 무지, 3. 크게

되려는 욕심, 4. 파당, 5. 사람들을 알보는 일

주님의 경고(55), 사람을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

털어봐. 아프지 않은 사람 있나..
꼭짜봐. 슬프지 않은 사람 있나..
찾아봐. 힘들지 않은 사람 있나..
건드려봐. 눈물 나지 않는 사람 있나..
물어봐. 사연 없는 사람 있나..
살펴봐. 고민없는 사람 있나..
가까이 다가가봐. 삶의 무게 없는 사람 있나..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 (39)

성경말씀: 눅9:57-62, 14:25-35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3년 동안 왕국의 복음, 구원 선포, 제자들의 변화, 변화산 사건 하늘 경험, 예수님 확실히 경험, 하늘의 사람들, 그런데 현실에는 여전히 문제 존재

1. 마귀와 질병과 고통(37-42), 2. 예수님을 잘 모른다(43-45): 갈보리 우선, 왕관 나중, 3. 자리 다툼(46-48), 4. 우리만 교회다(49-50), 5. 영적 우월감과 능력의 오용(51-56)

예수님의 책망(55): “너희가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런 말은 내 사람들에게 부적합

예수님의 결론(56): “내가 온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

제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관심: 제자가 되어야겠다. 교회마다 제자 훈련, 현 시대 교회의 성패

disciple: 29, 243, 총 272회, 대단히 중요한 단어

제자: 선생에게서 배우고 안 뒤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지금의 도제 제도(의사, 장인)

예수님께서 하늘의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보여 주고는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알려 주신다.

구원과 성화

성경의 구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 믿음으로 은혜로 사람 편에서 무비용

성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뒤 현실 생활에서 닦이는 죄의 파워에서의 구원, 사람 편에서 비용이 들

그 결과: 구원받은 자는 많은데 제자는 많지 않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죄에서 해방: 좋은 이야기, 기쁨, “그러나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를 생각하지 못하면 단세포 구원 사도 바울 구원, 구원받은 이후의 그의 삶, 서신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 나감

빌3:12-14

지난 20세기 동안 세상을 바꾼 위인들: 과학, 통치, 음악, 문화, 목표 매진

그리스도인들: 재침례 성도들, 마르틴 루터, 얀 후스, 틴데일, 웨슬레, 스펔전, 목표 매진

현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구원받은 성도는 많을지 몰라도 제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온 교회가 제자 훈련: 내용은 거의 다 인위적인 가르침, 내용의 핵심: 교회와 목사에 충성 그런데 이런 제자 훈련으로는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다. 순장 등 겉모습의 변화, 그러나 위선자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용과 길을 살펴보고 한다.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이 설교가 쉽지 않다. 그러나 순서대로 나오기에 한다.

예수님을 믿은 뒤 성화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눅9:23)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형틀(23), 2. 사람을 죽이는 형틀(23-24), 3. 자기를 부끄러움에

내놓는 형틀(26),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 그의 영광(27)

기독교는 십자가로 인한 고통과 고난 수치와 멸시 희생, 그리고 그 이후에 영광을 보장한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함

지금도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 만사형통, 일이 잘 돼요”, 이런 사탕발림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있으나 하나님께는 전혀 쓸모없는 어린아이

주님은 우리가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전장한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

제자가 될 수 없는 첫째 사람(눅9:57-58)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주님의 대답: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사람은 마8:19를 보니 서기관이다.

안락한 생활에 젖어 있다. 그것을 버리기 원치 않는다. 목사, 장로, 대접받음(킹제임스 성경 No!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재물의 희생을 요구한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사람이 온다: “설교가 좋아요. 헌금 강요가 없어서 좋아요. 빠져도 뭐라고 안 해 좋아요.” 헛다리짚은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확신, 신약 교회, 신약 교회는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 사도행전20장의 바울을 보라, 지도자들의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

제자가 될 수 없는 둘째 사람(눅9:59-60)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직접 초청을 받음(59). 영광스러운 일

그런데 이 사람은 핑계를 찾으려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에 더 많은 관심을 둬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 하루 만에 매장, 그 뒤 10일 정도 애곡, 절차가 복잡함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음, 죽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됨.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복음의 긴박성(60)을 무시하고 질질 미루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언가 해야 할 필요를 느끼면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희생이 무서워서 무조건 뒤로 미루자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될 수 없는 셋째 사람(눅9:61-62)

자원자, 그런데 그는 뒤를 바라보느라 나가지 못함
 작별 인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왕상10:19-21,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남, 열두 거리 소로 농작함
 엘리야가 허락함, 그런데 이유: 엘리사는 한 거리의 소들을 죽이고 소의 기구로 고기를 삶아 나누어줌
 이런 의미의 작별은 얼마든지 가능. 그러나 예수님이 보니 그는 쟁기를 잡고 귀를 바라보는 유형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는 앞으로 나가지 않음
 교회가 늘어나고 시설이 우리를 수용할 수 없음, 여러 개의 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모아 보라고 주문함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들어봄: 모두 희생은 안 하고,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만 희생하는 안을 내
 내 체면을 구기는 일은 안 하고 싶다(부자).
 쟁기를 들었으면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한다.

제자가 되는 길 반복(눅14:25-34)

1. 내 부모친척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제자가 된다.
2.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일가친척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26).
3.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비용 계산

1. 망대를 세우는 사람(28-30): 구원 받았다. 주님의 일을 하려 한다. 제자가 되려 한다. 그러려면 제자의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중간에 그만 두면 사람들의 조롱을 받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 비용을 계산해야 함. 그저 그런 사람으로 남을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남을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음: 왜 이 교회에 오는가? 중간에 그만두면 조롱을 받는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을 짚어지고 신약 교회를 하려면 그에 따르는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리 그만 두어야 한다.
2. 전쟁하는 왕(31-32); 자기의 10000명, 적의 20000명, 이길 수 있을까? 없다고 판단되면 평화의 조건을 구해야 함. 그리고는 매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다(33). 소유와 재물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에서 큰 핵심은 소유와 재물의 희생, 재능을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
3. 소금 이야기: 지금의 소금은 100%,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암염,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기가 빠지면 무용지물(35),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희생과 섬김이 요구될 때는 뒤로 빼고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면 구원은 유지되도 무용지물 성도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가?

지금의 우리 교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심정 고후 12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지만 진실을 말하려 한다.
 7년 8개월 전에 송내에서 시작, 보증금, 월세 내가 감당하겠다고 함
 그 이후로도 늘어나는 보증금 내가 월세 모자라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함
 이러는 가운데 4년이 지나 몇 달을 찾아도 건물이 없어 고생, 논현동 소래 예배당 1층 반 구매, 10억 내가 담당, 6억 다른 형제 담당, 밀지면 2-30% 내가 감당하겠다. 2년 반 전에 반 층을 마저 구매, 역시 2사람이 감당, 그때도 반대하고 나감,
 지금 우리의 모습. 예배당이 없이 어떻게 아이들 교육, 예배 드리겠는가? 안

그런데 이제는 너무 사람이 많이 오므로 안전, 식사 등 모든 것에 문제
건축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제 닥치니 또 제자의 비용을 치르기로 함
플링, 원금 갚아주는 것, 80억 프로젝트 10억 우리 돈, 대규모 플링(10억), 성도들 20억 이상, 40억
이자, 나와 우리 가족이 4억원 플링, 은행에 돈이 있어서? 아니다 아파트 대출하고 내가 년 1600만원
이자 낸다. 그것도 가능하면 10년 동안, 왜 그리하는가? 내가 이 교회를 이끄는 대장이다.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래서 제자의 비용을 내가 먼저 아내와 어머니와 온 가족이 한다.
안 돼서 망한다: 30% 손해 날 것이다. 그래도 OK!
요11: 나사로 사건, 유대에 살므로 거기로 가야 함, 제자들의 반대, 돌로 맞아 죽습니다.
의심의 왕자 도마(11:16),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저를 믿고 같이 제자의 비용을 대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는다.

성도는 하나님의 대사로, 군사다 (40)

성경말씀: 눅10:1-24

지난주 성도의 사람 구원과 성화, 구원 무비용, 성화(제자) 비용: 성도들의 보상

제자의 길에는 비용이 든다: 시간, 재능, 재정, 심지어 가족, 비용을 계산한 뒤 따라야 함(눅14:28).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손에 쟁기를 든 채 앞으로 나가는 자가 제자이다.

오늘은 이런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유대 사역 시작

공생애 3년,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약 반 년 동안 유대와 다른 지역 사역(9:51)

이를 위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심(1):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눅9:1-6에는 열두 제자를 보내셔서 비슷한 일을 하게 함. 주로 갈릴리 지방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파송받아 주인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다: 친히 가시고자 하는 데로 보냄(1) 즉 이들은 사도이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대사이다.

한 나라의 대사는 나라와 통치자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기 말이 아니라 통치자의 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 선포(9), 왕국의 통치자, 대사들이 필요하다. 우리를 부르신다.

이들이 해야 할 일(2): 먼저 수확 밭의 주님께 기도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야 함

여기의 일꾼은 영어로 보면 labourer,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땀 흘려 노동하는 일꾼
킹제임스 성경의 확산, 지역 교회의 필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건축 이야기를 왜 하는가? 지역을 섬길 일꾼들이 없다 보니 여기로 몰림. 피해야 한다.

예수님의 심정(3): 어린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

이 일이 만만치 않다. 우리의 상대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벧전5:8-9), 특히 사역자들 붕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 교회를 시작하려는 사역자들을 돕는다. 도와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대사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4).

이런 구절 오해하면 안 된다: 아무 준비 없이 사역에 임하면 안 된다(4).

사역자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이다(마6:33).

대사로서 사역자가 되려면 성정에 능통, 언변에 능통, 화평한 가정생활 등, 선교사는 언어 공부
하나님의 대사로 말씀을 전하면 양들이 목사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야 한다(7-8).

그럼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지 않기 위해 자비량으로 해도 된다(고전9:14-17).

대사들이 전해야 할 말씀(5): 화평의 복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수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난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사들은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 회복을 선포해야 한다.

이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롬5:1).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나 길은 우주 공간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 되라고 선포해야 한다(9, 11).

11절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이상한 이이러니(13-16):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도시들이 불신

고라신, 벧새다,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북부 도시들, 예수님 사역의 증시지

특히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본부, 이 지역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눈으로 봄(죽은 자, 나병 환자, 마귀, 각종 질병, 갈릴리 호수의 폭풍)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사람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지어 소돔이 이들보다 나을 것이라는 저주(12): 그 큰 도시에서 4명이 구원받음

이 시대에도 표적을 쫓는 자들이 많다: 만사형통, 돈 버는 것, 기적(금어빨), 뒤로 자빠지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불신의 행위이다(마12:39).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아온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눅16:31).

하나님의 대사들이 주인의 말을 전한 뒤 보고(17)

이 특별한 시기에 이들은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받았다. 예수님의 대사로 마귀들을 제압하였다. 놀라운 일이다. 흥분되는 일이다(19).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추구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18): 지금의 이 전쟁은 단순히 줄게 마귀들 제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간의 전쟁 상태

사탄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가져온 장본인, 사람을 속이고 죄로 이끈 자

이미 멸망이 선포된 자(창3:15), 그리고 궁극적으로 패배할 자, 영원히 불 호수에 들어갈 자(계12:9; 20:10), 사탄의 운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끝장이 났다(18).

다만 온 세상의 이방인들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구원받도록 교회 시대를 여심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이 올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 거짓 종교(천주교, 이슬람 등), 불신자, 모든 악한 일들, 사망, 슬픔, 고통 다 끝이 난다.

하나님의 대사들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20): 기적들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의 자손들이 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다시 말해 사람의 업적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 번역, 목사, 교회 자랑 No!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셔도 하나님이 이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 나 자랑, 교회 자랑은 다 버려야 한다.

“목사님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 교회가 더 금방 클 텐데요.” 진리를 버리며 하지 않는다.

목회 철학을 버리며 일하지 않는다.

큰 교회, 큰일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마귀와 전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날이 가면서 구원의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너무 힘들다.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208쪽

날이 가면서 마귀의 사악한 체제인 이슬람의 세력이 확장되며 일반인들에게도 두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나라에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다. 막기 위해 <이슬람교 바로 알기> 책, 264쪽

올해 미디어 선교 사역의 핵심은 이 두 책의 전달에 있다. 온 힘을 모아 마귀의 왕국을 부수어야 한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게임은 끝이 났다. 그럼에도 현실의 우리는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

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내일은 구정이다: 나라의 앞날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북한의 마귀 집단이 무너지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을 통해 문서를 전달하고 유튜브 등 미디어 선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다. 목사는 그 대장을 섬기는 대사이다. 여러분은 그 대장을 따라 이 대사의 말을 듣고 전쟁해야 하는 대사요, 군사이다.

기적이니 표적, 업적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해 기쁘게 일해야 한다.

건축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 싸움을 하기 위해 필요해서 한다. 나 개인에게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대사로써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건물이 필요하면 지으려고 한다.

바른 성경이 필요해서 번역하였다. 교회가 필요해서 개척하였다. 건물이 필요해서 여기로 왔다. 이제는 건축이 필요해서 하려고 한다. 단 힘이 없으면 못 하므로 비용을 계산하려 할 뿐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21-22). 누가 기쁨이 되는가?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런 자들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자들이다(22).

요17:3, 우리는 영생을 받았는가? 받고 있으면 안 된다. 받으리라고 소망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시간 유일하신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한다. 그 아들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한다.

하나님의 대사들/군사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23-24).

이 교회는 작은 교회이다. 이제 아이들 포함 600명 모인다.

그러나 이 힘으로 한국을 뒤집어놓아야 한다(행17:6).

사람을 죽이는 무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외부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를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41)

성경말씀: 눅10:21-24

지난주, 70명을 따로 뽑아 친히 가고자 하시는 도시로 선포하라고 보내신다. 하나님의 대사

1. 수확 밭의 주님께 기도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야 함, 2. 화평의 복음 선포, 3. 영적 전쟁 이미 마귀는 패배하였다. 재림 때까지 우리가 싸움을 마무리한다.

이런 말씀과 함께 21-22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4복음서에서 단 한 군데, 구원받은 뒤 모든 성도의 소원,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사도 바울은 고전 7장에서 심지어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피력 오늘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지 살피려 한다.

배경

70명 복음 선포, 마귀들 제압, 기적들, 능력 있는 일들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17).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20). 왕국의 자손, 곧바로 21-22절이 나오며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기쁨인 성도들의 관계가 묘사되어 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21)

기독교의 핵심은 창조자를 아는 데 있다. 구원 역시 창조자를 아는 데서 출발
6,000년 전에 말씀으로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창1:1).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우리의 생명, 집, 자녀, 누리는 모든 것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 주인은 하나님,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주인의 뜻대로 안 하면 진노

롬1:18-25 강해

하나님의 진노(18), 창조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19-20).

사람이 하는 일(21-23), 하나님의 치리(24), 사람의 행태(25)

하나님이 천사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계4:11)

사람은 이 목적 하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불신자들의 문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 목적 밖에서 살려고 함
롬3:23

하나님이 하시는 일(21)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빼기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아기들에게만 드러내신다.
그리고는 그리하심을 매우 좋아하신다.

여기서 드러낸다는 말은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숨겨진 것을 밝히 알려 주신다.

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죄와 실수, 무익함,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자들
심히 어려운 일이다.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사람의 특징: 모든 것이 넘치면 자연히 교만하게 된다.

눅18:25,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지만 자기 지혜에 넘어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이방 신을 섬김, 왕상11:3, 아내가 700, 첩이 300, 마음을 돌림

하나님의 경고(신17:14-20): 1. 말을 늘리려고 이집트로 가서 사지 말라(16), 2.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17), 3. 율법 책을 필사하여 곁에 두고 읽고 두려워하라(18-19)

솔로몬의 처음은 좋았으나 교만으로 인해 타락함.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선 뒤 말년에 전도서를 지음. 원 제목, 선포자

전11:9-12:1, 12:13-14, 롬15:4, 우리의 배움

사업, 학식, 지위, 명예, 재산, 자식, 교회가 잘 될 때 늘 조심해야 한다.

교만에 빠지기보다는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는 것이 더 낫다. 시119:71, 고난이 유익, 법규들 삼위일체 하나님(22)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다(아버지, 아들, 성령님). 한 하나님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체, 사랑, 의지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 말을 해야 한다.

우리의 한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세 분, 서로 사랑, 의사소통, 계획
아들과 성령님은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권위, 영광, 능력, 지성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함.

다만 사람의 역사와 관련해서 수행하시는 일이 서로 다르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다. 아들이 없는 신은 가짜다.

대표가 이슬람의 알라, 이슬람교를 착각하면 안 된다. 가장 미워하는 교리: 아들이 있다는 것
구약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잠30:4).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 아들을 모르면 가짜이다.

세상 역사에 관한 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셨다.

요5:22-30

요일5:12,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슬람교, 불교, 신도교, 몰몬교,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가짜
성도는 누구인가?(22)

아버지만 아들을 안다. 영원 전부터 같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아들만 아버지를 드러낸다. 다른 존재 No!, 그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가 성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요14:6

행4:12

그러므로 아들이 없는 종교는 세상에서의 유익은 줄지 몰라도 영원의 유익은 못 준다.

복음서를 왜 공부하는가? 아들을 알기 위해서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안다(요14:7-9), 빌립의 말

아들이 하시는 일: 구원 완성, 위로자, 그리고 가시면서 다른 위로자를 주신다(요14:16-17, 26).

요16:8, 13-14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며 아들을 알고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과 성화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성경기록을 통해 안다. 꿈같은 직통 계시, 대언자 No!

벧전1:23-25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신다. 하실 수 있다.

내 손 안에 완전한 단어들어 들어 있다. 그 책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

성도의 복(23-24)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제자들, 마귀들 굴복, 기적, 죽은 자 부활

2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본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 잘 몰랐다. 재림, 계시록 등
24절이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된다.

특히 말세를 사는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눈으로 보고 있다.

노아의 때, 이스라엘 회복, 교회의 휴거(살전4:16-17),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결론

휴거를 기다리며 바르게 사는가?(딤후2:11-13), 아버지, 아들, 성령님, 말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4군)

성경말씀: 눅10:25-37

지난 두 주, 70명 선포, 마귀 패배,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영으로 기뻐하심(21)

1. 창조주 아버지를 아는 사람, 2. 아들을 아는 사람, 3. 성령님과 말씀을 아는 사람
특징(21),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배경

그러면 그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유명한 종교인들, 제사장, 서기관, 율법 박사,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말을 듣고는 곧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사가 일어나 질문함(25)

진리를 알고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시험의 도구로 삼는 사람, 주님의 고통이 되는 사람
사실 랍비는 이런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고 사람들이 궁금해 했다. 그런데 누구인가? 율법사이다.
사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다(27). 다만 체면을 위해 시험하려 했다.

그러자 주님은 그를 율법으로 데리고 들어갔다(26-28). 그리고 율법의 목적을 알려주려 하였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 주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휼을 얻게 하는 것
그런데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고 자랑하며 다녔다.

이 율법사의 대답(27)은 율법의 요약(마22:35-40), 매달려 있다.

신6:5, 유대인들의 쉼마(들으라). 아침저녁으로, 머리와 손에 가죽 성구함(신6:4-8)

그는 레19:18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자신에게 비적용
구약의 율법의 특징: 가난한 자, 타국인, 고아,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그들이 이웃이다.

신14:28-29, 15장의 면제 규정(1-6), 가난한 자 배려(7-11), 희년 제도, 안식년 제도

그러나 그들은 그리하지 않고(마23:23) 율법의 글자만 지키려 하였다(고후3:6). 글자는 죽임

그리고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유치한 질문을 하였다(29). 이것이 그의 모티브

롬10:1-4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30-35)

이 이야기는 비유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 어쩌면 그 당시에 일어난 실화일지도 모른다.

이것을 비유로 생각하고 단순하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의 희생자는 반쯤 죽은 죄인(육은 살고 영은 죽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율법과 희생 예물,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구원하고 돈을 내 주고 다시 온다고 함(35),

여관은 교회, 이 테나리온(35)은 2000년 혹은 침례와 주의 만찬, 이렇게 나가면 핵심을 잃는다.

핵심은 무엇인가? 36-37, 공휼을 베푸는 자가 이웃이다.

왜 원수에게도 공휼을 베푸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한다(27; 레19:18).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공휼의 선한 행위

예수님의 제자의 특성(눅6:35-36)

세리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하시는 말씀(마9:10-13)

세 종류의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강도 투성이,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다 털리고 반쯤 죽게 됨(30)

제사장(31);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 피곤한 상태로 집으러 가는 중,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될지 모름(레21), “많은 사람들, 굳이 왜 내가,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성직자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반은 내버림, 우리는 어떤가? 주변 배려

레위 사람(32): 제사장의 책무를 돕는 사람, 백성의 세금으로 살며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

유대인들의 삼단논법 비슷한 논리: 제사장, 레위사람, 그 다음은 평범한 유대인(목사, 장로, 평신도)

그런데 그 율법사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마리아 사람이 튀어나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OK, 그러나 그 반대는 Never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이교도들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 예루살렘 접근 금지

그래서 그리심 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고 모세오경만을 믿으며 광신적인 예배를 드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버리고 간 유대인을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돌보아 줌(33-35).

먼저 불쌍히 여기고(33), 상처를 싸매고(34), 짐승에 태워 여관에, 이 데나리온, 더 주겠다(35).
즉 그 사람을 자기와 같이 사랑함(27):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행하였다.
여기에 무슨 논리가 있는가?

하나도 없다. 오직 한 가지 이유: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공흠을 베풀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율법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흠을 베풀라고 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침저녁으로 쉼아 암송, 그날 아침에도 이 둘은 쉼아 암송, 그런데 실행이 안 됨,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의 질문(36)과 그의 대답(37)

누가 우리의 이웃이나?(한국사람, 중국, 미국, 일본 사람, 지역, 인종, 남녀노소, 빈부귀천 No!)

불쌍히 여기고 공흠을 베풀 대상이 다 우리의 이웃이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37):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이것은 결코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품성을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평가(마23:2-3)

율법사와 예수님 비교: 1. 일반적인 질문, 구체적인 대답, 2. 복잡하고 철학적인 문제, 단순하고 실제적인 문제, 3. 의무, 사랑, 4. 논쟁, 실천(논쟁을 위한 논쟁은 무의미)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율법사는 더 좋은 사람,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공흠 베풀기

우리 역시 킹제임스 스티커, 성경 자랑, 미디어 선교 자랑, 교회 자랑 하면서 핵심을 놓치고 있는가?

동일한 유대인: 1. 강도들은 탈취의 희생물, 2.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피해야 할 방해물, 3.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야 할 이웃, 우리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가?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도움을 줄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웃 사랑을 하라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 각도에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1.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공흠을 베풀어야 한다: 인류애로서의 공흠
불신자들도 바른 인간성을 가졌으면 다 하는 일, 오히려 더 잘함, 선행 구원, 하나님도 악인 사랑
2.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 공흠을 베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면 안 된다.
진화론자,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타종교인,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만 죄는 죄라고 말한다.
그것이 참 사랑, 그래서 복음과 진리 선포
3. 성경에 보면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 헌금도 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자선 기관이 아니다. 세상의 수많은 약자와 빈자를 교회가 먹이고 살리지 않으며 못한다.
그러므로 먼저 성도들 가운데 도울 자가 있으면 하고 외부도 해야 한다(부차적인 일).
그러나 교회의 최우선 목표는 성도들의 성숙과 훈련이다(엡4:11-13).
4.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지 가난하고 불쌍한 모든 사람을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다.
5. 또한 개인과 달리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곳이 아니다.

음행의 문제(고전5:1-8) 설명

복음 전도: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진화론자, 간음하는 자, 교회로 데려올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면 교회에는 들 수 없다.

계속해서 폐만 끼친다. 가르치고 알려줘도 변화가 없으면 교회에서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다(살후 3:10-12, 14-15).

6. 가장 큰 이웃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전하고 알리고 가르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1차 목표, 하나님의 공흠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

한 가지가 필요하다(43)

성경말씀: 눅10:38-42

지난 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 믿는다는 고백과 삶이 따로 논다. 우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서 살려 줘. 교회는 성도는 공흠을 베풀어야 한다(38).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제자의 기본 도리, 그러나 교회는 무조건 수용하는 데가 아니다.

배경

유대로 향하시다가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심(요11:1), 예루살렘 동쪽 2.5킬로미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임(38), 요11:5,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심

예수님의 사역, 여러 때에 많은 곳에서 여인들이 희생하며 사역을 도움,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표 마르다가 주님을 집으로 모신 이유: 말씀을 들으려고(39), 많은 사람들의 오해 마르다는 일만 하고 말씀은 듣지 않으려 한다. No! 마리아도(also) 마르다처럼 말씀을 들음

그런데 마르다는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로 괴로워함(40).

참으로 귀한 품성의 여인: 그런데 섬기려고 하다가 괴로움을 당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의 모토: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말라. 주방, 주차, 찬양대, 교사, 청소, 목사의 설교 준비 괴로움을 당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 사정을 아뢴다(40). 예수님의 말씀(41)

한 가지가 필요하다(42).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마리아는 좋은 부분을 택하였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사요, 군사다. 공흠을 베풀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해야 한다.

이것을 경배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 경배라는 말은 존경하며 꿇어 엎드린다는 뜻

그러므로 경배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 핵심, 모든 일의 근원

그것은 한 마디로 한 가지가 필요함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의 특징: 항상 먼저 가서 주님을 영접함(38), 요11:20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런데 일에 지쳐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말았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

많은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다. 특히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는 분들

마리아: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한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녀는 같은 장소에 있다.

1. 눅10:39, 2. 요11:32(나사로의 죽음), 3. 요12:3(나사로 방문,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음, 그녀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다. 그것이 바로 필요한 한 가지

이 말씀의 핵심은 마르다가 잘못을 했다거나 일은 하지 말고 말씀만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꼭 필요한 것,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 것, 마리아는 그것을 택하였다.

교회에는 마르다와 같이 손으로 섬기는 일꾼이 있어야 한다.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에 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자칫 자기의 의가 되기 쉽다. 그래서 예수님은 균형을 이야기한다. 마리아의 경배와 마르다의 섬김의 균형

음식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먼저다. 그런데 섬김이 없이 말씀만 들으면 암체 마르다는 영접하고서는 그분의 중요성을 잊고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을 대접하려고 바쁨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신다(42).

꼭 필요한 한 가지

여기의 한 가지는 무엇인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마4:4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혹시 교회 일을 하다가 마르다 같은 마음이 들면 일을 멈추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한다.

경건 서적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야 한다.

주일의 공예배에 왜 오는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려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일을 해서 여기까지 믿음이 전달되었다.

그러나 일들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면 일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

주님과의 교제

매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야 한다. 즉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매주 성경 읽기 과제, 이유: 주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 많은 일을 하였다. 현금의 원리: 23.3%, 자원, 서원 헌물 등

바리새인들: 600여 개의 규율을 만들고 지키려고 함

왜 이리하였을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들의 마음에는 추호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음

그런데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인 예수님, 백성을 죄들에서 건질 분이 왔는데도 전혀 알지 못함

호세아 대언자: 북 왕국 이스라엘 극심한 타락, 신실한 남편인 주 하나님을 버림

하나님의 방법: 호세아더러 행음하는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하심(호1:2)

호세아의 순종(3), 그녀는 아들과 땅을 낳은 뒤 다시 행음함

하나님의 명령(호3:1), 다시 그녀를 데려 오.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주님께로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의 진단: 호4:1,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다.

그 이유(호4:6): 지식이 부족하여 망한다.

신약 시대 사도 바울의 진단(롬10:1-4)

무언가 일들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선언(호4:14):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진다.

다시 강조: 마르다는 아니고 마리아 No!

두 부류의 사람이 다 필요한데 삶에서 예수님을 1순위로 두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 목요일에 아내가 미국에 감, 에피소드, 3-40분 실조 사건

나의 짜증, 아내의 대답: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니 상황을 잘 살피고 상대방 배려

그 날 얼마나 참담했는지 모른다. 울음이 나오고 힘들었다.

카톡 가족 방에 이야기를 쓰고 “내가 먼저 죽더라도 엄마를 귀하게 여기라”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세상 공부, 교수(연구, 인력 양성), 성경 번역, 목회

이 모든 것을 정신없이 하다가 아내를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됨(구원 상실 No!)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원받는 것은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품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함

그러면 자연스럽게 섬기게 된다.

성도들에게 여러 문제가 생긴다: 무엇이 문제인가? 경건의 시간이 없다. 성경을 읽고 경건 서적을 읽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았어도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들이 일어난다.

마르다의 변화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충고를 받은 뒤 마르다는 변화였다.

예수님의 말씀, 나사로가 살아난다(요11:25-26)

마르다의 대답(요10:27).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 마16:15-16

어떻게 가능한가? 한 가지 필요한 것에 집중하였다. 설교에 집중

그것은 돈, 명예, 교육, 권세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아는 것이다.

필수설교 40선 1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 인생, 삶과 죽음, 결혼, 자녀 교육, 바르게 사는 것, 돈 문제, 영원

다 성경에 있다. 마4:4

그리고는 행동이 바뀌었다(요12:1-2), 저녁 식사를 베풀: 예수님, 12제자, 가족 3명, 15명

한 마다 불평이 없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44)

성경말씀: 눅11:14-26

지난 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둘 다 훌륭한 여인, 마르다 주님 여접, 둘 다 말씀 사랑, 마르다는 일에 지쳐 예수님을 놓침.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교제 일이 과도하면 내려놓고 말씀 묵상, 마르다의 변화: 고백과 봉사
성도는 하나님의 대사, 긍휼을 베푸는 자, 그 일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 아는 것

배경

유대로 가시는 길: 남은 6개월,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

70명의 보고: 하나님이 단순한 자들을 기뻐하신다. 율법사의 시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 갈등의 골이 깊어 감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으셨는데 말 못하는 마귀, 그 사람이 말을 함(14)

모든 병이 마귀 병이 아니다. 그러나 귀머거리, 병어리 등 성경에는 마귀에 걸려 말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

이런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야 하는데 불평이 터져 나옴

1.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통해 내쫓는다(15). 바알세불: 불레셋 사람들이 섬긴 우상 신 바알세불에서 유래, '파리들의 주' 혹은 '파리 신'. 그 지역에 많았던 모기와 파리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 주는 자(왕하1:2-3, 16). 바알세불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풍 신을 뜻한다. 유대인들은 사탄이 우상숭배 오염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를 부름, 즉 그는 사탄 마귀

2.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 달라(16), 병어리, 귀머거리, 소경, 죽은 자 또 표적을 구함

예수님의 대답

1.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 집은 망한다(19).

2. 사탄 즉 마귀 대장이 자기 쫓겨들을 내쫓으면 어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18)

3.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있었음(19, 행19:13-16). 이들도 내쫓음, 무엇으로 혹은 무슨 능력으로, 마귀보다 힘이 강해야 그의 쫓겨들을 내쫓지 않겠는가? 너무 당연, 재판관

4. 중요한 사실: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였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있다. 너희 종교인들은 지옥 자식 및 정죄,

5. 하나님의 손가락: 성경에 4번,

a. 이집트에서의 셋째 재앙, 땅의 티끌로 이, 마술사들이 못함(출8:16-19, 19절)

b. 십계명의 두 돌판(출31:18; 신9:10), c. 누가복음

d.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위대함, 벨사살(단5:5), 우상 숭배, 하나님의 기물 멸시, 왕국의 회칠한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남(메네 메네 데겔 우루바신), 그의 왕국이 나뉜다.

6. 설명, 강한 자 무장, 자기 집 안전(20),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오면 그를 노략함

강한 자는 마귀, 더 강한 자는 예수님, 이미 예수님 자신이 마귀의 왕국을 노략함, 70명 보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18).

7. 영을 다 믿지 말라(요일4:1). 영지주의자들, 육체 증오,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요일4:2-3), 개역은 예수님을 시인 No!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마귀보다 크시다(요일 4:4)

8. 마귀는 이미 창세기 3:15에서 운명이 결정됨. 예수님 당시 확증됨

현재의 교회 시대(롬16:20), 계19: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불 호수(20),

계20:1-6 뱀 곧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힘(2-3), 잠시 풀려나 사람들 유혹(7), 결국 영원히 불 호수(10)

9.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인격체, 창조된 자, 사탄은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이며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선을 방해하고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그는 자신의 천사들(마귀들)과 함께 사람의 혼을 미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의 이름은 '대적하는 자' 혹은 '거짓으로 비방하는 자'라는 뜻, '이 세상의 통치자'(요12:31),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엡

2:2), '이 세상의 신'(고후4:4), '용, 저 옛 뱀, 마귀'(계20:2), '저 사악한 자'(요일5:18), '울부짖는 사자'(벧전5:8),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8:44), '바알세불'(마12:24), '벨리알'(고후6:15),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계12:10). 욕기에 나타나서 욕을 괴롭힘

10. 마귀에게는 잠정적으로 왕국이 있다. 통치 권세가 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자, 헤치는 자(23)

이 종교 지도자들,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사탄의 앞잡이, 예수님의 반대자, 헤치는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 하나님의 인격, 우리의 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하려면 목표가 같아야 한다. (암3:3)

1. 왜 오셨는가? 사람을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사람을 붙잡히 여기는가? 우리의 일, 언행이 그런가?
세리와 죄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어린아이들 즉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인가?
2. 기득권을 버리는가?(요12:42-43), 양다리 걸치려는 사람들은 목표가 다르다.
3.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가?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 위선
4. 예수님의 말씀(마4:4; 24:35; 요14:23)
5.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요5:24; 10:27-29)
6. 재림의 소망(요14:1-3)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수가 적다. 세력이 작다. 그래도 바른 성경, 예수님과 함께 한다(눅12:31-32).
중간 지대는 없다(24-26).

그리고는 믿음에 중간 지대가 없음을 보여 주신다.

부정한 영이 내쫓김, 정관사 the가 쓰인 것으로 보아 14절의 마귀일 가능성이 큼.

마른 것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해 다시 돌아가 보니 단장되어 있으므로 자기보다 더
사악한 영 7을 데리고 다시 자기가 있던 몸으로 들어감(24-25).

그러나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됨(26)

이런 구절 오용하면 안 된다. 마른 곳을 찾는다. 물을 싫어한다. 창세기 1장 이전에 원래의 땅이 있었다.

루시퍼의 반역, 마귀들은 몸을 잃고 물속에 갇힘. 짐승이나 사람 몸에 들어가려 함. 판타지 소설
과거에는 무당굿을 해서 마귀를 내쫓았다는 사례들이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축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귀신 쫓는 교회들도 있다.

이것을 보통 축사라고 한다. 예수님의 말씀, 무당 굿, 정신과 치료, 심리 치료, 요양, 오순절 귀신 축사
집회, 어떤 식으로든 마귀가 나가면 그 사람은 중립적인 상태가 된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중립으로 있으면 악한 영 일곱이 들어와
나중 상태가 더 나빠진다. 최악의 경우 죽을 때까지 마귀 병에서는 해방, 죽자마자 지옥
그래서 예수님은 중간 지대가 없다고 하신다(23).

병이 나았어도, 돈을 벌었어도, 슬픔을 이겼어도 주님이 지배하지 않으면 중립 지대, 더 위험하다.
그래서 축사가 위험하다. 유튜브, 정동수 목사 '신유와 축사'

말씀의 핵심(24-26).

병행 구절 마12:43-45, 45 끝에는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종교의 늪에 빠진 사람들, 표적, 기적, 보여 달라고 함(16)

이런 사람들에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새해 결심, 부모의 죽음, 교통사고 등 슬픔). "정신 차리고 살아야
지!" 현금, 주일성수, 그런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중 상태가 더 나쁘게 된다.

이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임, 천주교인 구원 무지 어려워, 일반 교인 바른 진리 No!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쉽다.

사람의 마음 발이 종교로 가득 차면 외적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그 변화가 점점 더 그를 수렁으로 몬다.
입교, 세례, 집사, 장로, 구원도 못 받고 이런 사이클에 빠지면 안 된다.

마귀의 왕국에서 100% 온전히, 완전히 탈출해야 한다. 내적 변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샤느냐, 죽느냐가 눈에 달렸다(45)

성경말씀: 눅11:27-36

지난 주,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음. 말을 함. 오히려 트집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요구” 주님의 말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나 왕국은 망한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이르렀다.”, “마귀보다 강한 자가 그를 노략한다. 내가 바로 그 존재다. 나와함께 하지 않으면 마귀 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 편 아니면 마귀 편, 우리는 누구 편인가? 같은 생각, 믿음, 소망 마귀가 나가니 외적 치장, 그러나 외적 치장은 소용이 없다. 내면의 변화, 나중 형편이 더 나쁘다. 종교적 열성이 아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가 바로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은 세대

한 여자의 응답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다!”(27). 예수님도 인정하심(28). 원래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귀한 심성을 보시고 선택, 복 주심(눅1:28, 30, 42-43), 카톨릭 교회로 인해 이 땅에서 가장 크게 오해받는 여인 천주교의 마리아는 성경의 마리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 무염시태, 몽소승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마리아를 사랑하고 훗날에 그녀를 만난 것을 기대한다. 사생아 출산의 이유로 멸시와 천대, 십자가에서 아들의 처형(눅2:35), 부활, 승천, 오순절 우리 교회에 마리아처럼 귀한 품성으로 귀한 아이들을 출산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인들(눅1:38)

예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28).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도 된다. 목사, 장로 집사의 아들딸이 아니라도 좋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계1:3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계시, 영감, 보존, 번역, 해석, 적용,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복을 받으려면 일단 말씀들이 다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듣고 지키지 않겠는가?

마24:35, 계22:18-19

하나님께서 말씀 보존의 약속을 주셨으므로 그분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는다.

그 말씀이 우리 손에 지금 있다. 뜬 구름 잡는 것이 아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내 손안에 있다(롬10:8-9).

목사 겸 교사가 있다(엡4:11-12). 성도들의 훈련과 양육이 있다. 교제가 있다(목, 금, 주일 오후).

어떤 예수님을 바라는가?(29)

사람마다 예수님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말 못하는 마귀를 내쫓으니 (1) 마귀를 힘입어, (2)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함,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 주고 이스라엘이 최강국이 되게 하는 메시아 상, 자기들의 고정 관념 속에 들어 있는 메시아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인류의 아버지, 창3:15, 여자의 씨로 온 세상 모든 사람 구원이 목표, 즉 우리 생각만 하지 말자.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나와 가족, 우리 교회 중심: 맞는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머무르면 유대인들처럼 되기 쉽다. 지금의 세상 변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 인공지능의 승리

이러한 체제로 적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징계하는 시대가 열린다.

세상의 끝이 다가옴: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음질하고 지식이 증가한다(단12:3).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가상현실 세계가 열리면 진짜 현실과 가상현실의 구분을 못하고 귀멸한다. 인간 복제, 인간과 짐승의 하이브리드 카메라 생산, 인류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생긴다(노아의 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심판 초래

예수님은 인간에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

악한 세대(29)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하신 자들의 특징: (1) 끊임없이 표적 요구, 신사도, 오순절 은사 운동

(2) 돈 벌려고 교회에 오는 자들, 딤편6:3-10, 심지어 이득을 취하려고 교회 방문, 국회의원 등

(3) 24-26절의 부정확한 영 이야기처럼 외적 치장은 하는데 속중심이 변하지 않는다.

주님의 정죄의 말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세대에게 줄 것이 없다(29).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주전 77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맹주로 아시리아가 등장함
아시리아는 썸의 둘째 아들 앓수르에서 유래, 수도는 니느웨: 엄청나게 커서 도시를 도는 데 사흘 정도 걸림. 어린아이만 12만 명, 전체 인구는 60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
포악한 통치, 사악한 우상 숭배

하나님 자신의 공흠을 보이기 위해 유대인 대언자 요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냄.

요나의 생각: 하나님은 공흠이 많으므로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 유대인이 왜 이방인에게 가나?
다시스(스페인 행)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 결국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짐
큰 물고기 즉 고래가 그를 삼키므로 그는 물고기 배 속에 밤낮으로 사흘 동안 갇혀 있음(욘1:17)

많은 사람들의 오해: 요나는 살아 있다가 물고기가 토하니 밖으로 나왔다. No!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죽었다. 몸은 죽고 그의 혼은 지옥의 배 속에 들어갔다(2:2, 6).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다(2:6).

그 결과 고래가 그를 토해 내자 그의 혼이 다시 그에게 돌아와 그는 부활하였다.

마12:40, 행2:25-28

“마귀의 간계를 통해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것이 너희를 정죄하는 근거이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것보다 더 큰 표적과 기적이 어디 있는가?”

“마귀는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나는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다. 마귀와 인간 모두를 창조하였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듣지 않으려는 세대에게는 부활의 표적이 정죄의 근거가 된다.

부활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요나가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섬(32)

요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역하던 불순종의 인물,

그런데 그가 가서 선포하는데 니느웨 사람들 전체가 회개함. 1000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크고 흰 왕좌 심판(계20:11-15), 구원받지 못한 자들 부활, 정죄의 심판, 이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부활하여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함. “우리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어찌서 너희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회개 촉구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죄는 올바르다.”

솔로몬 당시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먼 여행기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옴(왕상10장). 솔로몬은 누구인가? 배도의 극치, 시작은 좋으나 나중이 안 좋은 인물, 쾌락에 몰두함,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영광을 보여 주자 세바의 여왕의 고백(10:9)
결국 세바의 여왕이 에티오피아 땅으로 돌아가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결국 에티오피아의 팔라샤 유대인들에 생겨남

요나와 솔로몬: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의 명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알려주면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성품, 요구 사항, 보상, 심판, 정죄 등이 모두 여기 이 책에 이룩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보존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

이 악한 세대의 문제: 그들은 눈이 망가졌다(33-36)

등잔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는 이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33)

몸의 등불은 눈(34), 단일한 눈이 있고 악한 눈이 있다.

왜 눈이 나오나? 사람에게는 여러 지체, 사람을 생각하며 얼굴, 얼굴에서도 눈
눈이 고장 나면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34).

눈 자체를 통해 빛이 들어온다(35).

“그러므로 눈을 단일하게 하여 빛으로 네 자신을 채우라. 이 악한 세대는 눈이 비뚤어졌다.”

단일한 눈: 일편단심의 단순한 눈, 주님께로 고정해야 한다(히12:1-2, 시119:130).

보존해 주신 성경으로 고정해야 한다. 신약교회로 고정해야 한다.

기득권 등 여러 가지 생각하면 눈이 어두워진다.

종교의 틀 즉 구습을 버려야 산다(46)

성경말씀: 눅11:37-54

지난 주, “살고 죽은 것이 눈에 달렸다”, 34절, 자기 스스로 세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틀을 가진 사람들은 ‘악한 세대’: (1) 끊임없이 표적 요구, (2) 돈 벌려고 교회에 옴, (3) 외적 치장은 하는데 속중심이 변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즉 부활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최종 불신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들 정죄, 세바의 여왕이 이들 정죄, 거역하는 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변화됨.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도 거부, 원인: 눈이 비뚤어졌다. 눈이 성하지 않다. 그래서 바로 보지 못한다. 올바른 눈을 가지고 바로 보는 사람들은 28절과 36절의 복이 임함

종교지도자들을 향한 저주

몇 달 남지 않은 공생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 종교심은 참으로 끈질기다(갈1:13-14). 28절을 말씀하시고 33-36절에서 눈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함
드디어 예수님의 순결한 분노가 이들을 향해 타오름.

어떤 바리새인의 초청(37), 초청의 이유: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53-54)

식사 전에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김(38)

막7:1-4에는 유대인들의 의식 법 문제, 즉 씻는 문제가 나옴, 설명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37-41)

바리새인들(분리주의자)은 600여 개의 부가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지켰다. 이것들을 통해 의를 얻으려고 특히 씻는 것을 중히 여김. 겉이 깨끗하면 의롭게 되는 줄로 착각함(39)

겉의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의 것도 만드심, 즉 하나님이 속사람을 만드심(시51:6, 10), 둘 다를 원하심, 특히 상한 영, 그런데 종교인들은 항상 겉의 것만을 나타냄(마6:1-4), 구제, 기도, 금식 주는 척 하는데 속에는 탐욕이 가득해서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속 중심을 드러지 않음

유대인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할 책무가 있었다(신15). 이때는 아직 구약 시대, 신정정치 시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구제나 선행 등으로 나타내야만 하였다. 그래야 산 믿음

그런데 이들은 누가 볼 때는 하고 안 보면 안 함. 그래서 구제 문제를 말씀하심(41절).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면 이미 속이 깨끗한 자, 회개의 증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말이 겉고 지저분함’. 이빨을 닦는다고 되지 않고 속 중심을 바꾸어야 된다.

종교인들의 죄(42-52)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6번이나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정죄하심(마23), ‘Woe’라는 단어에 주목

1. 조그만 것(채소)도 십분의 일을 드리려고 세밀하게 노력함(42). 그러나 속중심이 바르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판단의 공의와 긍휼(미6:7-8): 믿음에서 나오는 구제와 선행

이들의 전공은 부차적인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

아직 구약 시대, 신정 정치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십일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율법의 십일조를 하라고 하신다. 교회에게 하라는 것 아님. 그런데 그것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도루묵

2. 명예와 명성을 인품 위로 높였다. 그 결과 맨 윗자리와 인사 받는 것을 탐하였다(43).

긴 옷(눅20:46), 긴 기도(마23:14), 목사가 신부처럼 로만칼라를 하면 안 된다.

일반 교회, 목사 음식 따로, 목사 자리 따로, 우리는 똑같이 즐서서 먹고 설거지도 한다.

3. 그 결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드러나지 않는 무덤같이 됨

유대인들의 의식 법은 죽은 자와 접촉하는 것을 철저히 금함(민19:11-22). 그래서 무덤은 잘 표시함.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체가 무덤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만나 이야기하거나 악수하면 그것 자체가 더러움이 된다고 직격탄, 즉 그들 자체가 사람들을 더럽히는 악한 존재, 크게 한방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반발(45)

4. 이들의 특징: 메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지워 주는 것(46),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음
이미 여러 문제로 기진맥진한 성도들에게 문제를 더 안겨 주는 사람들(로마 압제, 전쟁)

현시대 시도 대도 없이 교회에 가야 하고(수많은 행사) 특히 헌금을 드려야 함

현대 교회의 문제: 헌금이 너무 많다. 네이버에 가서 '헌금 종류'라고 치니 한국 교회의 헌금 종류가 무려 70-80개로 나온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

교회용어사전: 예배 및 예식, 2013년 판, 공식 헌금만 20여 가지

- ① 매주일 예배 시에 드리는 '주일헌금'. ② 소득의 1/10을 드리는 '십일조헌금.'. ③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약속하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약정헌금'(주정헌금, 월정헌금). ④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각종 '감사헌금'(생일감사헌금, 심방감사헌금, 부흥회감사헌금, 특별감사헌금, 일반감사헌금 등). ⑤ 각 절기나 특별주일마다 드리는 '절기감사헌금'(부활절헌금, 맥추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성탄절헌금 등). ⑥ '특별주일헌금'(성서주일헌금, 평신도주일헌금, 신학교주일헌금 등). ⑦ 각종 '의무헌금'(총회주일헌금, 세례교인헌금 등). ⑧ 이외에도 '부서별헌금', '속회(구역)헌금', '은급헌금', '선교헌금', '헌신예배헌금', '건축헌금'

여기에 일천 번째 헌금도 있다. 이것은 사악한 일(면죄부)

이렇게 헌금이 많은 교회는 우리나라뿐, 그러니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 교회의 헌금은 딱 2종류: 정기 자원헌금(10분의 일 이상을 자원해서 드림)과 특별헌금(건축, 미디어 선교, 구제), 여선교회 남선교회 또 회비 No, 커피, 밥 등 우리가 하는 것
주님의 말씀(마11:28-30): 헌금하지 말라는 것이 이남,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5. 이들은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들고 미화한다(47).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수행함. 돌무덤을 만드는 것을 보니 너희 조상들의 행위가 선하지 않다(48).
구약의 역사: 첫 대언자 아벨부터(창4:1-15) 사가라까지(대하24:20-27): 아합의 딸인 아달라가 유다 왕조의 모든 씨를 죽이려 함, 요아스만 살아남음,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7살에 왕이 됨. 여호야다가 아달라를 죽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섬김. 그러나 그가 죽자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18-19).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의 대언의 책망(20), 요아스가 그를 죽임(21)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지금의 구조가 아니다. 모세오경이 가장 먼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역대기상하가 나온다. 그래서 스가라는 구약에서 순교한 마지막 대언자. 예수님은 히브리 성경을 사용하심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그 세대에게 요구한다(51). 무서운 정죄

6.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았다(52).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 자기들만의 리그를 짰다: “아무나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훈련받은 우리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중세 암흑시대에 천주교회는 성경을 금서로 지정하고 오직 사제들만 읽고 해석하게 하였다. 복음을 듣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런 때에 에라스무스, 틴데일, 루터 같은 학자들이 일어나 보통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지금도 이런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마치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수두룩하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항상 공통어로 성경을 전수해 주신다. 주후 1600년 이후로는 영어가 세계 공통어, 원어를 그대로 옮긴 킹제임스 성경, 오대양 육대주, 신학, 교리, 무오류
그러므로 원어를 몰라도 영어 성경을 읽거나 영어를 그대로 옮긴 우리말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원어로 주신 의미를 100%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손 안에 바로 그 성경이 있다.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 이해의 열쇠는 바로 성령님, 그분의 조명(요14:26; 16:13)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목사 겸 교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엡4:11-12).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바르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요8:31-32).

결론: 종교의 틀 구습을 버려야 한다

신약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구약 틀, 사고방식, 습관 버려야 산다. 킹제임스 성경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땅 분배, 유언, 세겔 언약(수24)

14-15, 23절

신약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구약 틀, 사고방식, 습관 버려야 산다. 킹제임스 성경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고전6).

한국 교회와 성도, 위선을 버려야 산다(47)

성경말씀: 눅12:1-12

공생에 마지막 부분, 어떤 바리새인의 초청, 손을 씻지 않음, 겉과 속 둘 다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먼저 속이 깨끗해야 한다. 종교인들은 그 반대다. 6번이나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정죄하심(마23). 바리새인들: 채소의 십일조, 판단의 공의 및 정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율법사들: 과도한 짐,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음, 지식의 열쇠를 빼앗음.

우리 교회의 사역: 열쇠를 돌려주는 것

신약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구약 틀, 사고방식, 습관 버려야 산다. 킹제임스 성경

종교인들의 문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당황함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의 정죄, 기회를 엿봄(11:53-54),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원을 매우 확실하게 지적함(1): 제자들,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살려면 위선을 버려라. <한국 교회와 성도, 위선을 버려야 산다>, 쓸데없는 종교 행위의 밑바닥에는 위선이 있다.

위선(Hypocrisy)

예수님 사역의 핵심: 위선 척결, 위선(총 6회): 구약 1회(사32:6), 복음서 3회(마23:28; 막12:15; 눅12:1), 바울(딤후4:2), 야고보(약3:17)

위선자(복수 20회, 구약 3회, 신약 17회 모두 예수님), (단수10회, 구약7회, 신약 3회 예수님)

그러므로 위선과 위선자는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며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신 것

뜻: 숨기다, 덮다(2-3), 전12:14, 잠15:3,

배우 노릇하다, 실제 배우는 울어야 하는데도 연극을 위해 웃어야 함

막7:6-7,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성경을 오히려 파괴함

네이버 사전: 겉으로만 착한 체함. 또는 그런 짓이나 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면서 원래 그 자체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른 것을 섞어 넣으면 그것은 위선이다”[『기독교의 정신』 1. 331]. “자신에게 진실되지 않은 것을 감히 진실하다고 공표하는 거짓”[『정신현상학』 3. 463f.]

예수님 사역의 핵심: 위선 척결

사32장 천년왕국, 5-8절, 위선이 없어지는 때, 비열한 자가 없어지는 때

위선의 예

늪은 고양이의 독백: 나도 가사를 입고 행세를 해야겠다, 2016년 4월 22일(금), 브레이크 뉴스

저자: 이법철 시인 승려, 킬럼니스트

절에 사는 늪은 고양이, 쥐를 잡기 어렵다. 묘수: 어떻게 먹고살지 노승을 연구함. “노승이 가사를 입고 눈을 지그시 아래로 뜨고 근엄하게 좌선자세로 앉아 명상에 잠긴 듯 하면 남녀신도들이 공손히 절하고 공양물을 바친다” 그래서 이 늪은 고양이도 가사를 걸치고 노승처럼 좌선자세로 앉아 눈을 지긋이 아래로 뜨고 명상에 잠긴 듯 근엄하게 앉아 보았다. 그랬더니 쥐들이 몰려옴. 마지막 쥐 사냥, 사술(위선)이 오래가지 못함, 나중에는 들통 나서 쥐떼들의 반격으로 고양이는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

늪은 고양이의 독백 “나도 가사를 입고 행세를 해야겠다” 낭독

이분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종교요, 종교의 위선이다. 어디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을 가장 미워하신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위선과 가식 배척, 목사의 편지

위선의 원인(4-7)

위선은 포장하는 것, 포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4)

특히 사람과 이 세상 삶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 매이면 사람이 위선자가 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명품이 그래서 유행, 청년들이 유럽 차

위선을 피하려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만 두려워하면 된다(5).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잠언과 성경 전체의 결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늘의 참새도 다 기억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6).

마10:29, 참새 두 마리 일 아사리온, 여기는 5마리 2아사리온, 보잘 것 없는 것은 텀으로 준다.

그런데 그 보잘 것 없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신다.

욥의 교만, 하나님의 대답(욥38:39-41, 39:1-2, 13, 19, 27-30)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히13:5-6).

그러므로 위선을 행하며 탐욕을 부리지 말라(눅11:39).

머리털(7) 수(평균 10만 개), 나고 떨어지는 것도 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보다 귀하다.

성도도 걸린다

갈2:11-14, 베드로와 심지어 바나바도 위선에 넘어가서 바울의 책망을 받음

예: 0. 억지로 구원, 억지로 예배, 억지로 헌금 하는 척

1. “우리 이것하면 어때요?” “기도해 보고 알려드릴 게요” “하나님의 뜻” 운운

2. 교회만 오면 성경 이야기(가정생활, 사회생활 빵점)

3. 목사 앞에서와 성도들 앞에서 언행이 바뀜

4.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음(그런데 시간, 물질, 섬김의 희생이 오면 슬그머니 피함).

즉 바른 것을 시인해야 할 때, 시행해야 할 때 부인(8-9)

플링: “일반 교회와 무엇이 달라?” 속마음은 하기 싫은데 이유는 달리 나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무도 채근하지 않는다. 다른 이유, 변명 No!

다른 교회로 가는 것 자유: 가서는 위선이 나온다. 다른 이유가 나온다.

어떤 분의 말: 교회에서 나간 형제, 공공연히 킹제임스 성경 부인, 그러면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에 다닌다.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실은 많은데. 그것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목사의 헌금 남용이 가나안 신자를 만든다.

위선은 전염병이다: 누룩

누룩, 퍼진다. 고전6:6-8

그래서 퍼지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 전체가 뜬다.

그래서 교제 모임을 통해 자기의 위선을 인식하고 잘라내야 한다.

교제가 안 되면 성장 멈춤, 문제 생김

요즘 목요 자매 모임

결론

예수님 사역의 핵심: 위석 척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와 아니오가 확실해야 한다(고후1:17-18).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의식주를 채워주실 것, 우리의 일을 알아주실 것을 믿고 정직하게 한다.

킵바이블: 복음의 원수는 누구인가? 김재욱

늙은 고양이의 독백 “나도 가사를 입고 행세를 해야겠다”

현시대 불교계에 가사 입은 늙은 고양이같이 먹고살기 위해 사기술을 상습으로 펼치는 ‘가사 입은 승려들은 전무할까? 아니다. 나는 일부 가사 입은 승려들에 대해 의혹과 의구심을 갖은 지 오래라고 감히 주장한다.

“일부 가사 입은 승려들은 간판에 사암(寺庵)의 간판을 붙이고 불상을 봉안해 놓았지만, 속내는 선량한 신도를 유혹하고 믿게 하려는 위선이 있고, 속내는 오직 돈을 받아내기 위해 실력 없는 점술가 노릇을 한다. 명리학의 깊은 이치를 모르면서 부처님을 내세워 황당한 예언을 하고 마치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피화구복(避禍求福)의 부적과 지옥고를 면하고 극락행 티켓을 특별히 주듯 하며 돈을 받아낸다. 또 인간이 운수가 안 좋고, 재수가 없는 원인은 죽은 조상이 천도(遷度)를 간절히 원하는 데(즉 좋은 데로 가기를 원하여 기도를 드려주기 원하는데, 연옥 개념) 안 해주는 탓에 현세의 부귀를 얻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1천만원이나 5백만원을 내고 조상 천도를 하면 반드시 소망하는 부귀를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봐, 천만 원을 내어 천도를 하면 몇 십억 몇 백억을 벌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가? 어리석은 중생아!”

“서울에서 예언으로 명망을 떨치며 갈퀴로 돈을 낙엽 굵듯 한다는 모 사찰의 모 고승은 지옥과 극락을 수시로 오가고, 생전의 죄업으로 지옥에서 고통 받는 귀신을 구해 극락행을 보장해주는 신통력이 있다고 선전하고 주장한다. 그는 선전하기를 하루에 1인당 10만원씩 7명만 운명 감정을 해주고 참선삼매에 들어서 버린다고 한다. 10만원씩 운명 감정을 하는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복을 구하러 오면(문복자(問卜者)), 특별히 귀신 천도를 해야 한다며 돈을 받아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가사를 입은 고양이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사를 입은 승려 가운데 더 악질 배는 돈을 탐착하여 부처님을 내세우고 선량한 신도들에게 사기 치는 것보다 더 간악한 고수가 또 있다. 돈이 혈안이 되어 불상 뱃속을 뒤지고, 문화재의 불상과 탱화를 팔아먹는 짓을 한다.”

“작금에는 한국불교계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위시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무고의 욕설을 퍼붓고 북한에서 모든 종교를 말살한 김일성을 추종하는 좌익 승려들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다. 이 자들 역시 가사 입은 도적들이 아닌가?”

“내가 관찰하여 얻은 결론은 한국 불교는 망해가도 승려들 자체의 정화로서는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면 가사 입은 도적들이 고위층 정관계에 뇌물을 뿌리며 동패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방법은 국민에게 진상을 보고하는 것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끝으로, 나는 선량한 고양이를 무고하고 모함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가사를 입은 고양이 얘기로 일부 돈을 위해 도적질하는 자들과 김일성에 혈안이 된 승려들을 대오각성 시키려는 의도뿐이다. 고양이 애호가들이 내게 고발, 진정이 없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중생들에게 가사입고 사기 치지 말고, 모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시켜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적은 양무리여, 너희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4B)

성경말씀: 눅12:13-34

공생에 마지막 부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겉과 속이 다른 것
원인: 사람과 이 세상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
위선은 누룩과 같이 퍼진다. 도려내야 한다. 개개인, 교회가

보통 사람의 등장과 탐욕의 현실

예수님이 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는 수많은 무리(1절) 중에 한 사람이 불쑥 나섬(13)

주님의 대답: 내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 말의 초점은 땅의 일이 아니다(14).

나는 지금 인간의 부패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리새인들: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십일조(11:42),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함. 왜 그런가?

문제의 핵심은 탐욕이다(11:39; 12:15). 그래서 선행과 구제도 위선으로 한다.

탐욕은 사람을 추하게 만든다. 갑자기 뛰어드는 무례함(13), 주님의 '사람아' 응답

미국인 은행가의 예

자수성가 5형제자매, 자매의 아버지가 죽음, 집에 갔더니 나머지 4명이 모든 가구 등에 자기 이름을

붙여 놓음. 장례식 자체가 엉망, 마지막 날 저녁 식사 시간, 이 자매의 남편이 일어나 한 마디

'모두 귀중한 것에 딱지를 붙였군요', '저도 하렵니다' 어머니 손을 잡음"

탐욕=필요 이상으로 원하고 소유하는 것

출20:17을 범하는 죄, 우상숭배(골3:5; 엡5:3)

위선과 탐욕으로 재산을 불려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15).

지금 부자로 살아도 그것은 산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유한하다. 70-80 혹은 100세
그 이후의 생명이 참 생명이다. 그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는 자(시14:1)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16-21)

여기 부자는 모든 사람을 말함, 특히 종교적 위선으로 부를 쌓는 자들

쌓아 둘 곳이 없다(17), 공간을 헐고 더 크게(18), 나만 잘 먹고 잘 살자(19): 은퇴 이야기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쾌락주의, 솔로몬의 죄, 은퇴는 쾌락 No!

부자는 다 '나' 이야기만 한다(10여 회 이상), 내 열매, 내 공간, 나, 나, 나

구약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도와야 한다.

신15의 면제년 규정: 7년마다 면제(1-6), 가난한 자 구제(7, 11)

신정국가 체제에서는 이것이 유지되어야 백성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겉으로만 위선의 십일조 하지 말고 실제 필요한 선행과 구제를 해야 한다(11:41).

선행과 구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믿음이 있으면 해야 한다(잠21:26).

요약: 예수님의 말씀(33), 신정국가 체제의 헌금과 구제와 선행

그러나 이것은 교회 시대 성도들의 보상과 동일한 원리(고전3:12-15)

성도들에게도 보상의 심판이 있다(계22:12): 믿음의 행위에 따른 보상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34).

누구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보상을 받는 일에는 크게 신경을 쓴다.

하나님의 심판(20): 네가 죽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처럼 당장 죽든지 혹은 몇 년 더 살든지 죽는 것인 정해져 있다(히9:27).

위선 떠는 사람들, 종교인들의 정죄(21):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하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회 헌금: 하나로 교회 살림, 선교 구제 등 감당, 대단히 감사하다.

과거의 우리를 돌아보자. 종교의 구습에서 대단히 힘들게 헌금 생활

우리 교회로 온 이후로 헌금 생활이 어떤가 스스로 판단하자.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가, 내게 대해 부요한가?

헌금은 부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고후8:1-2). 이런 아이러니가 믿음의 삶

뼈를 깎는 아픔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아픔이 없으면 헌금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교회: 구약의 십일조는 강조하지 않는다. 다만 자발적으로 십분의 일 이상을 드리라고 가르친다.

이것을 남용하지 말라.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책무, 어쩔 수 없이 가르친다.

여러분의 보물이 정말로 하늘에 쌓인다고 하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해야 한다.

반대편 사람들: 주님의 성도들

반면에 목숨을 내걸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 자들이 있다(22). 그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22-23)

까마귀 이야기(24)

결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부자도 많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주님께 맡기라는 뜻이다(25-26).

세상 부귀나 물질에 대한 우리의 흥망성쇠는 주님에게 달렸다.

출판사 운영(킹제임스 성경, 자유로운 행로), 목회(교회 크기, 진리의 말씀 전달) 등 양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주님의 뜻으로 알고 포기

다만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하고 나갈 것이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지 아니하셨느냐?(27-28) 백합, 학교의 툴립: 너무 너무 좋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드나?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신다(28).

그러므로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29).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필요 이상을 요구하는 탐욕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30). 만사형통, 무병장수는 기독교가 아니다.

적은 양무리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31).

생명 외에 더해 주신다(요10:10).

왕국: 하나님의 통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개인, 가정, 교회, 사회, 온 세상

주님의 말씀(32): 적은 양무리여

이렇게 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울의 탄식(빌2:19-22, 딤후4:9-11)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는 것은 기적이다: 느슨한 교회, 부목사 전도사 전무, 1주일 1번 모임 “스스로 서야 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이 자리를 잡고 확산되는 것은 기적이다: 사무실 직원 무(전화도 안 받음), 학익동 가장 허름한 돈에 지하 1층, 광고 홍보 전무: 경북 통합 측 목사님 3분 방문

이것이 얼마나 같지는 모르지만 교회 역사에서 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항상 적은 무리

그러므로 대형 교회 프로젝트 같은 것은 상상도 말자.

형편이 되는 대로 무리하지 않고 한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 안 되면 다시 원점 복귀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무리한 짐이 되어 모두 떠나면 못함

주님의 말씀 요약(33-34): 너희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섬김, 모임, 헌금, 선교, 구제 하늘 바라보고 하기 바란다.

딤후4:6-8

현물로 드릴 준비, 선한 싸움, 달려갈 기, 의의 왕관, 의로우신 심판자

할 일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49)

성경말씀: 눅12:35-48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사람의 속 중심을 아신다(요2:24-25). 위선 문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위선자, 탐욕, 의식주걱정, 인생 80만 생각함. 땅의 것에만 신경 씀 그런데 주님은 멀리 생각하라고 하신다(눅12:4-5). 그 멀리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

주님이 재림하셔야 인간의 모든 고통이 끝난다. 창조물의 신음, 평화의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적은 양 무리여(32), 성도들의 고난이 끝난다. 몸의 구속

우리의 보물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현실이 됨, <할 일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오늘 본문은 조금 난해하다. 재림 설명이 필요함. 앞부분은 교육, 적용

재림

신구약에서 재림은 초림보다 8배나 더 많이 예언됨. 타원의 두 초점

신약에서 재림은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됨.

신약에서만 총 318회, 신약: 총 260장, 1장에 1.2번 정도 언급됨.

4복음서에서 예수님은 20여 회 재림에 대해 직접 언급하심(마23:37-39; 요14:1-3)

승천 시(행1:9-11), 히9:28(바울은 50여 차례 언급), 계22:20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확신의 대상: 전천년, 환난 전 휴거

오늘 본문은 재림 상황, 본문과 재림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이해 필요(요14:1-3)

신랑이 될 청년이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가 될 처녀의 집에 가서 정혼, 그 날 언약을 맺음,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육신적으로는 No!),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어느 정도의 기간에 처소를 마련함. 그 뒤 신부의 집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결혼 예식, 육체적 결합, 7일 후 신부를 데리고 나와 공개함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땅에 내려와 자신을 지참금으로 주고 피로 세우는 새 언약으로 신약 교회와 정혼, 승천, 처소 예비, 다시 와서 신부 데리고 감, 혼인 예식, 신부 공개

승천 이후 신부를 데리고 가는 날까지는 기다리는 시간, 데려가는 날이 곧 휴거의 날

휴거(부활)의 날짜는 모르지만 주님의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이 있다(살전4:16-17).

7년 동안 신부 심판(그리스도의 심판석), 혼인 예식 등(계4-19장), 계19:7과 11절, 주님과 신부

그 7년 동안 땅에서는 극심한 환난, 적그리스도, 이 환난은 원래 유대인들

이것을 통해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 이방인들 구원, 천년왕국에 들어감

재림의 총 기간은 약 7년, 재림 관련 구절을 읽을 때 휴거(공중 강림), 환난기, 재림(현현) 구분

본문 배경과 시점

눅12:35-48 말씀은 1차적으로 12제자(22, 너희), 재림의 끝 부분: 7년 환난기 끝의 유대인 대상

동일 말씀(마24:42-51), 마24는 유대인 환난, 29절 환난기 끝에 주님의 지상 강림

그 날과 그 시각은 모름(36), 깨어 있으라(42), 42-51절은 누가복음 본문과 동일한 말씀

그러므로 이 부분은 7년 환난기가 끝난 뒤 주님의 지상 강림 상황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옴(36), 결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식을 마치고 돌아옴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다. 신부는 이미 신랑이 데려갔다.

신랑이 신부와 같이 옴(환난 전 휴거), 기다리는 자들이 신랑과 신부에게 문을 열어 줌(36)

이들은 1차적으로 환난기 끝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유대인,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딤후2:15)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 일 등은 동일하므로 이 말씀을 영적으로 교회에 적용하려 할

일하며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타나는 때는 전통적으로 밤이다. 지금의 교회 시대

등불(35), 졸 시간이므로 “깨어 있으라”(37), 이경이나 삼경(38), 휴거와 지상 강림이 밤에 일어남을 뜻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관례에 따라 밤을 넷으로 나누었다(마14:25; 막6:48; 13:35; 눅12:38).

1경(저녁 6-9시), 2경(9-12시), 3경(12-3시), 4경(3-6시)

막13:35(저물 때, 한밤중, 닭 울 때, 아침녘)

예수님은 언제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신다(39, 계3:3; 16:15).

1. 일을 하며 기다려야 한다(35-36). 밤에도 허리띠. 등불 손질(기름 준비 등), 딤후2:13
 데살로니가 교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손 놓고 지내는 자들
 다미 선교회, 재림 군대, 신부 단장(매일 밤 기도회 등) No!
 구원받은 성도들, 언제 휴거가 일어나나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할 일 하면 된다.

개인: 온전한 개인 생활, 가정생활, 교회 생활, 사회생활

교회: 말씀 선포, 교육, 훈련, 선교와 구제

2. 깨어 있어야 한다(37). 밤에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살전5:6
 세상의 징조(54-57), 때를 분별하라. 인간 복제
 유대인 귀환, 이슬람, 동성애, 진화론(뉴에이지), 윤리 타락, 종교 통합,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3. 주님의 보상(37): 심지어 주인이 종들을 섬긴다. 실제로 약 6개월 뒤 요13장에서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 줌. 주님의 법칙: 십자가 이후에 보상이 있다. 분명히 보상이 있다.

딤후4:6-8

헌물로 드릴 준비, 선한 싸움, 달려갈 기, 의의 왕관, 의로우신 심판자

두 부류의 사람들과 두 부류의 보상(41-48)

베드로의 질문(41):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대답: 1차적으로 12제자, 2차적으로 주님의 양들을 맡은 교회의 리더들(42)

3차: 모든 성도(42)

청지기: 주인의 것을 받아 관리하는 자(고전4:1-2)

청지기는 신실함에 대해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있다: 보상과 형벌

이때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다.

의로운 분, 의롭다는 공평을 뜻함, 그 공평은 보상과 형벌에도 나타난다.

1.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42-43)
 십 으나 이야기(눅19:15-17), (1) 일 으나, 십 으나, 열 도시, (2) 오 으나, 다섯 도시
 땅에서의 잠정적인 일에 신실한 자는 영원한 왕국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는다.
2. 깨어 있지 않고 마시고 취하는 중(45-46)
 교리적으로 볼 때 이 구절을 사용해서 교회 시대 성도의 구원 취소를 가르치면 안 된다.
 1차 대상은 환난기의 유대인들, 극심한 환난, 대환난기 3년 반, 여기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들
 당연히 불신자로서 불신자가 받을 몫에 참여한다(46).
3. 불신자의 심판에도 등급이 있다(47-48).
 동일한 죄에 대해서도 정당한 심판이 있다. 가장 큰 죄: 구원 거부
 계19:11-12, 1000년 왕국 이후 흰 왕좌 심판
 1. 좋은 가정(부모), 교육, 문화에서 주님을 알기 쉬운 자들은 더 큰 정죄를 받는다.
 2. 이교도 국가, 이슬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렵다. 적은 정죄를 받는다.

성도도 마찬가지로(계22:12)

결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위선자, 탐욕, 의식주걱정, 인생 80만 생각함. 땅의 것에만 신경 씀
 그런데 주님은 멀리 생각하라고 하신다(눅12:4-5). 그 멀리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
 일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주님은 의롭게 보상해 주신다. 공동 상속자, 신성에 참여하는 자, 성화와 선교, 미디어 선교

위선의 실체와 지상 교회의 부패(50)

성경말씀: 눅13:10-21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6개월(눅9:51), 모든 도시를 다니며 최종 사역, 사역 요약: 위선 척결
원인: 탐욕, 사람의 두려움 등, 주님은 멀리 내다보라고 하신다(눅12:4-5). 그 멀리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 주님이 재림하셔야 인간의 모든 고통이 끝난다. 창조물의 신음, 성도들의 고난이 끝난다. 몸의 구속,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며 조용히 할 일 하면서 기다린다. 개인: 온전한 개인 생활, 가정생활, 교회 생활, 사회생활, 교회: 말씀 선포, 교육, 훈련, 선교와 구제
이 말씀 뒤에 주님이 오신 목적(눅12:49-53): 예수님이 들어가면 분열. 참과 거짓, 빛과 어둠
때 구분(눅12:54-59): 위선자들,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는 구분 못함
회개해야 산다(13:1-10),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임, 그들이 더 큰 죄인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해야 한다. 망대로 죽은 18명, 그들이 더 큰 죄인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해야 한다. 내 문제다. 위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6-10): 삼년 동안 기다렸지만 한 해만 더 기다린다. 위선 타개 촉구
이렇게 위선과 탐욕, 근시안적인 시각, 회개 무시, 주님의 인내 등을 이야기해도 여전히 불통
오늘 본문(눅13:11-17) 다시 한 번 위선의 실체와 하나님의 백성의 부패를 보여 주심

사건 배경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심(10), 이미 안식일 문제는 여러 번 언급(눅6:1-5, 6-11 등)
불쌍한 여인(11): 18년 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힘, 몸이 굽고 휘어져서 몸을 전혀 들지 못함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살다가 마귀의 공격으로 18년 동안 몸이 굽어 땅만 보고 살게 됨
여인의 태도: 18년 동안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간구하였으나 응답이 없음. 그래도 여전히 화를 내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려고 기도드리려고 나옴, 신실함, 18(6+6+6)

이 여인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럽다. “과연 18년 동안 병중에서도 신실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치유(12): 사람들의 필요를 간파하심, 네가 나왔다. 병약함에서 풀려났다. 해방
이분이 누구신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인: 사탄, 죄와 불법(시38:6), 고통(시42:5), 고난(시44:25)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손을 대자 병이 나옴, 병약함에서 완전히 풀려났다(12).

여인의 즉각적인 감사(13): 하나님께 영광, 거기 모인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사건
예수님의 왕국 복음 파위(눅4:18-19), 기적, 표적, 마귀 내쫓음, 병자 고침, 눈먼 자, 죽은 자
회당 치리자의 반응: 여인에 대한 동정심 없음, 예수님의 통치 거부, 영광과 감사는 전혀 없다.

화를 내며 사람들에게 말함(14). “6일 동안 일 할 날이 있으니 그 날 고쳐라. 안식일에는 안 된다.”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에 행해도 아무 문제없다.

여인은 고침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18년 동안 못 고침). 예수님도 가르치려 가셨다(1).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곤궁에 빠진 여인을 보자 하나님의 긍휼이 그 여인을 고침
원래 누가 이 여인을 고쳐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양들을 말아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의 치리자
자기는 못하는데 남이 하니 다른 이유를 들어 화를 냄, “우리는 어떤가?”

여인을 묶은 줄은 그녀의 몸에만 영향을 미침. 이 사람을 묶은 줄은 그의 영과 혼에 영향을 줌.

그 결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함(눅12:56-57), “우리는 어떤가?”

전통과 자기 생각에 매여 하나님을 대적함: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위선

내가 하는 일이 진정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나를 위한 것은 아닌가? 혹은 쓸데없는 전통을 지키려는 것인가?

위선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눅12:2-3)

예수님의 말씀(15-16): “짐승을 살리려고 안식일에 물을 주지 않느냐?”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시달림. 그녀를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안식을 주는 것
다른 날에 고쳐도 됨, 하루 이틀 있다 해도 됨. 그런데 일부러 안식일을 택함

그 이유는 참된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16절의 ‘매인 것을 풀어 주는 것’이 안식이다. 기독교

1.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긴 것 정죄, 다른 회중도 마찬가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전통과 형식이 사람을 묶으면 풀어 주어야 함
 무법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거룩함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2.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 여인의 영적인 상태, 구원받은 자, 마귀의 영향 하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고후12:7의 사도 바울처럼. 사탄의 사자, 모든 병이 마귀의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등은 예외
 구원받은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다.
3. 마귀는 속박, 예수님은 해방
 안식일의 참된 의미: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막2:27-28). 이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성도가 자유를 방종의 도구로 삼으면 권징이 이루어진다.
4. 두 가지 반응(17): 부끄러워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
 핵심: 본질과 비본질, 융통성의 문제(교회 건축 문제 등).

영적인 적용: 구원과 성화

1. 여인은 몸이 굽어 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다 굽어 있다.
2. 몸이 휘어서 땅만 본다. 죄로 인해 육적인 사람은 땅의 일에만 관심
 사람과 짐승의 차이, 짐승은 땅만 본다. 사람을 하늘을 본다.
3. 속박에 묶여 있다. 마귀와 죄와 육신에게 묶여 있다.
4. 예수님을 만남으로 굽은 것이 펴지고 속박에서 풀려난다(행26:17-18).
5.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6.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된다.
7. 문제: 몸이 펴진 뒤 다시 땅만 보고 살면 될 것인가?(골3:1-2, 5-9)
8. 목사와 교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맞지만(구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성화와 권징)
9. 그래서 본질적으로 옳은 것은 구하되 본질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지 못함

하나님의 왕국 설명

무엇과 같은가?(18)

1. 겨자 씨(19), 큰 나무, 공중의 날짐승들
2. 누룩(21), 전체를 뜨게 함

많은 사람들의 해석: 교회의 확장, 세상 정복, 기독교 세상 혹은 국가, 특히 천주교 신학 체계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런 해석이 맞지 않음

누룩: 출12:14-20부터 시작해서 나쁜 이미지, 눅12:1,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겨자 씨: 채소(마13:32)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거하면 비정상적인 일

종합해 볼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적은 무리의 성도들(씨)이 결국 커지기는
 하나 마귀의 영향(누룩)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마귀들이 깃드는 처소로 변모하는 것을 보여 줌.
 아브라함에서 유대교 부패, 12명에서 온 세상 부패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아도 헛된 것이 비정상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정의,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기쁨(롬14:17-18), 의와 화평과 기쁨이 사라지면
 교회를 그만두어야 한다. 의로움: 바르게 판단하는 것, 화평: 평안한 것, 기쁨: 좋은 것

고전5:6-8 설명, 퍼뜨리는 것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 목사, 집사 등에게 직접 말하고 풀어야 한다. 말을 퍼뜨리면 누룩과 같이 퍼진다.
 그러면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다. 듣는 사람들도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목사와 리더들이 명백히 잘못하
 지 않는 한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교회가 선다. 내가 아니라 교회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51)

성경말씀: 눅13:22-35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6개월(눅9:51), 하나님의 왕국 선포 최종 사역, 사역 요약: 위선 척결
종교인들: 위선과 탐욕, 근시안적인 시각, 회개 무관심, 주님의 인내 등을 이야기해도 여전히 보통
18년 동안 병약하게 하는 영에 걸린 여인을 안식일에 고침,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전형적인 위선자: 회당의 치리자, 6일 동안 와서 고쳐라. 짐승 이야기
두 가지 반응(17): 부끄러워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 우리 역시 위선을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 설명: 무엇과 같은가?(18)

1. 겨자 씨(19), 큰 나무, 공중의 날짐승들, 2. 누룩(21), 전체를 뜨게 함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적은 무리의 성도들(씨)이 커지기는 하나 마귀의 영향(누룩)에
의해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하여 마귀들이 깃드는 처소로 변모함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유대인, 이삭, 야곱, 12족장, 이집트 탈출, 장정만 60만
모세 시대에 율법을 받고 유대교 확립, 신정정치 국가 설립, 1500년이 지난 시점 위선자 투성이
신약 교회도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퍼졌지만 과연 얼마나 온전한가는 물음표(?)
재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본문 배경

눅9:51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함(22): 가는 여정에서 여러 도시들 다니며 왕국 복음 선포
한 사람의 질문(23):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주님의 대답(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많은 자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능히 들어가지 못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다. 현시대 개인에게는 영적 적용 가능

유대인들이 잘 아는 잔치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설명: 오신 목적 설명

아브라함, 이삭, 대언자들이 중요 손님으로 초대를 받음(28)

그런데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은 정작 잔치 자리에 나타나지 않음(24-25)

시간이 정해져 있다: 집 주인이 문을 닫으면 끝이다(25)

그들의 변명(26): 여기의 우리는 유대인,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많은 일을 하였다.

정해진 시간 이후에 온 자들을 향한 집 주인의 말(27):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먼저 초대받은 그들은 쫓겨나고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국에 앉는다(29).

교회 시대가 열리며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다(30).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문을 닫기 전에 묵묵히 하실 일을 해야 함(31-33).

북쪽에서 밀로 오시면서 갈릴리 혹은 페레아로 오심: 이곳의 통치자는 헤롯 안디바, 그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함, 침례자 요한의 책망 결국 그를 죽임

바리새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고소하여 죽이려 함, 그런데 자기들의 본 고장은 유대
그러므로 헤롯을 핑계로 들어 예수님을 페레아에서 유대로 내쫓으려 함(31)

예수님의 대답(32): 나는 정해진 시간표가 있다.

“완전하게 된다”: 갈릴리와 페레아라는 헤롯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다.

나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33): 나는 반드시 유대에 가야 한다. 그런데 헤롯 때문이
아니다. 나는 대언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어야 한다.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주인이 문을 닫을 때다. 문을 일단 닫으면 교회 시대가 열린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옆으로 젖혀진다. 이방인들의 교회, 로마서 11장 이야기

그 이유(34):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물을 활짝 열었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34).

그 결과 너희 집: 이스라엘 땅과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다(35). AD70 로마의 티투스 장군, 성전 파괴
이스라엘 유랑 생활, 73년 마사다 전투에서 900명 이상의 열심당원들이 모두 패하고 유랑 생활

언제까지 유대인들이 옆으로 젖혀지는가?(35)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유대인들,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인으로 변모, 전통, 위선, 탐욕, 근시안

유대교는 화려한데 구원받을 자가 적음,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는 많은데 구원받을 자가 적음

1. 구원은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만 받는다.

24절의 ‘힘쓰다’: 처절하게 아픔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뜻이다.

엡2:8-9와 상치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선한 행위, 종교 행위로 구원을 살 수 없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의미: 구원은 한 사람의 영원 상태를 결정하므로 큰 고통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주는지 탐구하라는 것이다. 히11:6

아무런 탐구와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 찾는 것은 사람의 몫

롬2:6-9, 내 존재, 죄, 하나님의 심판, 영원, 성육신, 예수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해야 한다.

2.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입구가 단 하나밖에 없다(요14:6). 예수님 외에는 없다.

행4:12, 다른 사람 안에는

요10:7-10,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다른 모든 자들은 도둑이다. 결국 생명을 빼앗는다.

종교다원주의: 정상에 가는 길이 여럿이다.

물구나무서기 십일, 금식기도 40일, 구원, 찾는 자가 무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종교심: 무언가 자기의 의를 더하고 싶어 하는 마음,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교만)

하나님께 나오려면 인간의 교만을 꺾어야 한다. 납작 엎드려져야 한다.

이 날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 그 이후에는 성장(요3)

3.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도 좁다. 만사형통, 만수무강, 물질 및 자식들 축복의 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100% 확실하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 땅의 복은 보장 없음

‘길이 좁다’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됨을 뜻한다: 그러면 반드시 위선자가 된다.

말을 보자: 부부끼리, 가족 끼리, 교회 예배에서, 동창회, 교회 소모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

대화 내용, 노는 것, 옷 등이 초지일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 안 그러면 위선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의 인도대로 사는 것은 심히 좁은 길이다(벧전4:1-5).

4.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 유대인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다(34).

친척, 친구, 배우자, 자식의 죽음, 고통, 직장 어려움, 배우자, 목사의 설교 등

구약과 달리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었다.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그런데 반드시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 죽거나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면 끝이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 있는 동안 구원받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5. 유대인들이 주님의 초림 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그들은 원치 아니하였다(34).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만원 선물을 하려고 해도 아들이 원치 않으면 선물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 형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찢려 피를 흘리고 가장 아픈 고통으로 죽었다. 죄 없는 어린양이 단번 속죄로 우리의 구원을

자신의 피 값으로 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탐구하고 그분께 나아오면 누구든지 행위와

상관없이 아들딸로 삼아 주신다(요1:12);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요3:16, 롬10:10, 13

받아들이고 믿고 부르는 것은 내 몫이다. 하나님이 대신 해 주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설득해도 안 되는 자들이 있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사람은 로봇이 아니다. 자유 의지를 주셨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내 구원이 안 된다.

교만하면 패망한다(52)

성경말씀: 눅14:1-24

공생에 마지막 6개월(눅9:51), 하나님의 왕국 선포 최종 사역, 대다수 유대인들의 문제점 적시
종교인들: 위선과 탐욕, 근시안적인 시각, 회개 무관심, 주님의 인내 등을 이야기해도 여전히 불통
유대인/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안식일과 십일조 준수, 특히 안식일, 이것만 지키면 만사 OK

안식일 총들(1-6)

1.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먹음(6:1-5):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
2. 병자를 고침(6:6-12), 손이 오그라든 사람, 안식일에 선을 해야 한다.
3. 18년 동안 병약함이 영, 몸이 굵은 여인 고침(13:10-17), 안식일이라도 고쳐 주어야 한다.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대할 것 3번(7:36; 11:37, 그리고 오늘 14:1)

1. 여인의 향유 옥합, 2. 바리새인들은 위선자 맹공격, 3. 바리새인들을 잠잠하게 함
오늘은 수종이 있는 남자(2): 액체가 빠지지 않아 몸이 부어오르는 증세
예수님의 직격탄(3), 그들이 잠잠함(4), 그를 고친 뒤 교훈(5), 다시는 대답하지 못함(6)
율법의 요약(마23:34-39):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 사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다.
그런데 왜 종교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11절이 답이다. <교만하면 패망한다>

잔치 비유 1(7-11): 교만이 문제이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눈여겨보심(7): 으뜸가는 자리를 탐함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8-10)

그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의 행태

바리새인들의 문제: 탐욕, 위선, 그리고 명예, 마23:6(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가는 자리)
이들에게는 늘 교만이 따라다닌다(11). “제발 나를 높여 주시오!” 구제, 기도, 금식 등 공치사
자기를 높이는 자

1. 바리새인과 죄인(눅18:9-14): 결국 자기를 하나님 이상으로 높이면 구원받지 못한다.
2. 제자들(눅22:24-27): 구원받은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주의 만찬(14-23)
3. 젊은 성도들(벧전5:5-6): 리더십에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 무질서는 용납할 수 없다.

잔치 비유 2(12-14): 초대의 동기

잔치에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심(12)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라. 지금 온 사람들은 다 부자다. 다시 갚을 수 있다.

보답할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 부활 때에 네가 보답을 받으리라.

바리새인의 의도: 1) 과거에 초대했으니 자기도 함, 2) 후에 자기를 초대하게 하려고, 이것도 위선
예수님 당시의 풍습: 가난하고 병든 자, 여인 초대 No, 예수님은 이것을 타파함

즉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동기가 중요하다.

교회에서도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해야 한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하였다(약2:1-4). 재물, 지식, 명예 등으로 사람 판단 No!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비유(15)

영이 가난해서 복음에 순종할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대개 영이 가난하였다.
그리하면 구원으로 인도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다.

잔치 비유 3(15-24)

이야기가 책망으로 이어지자 좌중의 한 사람이 버럭 소리를 지름(15).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앉은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설명

이스라엘의 풍습: 큰 잔치를 열면 두 번 초대한다.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찬 준비

그 뒤 준비가 되면 그 시각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직접 사람을 보내어 올 것을 정중하게 요청함(17)
초대받은 자들의 변명 1. 땅을 사서 보러 가야 한다(18), 2. 소 다섯 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한다(19),

3. 장가들어서 갈 수 없다(20).

모두 거절 사유가 빈약함: 1, 2는 말이 안 됨, 3. 신24:5, 전쟁에 보내지 말고 일을 맡기지 말라. 이에 종이 와서 주인에게 변명 사유를 알리니(21) 주인이 가난한 자 등 초대하라고 함(21)

자리가 여전히 남았다고 하니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억지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라고 함(23). 결론(24); 처음 초대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

처음 초대받은 자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알고 교육을 받은 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마23:13, 15)

나중에 초대받은 가난한 자들: 말 그대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마21:31-32)

그런데도 자리가 모자라 산울타리까지 가서 채운다. 이들은 이방인(요10:16)

하나님의 왕국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대언자들과 구약 성도들(13:28), 대개 핍박받은 자들, 연약한 자들(히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람, 모세(33-38)

한 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노아의 120년 선포

오늘 여기 앉은 우리는 어떠한가?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가? 그분을 두려워하는가? 그분의 선물인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가? 형식에 치우쳐서 종교인이 되면 교만하게 된다. 자리, 명예, 교세 다름 건물, 교인 수, 현금 자랑, 미국 같으면 버스 사역 자랑

다 중요한 지표이지만 이런 것들을 목표로 두고 뛰면 패망한다.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시75:6).

처음 초대받은 유대인들의 패망 사례

예수님 처형의 주범들: 대제사장, 수제사장들, 치리자들, 서기관들, 장로들(마26:57)

빌라도의 고백(27:24): 그는 의로운 사람, 백성의 대답(25):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유대인들의 패망, 근 2000년 동안 유랑 생활, 천주교 박해, 중세 유럽인들 박해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인종 청소, 600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 은혜로 1948년 5월에 나라 건설 주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전에(눅13:35) 창세 이후로 없는 큰 환난이 남아 있다(슥13:8-8)

그 뒤 주님의 올리브산 강림(슥14)

우리의 교훈: 하나님의 백성이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가 임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자리다툼과 교만 그리고 탐욕, 그 결과 위선자들이 배출된다.

성경의 위선자는 다 종교적 틀을 쓴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은혜로 수용하였는가?

아직도 하지 않았으면 스스로 교만한 것이다. 먼지만도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을 재판하려 한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겸손하게 사는가? 품행이 단정한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가?

1. 완전한 성경을 주셨다. 번역하고 알리고 있는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2. 구원의 복음 바른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미디어 선교

구원과 성화, 천주교, 이슬람, 동성애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가?

3. 시대적 사명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교육이다. 우리는 다 죽고 만다. 우리는 이 세대를 섬기다 죽어야 한다. 한국 사람으로서, 죽기 전에 가능한 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이들 정신 및 신앙 교육,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

교회 건축도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한다. 50세 이상의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10-40대까지 그러므로 여기 속한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보상을 빼앗긴다.

죄인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53)

성경말씀: 눅15:1-10

대다수 유대인들/종교인들의 문제점: 위선과 탐욕, 근시안적인 시각, 회개 무관심, 교만

특히 이들은 안식일과 십일조 준수라는 율법의 종교 행위에 집착함

공생애 이후 눅14장까지 총 4번의 안식일 충돌, 바리새인들이 3번 예수님 초청, 예수님의 위선자 책망
지난주에는 그들의 교만 책망(11) “제발 나를 높여 주시오!” 구제, 기도, 금식 등 공치사

자기를 높이는 자는 패망한다. 구원, 성화가 안 된다.

먼저 기회가 주어졌으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 초청 무시: 세리 창녀, 이방인 등 겸손한 자들 구원
주님의 결론(24),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겸손하게 사는가? 품행이 단정한가?

특히 40대 이하는 정신을 차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보상을 빼앗긴다.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25-33), 1월 31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 책망: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따라옴(25)

주님의 말씀(26-27):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사사로운 인정으로 왕국을 망칠 수는 없다.

비용을 치러야 한다. 망대 이야기(28-30): 이미 있는 기초 위에 빌딩을 세우는 것, 구원이 아니라

성화, 소금 이야기(34-35): 고대의 소금의 용도, 우리는 썩는 것을 보존할 가치를 지닌 소금이다.

이것이 제 가치를 발하지 못하면 내버림을 당한다. 고전3장: 보상이 없다는 말이다.

배경(1-2)

세리들과 죄인들이 고무되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옴(1).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평(2)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동전, 아들의 비유가 있다. 두 부류: 죄인들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모으는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내쫓는다.

죄인들이 온 이유: 음식 대접, 돈, 혹은 말씀 타협 No, 주님의 관심, 그들의 필요 인식, 도와줌

바리새인들: 그들을 비난하고 거리를 둬(눅18:9-14), 구약의 율법을 알고 규정들을 만들어 깨끗하게
살려고 하였으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 모든 것을 법대로

“어찌 이 사람이 이런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함께 먹을 수 있단 말인가?”(2) 이에 대한 답변이
15장, 유대인 지도자들의 무지(눅19:10),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기독교의 핵심: 죄인만 구원받는다(딤펴전1:15).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할렐루야! 당신은 죄인인가?

바리새인들의 문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의 두 요소: 1.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아 나신다. 2. 탕자의 이야기: 사람이 회개하고
와야 한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살후2:13-14, <죄인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 남자들의 관심사(4-7)

양이 길을 잃는 이유: 어리석음, 나면서부터 길을 잃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사53:6)

바리새인들, 세리들을 길 잃은 양으로 보았으나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함

이것이 위선이다(마7:3-5), 예수님의 줄기찬 메시지, 위선, 위선, 위선

99마리를 두고 떠난다(4):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안전하지만 한 마리는 위험하
다. 즉 목자에게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

왜 그런가? 길 잃은 양은 오도 가도 못하는 무기력한 신세, 그런데 대부분이 이것을 알지 못함

잘못 해석해서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됨. 비유 초점: 한 사람의 중요성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의 최종 목적은 마지막 한 마리 양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1.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 한 마리 양

어제 동성애 집회(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반대한다).

2.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찾아 나신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4개의 기쁨(7): 1. 양의 기쁨(행3:8; 8:39 등): 우리 모두의 증언, 2. 찾는 일을 하는 사람의 기쁨:
복음 전도자(우리), 3. 이웃들의 기쁨, 4. 천사들과 아버지의 기쁨

잃어버린 동전: 여자들의 관심사(8-10)

동전을 잃은 이유: 누군가의 부주의

유대인 처녀의 결혼 표시: 10개의 동전이 달린 머리 밴드를 착용함. 그래서 동전을 잃으면 큰일
드라크마 동전: 1. 광석이나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돈으로 쓰이는 동전, 왕의 형상이 박혀 돌아다니는
데마다 왕의 권위를 드러냄(눅20:19-25). 이것이 사람의 용도, 2. 그것을 잃어버리면 왕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음. 그래서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짐.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됨. 3. 그런데 여전히 가치가 있다. 회복만 하면 된다. 4. 그것을 집에서
잃어버림, 망망대해나 첩첩산중이면 아무 소망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
요약 정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형상의 일부가 망가짐. 구원받으면
성령 하나님은 그 형상을 복원해 주시고 결국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신 예수님처럼 되며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게 됨(벧후1:4).

팔레스타인의 집은 대개 햇빛을 가려야 해서 어둡다(8). 바닥은 골풀을 깔아서 많은 먼지, 그래서 동전을
잃으면 낮에도 등불을 켜서 집을 쓸며 주의 깊게 찾아야 함
이렇게 해서 찾을 때 그녀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움(9), 위의 목자는 아들 하나님
여기의 여인은 성령 하나님, 여기의 빛은 진리, 청소: 구원받기 전 하나님께서 죄인을 털어내는 것,
심지어 혼동과 무질서까지도 포함됨(사업 실패, 가정 문제, 관계 실패 등), 그 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들어옴(시119:130), 여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음

잃어버렸다는 것의 의미

1. 제 자리에 없다: 양은 우리에게, 동전에 밴드에,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2. 기능을 못한다: 목자에게, 여주인에게 가치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죄인을 찾아 나서서 제 자리에 돕으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죄인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

우리는 큰 의미 없이 받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쇼크

“감히 하나님이 사람을 그것도 죄인을 찾아 나서다니!”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눅7:34)

이런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실족하였다. 영지주의 자들도 마찬가지

1. 아담과 이브(창3:8-9)
2. 가인(창4:9)
3. 노아(창6:8)
4. 아브라함(창12:1)
5. 야곱(창28:10)
6. 모세(출3:1)
7. 기드온(삿6:11)
8. 다윗(삼상16): 사무엘이 찾아가서 막내 다윗을 찾아내어 기름을 부음
9. 요셉과 마리아(눅1)
10. 베드로와 어부들, 세리 마태, 수가성의 여인, 삭개오
11. 바울(행9)
12. 예수님(마1:20-23),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땅에까지 와서 죄인들을 찾아 나섬(시
8:3-4)

내 아버지, 혈혈단신, 나를 보라. 대학 공부, 대학원, 교수, 여기서도, 성경 번역, 목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은 어떤가? 찾아 나선 하나님에게 발견되었는가?
일생에 그 일이 있어야 한다. 그 뒤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결국 그 형상에 합치하게 된다.

회개하는 아들과 반항하는 아들(54)

성경말씀: 눅15:11-32

복음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준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즉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좋은 성도가 되려면 읽고 적용해야 한다.

대다수 유대인들/종교인들: 위선과 탐욕, 회개 무관심, 교만, 자기들의 기준인 종교 행위로 사람 판단

본인들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은 낙오자 취급

본인들의 눈에는 들보, 다른 사람의 티만 본다. 이것이 위선이다(마7:3-5). 지옥 행, 성장 불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속 중심, 세리, 창녀의 절박한 상황, 애태우는 사람 죄인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태’ 인지, ‘지금 그대로 나오니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과 창녀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며 나아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리하지 않음,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함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동전, 아들의 비유가 있다. 예수님의 포인트(눅19:10)

유대인 지도자들의 무지: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 잃어버린 자를 죄인이라고 함,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성장 불가 구원의 두 요소: 1.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아 나신다. 2. 잃어버린 아들 비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회개하는 아들과 반항하는 아들>

잃어버린 양(4-7)

양은 어리석음으로 길을 잃는다. 타고난 본성,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사53:6).

목자는 길 잃은 양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 나서고 드디어 찾아낸다.

즉 목자에게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 아들 하나님이 목자로 오심

잃어버린 동전(8-10)

부주의로 동전을 잃는다. 드라크마 동전에는 왕의 형상이 있다. 동전을 잃어버리면 왕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나 죄로 인해 형상의 일부가 망가짐.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 성령님은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찾아낸다. 그래서 우리는 형상을 회복한다.

잃어버린 아들(11-24)

하나님이 직접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아 나서는데 그러면 누가 그분께 발견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양과 동전 비유는 하나님이 찾아 나서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들 이야기는 사람이 해야 할 일 100마리, 10개의 동전, 한 아들로 대상이 좁혀짐,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11), 작은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 혼자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함

자기 몫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물 허비, 드디어 궁핍하게 됨(12-14)

먹고 살기 위해 그 나라 국민에게 붙어 돼지를 치: 최악의 상황(15)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을 먹으려 하나 아무도 주지 않음(16)

드디어 제 정신이 들(17):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가! 나는 굶어죽는구나!

회개(18-19), 구원에 필요한 일 두 가지,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회개

드디어 돌아가니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춤(20): 달리는 일은 혼치 않음

아들의 회개 고백(21), 아버지의 영접(22-23)

아버지의 선언(24)과 기쁨(25)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이 그림으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1. 사람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자 하고(의지) 실행함: 아담과 이브 이후의 모든 사람의 특징(창3:4-5) 아이들도 악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다. 사람보다 물건, 의무보다 쾌락, 근처 기쁨보다 먼 곳 쾌락
2. 먼 나라로 떠나 흥청망청 살다 보니 최악의 상황, 파산, 죄의 번민, 제정신, ‘영혼의 어두운 밤’ 탐욕을 부렸지만 그것이 삶을 윤택하게 하지 못함(눅12:15)
3. 믿음과 회개, 아버지 외에는 답이 없다. 4. 결국 실행(이것이 참된 회개), 5.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영접(요3:16; 뱀후3:9), 6. 종에서 아들로(우리의 기대 이상의 보상), 롬8:15-17의 외침, 시

103:10-14, 7. 집안의 기쁨

4.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가 바로 오도가도 못 하는 잃어버린 양이며 동전이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을 되찾는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5.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서지만 오직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만 발견된다. 세리들과 창녀들, 영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이 작은 아들
6. 이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극심한 빈민, 영언의 어두운 밤, 자기를 낳은 아버지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기쁨을 누린다.
7. 우리는 어떤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적이 있는가? 창조자 아버지를 믿는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가?

반항하는 아들(25-32)

탕자 이야기를 듣고는 바리새인들의 안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끝이 아니다.

세리들, 죄인들은 육신적인 죄, 저차원의 죄, 바리새인들은 영과 마음의 죄

큰아들은 들에 있다가 집에 오니 음악과 춤추는 소리(25)

종의 대답(27), 형의 반응(28), 아버지의 간청(28)

형의 대답(29): 나는 깨끗하게 법대로 살았습니다. 제게 보상이 없었습니다. 망나니로 살던 동생이 오니 송아지를 잡았습니다(30). 그에게는 장점이 있었다: 열심히 일하고 불명예 No!

아버지의 대답(31): 다 네 것이다. 그래도 죽은 네 동생이 왔으니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32).

형의 문제: (1) 율법의 가장 큰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마23:34-40) 그런데 그는 자기 동생이 죽을 고생을 한 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그를 미워하거나 무시한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사랑이 없고 가증하기 그지없다.

(2)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저 사람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눅18:9-14).

여기에도 거짓이 있다: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29): 바로 지금 어기지 않았는가? 교만과 위선

(3) 아버지를 섬긴 목적이 무엇인가? 그는 아버지가 좋아서 섬긴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으려고 섬겼다. 그의 모든 종교 행위는 무언가 보상을 받는 데 있다. 성숙한 성도는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그분만 믿는다. 보상은 주시면 감사, 그러나 보상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신랑 신부 돈 때문에 결혼

(4) 아버지와 동생 멸시: 아버지의 간청(28)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

동생을 멸시한다: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30)

동생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며 동시에 이것이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지적한다(요일2:9-11).

(5) 동생과 아버지에게 화를 낸다: 자기만 옳다고

화는 내야 할 때 내야 하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내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 나의 모든 것이 원래는 큰 아들의 것이다: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을 누리지도, 유용하게 사용한 적도 없다. 기쁨이 없다.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문제(롬9:31-33; 10:3). 롬2:4

하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설득하려고 지금도 기다리신다(32).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교훈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우는가? 죄를 지어도 돌아오게 키워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가?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질서를 파괴하도록 두라는 말이 아니다.

큰 아들만 빼고는 15장의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렸다. 예수님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주님을 섬기는 이 생활이 의무인가, 기쁨이 넘치는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4가지 기쁨(7): 1. 양의 기쁨(행3:8; 8:39 등): 우리 모두의 증언, 2. 찾는 일을 하는 사람의 기쁨: 복음 전도자(우리), 3. 이웃들의 기쁨, 4. 천사들과 아버지의 기쁨

돈 바르게 쓰기(55)

성경말씀: 눅16:1-13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착한 사람을 부르려고. 착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 무언가 모르는 사람
눅15에는 잃어버린 양, 동전, 아들의 비유가 있다. 예수님의 포인트(눅19:10)

유대인 지도자들의 무지: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죄인이라고 함,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성장 불가
구원의 두 요소: 1. 하나님이 직접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아 나신다. 2. 잃어버린 아들 비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작은 아들: 죄인, 자기 뜻대로 살며 방탕하다가 제 정신이 들어 아버지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다. 기쁨
큰 아들: 종교인,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기쁨이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아버지와 동생 멀리
큰 아들만 빼고는 15장의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렸다. 예수님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작은 아들: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 큰 아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후자의 문제: 위선, 근본 원인, 교만과 탐욕, 눅16장은 탐욕의 문제,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1-13)

탐욕을 부리면서 위선에 빠져 종교 생활을 하면 지옥에 간다(14-31)

21세기 기독교의 문제: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된다. 베니 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들, 뉴에이지 추종자들, 부를 찾아 헤맨다.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나?
“돈은 천국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다. 행복을 빼고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기억해야 한다: “ 돈은 탐욕을 일으키는 원동력, 잘 쓰면 좋은 중, 못 쓰면 무서운 주인
복음서의 예수님 사역에는 재물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들을 섬김,
제자들에게 그들과 나누라고 이야기하심, 초대 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나옴
회개하기 전의 작은 아들: 인생과 재물 허비, 큰 아들: 불평에 차서 재물을 제대로 쓰지 못함

둘 다 옳지 않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인생과 재물, 기회를 바르게 써야 함

성경의 재물 관

재물, 돈은 악한가, 선한가, 중립적인가?

부자에 대한 저주(눅6:24), 어리석은 부자 비유(눅12:13-21), 부자와 나사로(눅16:19-31), 부자
치리자(눅18:18-30), 전반적으로 돈은 잘 사용하지 않으면 패망으로 심지어 지옥으로 이끈다.
딤후6:6-10,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

세상을 살기 위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재물 필요, 거기에 매이면 고통이 온다.

그래서 재물을 바르게 써야 한다는 말씀을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다(1). <돈 바르게 쓰기>

청지기

어떤 청지기(1-2): 부자의 재산 관리인,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 주인을 위해 재산을 쓰고 누린다.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신실함(고전4:2), 믿음직해야 한다.

재산을 보며 늘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주인의 유익, 기쁨을 위해 바르게 써야 한다.”
이 청지기는 이것을 놓치고 재산을 허비함, 주인이 알고 회계 보고 요청, 해임
우리는 어떤가? 우리 역시 주님의 청지기, 인생, 재물, 지식, 재능, 기회, 그리스도의 심판석(롬
14:10-12; 고후5:10)

돈: 십일조만 하면 다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회계 보고해야 할
때가 있다. 눅12의 부자(12:21)

시간: 그리스도인은 시간도 잘 관리해야 한다(엡5:15-17).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의 청지기는 기회를 잘 사용해서 미래를 준비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

인생의 목적을 즐기는 데 두면 안 된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재능: 재능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섬겨야 한다. 음악, 방송, 음식, 권면, 운동, 기쁨

말씀과 복음의 청지기(살전2:4): 바른 성경을 지켜야 한다. 바른 복음을 지키고 알려야 한다.

신실하게 한 대로 보상을 주실 것이다. 목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청지기의 지혜로움

청지기의 현실 인식(4):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주인에게 빛 진 자들을 불러 빛을 탕감해 줌(5-7)

기름 백 말, 오십으로, 밀 백석, 팔십으로

심지어 그의 주인도 미래를 준비하는 그를 칭찬함(8)

예수님은 청지기가 재물을 훔치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일을 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다.

그가 자기의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한 것을 칭찬함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지혜롭다(8)

세상 사람들은 시가의 한계 안에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

세 가지 적용

다시 강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1)

1. 영원한 것을 위해 써야 한다(9), 삶은 끝난다. 돈, 기회, 학식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딤후5:7).

특히 돈은 불의하다. 11절의 참된 재물과 대비, '신뢰할 수 없다. 속인다. 멸망으로 이끈다'

거짓말로 속여서 대출 얻은 불의한 돈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런 것들로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영존하는 처소에서 우리를 환영한다.

우리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 바르게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영존하는 처소를 주는 게 아니다.

4절과 9절 비교, 이 땅의 집과 하늘의 집,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이 환영하고 환대한다.

주일 헌금, 미디어 선교 헌금, 건물 헌금, 구제 헌금, 폴링 등(고후9:6-11)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눅12:33-34).

우리는 이 세대를 섬기다가 다 남겨두고 간다. 삼성 이진희 회장, 롯데 신격호 회장

우리의 물질로 인해 천국에서 기뻐할 성도들을 생각하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2. 작은 것에 신실해야 큰 것에도 신실할 수 있다(10-12절).

재물을 바르게 써야 한다. 재물은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셔야 바르게 쓰일 수 있다.

바울과 베드로 등 모두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보았다(딤후3:3, 8; 벰전5:2).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돈에 의해 부패된다.

성경과 교리가 정확하면 돈도 바르게 써야 한다.

돈 문제가 깨끗하지 않고 사역을 지원해 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다. 특히 목사들이 이 문제에서 정직해야 한다.

헌금 취급에 관한 한 바울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고후8:21).

3. 하나님과 맘몬 둘 다를 섬길 수 없다(13). 이것은 한 사람이 두 방향으로 가려는 것, 개와 두 사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나머지는 주님이 해 주신다(마6:19-24).

즉 온전히 주님께로 초점을 두어야 한다(마6:33).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돈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쓸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돈의 종, 돈을 허비할 것이다.

6월 11일 동성에 집회, 악한 세력들 돈 잔치, 우리도 저지하기 위해 찬조하였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 건축, 일루미나티의 상징들, 오벨리스크(남성 성기) 종탑, 타원형 눈 모양의 교회 안마당에 세계 지도, 호루스의 눈, 남녀의 합일을 통한 다산의 축복(인도의 남근상)

결론

우리는 청지기, 삶은 반드시 끝이 난다. 회계 보고한다.

지금의 재물, 재능, 기회, 시간을 미래를 위해 써야 한다.

특히 구원과 성경을 위해, 영원한 것, 영원한 성도들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부리는 사람,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사람

재물이 풍성한 자, 비전이 큰 신실한 청지기가 많이 나와 복음 사역, 성경 사역 등에 매진하기 바란다.

지옥: 종교적 위선자들의 종착지(눅56)

성경말씀: 눅16:14-31

많은 사람들의 문제: 탐욕, 특히 “주어진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15장, 회개하기 전의 작은 아들:
인생과 재물 허비, 큰 아들: 불평에 차서 재물을 제대로 쓰지 못함, 둘 다 옳지 않음

지혜로운 청지기

청지기직 회계보고, 박탈, 우리는 청지기, 삶은 반드시 끝이 난다. 회계 보고한다.

1. 세상의 돈, 기회, 학식, 명예를 영원한 것을 위해 써야 한다, 성경, 복음, 교회, 구원받을 지들
2. 작은 것에 신실해야 큰 것에도 신실할 수 있다. 돈 문제 등 육적인 일에 신실해야 한다.
3. 하나님과 맘몬 둘 다를 섬길 수 없다(13). 온전히 주님께로 초점을 두어야 한다(마6:33).

바리새인들의 반응

듣고는 비웃음(14): “영원한 가치, 천국이 다 무슨 말인가?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님의 정곡 찌르기(15): 기도, 구제, 종교 행위 모두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 눈에는 굉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크게 평가받는 것은 가증한 것, 교황
우리과 우리 교회가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속이 빈 채 큰 것을 추구하면 문제가 된다.

재물, 명예, 지식, 학식 등으로 평가받으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의미

시대가 바뀌었다(16). 히1:1-2, 이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들어간다.

율법은 폐한 게 아니라 성취되었다(마5:17-20). 고후3:14-17

율법과 대언자를 정확히 알면 당연히 구원자를 알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17). 그런데 너희는 간음하고 있다(18). 출20:14, 창2:24
간음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경건한 척하는데 탐욕, 간음 등 말씀을 범하고 있다.

두 부류의 사람: 바리새인, 하나님의 왕국으로 밀고 들어가는 자

종교인들의 종착지는 지옥이다(19-31)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지옥의 실상을 보여 주신다. 아직 구약시대

부자와 나사로 실화, 비유에는 이름 No, 나사로, 아브라함, 부자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 씨, 씨 뿌리는 자, 땅 등 무엇을 비겨서 교훈을 줌

여기의 지옥, 부자, 나사로, 아브라함, 구렁텅이, 부자의 형제들 등은 무엇과 비교 대상이 아님.

1. 두 사람의 비교(19-21), 부자의 옷 대단한 재물, 나사로의 형편없는 실태

예수님의 초점(16:9), 재물로 영원한 친구들을 만들라. 그들이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 빈부의 양극화 극심함, 주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면 특히 가난한 자들 배려하라.

특히 그 당시 부자들은 거의 다 악한 수단으로 돈을 벌: 내세에 대한 염려 하지 않음, 믿음이 없음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영도 가난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절실하고 확실하였다.

마5:3-6, 눅6:24-25,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 주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다.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

핵심은 영원에 가치를 두는 사람, 세상에 가치를 두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맘몬을 섬기는

2. 죽으면서 운명이 대조적으로 바뀐다(22). 다 죽는다(히9:27).

의인이 먼저 죽고 악인은 장수함, 시편 73편 아삽의 시

믿는 자들은 죽을 때에도 특권이 있다: 천사들이 영접한다. 천사는 성도들을 돕는 영(히1:14)

3. 부자의 지옥 고통(23-24): 이곳은 음부가 아니다. 고통의 장소이다(4번). 전갈의 고통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는데 멀리서 보니(23) 더 고통이다.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24), 유대인, 혈통이 소용없다.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다.

4. 지옥의 필요성: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이 필요한가?

사랑이시지만 근본은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시다.

이 땅에 왜 교도소와 감옥이 필요한가? 살인자 등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평안을 위해 분리시켜야 한다. 거기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사람도 이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라? 하나님은 그분과 같은 품성의 사람만 받아들이신다. 사람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복구된다(롬8:29).

이런 사람만 그분의 신성에 참여한다. 천국
반면에 하나님은 지옥을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드셨다(마25:41).

이들의 특징: 교만, 하나님 대적, 탐욕, 마귀의 사람 유혹: 본질 신들과 같이 되게 함, 교만과 탐욕,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따로 떼어 분리 보관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다(계20:14-15). 이들은 죽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죽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 최종 장소를 불 호수라고 한다. 맨 끝에는 사망과 지옥이 여기로 들어감(15).

5. 지옥의 위치와 구조: 성경의 지옥은 땅(지구) 속 중심부이다(마12:40).

구약 시대에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죽으면 몸은 무덤에, 혼은 땅 속 지하세계로 갔다.
지하 세계는 1) 지옥, 2) 낙원(아브라함의 품), 3) 둘 사이의 구렁텅이(무저갱), 26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사흘 동안 낙원에 가셨다. 누가복음의 강도를 맞이함(눅23:42-43)
그 뒤 부활하시면서 낙원에 있던 모든 혼을 셋째 하늘로 옮김(엡4; 고후12). 지금은 거기에 낙원 지옥과 무저갱은 여전히 땅 속에 있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은 죽자마자 셋째 하늘로 주님께로 간다(고후5:7-8; 빌1:23).

6. 지옥의 특징

-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장소(24), 불의 장소
- 공휴일이 주어지지 않는 장소(25), 공휴일은 이 땅에서만 주어진다.
-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롬2:4). 26절: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다.
-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 아브라함의 대답(25), 부자의 수용 100%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평하지 못함
- 기억이 그대로 존재하는 장소: 나사로, 자기 형제들
- 지옥에 있는 혼의 실체: 보고 느끼고 말한다. 이 혼은 진짜 사람, 성경의 혼은 몸이 있다.
- 계6:9-11, 다섯째 봉인, 말하고 옷을 입는다. 혼의 수면 등은 없다(안식교, 여중).

7. 종교인은 지옥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함, 자녀 No, 아내 No!

5형제,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하여 오지 말게 하라(27-28)
땅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음. 거기서 기억이 남, 시간이 있을 때 여기서 해야 한다.
그의 이 간청도 수용되지 않음. 지옥에서는 어떤 간청도 수용되지 않는다.

8. 주님의 말씀: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다(29). 매주 모여 구약성경을 읽는다. 회당에서 말씀 강론을 듣는다. 핵심: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구약의 여러 사건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매우 무섭다(히12:21, 28-29).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외쳐도 듣지 않는다(31).

9. 성경을 주신 이유(롬15:4): 배움을 위해, 하나님, 창조, 창조물, 사람의 본분, 교만, 탐욕 No 결론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모든 기회를 주셨다. 1. 유대인, 2. 성경, 3. 많은 재산, 4. 나사로(베풀 이웃 21절을 보라, 먼저 죽는 것도 봄 22절)

그러나 그는 15절처럼 사람들 앞에서만 의롭게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들을, 교회를 섬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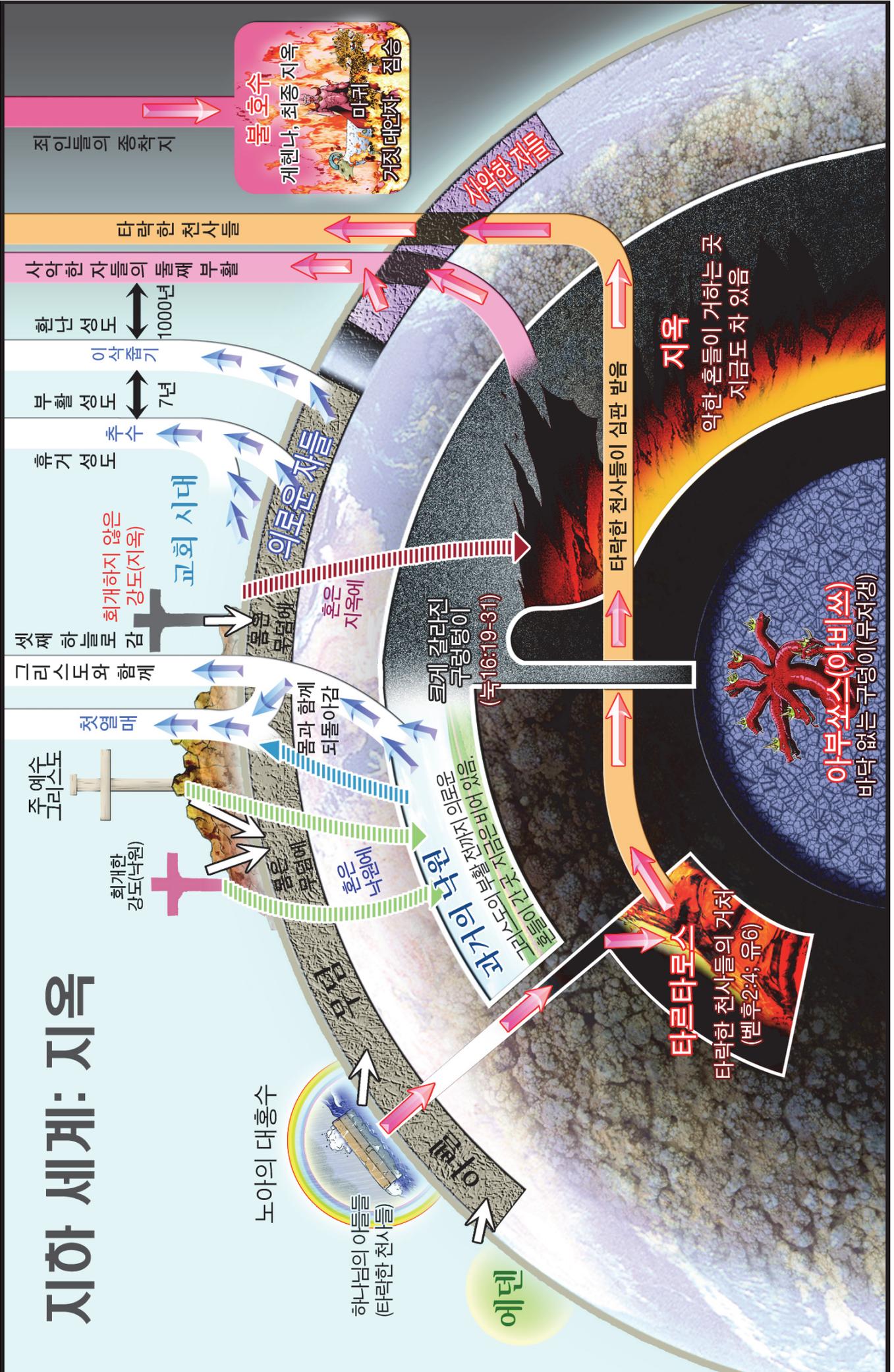
또한 멸망 받을 세상을 사랑하고 때를 파악하며 바르게 살아야 한다.

부자는 지옥에 가셔도 자기와 가족들만 생각, 이기적이다.

그래서 지옥은 혼의 병을 고쳐주는 병원이 아니라 죄인을 가두는 감옥이다.

의로운 자들을 위해 이런 감옥은 반드시 필요하다. 막8:36-38

지하 세계: 지옥



인간의 한계와 제자의 태도(눅57)

성경말씀: 눅17:1-10

많은 사람들의 문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눅16:1-13 자기의 앞날을 위해 미리 미리 예비한 지혜로운 청지기, 1. 돈, 기회, 학식, 명예를 영원한 것을 위해 써야 한다. 2.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13). 온전히 주님께로 초점을 두어야 한다(마6:33).

바리새인들의 반응: 듣고는 비웃음(14): “영원한 가치, 천국이 다 무슨 말인가?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의 외적 모습은 경건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하다. 종교적 위선, 위선자들의 종착지는 지옥 부자와 나사로 실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자마자 지옥, 고통의 장소이다(4번).

공홀 No, 완전한 공의 실현, 다시는 기회가 없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No!

오늘의 개요

16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진다.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1)

눅9:51 이후, 공생애 반 년 남음, 예수님 이후의 교회 시대 제자들 준비

제자들은 구원받은 뒤 주님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약한 자들에게 실족거리를 주면 안 된다 (1-2). 믿음으로 용서해야 한다(3-5), 섬기는 제자의 바른 태도(6-10)

인간의 한계(1-2)

1절 설명,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겔18:23). 원래 불 호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창조자이신 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굳이 거기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1).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다는 구약의 예언(시41:9; 109:8; 슥11:12-13)을 성취할 자가 있다.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결국 그 길을 택함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 “내가 그 길을 택할 필요는 없다.” 부자처럼 지옥에 갈 필요 없다. 특히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2): 작은 자들은 소년들, 믿음이 약한 자들, 나사로 같은 자

16장의 부자에게는 청지기직, 그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했어야만 한다(죄인들, 세리와 창녀 등).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1) 성경에 관한 믿음 희석: 성경 무오설을 믿으면 수구 꼴통, (2) 잘못된

구원관: 끝까지 행위, 환난 통과, 교회와 목사와 교단에게 충성, (3) 먼저 믿은 자들의 권위주의적인 자세, (4) 자유를 통한 방종, (5) 목사의 실족거리: 미국 짐 베이커, 지미 스웨가트, 조엘 오스틴,

빌리 그래함, (6) 반 기독교적인 교육: 진화론, 인간 중심주의, (7) 동성애 예찬: 팀 쿡 등 여기에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책망과 용서(3-4)

인생을 살다보면 신자, 비신자 모두 우리에게 범법할 수 있다. 누군가가 1절의 예처럼 실수할 수 있다.

1. 특별히 형제의 경우 범법하면 꾸짖는다. “죄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딤후5:20),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2.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엡4:32). 하루에 7번 범법, 회개, 그러면 용서(2)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 가능하면 추궁(비난)이 아니라 용서하려는 심정(갈6:1)

3. 용서의 의무는 믿음이 더 많은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어렵다. 큰 의무

4. 꾸짖고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교회를 위해 필요하다(자녀 양육과 동일함).

5. 하나님을 보라. 항상 죄를 꾸짖으면서도 항상 용서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용서와 믿음(5-6)

제자들의 요청(5): “믿음을 크게 해 주십시오.” 용서의 문맥, 용서를 위해 사랑, 이해심을 요청하지 않고 믿음을 요청함. 용서는 믿음의 행위, 회개할 때 계속 용서하는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한다: “진짜 회개했을까?”, “믿고 용서하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

6절 설명, 믿음의 능력(겨자씨 믿음), 이런 구절을 이용해서 능력을 키우려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주님의 믿음,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약 60년 동안 이런 믿음이 있었다(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요14:12도 마찬가지로: 오순절주의자들의 말씀 남용

영적 선물로서의 믿음(고전12:8-9, 13:2): 이런 믿음은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방언, 대언, 병 고침 등과 함께 사라졌다.

또한 여기의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즉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면 안 된다(엡2:8). 대속 사역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은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갈2:2).

막11:22-26, 믿음의 능력, 그리고 맨 뒤에 용서, 이런 용서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 온다.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온다(롬10:17)

겨자씨는 작지만 결국 자라면 열매를 낸다: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자라면 실제적인 열매를 낸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롯, 요셉과 11형제들, 모세와 이스라엘(아론과 미리암), 다윗과 사울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 준다(약3:17). 유순하고 온유하다.

제자의 태도(7-8)

꾸짖고 용서하고 기도로 믿음을 키우면서 제자의 일을 할 때 조심할 것, 제자의 자세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믿음으로 큰일을 하려 하면서 매일 생기는 작은 일은 무시하려 하지는 않는가?

신실함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리스도인 제자의 섬김의 동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의 비유(7-9): 주인과 종, 그 당시의 종은 주의 재산, (1) 일했다고 와서 먹으라고 하겠느냐?

No! (2) 저녁 준비, 나중에 먹으라고 하지 않겠느냐? Yes!, (3) 그가 감사하겠느냐? No!

결론(10): 우리는 무익한 종, 해야 할 의무를 했을 뿐이다.

즉 꾸짖고 용서하고 믿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늘 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무익한 종, 의무를 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 교정 반복, 지치고 힘들다. 자랑거리가 아니다.

교회가 성장하였다. 자랑거리가 아니다. 아이들이 잘 자랐다. 자랑거리가 아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킹제임스 성경, 바른 교회, 바른 교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 자랑거리가 아니다.

주방, 주차, 교사, 집사, 지역 인도, 헌금, 교회 건축, 자랑거리가 아니다. 무익한 종, 의무
눅12:35-37과 어떤 관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왕국 잔치, 그때는 주님이 그리하신다.

15-17장에서는 제자들의 교만과 위선에 대해 경고해 주신다.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
사도 바울(고후11:22-30), 무익한 종, 의무를 했다.

빌4:12-13, 청지기직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상속을 다 받은 사람(롬8:16-17)

그래서 결국 마6:33

결론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 실족거리를 피하라, 두지 말라. 용서하라. 믿음을 추구하라. 올바른 태도
겨우 의무만 하려는 성도, 일을 하면서 보상만 생각하는 성도, 둘 다 No, 눅15장의 큰 아들이
이 경우 기쁨이 없다.

요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일5:3,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저항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가? (눅5B)

성경말씀: 눅17:11-19

마지막 공생애 6개월,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신다.

미래를 생각하고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 부자와 나사로 실화, 종교적 위선자들이 당하는 지옥의 실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 하나님, 성경, 구원 조롱 No!

신자, 비신자 모두 우리에게 범법하고 실수 할 수 있다.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 이리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늘려주소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용서의 사람

제자의 태도: 믿음으로 큰일을 하려 하면서 매일 생기는 작은 일은 무시하려 하지는 않는가? 신실함 보상을 얻는 데만 치중하지 않는가? 우리는 무익한 중, 해야 할 의무를 했을 뿐이다. 이런 자세

현시대의 배은망덕

현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감사를 모른다.

5000년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잘 사는 때, 그런데 그와 비례해서 감사가 넘치나?

6.25 사변, 아이들 잃고 끌고 피난가던 우리 선조들, 그래도 감사, 지금은 철철 넘쳐도 감사 No!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시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미국 대학생의 예: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출생부터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다. 사랑 많고 유복한 부모, 조부모, 의료 시설, 음악 레슨, 테니스 레슨, 때마다 가족 여행, 휴가, 요트 강습, 좋은 옷, 종교 교육, 유럽 교육 체험, 과외 활동 봉사, 좋은 차, 집, 신용카드, 대학학비 부모가 대 줌.

그런데도 매사가 불만이다. 항상 우울하다. 가족이 방해물, 모자란 것만 눈에 띈다.

주변 친구들은 그런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데도 행복하다. 감사할 줄 안다.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한다. 타락한 인간에게 내재된 속성, 그러나 날이 갈수록 더 심하다.

교회는 어떤가?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배은망덕은 어울리지 않는 관계

빌4:4, 롬1:21, 담전..

나병 환자 이야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한가운대를 지나가심(1)

나병 환자 10명의 등장(2), 찢어진 옷, 먹지 못해 영양 부족, 물골이 말이 아니다. 죄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음, 마을 밖, 멀리 떨어져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레14:45), 평생토록 소망이 없이 살아야 한다.

우리와 동일하게 혼을 가진 존재, 다만 3류 시민으로 그저 하루하루 부패해 가면서 일생 소진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 삶이 바뀐다. 간청: 예수님이여 긍휼을 베푸소서(3). 예수님의 능력만 믿는다.

주님의 처방: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4), Touch no,

이것은 나병이 나은 사람만 치르는 행위(레14),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하면 8일간의 정결예식, 귀향 아직 낫지도 않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믿음의 행위, 10명이 동의하고 감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됨(4). 거울이 없었으나 다른 사람을 보니 귀, 코 등 문드러진 데가 다시 살아나고 자기들의 손가락 등이 살아남,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다. 10명의 재출생 같은 일 나병 환자 나아만이 요르단에 몸을 일곱 번 담그고 치유 받은 것과 비슷함(왕하5:1-14).

한 사람은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도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15), 그리고 꿇어 엎드려 감사를 드림. 그는 사마리아 사람(16), 받은 유대인 받은 이방인,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

몸에 변화가 생기자 그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 먼저 옴. 저항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 제사장을 만나는 것은 육신의 정결, 그러나 그는 먼저 영의 정결이 먼저 필요하였다. 예수님을 통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15), 엎드려 아들에게 감사(16), 큰 소리는 메가폰이다.

수가성 여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메시아임을 고백함

주님의 말씀(17-18): 10명이 치유되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이 타국인만 왔느냐?

실제로 주님은 10명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함, 큰 실망

9명을 살펴보자.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1) 이들도 기뻐하였다. 행복했다. (2)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는가? (3) 하나님을 지정한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4) 이전의 사람으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

핵심이 빠졌다(18), 그들의 감사에 하나님이 빠졌다. 물론 감사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 혹은 무엇인가?

16장의 부자, 바리새인들 같지 않은가? 생각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다. 영적 차원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버리면 이 놀라운 기회가 스레기가 될 수 있다.

이 10명의 믿음 수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병을 앓다가 다 해 보고 안 되니까 무작정 예수님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고쳐질 수 있다. 그 뒤가 문제, 1명인가, 9명인가?

1명은 참 하나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고 나머지는 병 고침만 이야기하고 만다. 병 고침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영광과 찬미를 돌리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자기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까지

주님의 축복(19), 돌아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1. 단순히 나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병이 치료되었다. 구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믿음

2. 이스라엘 공영권 밖의 이방인,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 회복(종, 죄인, 남녀노소)

3. 그 결과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로 표출되었다.

골1:11-14, 죄들의 용서, 신분 변화

고후2:14, 승리하는 삶

고전15:57, 부활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심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급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요14:6)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대다수 유대인 No(요1:). 이유: 종교적 위선, 다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이 수렁에 빠지면 죽도록 일하고도 지옥에 간다.

누가복음에만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10:30-37),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우려는 마음, 병이 나오니 낮게 해 주신 분을 구함 나머지 9명은 종교적 행사가 더 중요하였다(새벽기도, 주일성수 등).

9명은 제사장에게 의해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음

그런데 1명은 하나님이 먼저 생각한다. 이 사람은 영의 문제까지 치유받으며 예수님께서 선언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

감사하지 않는 이 9명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기뻐하는데 정작 그것을 베푸신 분에게는 감사하지 않는다.

무엇을 감사할까? 구원, 가정, 성경, 교회, 국가(세계 경제 10대 국가)

매일 숨 쉬는 것, 먹고 사는 것

감사가 없으면 우울증에 걸린다. 내게 주신 복을 세어야 한다.

찬송가 12장: 30년 전쟁,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 Martin Rinkhart, 하루에 40명 장례(아내 포함) 이럼에도 그는 이처럼 아름다운 찬송 시를 지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된다(롬1:21).

특히 딤후3:1-2

“저항할 수 없는 감사를 표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 실족거리를 피하라, 두지 말라. 용서하라. 믿음을 추구하라. 올바른 태도
겨우 의무만 하려는 성도, 일을 하면서 보상만 생각하는 성도, 둘 다 No, 눅15장의 큰 아들
이 경우 기쁨이 없다.

요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일5:3,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하나님도 사람도 취약한 사람을 좋아한다(눅54)

성경말씀: 눅18:9-15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위선과 교만, “하나님보다 의롭다”

눅18:9-14는 위선과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극명히 보여 준다.

두 부류의 사람(9):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멸시당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
구체적으로 전자는 바리새인, 후자는 세리

바리새인: 교리적으로 정통파(성경기록, 영과 부활), 향유 옥합 여인 자기의 빛이 얼마인지 모르는 자
(7:40-50), 잔치에서 좋은 자리만 탐하는 자(14:7-14), 큰 아들처럼 자기 것만 신경 쓰고 타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자(15:25-32), 그런데 결국 지옥에 감, 부자와 나사로(16)

두 사람이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감(10): 기도하러 감

바리새인의 기도: 홀로 서서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하고는 큰 소리로 기도함(11-12), 자기자랑설교
원래 유대인들은 속죄일에만 금식(레16:29), 그는 일주일에 2번, 가장 작은 것도 십일조(마23:23)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랑이다. 자신은 의인라고 믿고 남을 멸시함

세리의 기도(13)

하나님의 판단(14), 내 앞에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로운 자다

결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
그리고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예와 그들의 복을 보여 주신다.

어린아이들(15), 막지 말라(16),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17).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놀면 안 된다.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믿음이 있고 의지해야 한다.

14절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사람의 어떠한 영원까지 그의 운명을 정한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이런 성품을 취약함, <하나님도 사람도 취약한 사람을 좋아한다>

취약함

두 달 반 전에 딸이 극심한 출산 후유증을 전디지 못해 집에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이번 주에 돌아간다. 아내와 더불어 성도들의 교제 이야기, 동영상 보자
브레네 브라운의 ‘취약함의 파워’, Power of vulnerability, 휴스턴 대학교 연구 교수 임상 심리학자
브라운, 4-5년 전에 유명한 TED talk(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에서 ‘취약함의
파워’와 수치심에 귀 기울이기 등의 강연을 하면서 스타덤에 오른 인물(2500만 명 이상 시청)

1. 취약하다는 것의 힘 _ TED 강의 브레네 브라운

2.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 _ TED 강의 브레네 브라운, 수치심에 귀를 기울여라

그녀는 불신자, 그녀가 주장하는 ‘취약함과 수치심의 파워’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므로
인본주의 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핵심은 기독교와 거의 같다.

취약의 뜻: 상처를 받기 쉽다. 비난받기 쉽다. 약점이 있다. 우리말 취약은 ‘무르고 약하다’

어린아이를 보라. 얼마나 취약한가. 부모만 따른다(15-17).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자들의 것
브라운은 10년 이상 연구: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한가, 수많은 사람들 인터뷰
행복한 사람, 자신 있게 사는 사람: 자신의 취약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사람

공통점 1. 이런 사람들은 불완전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 브라운은 용기(Courage)의 라틴어 어원이
심장을 뜻하는 'Cor'이며 이것은 곧 '내가 누구인지 진심을 다해 말할 수 있다'는 뜻을 보여 준다.

즉 자기의 취약함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공통점 2. 그 결과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버리고 솔직하고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기 때문. 바로 이것이 진정한
연결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불행한 사람: 반대로 취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늘 불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속마음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완전주의자, <마음
가면>을 쓰고 행동하므로 인생이 불행하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회개

바리새인: 완벽주의자, 취약함이 없다고 믿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 멸시
그 결과 땅에서 진정한 친구가 없다. 돈과 명예 등은 넘칠지 몰라도. 하나님도 “그런 사람 나도 싫다.”
세리: 자신의 취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 남을 보고 판단할 여유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슴을
친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가장 취약한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을 명심해서 잘 들어야 한다.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 준다.
회개를 모르는 사람: 매일 간음, 착취, 거짓말, 속임, 증오, 분노 등 불의한 일을 회개, 3개월, 1년.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 나쁜 것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반면에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즉 나는 원래 나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였다.
착취, 간음, 음주 등 이 모든 악한 일 고백하지 않았다. “내가 원래 나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 큰 회개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다(행11:18). 욥 42:6 나를 몹시 싫어한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음을 보고 원초적 취약함을
고백할 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취약함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Almighty, 연약함 등을 볼 수 없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면에서 취약하시다. 사람이 자기의 취약함, 죄성을 인정하며 나올 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면에서는 무한대로 취약하시다. 즉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 결과 하나님의 취약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히10:16-18).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에 취약하신 아버지를 보여 주셨다.
그 결과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주게 하셨다.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의 멸시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취약한 자들을 도우신다(롬8:26). 신음할 정도로 취약함을 보이시며 사랑
구원과 성화는 모두 취약함의 열매이다.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자: 위선자, 교만자, 특징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취약함이 없다.

취약한 성도의 특징: 공감

독립교회 성도들의 특징: 자아가 심히 강하다. 취약함이 없다고 생각함. 킹제임스성경, 모든 교리 완벽
정말로 그럴까? 여러 성도들을 보아왔지만 삶이 더 불행한 사람들도 더 많이 있다(극도의 교만).
그들의 특징: 교제가 없다. 안 된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공감이 안 된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면 곧바로 공감이 생긴다. 먼저 하나님과,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
“제가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이혼할 것 같아요.”, 취약함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군요. 정신 차리고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공감을 못한다
다른 한 부류는 공감한다. “어떻게 하지요.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같이 손잡고 울어준다.
기쁜 일이 있으면 웃어준다. 럭크맨 목사의 오순절 집회 참석 친구 이야기(롬12:15)
부부 관계도 취약함을 인정하고 공감하면 좀 더 쉽게 해결된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려고 해야 한다.
성경 읽기보다, 교회 일보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게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부모 자식 문제, 성도들 간의 불일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취약한 죄인들을 치열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이다.

취약함의 파워: 인도

나의 취약함이 다른 사람을 돕게 만든다. 시51편의 다윗, 간음 사건, 취약함 발견, 회개, 시51:10,
12, 13, 그러므로 취약함을 발견한 성도가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취약함의
파워이다.
이것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취약한 데로 떨어지셨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 취약함 이후에 부활의 권능(고후13:4; 12:9-10)

취약함의 표준 모델: 삭개오(눅6ㄹ)

성경말씀: 눅19:1-10

지난주,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멸시당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 구체적으로 전자는 바리새인, 후자는 세리
바리새인은 취약함을 감추려고 위선, 세리는 본인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간구, 하늘과 땅의 차이
어린아이들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 천국, 하나님의 취약함, 아드님, 성령님의 취약함
취약함의 특징: 공감하는 것, 부부생활, 교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취약함의 표준 모델: 삭개오>

삭개오 이야기

주일학교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 노래도 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음
지난주 세리 이야기, 오늘은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인 삭개오 이야기

공생에 마지막 부분, 여리고의 세리장, 부자(1-2).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이름답게 살지 못하였다.

세리는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 로마에 협조, 세금 착취, 세리장, (가버나움, 예루살렘, 여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8킬로미터 떨어진 곳. 요르단 강에서 11킬로미터 서쪽에 위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빼앗은 도시. 500년 동안 폐허로 지냈고 이때에 새 여리고. 종려나무

도시, 번성해서 예루살렘 다음 중요한 도시, 대언자들의 학교가 있었고 엘리사가 거기에 거하였다.
큰 도시이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소식의 핵심: 위선과 교만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취약한 죄인인 세리와 창녀를 용서해 주신다.
모든 동포들에게 왕따를 상하는 상황, 그분이 심히 보고 싶었다.

그런데 마침 그분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니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다.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가지려면 호기심과 단순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힘들다.

가능한 한 어려서 구원받아야 한다. 교회 학교 교육의 중요성”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그는 키가 작았다. 그의 육신적 취약함, 그는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4)
돌무화과나무(10m)로 올라갔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부자 어른, 나무는 아이들만 올라갈
기존 성경에는 뽕나무, 무화과 뽕나무, 무화과 빛스한 열매, 그대로 이해해도 된다.

8-9년 전 이스라엘 방문, 미국인 형제, 여리고 방문, 삭개오의 뽕나무, 가장 보고 싶었다.
예수님이 돌 뽕나무 밑에 오셔서 그를 부르신다(5).

삭개오는 자기가 그분을 찾는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 오셨다. “삭개오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야기. 아담의 범죄, 가인의 범죄, 이집트, 세상,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세리 마태의 전도, 기도,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환멸, 놀라운 소문 등, 모른다.
심지어 다소의 사울처럼 교회를 극심히 핍박하던 자라도 몰라서 그런 경우 찾아주신다(딤후1:13).
다만 간절히 구해야 한다. 렘33:3, 32:27

주님께 가는 일은 지체하면 안 된다(5). 신속하게 해야 한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내려와야 한다(5). 내려와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왜 말씀하시는가?

낮추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취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18:14)

그가 급하게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임(6).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receive, 요1:12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함(7): 있을 수 없는 일,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르다.
삭개오의 회개(8)

회개에는 부당하게 대한 사람에게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4베로(출22:1)
젊은 부자 청년과 대조를 이룸(눅18:18-23)

키가 작아 군중 너머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삭개오의 잘못이 아니다.

그는 그분을 보고 싶은 열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다. 그 뒤 큰 사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 키가 작은 사람들(어쩌면 나의 잘못이 아니다).

문제 “작은데도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작은 것을 나무라지 않는다. 기회를 준다.

재물, 학식, 명예, 유산, 혈통, 교회 했수, 십일조, 주일 성수 등으로 자기를 큰 사람으로 착각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주님의 선포(9):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적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 (롬2:28-29).

그는 구원을 돈으로 사지 않았다. 그 날 그는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았다. 그 뒤에 반응하였다.

최종 선언(10):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심, 딤후1:15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 세상도 신음하고 있다. 다 취약함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작고 취약한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는 어떤가?

취약함을 고백하는 방법 및 효과

삭개오와 예수님: 취약함을 인정하므로 공감하고 교제 가능, 위선과 가식, 마음 가면 배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모든 수치를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내놓으라는 말이 아니다.

1. 자신의 원초적인 취약함은 비공개로 하나님께만 알려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인간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것이 회개,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였다. 눅15의 탕자(18-19)

2.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취약함을 사람들 앞에 모두 공개하면 그것은 오히려 수치가 된다.

예: 시25:7, 약5:16

혼전 임신, 유산, 공개해서 창피를 줄 문제가 아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

3. 사람들에게 자신의 취약함을 밝힐 때에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해야 한다.

부부 관계, 고부 관계, 자식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을 지역 모임, 성경 공부 등 공적인 자리에서 밝히려고 하면 폐를 끼치는 것이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

4. 사람이나 교회에는 취약함을 이야기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성경을 빌미로 강탈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요일3:16-18,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다.

5. 진정으로 취약함을 고백하면 삭개오처럼 자동으로 섬기게 된다. 낮아지므로 다른 사람이 곧 인정한다.

6. 교회와 가정에서 이런 취약함이 고백되면 서로 공감하면서 닮는 일이 생긴다. 이것이 참된 우정 인위적으로 닮은 체 하려 하면 문제가 된다. 복장 등, 이런 것은 닮았어도 속이 닮지 않으면 소용없다.

시간이 지나도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속에 문제가 있다. 배우려고 하거나 닮으려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7.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취약함을 드러내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발전 안함.

8. 고린도후서 바울의 취약함과 고린도 교회와의 공감

고후6장 4-10, 11-13절

9. 우리 교회의 일, 목사의 일 모두 공개되어 있다. 목사가 울고 교회 부당한 일로 고통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음해를 당하고 모두 공개되어 있다. 교회의 수치(징계), 플링 등

목사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10. 킹제임스 성경 사용 신자들의 공통적인 문제: 영혼의 자유가 방종으로 가면서 간절함이 부족하다.

특히 자신의 취약하던 과거를 보고 더 큰 진리를 알았으면 삭개오처럼 실제 삶이 변해야 하는데 이 점이 심히 부족하다. 그 이유: 간절함이 부족하다. 설익어서 그랬다. 더 큰 섬김, 사랑, 희생

결론

삭개오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방문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 방문에 사람이 자기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반응하자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다. 큰 사람이 되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물리적인 것, 몰래 행하던 사적인 것, 공적으로 지은 것)

겸손하게 나올 때 눅18장의 세리처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구원이 실제로 일어났다.

취약한 자의 특권: 간절한 기도(눅11)

성경말씀: 눅18:1-8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위선을 부리며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멸시당하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구체적으로 전자는 바리새인(종교인), 후자는 세리 성경 핵심: 하나님 앞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칭의, 용서, 구원 대표적인 사례 삭개오: 세리장,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 부끄러움 무시,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인생 역전, 의인,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19:10)

기도란 무엇인가?

주님의 공생애 사역 끝 부분,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간절한 기도의 필요성 1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

1. 기도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낀 존재가 부족함을 채워 줄 존재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구하는 것 개가 배고프면 주인을 바라보는 것 기도의 종류, 형태, 자세 등은 다양하다.

공통점: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히4:15-16; 2:18)

2.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기도해야 한다(1).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테라스 꽃과 나무 이야기: 이번 여름 물 주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것이다. 나무가 얼마나 알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알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 매여 생각할 겨를이 없다(전3:11).

3.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종교인 자신의 취약함을 깨닫고 간절히 구원을 소원해야 받는다.

4.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혼의 소원과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리고 대화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혼의 생명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욥21:15; 시10:4).

5. 기도는 특권이다(눅11:9-13).

6. 염려하지 말고 구해라(눅12:22, 29-32)

7.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어 주시는 경우가 많다. 응답이 늦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오늘 말씀(1), 특히 재림의 때(8)

여기서 주님은 어떤 특별한 일을 당해 구출을 간구할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신다.

꾸준히 간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2-5)

1.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음(2), 양심도 명예도 상관하지 않음, 경건함 등과는 거리가 멀다.

2. 부당한 일을 겪은 과부 여인: 누군가가(3절의 대적) 권세나 재력으로 여인을 괴롭힘.

재판관에게 찾아가 사정 호소(3).

3.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않음: 재판관이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음, 오히려 호통, 겁을 주고 오지 못하게 함, 구약시대에는 과부와 고아, 약자들에 대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함, 하나님의 특별 돌보심(출 22:22-24; 신14:28-29 등). 초대 교회에도 과부들 돌봄(행6:1; 약1:17)

4. 과부의 끈질긴 간구,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주문 외우듯 반복 기도 No! “숨 쉬듯 하라.” 끈질긴 기도: 간절히 하라, 입의 말이 아니라 마음: 하나의 기도(삼상1:13), 양이 아니라 질

5. 재판관의 생각(4-5), 이대로 두면 본인만 골치 아픔, 결국 해결해 줌, 재판관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과부의 끈질긴 요청, 주님의 결론(6)

6.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의 간구를 결국 들어 주신다(7).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1.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유대인들(8) 재림의 때, 지난 2600년 동안 국가 없이 지냄, 통곡의 벽,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의 때에 들어 주신다.

2. 구원받은 성도(엡1:3-5)

3. 이들의 특징: 과부처럼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자주 당한다. 대적들이 곳곳에 많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재판관처럼 불의한 분이 아니다. 공정하게 판단하신다. 그리고 들어주신다(8). 유대인들의 경우도 때가 있다.

7.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양심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1).
8.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낙담할 수 있다(7).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출2:23-25)
9. 그러나 결국 들어주신다. 그 이유
 1. 낯선 자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롬8:14-15).
 2. 변호자가 있다(요일2:1), 주 예수 그리스도
 3. 증보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롬8:26-27)
 4. 삼위일체 하나님은 재판관과 달리 의로우시다.
 5.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6.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한다(롬8:28).
10.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8). 여기의 믿음은 기도에 대한 믿음,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려는 믿음을 찾기가 힘들다.
11.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 온다.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재림자, 구출자, 위로자,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온다(롬10:17).
12. 믿음의 효력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달려 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직 “믿음만 찾으신다”, 무죄함, 순수함, 의로움, 다 사람의 것 마더 테레사가 성인의 반열, 1997년 사망 후 19년 만에 2016년 9월 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성식 이유: 평생을 고아와 빈민을 도왔다. 이런 것으로는 주님께 나갈 수 없다(히11:6).

무엇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것인가?

1. 개인의 문제, 특히 질병의 문제,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왕하20).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 처럼: 마귀 들린 아들(9:23-24), 수로보니게 여인(막7:30)과 마귀 들린 딸, 간절하게
2. 직장, 재정 문제(마6:33), 우리가 할 일 최선을 다해 한 뒤, 간절하게
3. 인간관계(시17): 고부, 부모 자식, 부부 등, 삼상 1장의 한나, 다윗의 뱀박 간절하게
4. 각종 비방으로 인한 문제: 대적자들(시37:1-7, 23-24)
시편을 읽으며 기도하자(시56:8-9), 간절하게
5. 교회 문제: 어떤 교회를 키울 것인가?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 간절하게
6. 성경 문제: 바른 성경의 정착, 간절하게
7. 한국 교회: 바른 성경과 사역자들, 기존 교회들의 회개, 간절하게
8. 국가 문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건국한 이래 최대의 위기, 금요일 핵실험
 1. 북한의 다섯 차례 핵 실험, 이번 핵 실험은 규격화된 소형 핵탄두 실험, 의미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한 방이 서울 상공에 터지면 50만 명 이상 사망, 인천 공항과 LNG 탱크 등
 2. 국민의 정신사고 체제의 붕괴: 옳고 그른 것 구분을 못한다. 국민 의식의 좌경화
 3. 몽양 여운형의 양평 기념관 뉴스: 건국을 반대하고 김일성과 합작한 전형적인 공산주의자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대규모 기념관
 4. 아파트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본인들 집만 치장
 5. 매일, 매시간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6. 민주적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7.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결론

1. 기도하지 않으면 낙담한다.
2.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취약함을 모르는 부자의 패망(눅6리)

성경말씀: 눅18:18-34

공생에 마지막 한두 달, 요약: 취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19:10).

과부 여인의 간절한 기도(1-8): 취약함을 아는 사람만 그것을 해결해 줄 분에게 구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18:1). 간절하게,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 어렵다(8).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9-14): 간절한 자의 기도와 위선을 떠는 자의 기도, 후자는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선포(14):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칭의를 받았다.

예수님의 설명(15-17): 하나님의 왕국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떨리는 가슴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가능하다(17). 교회에 오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감격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취약함을 모르는 부자의 패망(마19, 막10)

오늘 부자 청년(마19:20): 주님의 말씀을 유심히 경청함(17), 주님의 가르침은 다른 선생들과 다른 청년: 아마도 25살 정도,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주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움(막10:21)

청년 시절: 참 좋은데 미스터리가 있다. 노년, 중년의 삶: 다 안다. 청년의 삶: 예측 불허 크게 될 수도 있고 30-40년 뒤에 악하게 될 수도 있다. 청년들은 특히 잘 들어야 한다.

부자 청년: 좋은 의도로 도움을 구하러 주님께 왔다가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감, 유일한 경우

거지, 술주정뱅이, 거짓말쟁이, 간음하는 자, 살인자 등이 이렇게 되었다면 관심이 덜 갈 것이다.

그는 도덕적, 종교적, 열심, 성실, 부자, 교육,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므로 우리가 관심

1. 그는 많은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께 왔다. 눅10:25의 율법사도 동일한 질문, 그런데 의도는 그분을 시험하려는 것, 이 사람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

2. 그는 삭개오처럼 달려 나왔다(막10:17). 무언가를 배우려는 열심히 있었다.

3. 대단히 종교심이 강하였다: 그의 질문은 영원한 삶(18), 특히 젊음 때는 비전과 이상을 꿈꾸는 때, 그는 무엇보다도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 특히 자기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는 관심

4.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도 다 지켰으나(21) 구원받지 못해 공허한 상태 그런데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였다(23).

무엇이 문제인가?

1. 그는 올바른 분에게 왔다: 사람의 창조자, 일거수일투족, 전지전능, 공흠, 십자가, 구원자

2. 올바른 주제(18): 영원한 생명, 3. 올바른 대답(22), 4. 그릇된 결정(23)

이유: 탐욕과 부정직,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기에게 정직하지 못함, 부자라 자신의 취약함을 전혀 보지 못함

3. 그는 자기 안에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믿음(18): 본인의 선행 신뢰

주님과의 대화

그의 접근 및 대화 시작(18): “선한 선생님이여”,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선하다’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됨(시25:8; 34:8 등)

그래서 주님은 다시 물음(19),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맞느냐?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 그가 참으로 자기 말을 이해하는지 물음 이후의 그의 태도를 보면 그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아부성 발언을 함

그는 하나님의 관점의 선행이 무엇인지 모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심

죄에 대하여(20-21): 십계명의 후반부 5가지(이웃 관련 6개 중) 명령 준수 여부

율법의 용도(갈3:24): 거울과 같아서 죄를 보여 줄 뿐이지 고치지는 못 함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부족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야만 함을 보여 주려 하심

그런데 그는 자기의 취약함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21). 어찌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할 수 있는가?

6개 중에서 맨 마지막 탐심에 대한 것은 인용하지 않음(출20:17).

그의 마음을 아시고는 20:17을 인용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해 보라고 명령하심

재산을 팔아 나누어줌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 자기의 죄들과 취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

제대로 깨달으면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한다(롬7:7-9). 구원 받기 전(빌3:5-6)

구원받은 뒤 바울은 자기의 삶이 온통 탐욕의 욕정 덩어리,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욕심, 21-25

그의 근본적인 문제(18),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음(18:9-14), 11절

하라고 명령하자 불순종, 자기 방법이 아님, 그 결과 근심하며 돌아감: 하나님보다는 재물 선택
예수님의 초점: 재물을 다 팔아서 바쳐라 No, 가난하게만 살아라 No! 선하다고 하기에 정곡을 찌름
재물은 1. 인생무상을 보여 주는 도구(전도서), 2. 주님의 일을 하는 도구, 그런데 대개 잘 안 된다.
탐욕은 이상승배(골3:5)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의 선언(24-25), 여기의 낙타와 바늘귀는 실제 낙타와 바늘귀

제자들의 반응(26): 막10:24 깜짝 놀랐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생각: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신28)

유대인들은 땅의 백성,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중요하였다. 시간이 가면서 본질이 바뀐
재물이 천국의 방해물이라는 생각은 불가능, 현시대의 오순절은사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록펠러 같은 부자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제자들의 생각: 그런데 부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확고한 선언(25): 재물은 특권이 아니라 저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과 다윗, 다니엘 등은 모두 부자였지 않은가?

물질에 사로잡혀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막10:24).

눅16:13, 두 주인 섬기는 것 불가능

부자가 되면 자기의 취약함을 보지 못 한다: 자기의 공로를 주로 생각한다.

딤후6:9,10, 17, 부자가 되면 교만, 거만, 오만, 무관심, 무반응, 거친 성격과 언행, 자기만족,
세상 쾌락추구

그런데 재물이 많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27). 재물과 재능의 노예가 아니라 부리는 사람이 되면

그런데 재물의 고삐를 잘 쥐지 않으면 오히려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다.

베드로의 생각(28; 마19:27): 열심히 따르며 희생하였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여전히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관점

무익한 종의 비유(눅17:7-10)를 이미 잊어버림

주님의 말씀(29-30): 현세의 복과 내세의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십자가 처형 언급(31-34)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없었다.

결론

부자 청년은 누구인가? 믿음을 갖기 원하면서도 근본적인 가치관과 생활관이 바뀌기를 원치 않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환난이나 역경을 당하면 한숨을 쉬며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부른다. 그들은 그러한 환난과 역경이 성도에게나 죄인에게나 동일하게 임함을 망각한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데 따른 결과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특별한 역경이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짐으로써 나타날 결과들을 충분히 알고서 자원하여 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을 선택하며 순종함으로써 십자가 지기를 선택한다.)

청년들과 부자들(재물과 재능)의 두려움: 나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주님은 모두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삶에서 버리고 바꾸어야 할 부분을 알려주실
뿐이다. 나의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주님이 알려주시면 바꾸어야 한다. 회개

올바른 조언이 나왔으므로 이제 결정은 우리가 내려야 한다.

절망적으로 취약해야 근성의 사람이 된다(눅63)

성경말씀: 눅18:31-43

소경 바디매오 이야기(35-43)

예수님의 사역 목적(눅4:18-19),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선포

마20:29-34, 막10:46-52, 3번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 마지막 병 고침

말씀의 배경: 누가, 주님은 십자가 사건 언급(31-34), 이것은 세 번째 언급, 제자들은 깨닫지 못함(34)

마태와 마가, 제자들은 주님의 왕국에서 누가 오른쪽에 앉을지,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두고 다툼
눈이 열려 있는데도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함, 혹시 우리는 어떤가?

주님의 췌기(막10:45), 섬김의 의미

이런 상황에서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주심: 예수님 파악, 확실한 소원, 필사적인 간구, 주님 찬양
여기 나오는 눈먼 사람은 근성의 사람, <절망적으로 취약해야 근성의 사람이 된다>

전체적인 상황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어떤 눈먼 사람). 막10:46, 디매오의 아들인 바디매오

마20:30에는 두 명의 눈먼 자, 누가는 집중적으로 한 사람, 마가는 구체적으로 바디매오

눅18:35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마태 마가(마20:29; 막10:46), 여리고를 떠날 때에

성경의 모순이 아니다. 구 여리고와 신 여리고가 있다. 구 여리고, 가나안 정복, 폐허, 500년 쯤
뒤 아합 시대에 다시 지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새 여리고를 지음(1.5킬로미터)

바디매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아무 소망 없이 일어나 늘 하던 대로 세수하고 지팡이를 들고 늘 구걸하던
데로 감, 여리고는 큰 도시,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 구걸함(35)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36), 물으니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함(37)

소리를 지르기 시작함(38):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꾸짖었으나 더욱 더 소리를 지름(39)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하시고는 소원을 물음(40-41),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그의 대답: 시력을 받기 원합니다(42)

시력을 받으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42), 즉시 시력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름(43)

근성의 사람 바디매오의 간청 응답의 요소

00. 바디매오의 상태: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소경, 가장 어려운 병 혹은 장애

죄인의 모습, 마귀가 눈을 가림(고후4:4)

손을 벌리고 세상에 "무언가를 달라" 요청함. 절망적으로 취약하다.

세상이 주는 것은 결국 다 없어진다: 죽으면 아내와 자식들도 다 남기고 간다(요일2:17).

0.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다. 눈먼 자 회복(막8, 요9)

나사렛 예수님(37), 기회를 갈망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참 빛(요1:9)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함(요1:5)

주님은 주는 것은 영원하다: 수가 성의 여인이 원하던 생수

1. 그는 먼저 소동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36): 질문을 잘 해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끝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하지 않으면 영원히 고생한다.

2. 그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줄 알았다. 다윗의 자손(38)

성경 계시의 발전, 아담 언약: 여자의 씨(창34:15), 아브라함 언약(창12-15), 아브라함의 씨
삼하7장, 다윗 언약(7:16, 28-29), 눅1 천사의 수태고지(30-33)

메시아가 하는 일(사35:3-7), 그분은 심지어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주신다(눅4:18).

아는 것이 힘이다(요17:3). 아는 것이 구원이다.

3. 여리고에 살면서 다른 데는 가보지 못하였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입소문, "이분이구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

심지어 제자들도 잘 모르는 이 일을 그는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었다. “만나야만 하겠다”, 간절한 소원

4. 근성의 사람(38-39), 근성: ‘뿌리가 깊게 박힌 성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 간절한 외침,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근성의 사람
구원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체면 가릴 필요 없다. 근성 창32의 야곱, 에서가 오고 있음, 홀로 남아 한 남자와 밤새도록 씨름함(절망적), “내가 가게 해라.”,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견주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경됨 예레미야처럼 40년 동안 눈물로 하나님의 대언 사역, 지하 감옥에 갇힘(38장), 근성 바울처럼 벨릭스 총독 앞에서 주님과 부활 증언(행24:14-15)
루터: 1521년, 보름스 제국 회의, 주장철회 요구, 마귀들이 기왓장보다 많아도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존 맥아더: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 성경 학교 압력,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여기 바디매오처럼 근성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구원, 직업, 배우자, 아이들, 교회, 성경
5.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바디매오를 위해, 삭개오를 위해 여리고로 찾아오신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소식
욥7:17-18, 시144:3-4,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들판의 개미, 엄청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함, 무디의 비유, 홍수의 위험, 개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집 짓고, 양식 모으고, 무디의 답답함, “누가 개미의 말로 이야기해 주면 좋으련만!”,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심(롬8:3)
6.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벧전1:15-16), 거룩함, 의(義)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인간의 문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18-19)
하나님의 말씀으로(23-25)
7. 예수님의 말씀(41),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빈 수표를 주시고 쓰라고 하심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구하라고 하심, 지혜를 구함, 막10:36의 제자들과 비교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나는 킹제임스 성경 최종 교정 끝내고 싶다.
8. 바디매오의 치유: 말씀으로 끝남
막8:23의 소경, 눈에 침을 뱉어서, 요9장의 소경, 진흙, 실로암(6)
어떻게 아니라 누가 고쳤느냐가 핵심
또한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치유(42), 여기의 구원은 일차적으로 육신의 구원, 영혼의 구원
9. 그러자 즉시 구원이 이루어짐(43), 주님의 구원도 마찬가지
그 결과 그는 곧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름(행1:8)

누가복음 18장 총정리

3년 반 공생애 마지막 구원 사역, 구원 총 요약, 19장 28절에 예루살렘 입성

1. 과부 여인(1-8): 불의한 재판관이 문제 되지 않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구함, 믿음
2. 세리(9-14): 바리새인이 무어라 하든 하나님만 믿고 간구, 칭의
3. 어린아이들의 부모(15-17): 예수님만 믿고 아이들을 데려감, 단순히 신뢰해야 한다.
4. 소경 바디매오(35-43): 역시 믿음 하나, 근성의 믿음
5. 부자 청년: 믿음이 없었다. 행위로 나오려다가 실패하였다.
6. 부자 청년과 바디매오 비교: 부자와 가난한 자, 예수님을 만날 때 부자는 자기 자랑, 소경은 없음, 오직 나의 문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됨, 근심하며 그분을 떠남, 기뻐하며 그분을 따름

우리는 어떤가?

요9장의 소경 치유(39-41)

계3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3:17-18),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우리는 나를 아는가? 해결책을 아는가? 인생의 제반 문제들, 야곱처럼, 바디매오처럼 근성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취약함을 정확히 인지하고 고칠 수 있는 분에게 매달려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므나 이야기(눅64)

성경말씀: 눅19:11-27

공생애 요약

예수님의 사역 목적(눅4:18-19),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선포,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이나 예고하였으나 전혀 모름(18:31), 자리다툼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매오의 눈을 열어 주심: 긍휼을 베풀(18:35-43)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함: 가장 극심한 죄인 구원, 취약함을 드러낼 때(19:1-10)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다 취약한 사람들

극도로 취약해야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라. 우리가 개미를 보듯

1.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시51:5, 16-17)
2. 구원받은 뒤에도 비참한 모습(롬7의 사도 바울), 부정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3. 힘을 내서 살되 절대 본분과 위치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은 <므나 이야기>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면서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분부의 말씀

배경

예루살렘 입성은 1월초에, 유대인들의 달력, 1월 14일은 유월절, 지금의 4월초

유월절: 이집트 탈출, 이스라엘의 구속, 가장 중요한 사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지금엔 로마의 속국, 구원자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대함(눅3:15)

열심당원들의 테러,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하수인, 사두개인들의 탐욕, 바리새인들의 종교화 일반 유대인들은 이런 것 말고 구약성경 기록을 성취할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함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이분이 당장에 그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는 자들이 있음(11): 메시아 열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27킬로미터, 하루거리, 바디매오의 힐링: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들의 거부로 하늘의 왕국이 주어질 수 없음을 아셨다(11):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 예수님께서서는 그 왕국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재림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것을 주문함

예수님 부활 후에도 이들은 왕국을 세울 것을 요청함(행1:6): 성경의 총 주제

므나와 달란트 비유

므나 비유 설명(13절)

마태복음 25장 14-30절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만 모든 면에서 둘은 서로 다른 비유이다.

1. 하늘의 왕국(마25:14): 구체적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왕국(눅19:11) 교회 시대 모든 성도
2. 3명에게 능력에 따라(15) 1, 2, 5달란트, 10명에게 모두 1달란트(눅19:13, 16, 18)
3. 달란트는 유대인들의 무게 단위, 므나는 이방인들의 무게 단위
4. 1달란트 받은 자는 지옥에 들어감(마25:30), 므나 비유에서는 그 종이 지옥에 가지 않음(19:24)

문맥으로 봐서 므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석 심판(롬14:10-13; 고전3:11-17;

고후6:10), 므나: 보통 사람의 세 달치 월급, 900만원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13): 거래하라. 사고팔고 바꾸고 이자를 받고 빌려주어도 됨.

합법적으로 신실하게 관리하면 됨: 어떤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음

한 가지 조건: 말은 없지만 제자라면 계산할 때 1므나보다는 더 있어야 함, 명백한 어떤 것 처음 두 사람은 성공함, 1므나로 10므나(열 도시, 16-17), 1므나로 5므나(다섯 도시, 18-19) 달란트의 경우 5달란트는 10달란트, 2달란트는 4달란트, 동일한 보상(마25:21, 23)

주님의 칭찬과 기쁨, 즉 아무리 작은 달란트라도 신실하게 사용하면 보상에는 차이가 없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다(롬12:4-8), 각 사람의 달란트에 맞게 신실하게 섬기면 동일한 보상 므나의 경우 성공한 두 사람: 보상 이야기가 없었으나 신실하게 관리해서 이익을 남김

주인이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주인이 왕국을 실제로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결과 도시들 차지: 예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므나의 의미

열 명의 종에게 각각 1므나, 예외가 없다. 모든 성도가 믿음, 능력에 따라 달리 준 달란트가 아니다.
시기: 주님이 왕권을 받으려 갔다가 다시 오는 기간(12): 교회 시대
이 시대 모든 성도에게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주신 므나는 무엇일까?
누구나 해야 할 일(막16:15): 복음 전파(행1:8; 살전2:4; 딤후1:11)

우리의 능력은 달라도 해야 할 일은 동일하다: 복음 선포, 영혼 구원, 교회의 확장
초대 교회: 120명(행1:15), 3000명(행2:41), 그 뒤 5000명(행4:4)
사도 바울(롬15:19)

복음 전파는 다 같은 데서 시작한다: 목사나 성도나, 바울이나 웨슬레, 무디, 루터, 우리나라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고전3:11-17).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신실함이다(고전4:1-2).
신실하지 못한 자: 10명 중의 최소한 한 사람 이상, 그는 그 1므나마져 빼앗겼다(24).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기회를 허비하면 보상의 손실을 입는다.

성경의 원칙: “신실한 사람은 더 신실하게 되고 반대는 반대로 나가게 된다”(요15:2, 5)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사람의 문제: 1. 자기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함(21), 2. 주님을 불공정하게 착취하는 자로 보고
있음(심지 않는 데서..), 3. 또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21). 4. 1므나를 지키는 데만 혈안,
자기만 구원: 능동적으로 일은 못하지만 1. 보수 신앙, 2. 보수 전통, 3. 아이들 주일 학교, 4.
기독교 관점, 5. 그럼에도 전할 수는 없다. 의무는 No!

우리의 섬김이 이런 식이면 보상이 없다.

주님을 사랑하므로 그분을 섬겨야지 별별 떨면서 섬기면 주인도 힘들

우리의 일이 불에 탄다(고전3:15). 보상을 잃었다.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신실한가? 시간, 재능, 재물, 기도, 증언에서 능동적인가?
지난 25년의 삶, 재미없는 삶, 무미건조한 삶, 교정보고 다듬느라 시간 보냄
다른 것은 모르지만 신실하게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도 인구 1,000만 명, 죽기 전에 100만 명의 손에 킹제임스 성경을 들려주고 싶다.

가능하면 성경의 주요 책들을 다 설교하고 강해하고 갈 것이다. 많은 글과 동영상 제작하고 갈 것이다.

보상을 잃지 않으려면 우선 잘 들어야 한다(눅8:18). 신6:4-5,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다른 한 부류: 유대인

여기에는 실제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1. 성공한 자, 2. 성공하지 못한 자, 교회 시대 성도들
다른 한 부류: 그를 미워한 그의 국민들(14), 이들의 운명(27)

BC 4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 차지, 왕의 호칭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갔으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치 않으므로 50명을 보내 아우구스투스 황제 앞에서 반대하게 함

그 결과 아켈라오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긴 하였지만 왕의 호칭은 받지 못함

곧 예루살렘 입성: 이 군중들은 곧바로 주님을 배반함(요19:14-16), 시69:4

대다수 유대인들이 표적은 원하였으나 메시아는 원치 않았다(요1:8).

주님의 선포(마23:39)

주님 부활 이후로 40년의 기간을 더 주셨으나 이들은 돌아서지 않았고 AD 70년에 성전 훼파, 유랑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지만 주님이 하늘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할 일이 있다(행17:30-31).

결론

요한복음 14장: 우리는 주님의 정혼자,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 전해야 한다.

미디어 선교, 교회 건물, 아이들 교육, 목회자 양성: 교회가 같이 해야 한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신실함이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버티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라: 학교 공부, 직장 생활, 가정생활, 믿음 생활

왕의 예루살렘 입성(눅55)

성경말씀: 눅19:28-44

공생애 요약

예수님의 사역 목적(눅4:18-19), 3년 반,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선포,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요르단 동쪽의 페레아, 데카볼리, 두로와 시돈, 맨 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드디어 여리고 메시아 표적, 바디매오, 나사로(요11),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아는 자들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몰려든다(요11:55). 열망과 기대가 넘친다. 당장 왕국이 임하지 않는다(19:11). 교회 시대가 열린다. 귀인, 왕권, 다시 돌아옴 마나 이야기, 10명 1마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준 것, 복음 선포 교회 확장, 1마나로 10마나, 1마나로 5마나, 보상이 다르다. 보상을 잃는 자도 있다. abrabrgl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신실하게 버텨야 한다.

배경

<왕의 예루살렘 입성>,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28), 오늘부터 23장까지 마지막 1주일은 예루살렘 이야기 왜 예루살렘인가? 왕의 의미? 어떤 왕?

예루살렘: 다윗의 도시, 왕의 도시(BC 1000년경)

1.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굳게 고정하심(9:51): 왕으로 오셨기에 왕으로 드러나야 함
2.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수 없다(눅13:33): 대언자로 오셨기에
3. 이미 자신의 죽음을 세 번이나 예고함(눅18:31-34): 제사장 겸 희생물로 오셨기에(성전)

북동쪽 28킬로미터 떨어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리브 산을 통과해야 한다.

1.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 3킬로미터, 예수님 자주 방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요11)의 고향
2. 벳바게: 베다니 근처의 마을. 올리브 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함, 여리고 베다니 벳바게 예루살렘 사복음서 예수님 행적의 특징: 항상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다.

요19:28 목마르다, 36, 고전15:3-4, 성경 기록대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대언, 대언자, 특히 미래를 말하는 예언의 말씀

사람의 종교에는 예언이 없다: 초림 때에 이루어진 44-48가지 예언

1. 여자의 씨(창3:15), 2. 베들레헴(미5:2), 3. 처녀 탄생(사7:14), 4. 아브라함의 자손(창12:3), 5. 다윗의 자손(삼하7), 6. 요한(사40:3-5), 7. 갈릴리 사람(사9:1-2), 8. 메시아 표적들
- 오늘은 우선 스가랴서의 예언 성취(29-36):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심, 4복음서에 기록됨, 중요 속9:9, 요12:15-16

1. 주님은 의로우시다: 사람이 죄를 지은 뒤 필요로 하는 것, 의(義), 롬1:16-17, 고후5:17
2. 구원을 소유하신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행4:12),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삼위일체 하나님, 요3:16

3. 겸손하시다: 세상의 왕과 다르다(막10:42-45). 목사, 집사, 인도자, 오래 믿음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신다(빌2:5-6). 그것도 빌린 나귀를 주님은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갔고 어미는 걸어서 감: 창조물의 순종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34), 우리도 그 주인처럼, 나귀처럼 우리를 내어 줄 수 있는가?

4. 이스라엘의 왕(네 왕, 눅19:38), 메시아

백성이 생각하는 호령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즉 섬기는 리더

헤롯의 왕궁, 로마의 건축물 등과 비교하면 볼품이 없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궁, 7500억 원, 연봉 646억 원, 통치의 원칙이 다르다.

우리의 교회 건축: 최소의 비용으로 예배, 교육, 교제 장소, 한국 교회에 귀감이 될 모델 왕국을 고대하던 백성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옷을 갈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찬양을 부름(38)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요12:13; 눅1:31-33)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주일(요12:13)이라고 부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백성이 찬송하도록 내버려둠

1. 예언 성취(시118:22-23, 25-26), 시113-118은 할렐 시편(유월절)

2. 종교 지도자들 자극. 예언 성취(마26:3-5), 유월절 이후로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요1:29; 고전5:7), 반드시 유월절에 죽어야 함

이전에도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모두 실패(요7:20; 8:20등), 아직 때가 아니다.

백성이 메시아로 인정하자 지도자들은 결국 가롯 유다의 제의를 받고 그분을 죽이게 됨
메시아가 하는 일(38):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눅2:14,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나 메시아를 죽인 이후로 땅에는 갈등, 분열

눅12:49-53, 그분이 오셔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의 평화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김(39): 나사렛 목수를 메시라고 하니, 소요 격정

예수님의 말씀(40):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종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을까? 침례자 요한 눅3:8

하나님의 백성이 안 하면 돌들이 한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친다. 시멘트 벽돌이 한다.

1.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 2.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3.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성장, 4. 신약 교회, 5. 영혼의 자유

예루살렘을 보시며 슬피 우심: 공적으로 두 번째(요11:35)

왕이 울다니, 세상 왕과 전혀 다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1.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무능력을 보시고

2. 자신의 백성의 무지를 보시고

이유: 백성인 지금은 메시아 영접, 그러나 며칠 내로 온 민족이 배척, 십자가 처형, 부활, 승천

40년 유예 기간, 결국 로마의 침입, 143일 동안 포위, 110만 명 살해, 10만 명 포로, 성전 붕괴(44)

이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로마에서 구해 줄 메시아로만 인식, 나만 생각하고 있음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셨다: 44절의 '돌아보는 때'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요1:11).

지금 화평을 주러 오셨다(42).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신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아는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죄를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우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같은 심정으로 계신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돌이켜야 한다.

화평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롬8:3-4).

예수님이 이미 땅을 방문하셨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지한 것은 아닌가?

고후6:1-2,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구원과 성화

결론

1. 예언 성취

2. 겸손한가?

3. 무능력을 아는가?

4. 무지를 아는가?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의 분노(눅66)

성경말씀: 눅19:45-48

공생애 요약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왕국 선포, 회개와 믿음과 구원, 긍휼이 무엇인지 보여 줌: 세리와 창녀,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죽은 자,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빈부귀천,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주러 오셨다. 왕권을 지닌 메시아로(눅1:31-33)
공생애 시작, 침례, 마귀 시험, 곧바로 마4:17, 마10:5-7, 그러나 하늘의 왕국을 가져오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는 자들이 거의 없다. 공생애 끝부분 가이사라 빌립보(마16:16), 교회 설립(18),
죽음 예고(21-23), 십자가 사건 전에 세 번이나 죽음, 매장, 부활 예고, 제자들도 알지 못함
드디어 공생애 끝, 십자가 처형 나흘 전에 종려 주일이라 하는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유월절, 메시아 기대(많은 이적과 표적), 슄9:9 예언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타시고 입성
스4:9, 1. 의로우시다, 2. 구원을 소유하신다, 3. 겸손하시다, 4.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고대하는 백성의 종려나무, 호산나 외침: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라도”
(시118:22-23, 25-26),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신다. “내가 왕으로 왔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슬피 우심: 우시는 이유, “네 화평에 속한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흘 뒤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평화를 잃는다.” 재림 때까지
40년 뒤에 예루살렘의 황폐, 110만 명 살해, 성전 붕괴,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고후6:1-2,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 구원의 날

성전 정화

성전으로 들어가 사고파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함(45), 성전은 기도하는 집(46), 강도의 소굴(46)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생애 시작 후 첫 번째 유월절에(요2:13-17)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14), 가는 노끈,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내쫓음(15)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16), 강도의 소굴=장사하는 집
예수님의 분노(17, 시69:9): 사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분노,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의 분노>
분노 1: 성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기도(예배)가 아니라 장사로 생각함
분노 2: 마23장, 하나님을 대하는 종교인들의 태도(서기관, 바리새인, 위선자들), 4-5
8번의 “화가 있을지어다”, 독사의 자식들아(33), <종교의 도시를 떠나라>

예수님 3년 반 공생애 요약: ‘종교와 종교 지도자 부수기’, 결국 종교인들이 메시아 거부(마23:37-39)

성전 역사

성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물, 속죄일(7월 10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민족의
죄 속죄, 유대인 종교의 핵심,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종교로 전락하면서 썩게 됨
이집트 탈출 이후, 40년 광야 생활, 예배를 위해 하늘의 성막의 모형대로 성막을 짓게 함(BC1500)
출25-40, 16장에서 자세히 성막 양식을 주고, 결국 출애굽 후 다음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기 시작하여
(출40:1), 2월 1일에 세워짐(출40:17), 구름 기둥, 불기둥(출40:38): 하나님의 임재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증언 궤(언약 궤), 궤 위에 긍휼의 자리, 속죄가 이루어짐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됨: 하나님은 거룩한 분, 죄가 있으면 죽는다
죄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헌물, 절기, 속죄일(16장), 17장: 피의 속죄(11, 히9:22)
이 모든 일을 집행하기 위해 사람들이 필요함: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을 지정함
제사장은 아무나 못한다. 모세나 그의 아들들도 안 됨. 오직 아론의 아들들(민16:40)
그러다 보니 제사장 직이 특권이 되고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
레10장: 아론의 큰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향로에 이상한 불을 담았다가 즉사함: 결고
제사장 직이 특권이지만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됨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500년이 흘러가면서 제사장직 남용: 사무엘기 상,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
2장을 보면 주님의 헌물을 멸시함(주님께 드리기도 전에 좋은 것 가져감, 12-17)

여인들과 간음함(22), 둘이 한 날에 죽임을 당하고 엘리도 죽음, 또 다른 경고 이후 다윗이 왕이 되어 왕국을 확고히 한 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함(삼하7:2)

하나님의 말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 많은 재로 남기고 죽음 솔로몬이 금으로 되 가장 아름다운 집을 모리아 산에 세움(왕상6-8), 하나님의 임재(왕상8:10-11) 솔로몬의 기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소서(왕상8:29-30)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도, 중요 사건, 대하에도 기록, 기도 후 불이 내려와 사름(대하7:1)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게 되었다.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에서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함, 바빌론 포로 생활, 다니엘(단6:10),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 제사장들이 국가와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이 부패되기 시작하였다(사56:7), 기도하는 집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에 장사치들이 생기기 시작함

돈을 벌기 위해 제사장들이 장사치들과 결탁: 성전 제물은 반드시 성전에서 산 것으로만 해야 한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져온 것은 이런 저런 이유로 불합격, 울며 겨자 먹기로 2-3배 주고 삼 종교인들의 백성 세뇌 작전: 성전에 하나님이 있으므로 성전만 잘 꾸미면 만사 OK

우리는 안전하다, 아무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

바빌론 포로 생활 바로 직전의 유다, 예레미야가 외쳐도 듣지 않음(렘7:2-11)

회개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행위를 고쳐야 한다(3).

너희가 악한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려고 구원받았다고 함(10)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11): 오늘 주님의 말씀(눅19:46)

들로 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성전 자랑(21:5-6), 40년 뒤 폐허 교회는 어떤가? 처음에 초대 교회, 핍박받으며 집에서 숨어 예배, 산에서 들로 피해 다니며 예배 313년 밀라노 칙령, 정치와 종교의 결탁, 천주교라는 제도가 형성됨, 이때부터 성당 건축이 시작됨 로마의 베드로 성당(수십 년 공사, 면죄부 판매, 아프리카에서 오벨리스크를 옮겨옴, 미켈란젤로의 그림 등), 예수님의 피를 통한 단번 속죄 부인, 지금도 미사를 통해 연속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드림 독일의 쾰른 성당(1248년부터 600년에 걸쳐 완공됨),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1883년, 아직도 100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가 성전과 제사장 문화를 쫓 피우면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과거에 한국 교회는 예배당, 지금은 천주교처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한다. 5만 성전, 본 성전, 지성전 예배당이 성전으로 바뀌면 목사가 필히 제사장이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마27:51; 막15:38; 눅23:45).

다시는 들로 된 성전과 인간 제사장 불필요, 이것을 구축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미국의 침례교회들: 예배당을 다 강당이라고 부른다. 목사를 패스터라고 부른다. 성전 제사장 No!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주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 날마다 가르치심(47), 제자들이 한 일: 성전에서 가르치고 선포함(행3-4)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맹신이 아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 건물도 아니고 교육과 선포, 속사람의 변화 수천억짜리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도 사람의 속이 썩어 있으면 죽을 때까지 다녀도 소용없다.

사람들의 종교심: 수천억 건물, 파이프 오르간, 괜히 눈물이 나고 엄숙한 분위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 거기 있으면 나도 구원받은 것 같은 생각, 종교인들이 바로 이것을 노리는 것이다.

요4장의 수가 성 여인(요4:20-21), 주님의 말씀(22-24)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들로 된 성전은 파괴되었고 불필요하게 되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전3:16-17). 교회 건축, 필요가 있으면 필요에 맞게 짓는다. 오직 말씀 선포와 교육 그리고 교제를 위해 건물이 하나님이 아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가? 혹은 성전 등의 건물, 헌금, 햇수, 혈통 자랑,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구원)

그리스도의 권위와 메시아 입증(67)

성경말씀: 눅20:1-19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 1. 백성들의 시118편 호산나 환영, 2. 성전 청소(강도들), 3.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침, 이제 십자가 처형까지 3-4일 남음

지도자들이 당황함, 백성들이 그분을 따라감. 더욱이 날마다 자기들의 터전인 성전에서 가르침(19:47) 이분을 제지하기 위해 권위 문제를 들고 나옴(1-2), 무슨 권위, 누가 주었느냐?

권위: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사회 정치 종교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권위가 없으면 혼란이 생긴다(마8:8-9). 심지어 병도 권위로 고친다.

수제사장들: 아론의 후예, 율법에서 권위를 받음(레위 지파 특권)

서기관/율법 학자들: 저명한 랍비에게서 율법 공부, 장로들: 경험과 지혜가 많은 리더들 이들은 항상 “랍비 가말리엘은 이렇게.. 랍비 삼마는 저렇게..”

예수님은 시작부터 달랐다: 천국과 지옥(막9, 눅16, 마10:28), 산상수훈의 의식주 문제

권위로 마귀 제압(눅4:36), 권위로 죽은 자도 살림

무엇이든 말씀하면 본인 자신의 말씀, 하나님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왕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마7:21, 28-29).

더욱이 공생애 마지막 시점에 (1) 주님에게 권위가 없으면 큰 문제: 대언자처럼 성전 가르침

(2)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메시아, 로마 사람들, 유월절 소요

예수님을 무력화하려는 작전에 대한 주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권위와 메시아 입증>, 1. 질문, 2. 비유, 3. 성경 인용(성경의 권위)

주님의 질문

주님의 질문(3-4)

왜 침례자 요한인가? 모든 백성이 그를 존중함

많은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음(마3, 눅3)

침례자 요한의 사역: 메시아 준비(요1:15-34), 29, 요한 거부, 예수님 거부, 하나님 거부 종교 지도자들의 딜레마(5-7)

도저히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할 수 없음: 그것은 그분이 메시아, 자신들은 죄인(7:29-30) 아니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음

결국 모른다고 함

그러면 실제로 아는가, 모르는가? 안다. 그런데 벗어나기 위해 모른다고 거짓말: 이것이 위선 이들이 참 지도자로서 예수님이 사기꾼임을 확신하면 그렇다고 말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인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했다. 그 결과 내 메시지도 거부할 것이다.

주님의 대답(8),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주님의 약속(21:12-15)

주님의 비유(9-16)

주님의 포도원 비유(9-12),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이사야서 5장 포도원(1-3)

시80:8,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제거하고 심으심

주님은 이 포도나무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심.

한 가지 요구: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민족이 되기를 원함, 이교도 국가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함 그런데 날이 지나면서 이런 기대는 무너짐, 감사 대신 불평과 반역, 인류의 문제: 마귀 승배, 전 이교도

세상 우상승배, 참 하나님 창조가 있음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바알을 섬김

주님께서서는 사랑을 보이시며 참고 참으시며 종들을 하나씩 보냄, 이들은 모두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런데 모두 핍박하고 죽임(마23:29-39)

가인부터 마지막 대언자 스가랴에 이르기까지(히11:36-38)

이사야는 톱에 끌려,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사가랴는 바른 말을 하다가

이유: 본인들이 권위를 가지고 포도원을 경영하고 싶음, 교회가 이 형태가 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냄(13): 가장 큰 권위를 부여받음(요10:3), 아버지와 하나
농부들의 생각(14)과 실행(15): 자신의 죽음 다시 예고, 눅9:22 확증
아버지의 심판(16): 사랑으로 참으시지만 원래 공의의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히12:28-29).

주님의 권위 성경 말씀(17-18)

시편 118편은 메시아 시편, 누구나 다 안다. 백성은 예수님을 향해 이미 26절을 외쳤다. 메시아라고
주님은 같은 시편의 22-23절을 인용하신다.

여기의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자기를 돌로 표현하시며 메시아라고 말씀하신다.

이 돌이 너희를 부술 것이다(18). 무서운 심판의 말씀

주님은 부수는 돌, 실족하게 하는 돌로 표현됨: 사8:14, 단2:45-45

어떤 자들을 부수는가: 1.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마치 부모 거부), 2.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아를 모르는 자

침례자 요한 거부: 아버지 거부, 십자가 처형: 아들 거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거부: 성령님 거부

그 결과 복음이 유대인에서 사마리아, 이방인, 사도행전 역사, 유대인들이 밀려남

이들의 반응(19)

이들은 침례자 요한의 사역, 주님의 비유, 성경 말씀을 통해 본인들의 문제 확인

그런데 믿고 고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함(19)

결국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임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거부하면 또 다른 진리를 주시지 않는다.

창조 세상, 양심, 창조자가 있어. 심판하는 분이 있다. 거부하면 더 이상의 진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진다.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지옥

우리의 권위는 무엇인가?

이들의 문제: 사람의 전통, 체제, 관습, 명예와 학식

그러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교단이나 교파나 목사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지고 섭리로 보존되어야 권위가 산다.

킹제임스 성경의 다른 이름(Authorized version), 하나님의 권위 성경

첨가 삭제 오류가 없는 성경, 이것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벧전2:4-9)

결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가?

아버지 거부, 아들 거부, 성령님 거부, 돌에 의해 갈리는 무서운 일이 생긴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부활 입증(64)

성경말씀: 눅20:27-40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 1. 백성들의 시118편 호산나 환영, 2. 성전 청소(강도들), 3.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침, 이제 십자가 처형까지 3-4일 남음, 지도자들의 반발: 백성들이 그분을 따라감

1. 수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당황함, 권위 문제, 무슨 권위, 누가 주었느냐?(20:2)
침례자 요한의 회개의 침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 혹은 사람(4), 대답 못함, 나도 안 한다. 지도자들이 결국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2. 제사장, 서기관 참패 이후 사두개인 등장, 사두개인: 주전 300년경에 형성됨. 제사장과 성전 중심 종종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였으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서는 하나가 되었다(마16:1-12; 눅 20:27). '사두개'라는 말이 공정함을 뜻하는 히브리말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고,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살면서 이 파를 창설한 사독 혹은 사두커스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던 전통과 기록되지 않은 법규를 다 무시하였으며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모세오경)만 유대교의 근원이고 규칙이라고 주장하였다(구전 율법 배격).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마귀론을 거부하고 천사나 영의 존재를 부인하며 몸이 죽을 때 혼도 죽고 따라서 부활이나 보상 등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다(눅20:27).

이들의 주장: 모세는 이런 주제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 선포하자 극도로 미워하고 죽이려 함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늘의 섭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으나 사두개인들은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죽으면 끝이야, 여기서 잘 살아야 해!”
유대 백성들은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더 많이 수용하였으나 고위층 사람들은 그 반대였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중 다수가 사두개인이었고(행23:6-9)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도 그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였다(행4:1; 5:17). <예수님의 부활 입증>

이야기 개요

모세의 형사취수 제도(28절, 창38; 신25:5-10), 이스라엘 남자는 유산으로 할당된 땅이 있다. 아들에게만 줌,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 형에게 씨를 남겨서 유산 상속, 지금은 불필요 어떤 가정, 일곱 아들, 한 여인, 모두 자식 없이 죽고 이 여자도 죽음(29-32)

이들의 질문(33): 부활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들에게는 대단한 수수께끼

이상한 일: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로 주님을 시험함

예수님의 대답(34-36)

1. 이 세상 사람들은 결혼한다(34). 2. 그러나 부활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는다(35). 3. 천사들과 동등해서 죽을 수도 없다(36). 4. 죽은 자들의 부활은 하나님이 증명함(37), 5.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38) 반대편에 있던 서기관들의 대답(39), 6. 더는 질문하지 못함(40)

주님의 부활 설명

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창1:28). 마귀의 계락을 이기기 위해, 특히 범죄 이후 사람은 죽으므로 반드시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으므로 결혼 불필요, 결혼식장 장례식장 불필요

상태(36): 1. 천사, 2. 하나님의 자녀, 3. 부활의 자녀: 천상의 상태

천사의 아름다움(루시퍼), 힘(왕하19:35, 185,000명), 하나님의 뜻 순종, 흠이 없다. 우울증 No!
예수님의 부활 증명: 인간의 논리 이상 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이들이 믿는 모세오경
출3:6, 14,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죽음이란 전혀 모름),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음을 모르는 나의 호칭이 무어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I am)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어.”, “참 좋은 분이야.”

그러므로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다(38).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은 자도 있고 산 자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살아 있다.

눅16의 부자와 나사로, 하나는 지옥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천국에), 내 아버지, 장모님, 피어스 형제님, 이명자 어르신 등 부활도 두 개가 있다.

첫째 부활: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첫 열매, 공중강림 시 교회 성도. 이삭줍기 구약시대, 7년 환난기 성도)

둘째 부활: 1000년 왕국 이후,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모든 자들(계20:11-14)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 가장 큰 특징: 불멸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크게 다른 점

사람의 불멸을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양심에 빛을 주신다. 이교도라도 영원을 사모한다.

출3의 기사는 또한 부활하면 완전한 인격체로 존재함을 보여 준다.

아브라함: 영과 혼과 육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도, 저 세상에서도. 구원: 영 혼 육의 구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심(창17:7-8).

땅은 물리적인 땅, 후손 역시 물리적인 후손, 그러려면 몸을 가지고 부활해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70년 사는 인간과 영존하는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난센스

성경의 부활은 무엇인가?

고전15:35-38, 씨를 뿌리면 뒤에 꽃과 열매가 나온다.

씨는 본성에 속한 몸, 꽃과 열매는 영에 속한 몸(즉 천상에 적합한 몸)

부활은 몸의 재구성이 아니다. 이것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새 몸을 주시는 것이다.

이 새 몸은 옛 몸과 연속성은 갖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예수님의 몸: 부활 후 동일하지만 다르다.

식사, 옷, 말 등.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부활한 우리는 개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안다(눅16의 나사로, 부자, 아브라함).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천사가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지닌다(요일3:2). 하나님의 본성(벧후1:4)

하나님의 권능과 이들의 실수

막12:24, 성경 기록을 모른다: 욥19:25-27, 사26:19, 단12:2, 13, 겔37:24-25

하나님의 권능을 모른다. 무에서 유 창조,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파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창조물에게 다른 몸을 주신다.

그러므로 저 세상에서 우리에게 몸을 주실 수 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파워를 무시하고 접근하였다.

구원의 문제: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코의 숨이 멎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예수님의 확증

사두개인들이 부인하는 모든 것

1. 천사, 2. 부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출3:16)

모든 사람이 살아 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부활, 오직 기독교만 부활을 믿고 가르친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고전15:14-15, 19, 50-53)

서기관들을 조심하라(70)

성경말씀: 눅20:41-47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 1. 백성들의 호산나 환영, 2. 성전 청소(강도들), 3.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침,

이제 십자가 처형까지 3-4일 남음, 지도자들의 반발: 백성들이 그분을 따라감

죽기 전에 유대인들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주심

1. 수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당황함, 권위 문제, 요한의 침례(20:2)

2. 제사장, 서기관 참패 이후 사두개인 등장,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 논쟁, 일곱 형제 막12:24, 성경 기록을 모른다. 하나님의 권능을 모른다.

부활하면 하늘의 천사들과 동등하다. 결혼 불필요 No!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살아 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불멸의 혼이 들어 있다. 영원히 사는 쪽을 택해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서기관이라는 종교인들이 등장한다. 말 그대로 성경 필사자, 똑똑해야 한다. 많은 교육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학자, 신학자, 신학대교수, 목사 등, 누구라도 이들을 알아볼 수 있다(46, 긴 옷).

초기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이 지나가면 모두가 일어났다고 함.

랍비, 마스터, 심지어 아버지라고 불림, 율법 박사, 노인이나 그들의 부모보다 더 존경을 받음 회당에 가면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서 토라 두루마리를 가슴에 안고는 회중을 바라봄.

누구보다도 성경에 해박하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른다.

그리고는 본인들의 지식을 이용해 약한 자들의 재물을 약탈한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예수님의 메시아 입증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 선포, 병, 마귀, 죽은 자도 살림(이사야서 등의 메시아 대언 성취)

예루살렘 입성: 스가랴서 대언 입증, 시편 118편 백성들 환성, 그럼에도 서기관들의 메시아 관은 불변, 그들은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다. 반쪽만 알고 있다.

이번에는 주님의 질문

예수님의 말씀(41), 누구의 자손이냐? 구원과 영원이 여기에 달렸다. 마16의 “내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 즉 혈통을 가진 자, 맞는다(미5:2). 삼하7의 다윗 언약, 마1:1, 여기서 끝이면 문제 그리고는 시편110편을 인용하신다. 다윗의 시,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1절, 처음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내 주의 주는 다윗의 주인 즉 메시아, 아들 하나님(마22, 막12, 눅20, 행2:34-36, 히1:13)

하나님의 오른쪽(막16:19, 히1:1-3 등)

4절, 이 메시아는 구약(레위의 제사장직)을 철폐하고 신약(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가져오시는 분 히5:5, 9-10, 7:17, 21

십자가 사건 이후라야 신약시대

예수님의 논리: 1.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2. 그런데 다윗이 그를 (손자의 손자의 손자) 자기 주님이라고 부름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이냐?”(44), 엄청난 질문, 수수께끼, 서기관들이 당황함

주님은 이에 대해 어디서도 설명하지 않음,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참 하나님, 참 사람

1. 출생에 의해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 그의 피가 흐름

2.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의해서 그분은 다윗의 주님

베드로의 설교(행2:34-36), 주와 그리스도

시110:1은 주님의 죽음, 부활, 승천 이후 재림이 없으면 성립 안 됨

방금 전에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 그러나 이들은 부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함

영국 성공회 수장 등이 부활을 부인하고 있다. 교황 등이 진화론, 결국 부활 부인

바울의 로마서 1:1-4

서기관들의 문제: 전통에 매여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만 생각함. 주님으로서의 메시아는 No!

즉 이들은 정치적인 눈으로 메시아를 보니 메시아는 그저 인간에 지나지 않음
 성전도 장사하는 집, 부활도 부인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성경이 달리 보임
 경제적 렌즈: 모두 복을 주는 구절, 남미의 해방 신학: 해방자 예수, 공산주의자들: 사도행전
 우리는 어떤 렌즈로 성경을 보는가? 아무 렌즈(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또 부활의 주님이 보인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경의 모든 교리도 마찬가지이다. 교단이나 신학교 혹은 특정 목사의 틀이 아니라 그대로 보아야 한다.
 내 틀에 성경을 맞추려 하지 말고 나를 성경에 맞추어야 한다.
 목사도 회중의 압력에 굴복해서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하려 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창조, 죄, 타락, 심판, 구속, 성육신, 십자가 처형과 부활, 승천, 휴거와 재림
 1000년 왕국, 성경의 영감과 보존

종교인들의 특징

1. 교만(46)
 바돌로뮤 브루워: 전직 신부, <Pilgrimage from Rome>, 천주교를 떠난 뒤의 순례의 길
 신부가 된 뒤 워싱턴 시내를 그냥 걸어 다님
 요즘도 로만 칼리를 하는 목사들이 나타난다. 제사장 행세
 목사나 집사 등 리더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벧전5:3)
 자기가 위대해지면 하나님은 작아지게 된다.
2. 욕심(47)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상속 등의 문제를 의논하면 재산을 강탈한다. 과부의 생활비를 빼앗아간다.
 특별 기도를 해 주고 돈을 갈취한다.
 목사의 조건 중 하나: 탐심이 없어야 한다(5:2). 수백만 원 짜리 양복, 구두 등
3. 위선(47): 경건한 척 하려고 길게 기도
4. 그 결과: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음(약3:1)
 그래서 목사와 리더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
 주님의 경고 메시지(눅12:48)
5. 결국 이들은 백성을 선동해서 주님을 죽이며 예언을 성취함

결론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 왜 이런 책망과 정죄를 받을까?
 그들만의 렌즈를 끼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메시아는 그저 육신적인 구원자 이상이 아님
 그래서 메시아는 피 속에 다윗의 피가 흐른다는 것 이상을 모름
 실제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요5:39)
 육신을 입어야 죽으며 피의 희생을 치를 수 있음,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여 도울 수 있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마귀를 멸할 수 있음, 그럼에도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요,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다가 재림하신다. 1000년 왕국 통치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히7:22-25
 바로 이분을 주님으로 모시면 그에 걸맞은 생활이 나와야 한다. 겸손, 욕심 No, 위선 No!

헌금의 동기와 진정성 평가(71)

성경말씀: 눅21:1-4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 1. 백성들의 호산나 환영, 2. 성전 청소(강도들), 3.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침,

이제 십자가 처형까지 3-4일 남음, 지도자들의 반발: 백성들이 그분을 따라감

죽기 전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주심

지난 주 서기관이라는 종교인들이 등장한다. 성경 학자, 율법 박사,

주님의 질문, 시110:1, 다윗이 그분을 주라 부르니 어떻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인가? 육신, 다윗의

자손, 본래 다윗의 주님, 인성과 신성

이들의 문제: 성경 지식이 풍부하나 전통으로 인해 진리를 보지 못한다.

1. 교만하게 행한다(46), 2. 욕심을 부려 과부들을 강탈한다(47), 3. 위선을 부린다(47), 4. 큰 정죄를

받는다. 5. 결국 이들은 백성을 선동해서 주님을 죽이며 예언을 성취함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 인간의 노력과 의를 통해 하나님께 가려는 시도

발상 자체가 인간의 교만을 나타낸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엡2:8-9). 기독교의 핵심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성경 기록을 모른다. 하나님의 권능을 모른다(막12:24).

과부 이야기

하나님이 미워하는 종교인, 사랑하는 성도의 차이를 보여주시려고 성전 보고에 예물 드리는 것 언급(1)

섬뜩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보신다. 예배, 헌금, 생활, 공부, 운전, 설거지

성전 보고의 유래: 요아스 시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만듬(왕하12:9). 성전 보수를 위한 자원 헌물,

성전 바깥뜰 입구, 희생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보고에 돈을 드림

보고의 발전: 구멍 있는 단순한 궤(왕하12:9)

주님 당시에는 큰 궤, 놋으로 만든 13개의 나팔 모양 헌금 통

나팔처럼 위는 가늘고 내려가면 넓게 되어 있다.

미쉬나, 나팔 통마다 글이 있다. '나무', '새', '향', '공홀 자리 금', 등 그리고 6개에는 '자원 헌물'
평상시에도 보고는 봄비는 장소, 지금은 유월절, 내외 사람들이 몰려들.

사람들이 손을 대므로 놋 나팔이 반짝반짝 빛남

이런 시점에 주님이 유심히 헌금 드리는 사람들을 바라봄

주님의 관점: 헌금 자체가 아니라 동기, 진정성, <헌금의 동기와 진정성 평가>, 한두 차례 헌금 설교

주님이 본 것

1. 부자들이 예물을 넣음(1)

부자의 헌물이 나쁘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좋은 부자도 많다.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등

종교인들의 특징: 마6:1-2, 구제, 기도, 금식 모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

지금 이것은 공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사람들이 보고 있다. 놋 나팔 통이므로 돈 소리가 난다.

부자 종교인: 하인들을 대동하고 와서 많은 동전을 집어넣음, 동전 소리가 요란함

부자의 만족, "누가 나보다 더 하랴?", 이곳은 교만한 영혼들의 전쟁터, "나는 충분히 했다."

2. 과부가 작은 예물을 넣음(2)

웃이 허름하고 행색이 구차해 누가 보아도 가난함을 알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과부와 고아는 살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주님의 신신당부(신명기 15장)

이 렵돈, 심히 작은 구리 동전, 부자들이 내는 세겔의 400분의 1 가치

백만 원, 2500원, 2 렵돈 5000원, 워낙 작아서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누가 볼까봐 조심하며 들어와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고는 살며시 넣는다.

사람은 보지 않는데 주님이 보신다.

동기가 무엇일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6:4-5 실천, 이것 외에는 없다.

그 두 개의 동전으로 인해 성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말할 수 없이 더 가난해졌다. 그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4).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은 동전을 넣을 때 감탄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큰 감동을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과부의 작은 동전 2개에 감동을 받으셨다. 그 이유(4)

그리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판단하신다(3).

영원의 저울: 과부의 이 렵돈, 13개 나팔 통의 세겔, 금, 은 등, 이 렵돈이 무겁다.

헌금의 필요성과 몇 가지 중요 사항

모든 조직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국가, 학교, 가정, 왜? 조직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려고

교회도 헌금이 필요하다: 왜, 우리의 가치를 지키려고

빌딩, 목회자, 사역자 사례, 교제, 교육, 선교 등

먼저 구원받은 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바르게 헌금해야 한다.

헌금 자체는 결코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헌금은 구원 뒤 감사로...

1. 헌금을 할 때는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양이나 헌금 행위 자체가 아니라 동기

세금, 전기 전화 가스 요금, 동기에 상관없다. 내면 끝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행위나 양이 아니라 동기,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교우 사랑
가치 사랑(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가정, 바른 사회, 바른 국가)

2. 주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한다.

이 과부 여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다음 주에는 며칠 동안 하루에 한 번은 금식해야 한다.

매주 헌금, 미디어 선교 헌금, 건물 헌금, 건물 짓기 위한 폴링 약정 등 특별 헌금

이것으로 인해 우리 삶에 궁핍이 있어야 한다(삼하24:24).

차, 집, 취미 생활, 여행 등이 미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헌금은 중대한 예배 행위이다.

3. 이렇게 바칠 때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큰일을 하신다.

지난 2,000년 동안 신약 교회의 정신과 가치는 과부의 헌금의 지켜져 왔다.

성경 보존, 신약 교회 정신 보존, 부자들에 의해, 돈 많은 카톨릭 교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세 암흑시대: 왈텐시스, 보고밀, 폴리시안, 롤라드

존 위클리프, 요한 후스, 틴테일 등 피 흘리며 목숨을 희생하면 진리를 지킨 사람들

이들은 동전이 아니라 목숨을 바쳤다.

4.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합당하게 우리의 헌금과 희생의 가치를 판단해 주실 것이다.

과부 여인은 자기의 전 생활비를 부끄러운 심정으로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고귀하다고 하신다(고후5:10-11).

5. 헌금과 희생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유명 목사, 평범한 성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동일한 기회

6. 실제 사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고후8)

1-3절, 5절, 12절, 14절

9장 6-7, 우리는 자발적인 헌금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

헌금 강요는 죄악이다.

7. 헌금이 바르게 실천될 때 하나님께 영광(9:13)

성도와 교회의 풍성함(9:8)

즉 믿음의 행위이다.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자식들의 부모의 믿음을 알 수 있다.

8. 주님이 헌금의 동기와 진정성을 평가하신다. 영원의 저울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바란다.

유튜브 '헌금의 원리', 18만 조회

예수님의 올리브 산 재림 설교(7군)

성경말씀: 눅21:5-38

예루살렘 입성, 1. 백성들의 호산나 환영, 2. 성전 청소(강도들), 3.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침, 이제 십자가 처형까지 3-4일 남음, 지도자들의 반발: 백성들이 그분을 따라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주심

서기관, 율법 박사,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 나 역시 그런 사람 아니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서기관들이 과부들 강탈하는 것을 보시고 성전 보고에서 이 렵돈을 드리는 과부 여인 이야기 예배, 헌금, 섬김의 양, 행위 자체보다 동기가 중요함,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신다.

이제 잡혀서 죽을 날이 이틀 정도 남았다. 제자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성전 이야기(5).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 46년(요2:20),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AD 63년에 완공, 70년에 파괴됨 흰 대리석과 백향목, 황금으로 지붕, 9개 문을 입힘, 그냥 황금의 집 자체, 해가 뜨면 볼 수 없음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 무대는 올리브 산, 성전 산(모리아 산)의 동쪽에 위치, 기드론 시내

동쪽 문 역시 금으로 도색, 거울처럼 빛남, 주변보다 45미터 정도 높이 솟아 있는 성전은 멀리서도 보임, 이 모든 장식은 부자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졌음, 과부 헌금 이야기 이후 성전 등장 제자들의 이야기(5), 예수님의 대답(6),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눅1:31-33, 사9:6-7)

메시아로 예루살렘 입성, 종교 지도자들 혼냄,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 설립 기대, 청천벽력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묻는다(7). 마24:3

1.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느냐, 2.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3. 세상 끝의 표적(마24:3) 이에 대한 대답이 눅21:5-38, 마태복음 24-25장이다. 마24:3 올리브 산, 올리브 산 설교 예수님의 진리 설명과 대답은 많아도 설교는 많지 않다. 가장 긴 설교 두 편은 다 산에서 하신 것이다. 가장 긴 설교: 갈릴리 호수 동쪽 어느 산, 산상수훈, 마5-7, 올리브 산 설교: 마24-25

성경의 예언

성경은 사람의 책과 달리 예언을 담고 있다. 유일한 책, 창3:15의 여인의 씨, 계시록 22, 인류 구속 아브라함, 야곱(이스라엘), 유대인, 다윗, 예수님, 초림, 재림,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이러한 계획을 대언자들의 예언을 통해 오래전부터 주신다.

특히 이사야서 이후의 대언서들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대단히 많다.

예언은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거나 패가망신(벤허3:14-18)

벤허 역시 주의 날, 재림, 그러나 잘못 풀면 패가망신, 1992년의 다미 선교회 휴거 파동 한국식 재림 예수, 과천에 신천지가 열린다. 등등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 이사야서 이후 유대인들의 회복, 예수님의 오심 등을 담은 예언은 2-3번 중복해서 성취된다. 예언의 산봉우리, 초림, 재림,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므로 1번에 다 성취된 것으로 보면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는다. <예수님의 올리브 산 재림 설교>

성전 파괴 설명(6, 20-23)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 예루살렘 진격, 성전은 남겨두라. 그러나 군사들이 불을 지르므로 약탈이 시작됨, 하는 수없이 도시 자체와 성전을 완전히 소멸시키라는 명령, 군사들이 성전의 금을 차지하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뒤집어서 주변 계곡에 내다버림: 6절 성취 요세푸스의 증언: 군사들이 지나간 뒤 성전 산은 광야 같았다. 서쪽 벽만 남음

눅19:41-44, 40년 유예, 로마의 침입, 143일 동안 포위, 110만 명 살해, 10만 명 포로 눅21:20-23, 여기까지만 보고는 올리브 산 설교는 AD70년에 다 이루어졌다. 과거주의 해석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는다.

바로 다음 구절(24),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짓밟혀야 한다.

AD 90년경의 요한 계시록, (11:1-2), 뛰어넘어서 재림 전의 후반부 3년 반 살후2:1-2, 맨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출현(1-4)

더더욱 AD70년에는 눅21:25-28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마24:21의 큰 환난, 창세 이후로 없었던 것, AD70년에 No

마24:15의 멸망의 가증한 것, 다니엘서 9장 등 언제 이루어졌는가?

마24:29-31, 천체의 변화,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AD 70년에 이루어진 적이 없다.

결론: 올리브 산 설교의 예언은 AD70년경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인다.

계13: 적그리스도와 그의 표, 적그리스도가 네로, 네로 숭배가 표, No!

맥아더 목사님의 책 <재림의 증거>

구체적인 교훈

여기의 대상은 유대인 제자들, 특히 재림 때의 유대인들(마24:15, 16, 20 등), 9절 모든 민족들에게 그러나 교훈의 전반적인 내용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됨

1.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8): 적그리스도, 재림이 가깝다고 부추겨 재물 약탈

2. 전쟁들, 난리들(9), 민족끼리 다툼(10), 지진, 천재지변(11)

전쟁과 난리는 인류 역사에서 매해 일어났다. 1,2차 세계대전 큰 전쟁이다.

지진, 천재지변도 매해 있었다. 다만 그 강도와 빈도가 늘어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사람을 미혹하며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 있기에 사람이 짐짓 예언하면 안 된다.

하이티 지진, 중동 전쟁, 하늘의 이상한 현상, UFO 등

3. 9절을 보아야 한다(살후2). 경각심은 갖되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

4. 특별히 12-19는 1차적으로 환난기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다만 15절, 18절 등은 말세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5. 무화과나무와 이 세대(29-32)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화과나무만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나무를 말한다(29). 핵심은 30절이다. 전반적인 세상 역사와 징조들을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

1. 유대인 회복, 2. 예루살렘 성전 건축, 3. 동성애의 창궐(노아의 때), 4. 진화론의 팽창, 5. 전 세계적인 반 기독교 현상, 5. 성경 무오성 훼손

AD 30년경, 한 세대는 3-40년, 그러므로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 No!

AD 1948년 5월 이스라엘 독립, 3-40년 뒤에 재림, 그러면 21세기 이전에 주님의 재림

좋은 의도를 가진 분들이 '이 세대'를 이런 식으로 해석함, 해롤드 캠핑, 다 불발, 다미 선교회도
여기의 '이 세대'는 이 모든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32): 특히 25-26,

계시록 4-19장의 환난기, 이것들이 지나면서 다 이루어진다

6. 말씀 보존(33), 원래는 재림 말씀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신약의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권면의 말씀

1. 주의하라(34).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34).

2. 노아의 날들, 룻의 날들, 울무같이 임한다.

3.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살전5:4).

4. 깨어 있으라(36).

5. 이런 것들 닦이기 전에 휴거의 소망이 있다. 정상적인 삶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영원한 보증과 위로 성령님
바른 개인, 바른 가정, 바른 국가, 바른 교회

인생의 모든 기회를 허비한 사람: 가롯 유다(73)

성경말씀: 눅22:1-6, 47-53

공생애 3년 반, 예루살렘 입성, 백성의 호산나 환영, 성전 청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침, 종교 지도자들 책망 및 경고, 과부의 헌금: 동기를 보신다. 올리브 산 설교: 마지막 때의 예루살렘(둘 하나도, 21:6), 1.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느냐, 2.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3. 세상 끝의 표적(마24:3) 이에 대한 대답, 핵심 눅21:34-36, 1. 주의하라(34).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34). 2.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울무같이 임한다. 3.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살전5:4). 4. 깨어 있으라(36). 5. 이런 것들 닦지기 전에 휴거의 소망이 있다. 정상적인 삶을 살자. 드디어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 시작

성경 역사와 사람의 역할

인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야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인류의 역사를 자신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꼭 신자일 필요가 없다.

이 땅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창조물이다. 그분의 종 심지어 사탄도 이 시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 아이러니, 사실이다.

욥을 파멸로 넣으며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처럼 나대던 사탄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서 자취를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배의 복을 주시면서 비극적으로 보이던 이야기가 해피엔딩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반역, 결국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증명(엡3:10), 창조물의 패배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 시작과 과정은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그 끝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리고 그에게 동조한 모든 자들이 불 호수 속으로 들어가는 해피엔딩이다.

불 호수로 들어가는 모든 존재들 역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이집트의 파라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메대-페르시아의 고레스,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제, 공생애 시절의 헤롯 안디바, 빌라도, 바울 당시의 네로 등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과 가롯 유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 결국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완전 속죄를 이루셔야 한다.

배반하고 넘겨주어 이 일을 이룰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

12 사도 중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베드로, 그 다음 가롯 유다

막3:13-19, 명단에서 베드로는 항상 처음, 그는 항상 마지막

주님은 그를 멸망의 아들(요17:12), 버림받은 자, 인생의 모든 기회를 허비한 사람, <제목>

유다는 원래 좋은 이름이다. 야곱의 넷째 아들, 뜻 '주를 찬양하리로다'(창29:35)

가롯의 뜻: 가롯 사람 즉 유다의 도시 그리웃 사람이라는 뜻(수15:25).

어떻게 주님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이런 악한 일을?

사탄을 보면 알 수 있다. 주님 옆의 기름 부음 받은 그룹, 루시퍼,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다"(겔28:12, 14, 15, 17)

유다도 똑똑해서 다른 제자들의 신임을 얻어 돈을 관리하고 그들을 먹이는 일을 담당하였다(요12:6).

유다의 등장

주님의 공생애 시작, 제자들 선택(막3:13-19), 행1:15-26, 아마도 요한의 침례, 믿음 고백 침례, 주님의 부르심, 임명, 그런데 신자가 아닐 수 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살펴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아니라고 말한다(요13:18; 다락방, 17:6-12, 기도).

주님의 12 제자 중 11명은 갈릴리 사람, 유다만 유대 출신,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 멸시: 촌뜨기 나다나엘의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1:46)

헤롯 안디바는 유대 사람들 경계, 갈릴리 사람들 더 특권

그 결과 유대 출신 중에 열심당원 즉 혁명으로 주권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음

아마 유다도 이런 배경 속에서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주님은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중시함, 유다의 갈등
1. 5병2어 기적(요6:1-4), 백성의 말(14), 그러나 왕이 되려 하지 않음(요6:15)
유다의 실망, 이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심(요6:64)
 2. 요12:1-8, 베다니, 유월절 옛새 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음, 유다의 비난(4-5),
사실 그는 돈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다(6). 예수님의 옹호(7-8): 돈보다 나를 사랑해라.
 3. 실망 끝에 그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 주님을 팔아넘기기로 하고 지도자들을 찾아감(눅22:1-6, 마
26:1-16). 이유: 돈을 받으려고, '얼마나 주려느냐?'(14-16)
이 일의 주동자들(2):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마26:3에는 장로들도
유대인 지도자들의 소원은 흥계로 예수님 제거(2), 그런데 유월절 기간 백성의 폭동 염려(막14:1-2)
그래서 은 30개를 주고 조용히 붙잡아서 해결하려 함(4)
 4.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감(요13:2, 27).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종 선택은 그의 몫
 5. 유월절과 주의 만찬 경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특히 유월절 어린양 예수님께는 이번 유월절 행사가 중요함(눅22:15)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 그러나 유다에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다.
유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심(눅22:21-22)
 6. 자리에서 나간 그는 군사들을 데려왔고 결국 입맞춤으로 주님을 배반하였다(눅22:47-48).
원래 입맞춤은 애정과 충성의 표현, 속임수와 배신의 수단
신약성경, 서로 거룩하게 입맞추라, 5번(롬16:16 등)
거룩한 입맞춤이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7. 특징: 생명을 경시함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려고 발꿈치를 들었다(요13:18), 시41:9
압살롬에게 쫓겨 가는 때, 그의 친구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움(삼하15-17)
다윗을 돕는 것으로 보였던 그의 친구 아히도벨처럼 유다 역시 돕는 척하다가 배반함
아히도벨이 목매어 자살한 것처럼(삼하17:23) 유다도 목매어 자살함(마27:5)
 8. 유다는 최후의 회개 기회를 놓쳤다(마27:3-10).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한 것을 알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은 30개를 줌(3)
자신이 무죄한 피를 흘렸음을 인정했으나(4) 회개하지 않고 자살함(마27:5)
그 결과 그 돈으로 공동묘지를 사게 되었다(7). 예수님은 빈 무덤
주님의 판단(마26:24), 절대 자실은 안 된다.
 9. 사탄은 거짓말쟁이, 살인자, 도둑(요8:44; 10:10)
유다의 아버지가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그도 거짓말쟁이, 도둑, 살인자(자기를 죽임)
 10. 유다는 주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설교하였고 기적을 행하기까지 하였다(마
10; 막3:13-18).
마7장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7:15-23):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런데 나중에 가짜로 드러남(고후11:13-15). 특히 목사들이 조심해야 함

결론

누구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다.
유다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다니고도 주님 배반
보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온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요20:27-29).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나 그는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자살하였다.
인생의 모든 기회를 끝까지 다 허비함
마음이 부드러워야 한다.

유월절 만찬에서 주의 만찬으로(74)

성경말씀: 눅22:7-20

사람은 다 죽지만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주님은 그 날을 아신다. 창세 전에 정해졌다. 사람은 다 죽지만 죽으려고 태어나지 않고 살려고 태어난다. 그런데 주님은 삶의 최종 목표가 죽는 것이다.

침례자 요한의 증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요1:29), 피, 죽어야 한다. 1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 있어났다. 속박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파라오가 이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자 드디어 장자의 죽음

하나님의 예비책: 어린양을 죽여 그 피를 문기둥과 인방에 바르라(출12:7). 파멸시키는 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12:23). 그날은 유월절, 1월 14일, 보통 1월 14일 오후3-6시경에 죽음.

6시가 지나면 곧바로 15일이 되면서 무교절

그날 밤에 이집트 땅에서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서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이 죽음(12:29)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혼비백산(31), 드디어 이집트를 출발함,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거할 민족 이것은 영원히 지킬 명절(24-25)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실체이다.

이집트는 세상, 파라오는 마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과 피, 대속의 죽음

실체로 예수님이 어린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에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한다. 반드시 1월(니산) 14일

유대인 학자 에더샤임 등의 증언: 예수님의 출생 전에 유월절 풍습에 조그만 변화가 나타남. 유대인들은

14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어린양과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를 곁들여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에 성대한 만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14일을 예비일이라 부름

눅22의 유월절 만찬은 13일이 끝나고 14일이 시작되는 때(수요일 저녁)에 이루어짐

다락방 준비(7-13)

반드시 어린양을 주어야 하는 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7)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함.

주님은 유다의 계획을 아시고(1-6) 두 사람만 보냄: 1월 14일(목) 오후 3-6시경에 죽어야 함

이름도 모르는 제자 다락방 준비(10), 사용 허가, 들은 유월절 만찬 준비: 어린양, 무교병, 포도즙, 쓴 나물

예루살렘 입성 때에는 나귀 임자가 빌려 줌,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

유월절 만찬(14-18)

제자들은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매해 지키는 유월절 만찬으로 생각하고 모임(14)

주님을 중심으로 요한은 그분의 오른쪽, 유다는 왼쪽(요13:23)

예수님의 사랑(15): 죽기 전에 이 유월절 어린양 먹기를 바라고 바랐다. 사실 나는 이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민족의 반항과 거부, 십자가 죽음이 내 초림의 목표이다.

기독교는 주님의 죽음에 달려 있다.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재림 통치가 있다.

유월절의 의미를 알려주려 한다: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죄 없는 어린양이 죽되 피를 흘리고

죽고 그 피를 문에 발라야 한다.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왔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양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겼는가?

죄인이지만 그분의 피 보자기 안에 들어갈 때 의로운 사람이 된다.

유월절 중지(16): 하나님의 달력에서는 더는 없다. 앞으로는 천년왕국 잔치(29-30)

어린양의 혼인 만찬(계19:7)

십자가 이후의 영광, 고난 이후의 왕국을 미리 보심

주의 만찬 제정(17-20)

유월절 만찬이 끝나는 시점에 주의 만찬 제정(고전11:23-24)

원래 유월절 만찬은 4개의 잔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기도, 첫째 잔, 쓴 채소, 시편 113-114, 둘째 잔, 어린양+무교병, 셋째 잔, 시115-118, 넷째

잔, 아마도 시115-118 낭독 이후에 마지막 잔을 남겨놓고 주의 만찬 제정

1. 빵, 감사, 떼어 주심(19): break, broken(11:24), 우리를 위해 준 몸이다, given .
2. 잔도 그와 같이 함, 잔은 흘린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20): 지금까지는 구약, 이제 새 상속 언약을 주는 자가 죽으면 드디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히9:16-17).

구약도 피로 비준됨(출24:3-8, 히9:18-21)

이 새 언약은 반드시 피 안에 있어야 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히9:22)

히10:16-18,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주의 만찬의 목적(19-20)

1. 기억하라(19),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다.
구원받은 자의 첫째 의무: 기억하라.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누룩이 들지 않은 이 빵과 포도주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 우리는 기념으로 이 일을 행한다.
우리가 이 빵과 잔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다.
2. 천주교의 미사는 주의 만찬이 아니다. 미사는 화체설, 빵과 포도주가 신부의 기도를 통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교리, 실제로 그것을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행위, 더는 제사가 필요없다. 희생 예물이 필요없다(히10:11-14, 18).
3. 재림 때까지 주님의 죽음 선포(고전11:26)
뒤로는 예수님의 죽음, 앞으로는 그분의 재림 사모
영화로운 몸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고대함
또한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고전11:27-32).
심지어 병에 걸리거나 죽는 자도 있었음(30)
4. 우리는 하나이다(고전10:17).
교파, 남녀노소, 피부색, 상관없다. 우리는 다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에 들어옴(고전12:13)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만 있다(엡4:4-6).

결론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14일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일정에 따라 유월절 행사 뒤 주의 만찬 제정

1. 과거의 유월절
2. 내가 실제 어린양, 주의 만찬, 빵과 포도즙,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3. 재림의 때까지
4. 참여하는 자들이 다 내 안에서 하나이다.

찬송가 214, 141

누가 가장 큰가? (눅75)

성경말씀: 눅22:24-38

3년 반 공생애 완수, 구약의 유월절을 행하시며 만찬을 주의 만찬으로 바꿈, 새 상속 언약을 주심(20)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면 십자가 처형, 심지어 12중에 배반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심(22)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지요, 또 참 사람이시다. 사람으로서 내일 죽는다고 하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는가?

무슨 잘못을 했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선포, 메시아 사명 완수, 완고한 백성과 지도자, 제자 배반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누가 가장 큰가?>(24)

크게 되고자 하는 죄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다. 이것은 항상 제자들의 관심사.

1. 마18:1-5; 막9:33-37; 눅9:46-48,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18:4)
2.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왕국에서 왼쪽 오른쪽(마20:20-28)

이런 자리는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나머지 10명이 분개함(24-28).

오늘의 분쟁은 누가 배반할까(23) 말하다가 나옴, 어쩌면 유월절 만찬에서 자리 배치

이들은 예수님이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 뒤에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3년 반을 따라 다녔으나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역 목적 이해 못함, 우리는 어떤가?

주님의 설명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25)

특히 로마 사람들은 합법적 불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명예를 얻고자 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은 그리하면 안 된다(25). 세상 사람들이 표준이 되면 안 된다.

요즘 정치권을 보라. 대통령이 되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난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의 위대한 자, 주님처럼 되는 자: 섬기는 자(26)

섬기는 종은 누가 으뜸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는다. 오직 주인을 섬길 뿐이다.

목사, 집사, 인도자, 주방, 주차, 교사, 사모, 지휘, 반주, 다 주님을 섬길 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명예와 인정을 얻기 위해 경쟁하며 싸우지 않는다.

현대 교회들의 문제: 우리 교회 최고, 내가 그 중에 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자”

우리 교회에서 리더가 되기 원하는 분들: 교회의 믿음과 철학을 이해하고 온 가족이 섬기면 자동으로

리더가 된다. 목사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 섬김

이런 사람들의 문제

마귀의 노리개가 된다(31). 체로 겨를 까부른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너희(You)

주님의 위로(32): 이러면 믿음이 쇠한다. 그래서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 이유: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에 항상 함께한 자들(28): 매우 중요하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높이면 믿음이 약해진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 때에 내가 강하니라(고후12:10).

침례자 요한의 고백(요3:26-30):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의 침례를 주고 메시아의 길을 닦음

제자들이 생겨남,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니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몰려감, 그래서 불만

그러자 요한의 대답(27): 하늘에서 주셔야 한다. 나의 기쁨(29), 요한의 말(30)

사람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시75:5-7).

심지어 국가의 왕이나 정치 지도자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롬13:1-2).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의 의무: 바른 사람을 뽑는 것

창조물의 가장 큰 죄: 교만

마귀(사14):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지극히 높으신 분보다 더 높게 되겠다. 타락

아담(창3): 신들과 같이 된다. 속아 넘어가 타락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주님이 사명을 주심(32): 깨닫고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영어로 converted로 되어 있다. 회심한 후에도 해서 '구원받으면'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설교자가 되었다.

무엇으로 강하게 하는가? 섬기는 자가 큰 자다(벰전5:1-6).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는 호언장담, “나를 믿어라”,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아내가 늘 하는 말, 겸손히 살아라. 내가 늘 호언장담, 그리고는 실수한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모른다.

모세를 보라.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민12:3), 그런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민20).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 그러나 그것을 믿다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함(34)

우리는 어떤 면이 강한가? 바로 그 강점에서 실수하기 쉽다.

주님의 조언(35-38)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유명한 랍비, 건드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잡혀 죽으면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경륜으로 들어간다. 그들이 나를 잡아 죽이면 너희도 그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혜롭게 영적/지적 무기를 준비해서 세상과 싸워야 한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빌립 감옥, 행16:35-40)), 카이사르에게 청원(25:11)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의 것들을 지혜롭게 잘 이용하여야 한다.

미디어 시대,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의 악랄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적극적으로 소명, 오히려 우리를 이해하고 같이 일하자고 하는 목사들이 생김

우리의 선한 일이 악행으로 비쳐져도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여기서 해결이 안 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난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열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귀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딤편1:12-14처럼 고백하기를 원한다.

우리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기를 바란다.

그저 주님은 흥하고 우리 인간은 다 쇠하기 원한다(요3:30).

겻세마네의 쓴 잔(눅76)

성경말씀: 눅22:39-53

3년 반 공생애 완수,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행하시고 만찬을 주의 만찬으로 바꿈, 새 상속 언약을 주심(20)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면 십자가 처형, 심지어 12 중에 배반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심(22)
이 때에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크냐는 일로 다툼(24), 베드로의 호언장담(33), 주님의 말씀(34), 회복(32)
돌아가실 때까지 연속되는 실망, 기도 부탁, 고통, 잠자고 있음, 꾸짖지 않고 나가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두려움

지금까지 두려움이 없는 삶: 40일 금식, 마귀의 시험, 공생애 시작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 함
마귀들려 무덤에서 사는 흉악한 자, 종교지도자들 향해 무섭게 책망, 성전 청소

폭풍우, 변화산 사건 이후 자신의 죽음도 담담하게 알리며 두려움 없이 달려옴(눅9:51)

마지막 만찬, 유월절 어린양을 먹으면서도 담담함, 그런데 겻세마네 상황은 이와 매우 다름
우리가 보기에 대단히 두려움(히5:7), 많은 사람들이 평안히 죽는다. 왜?

이 두려움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벌벌 떠는 것과 다르다. 거룩한 두려움, <겻세마네의 쓴 잔>

겻세마네 동산

결전의 날, 만찬 이후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심(39, 눅21:37)

그래서 가롯 유다는 그분이 거기 계신 줄 알고 군사들을 데리고 거기로 옴(47)

마26:36, 장소는 겻세마네(올리브 짜는 도구), 요18:1-2, 그곳은 동산 그래서 겻세마네 동산, garden

왜 동산인가? 인류 역사는 동산에서 시작됨(창2:7-25), 동산에서 죄를 지음(창3)

하나님의 구속 사역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에덴동산(겔28:13)

이 사이에 겻세마네 동산이 놓임: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음

성경은 두 아담 이야기

첫 아담: 에덴동산에서 반역하고 죄를 지음

둘째 아담: 겻세마네동산에서 하나님의 잔을 받고 복종하며 구속 사역 완수(롬5:12, 18-19, 21)

세 제자 동행

8 제자들을 한 군데 남겨두고 베드로, 요한 야보고만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심(막14:32-33).

이 셋은 중요한 때에 그분과 함께함

1. 아이로의 딸(눅8:41-56), 2. 변화산(눅9:28-36), 3. 겻세마네

캠벨 모르간의 설명: 세 번 모두 죽음과 상관있다.

1. 아이로의 딸: 죽음을 물리침, 2. 변화산: 죽음을 통해 영화롭게 됨, 3. 겻세마네: 죽음에 승복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죽음, 요한은 가장 늦게 죽음, 베드로는 중간에서 가장 큰 고통, 십자가 고통
이 세 사건은 이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확실히 알려주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주시는 교훈: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40). 기도는 인간이기에 필요하다. 눅18:1

예수님의 잔

마가복음 표현(14:33-36), 엄청난 고뇌와 고통, 이 잔이라고 함(눅22:42)

4복음서를 보면 동일하게 3번 잔에 대해 기도하신다. 잔으로 인해 두려워하신다.

기독교의 예수님: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측면: 모든 것을 아신다. 고난을 아신다. 부활할 것을 아신다.

그럼에도 육신을 가지 사람이기에 그분의 혼은 육체 닥칠 고통과 고난을 실제로 경험한다.

히4:14-16

이제 조금 지나면 붙잡히고 수염이 뜯기고 침 뱉음을 당하고 결국 허위 사실로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죽는 순간 그분은 저주가 되어, 죄가 되어 하나님에게서 철저히 배척당한다(고후5:21; 갈3:13).

이것 즉 죄 없는 분이 죄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이 잔이다(죽음 No).

요18:11“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잔은 대개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비유적 의미로 쓰였다. 비유적인 의미의 잔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어떤 이에게 주어진 것을 채우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시11:6; 16:5) 생명과 은혜와도 관련이 있고(시 23:5)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출29:40; 시116:13). 이것은 또한 심한 고통과도 상관이 있으며(시75:8; 사51:17) 죽음의 쓴 맛을 나타내기도 한다(시75:8).

겻세마네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가 그분을 강하게 한다.

천사(시34:7; 히1:14). 천사들까지 동원하신다.

천사는 대속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분을 돕고 우리를 돕는다.

“인생에는 고통이 있고 특히 성도에게는 겻세마네의 고통이 있다. 동시에 겻세마네의 천사도 있다.”

그 기도의 결과: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44). 의사 누가의 기록

의학적으로 ‘헤마티드로시스’(Hematidrosis), 극도의 고통이 임할 때 혈액성 땀이 분출되는 현상
겻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히5:7). 죄로 인한 둘째 사망(롬6:23; 고후5:21)

이 만큼 죄 문제가 심각함. 죄의 삶은 사망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여긴다.

기도의 대상: 아버지(42),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버지가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면 잔을 치워 주십시오: 잔은 곧 죄와 저주 고통, 사실 그분과 상관없다.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 번이나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시면 그때마다 이들은 피곤해서 잠을 잔다(45-46). 우리와 동일하다.

다시 한 번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긍휼

유다의 키스

유다는 수십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 폭력으로 나올 줄 앎.

주님의 제자 유다가 주님께 다가와 키스로 그분을 배신한다.

키스: 마음의 기쁨이 입으로 분출되는 것, 좋은 것, 그 당시 스승과 제자들, 성도들끼리
그런데 많은 경우 키스가 배신의 표시가 되기도 한다.

주님의 실망의 말씀(48), 이것도 주님이 마실 잔의 또 다른 요소

베드로의 칼

제자들이 상황을 오판함(38), 베드로가 성급히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자름(50)

베드로는 자기 말 확증(22:33), 겻세마네로 갈 때 또 확신함(마26:30-35)

기도해야 할 때 자고 들어야 할 때 말하고 두려워해야 할 때 자랑하고 항복해야 할 때 싸운다.

잘못된 무기로 원수가 아닌 자와 싸운다.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의 전쟁이 아니다(고후10:3-6).

예수님의 광야 시험, 말씀의 검(엡6:17)

주님은 잔을 마시려 하는데 싸우려 한다. 주님의 태도와 영 반대다(요18:36).

진실은 무력이나 폭력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 이 땅의 진리는 총이나 칼로 햇불 같은 무질서로 전달되지 않는다. 잠시

참으라(51): 사람의 아들은 사람을 살리러 왔다. 베드로도 살리고 말고도 살린다(마지막 기적).

그리고 그 잔을 마시고는 결국 세상을 살린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교회, 사역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천사들 열두 군단을 부를 수도 있었다(마26:53), 군단은 6,000명

천사 하나가 18만 오천 명을 죽일 수 있다(왕하19:35).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초림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결단

0. 왜 예수님이 몸서리 칠 정도로 신음하시는가? 죄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

1. 유다처럼 키스로 배신의 삶을 살 것인가? 키스인가?

2. 베드로처럼 육신의 무기로 사람을 죽이며 살 것인가? 칼인가?

3.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잔인가?

4. 성도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신음하며 기도하신다(롬8:26), 말로 할 수 없는 신음

수탉의 울음소리와 베드로의 회개(눅17)

성경말씀: 눅22:54-62

유월절 만찬 후 올리브 산, 겟세마네,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42), 3번, 육체의 죽음, 조롱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히 떠나는 둘째 사망, 피땀이 흐르고 천사가 도와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잔을 받음, 제자들의 무능력 유다와 군사들의 등장, 드디어 그들의 시간, 어둠의 권세(53)

그들의 손에 넘어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감(54)

예수님은 처형 전 6번의 공판 혹은 심리를 받음(3번 유대인들, 3번 로마의 권세자들)

유대인들: 1. 안나스(요18:12-13), 전직 대제사장, 2. 가야바, 그의 사위, 현직 대제사장(마26:57),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눅22:66-71), 종교법에 의한 유죄, 사형 불가, 이에 로마 권세 이용 로마 권세: 1. 빌라도(눅23:1-4), 2. 헤롯(눅23:6-12), 3. 다시 빌라도(눅23:13-25), 사형 허가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오늘은 주님이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하는 장면,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주님과 가장 많이 대화한 사람,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사랑한 사람(마16:22), 진지한 고백(눅5:8; 마16:16) 심지어 바위 위를 걸은 사람(마14:28-29), 이런 사람이 결정적인 때에 주님을 부인한다!!!!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3번,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이유

1. 주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지 않음(눅22:31-34), 자만

2.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음(눅22:40, 45-46), 자신을 모름

3. 그 결과 용기와 열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마16:23), 우리는 어떤가? 멀리서 따랐다(54), 요한도(요18:15), 손해와 박해를 볼까 봐,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마26:31-35). 주님의 분명한 말씀(요18:8-9)

우리 주님은 그들이 자기를 따라오면 안 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들은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인간적인 오기가 들어 있다. “나는 겁쟁이가 아니다!”,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을 잘 아는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다(요18:15-16).

1. 불 쬐다가, 대제사장의 하녀(56), 부인, ‘마16:16 주는 그리스도시오’... 현관으로 옮김(마26:71) 이때에 수탉이 한 번 울(막14:68), 이때 나갔어야 했는데 여전히 머뭇거림

2. 그러자 다른 하녀(58), 부인

3. 한 시간쯤 지난 뒤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말고의 친척, 59), “내가 그와 함께 있던 너를 동산에서 보지 않았느냐?”(요18:26),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네 말투가 증명한다”(막14:70)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함(막17:71), 수탉이 다시 두 번째 울(눅22:60)

예수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보심, 아무 말씀도 안 함

그를 보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을 부숨(61),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의 비통한 울음(62): 내 울음, 회개의 울음소리, <수탉의 울음소리와 베드로의 회개>

수탉의 울음소리

0. 닭이 두 번 우는가, 한 번 우는가?

주님의 말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22:34, 61)

마태(26:74)와 누가(22:60)는 수탉이 한 번 울

마가는 두 번 울(마14:30), 첫째 하녀, 그리고 마지막 남자

막13:35 유대인들의 밤 사 등분: 저물 때, 한밤중, 닭 울 때, 아침녘

네 경점, 6-9시, 9-12시, 12-새벽 3시, 새벽3시-아침 6시

주님은 수탉이 우는 경점 전에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 부인한다(새벽 3시).

그러나 닭 자체는 두 번 운다.

- (***)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수탉 가운데 하나가 제 시간에 울어대는 것 자체가 기적 수탉까지 사용해서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심, 수탉의 울음소리가 격려의 메시지
1. 예수님은 지금 죄수로 끌려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베드로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3년 반의 기적, 질병, 마귀들, 죽음, 갈릴리 폭풍우, 물고기 동전(마17:24-27).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경제, 결혼, 직장 등).
믿음 지키고 살기가 힘들다(성경, 구원, 아이들 교육, 다음 세대 양육). 그래도 소망이 있다.
 2.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귀를 기울이게 됨(61). 수탉의 울음소리는 또 다른 말씀도 기억하게 함(31-32), 돌이킬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망
 3. 짧이 울면 새 날이 시작된다. 유다나 그분을 잡아간 자들에게는 새 날이 아니다. 매일 오는 날이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새 날이 왔다. 그는 비통하게 울었다(62). 회개의 새 날
대통령 탄핵 파면, 외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 위기, 국가의 위기, 하나님의 말씀(대하7:14)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님의 회복

-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어겨 가면서 좋은 의도로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있다(롬15:4). 말씀 기억, 온전히 보존된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
그 결과 비통하게 울면서 회개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장 크게 사랑하신다(시51:17).
1. 부활하신 날 아침, 두 여인의 무덤 방문, 천사의 메시지(막16:7)
 2. 그리고 바로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심(눅24:34). 교제를 회복시켜 주심

우리의 결단

1. 우리는 모두 실패한다. 이게 인간이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 모로 수탉의 울음소리를 주신다.
2. 마귀의 말, “너는 끝났다. 네 장래는 없다”,
3.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수탉의 울음소리를 주시고 다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
4. 어떻게 아는가, 베드로를 보라
5. 그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 시대를 열었다.
행2:22-24, 36, 37-38, 4:12, 20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교하며 주님을 사랑함(요21:18)
6.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을 기억해야 한다. 요일2:1-2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7. 수탉까지도 사용해서 회개하게 하신다.

만신창이로 정죄받으신 예수님(눅7B)

성경말씀: 눅22:63-23:25

유월절 만찬 후 올리브 산, 겟세마네 동산 기도, 체포되어 6차례 심문을 받음

유대인들: 1. 안나스(요18:12-13), 전직 대제사장, 2. 가야바, 그의 사위, 현직 대제사장(마26:57),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눅22:66-71), 종교법에 의한 유죄, 사형 불가, 이에 로마 권세 이용

로마 권세: 1. 빌라도(눅23:1-4), 2. 헤롯(눅23:6-12), 3. 다시 빌라도(눅23:13-25), 사형 허가
사53:8,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다. <만신창이로 정죄받으신 예수님>

아직 무죄, 군인들이 그분을 때리고 대언하라고 하며 신성모독(63-65)

나중에 이들은 가시나무 관, 자주색 옷,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조롱하고 때림(요19:1-3)

신성모독: 음행의 자식(사생아), 마귀 들린 자, 사마리아 사람(요8:48), 마귀 들려 미쳤다(요10:20)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크게 책망을 받은 그룹: 종교 지도자들, 장로, 수제사장, 서기관(66)

날이 밝자마자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예수님 심문: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통치 집행 기관

공회는 신약에 24회, 23회가 진리를 대적하는 종교인들의 모임(마5:22 제외)

심문의 핵심: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냐?(67, 마26:63)

주님의 말씀(67): 말해도 안 믿는다. 이미 그분의 증언은 거짓이요,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함

이들은 이미 눅20:1-8,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미 수많은 증거를 거부함

증거를 주면 줄수록 그들의 심판만 늘어남(요9:39-41).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하심(69), 사람의 아들(단7:13-14), 메시아 타이틀(특히 재림 문맥)

재림 장면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는다(시110:1; 눅20:41-43). 하나님의 그리스도

히1:3; 8:1; 10:12; 12:2; 행2:35; 7:55-56; 롬8:34; 엡1:20; 골3:1; 벧전3:22

또한 십자가 고통 이후에 영광이 있다(히12:2).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70), 주님의 대답(70),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요5:18; 19:7)

이미 명백하게 요10:30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10:36,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믿는 이유: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요8:46-47).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라고 해도 안 바뀐다.

주님의 말씀: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눅16:31),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증언해도 안 믿음

매튜 헨리: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눈이 먼 사람은 없다. 우리는 어떤가?

이들의 심판(71): 끝났다. 이제 정죄해서 죽이는 일만 남음

빌라도와 예수님 1차 심문

이들이 빌라도에게 데려감(1), 요18:28, 유월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음.

이들은 심판 과정에서 이미 율법을 어김, 하나님을 정죄함.

다만 겉모습을 보이는 것을 피하려 함. 위선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통치, 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를 힘들게 하였으므로 원수처럼

여겨졌으며(눅13:1) 그래서 결국 파면되고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학정에 대하여 심판을 받았다.

그는 칼리굴라에 의해 갈리아(골) 지방의 비엔나로 추방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학대함: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음(눅13:1-2),

성전에 로마 제국의 깃발을 달

예수님 심문 과정: 우유부단함, 요18-19장을 보면 7번이나 백성을 만나러 나갔다가 재판정으로 들어옴.

무죄임을 확신함 그래서 3번 무죄라고 한 뒤 십자가에 처형하게 함

1차 심문: 전혀 예상치 못하게 사형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것도 유대 백성이 모이는 유월절에

재판이 시작되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냄(마27:19): 의로운 사람, 상관말라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법으로 다스리려고 정치적 이슈로 고소(2), 죄목이 신성모독에서 바뀌

이를 알아차리고 빌라도는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심판하라고 함(요18:31)
원래 신성모독은 돌로 쳐서 죽임(레24:16)
성경 기록 성취(갈3:13; 신21:23), 나무에 달려 죽어야 저주가 됨, 찢려야 함(시22:16).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를 이용해서 로마의 십자가 처형으로 성경 기록 성취하심
사실 사람들이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행2:23)

이들의 요구: 죽이기를 원한다(요18:31).

죄목: 1.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 2. 카이사르에게 공세 반대, 3. 스스로 왕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 직접 물음(23:3)

원래 왕이면 죽여야 함, 그런데 왕의 대답(요18:36-37), 지금은 아니다.

결론: 그는 무죄이다(23:4), 14, 22, 그의 아내도 무죄(마27:19), 가롯 유다도 무죄(마27:4)

다른 세 명도 동일한 것 주장: 1. 헤롯(23:15), 2. 범죄자(눅23:40-43), 백부장(23:47)
요8:46,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헤롯과 예수님 2차 심문

백성의 주장: 갈릴리(5), 헤롯 안디바에게로 보냄(6-7), 침례자 요한 참수, 예루살렘 방문(7)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였다(눅9:7-9). 이유는 23:8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부답, 결국 헤롯은 긴 옷을 입혀서 조롱하며 보냄(11), 그의 양심이 괴롭힘. 이미
침례자 요한을 죽임. 더 관여하고 싶지 않음, 공식적인 판결은 없지만 무죄(23:15)

그 결과 이 둘은 원수에서 친구가 됨: 마귀는 진실과 진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
진리 편에 서면 분리, 비진리 편에 서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진리 핍박(통합, 연합, 종교)

빌라도와 예수님 3차 심문

빌라도의 말: 그는 죄가 없다(14). 헤롯도 못 찾았다(15). 죽일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징계 후 석방
(15,16), 유월절의 관례대로(17), 이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마27:18)

백성의 요구: 바라바를 놓아주라(18), 그는 범죄자(19), 강도, 살인자, 열심당원

진리를 말하면 무슨 이유를 써서라도 누구라도 제거, 어찌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분을 죽일 수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23:21)

빌라도의 3차 확인: 그는 죄가 없다(23:22)

빌라도의 굴복(23): 민중의 힘(호산나를 부르던 모든 민중은 아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김(23)

결국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예수님을 처형하게 내줌(24-25)

끝으로 다시 한 번 무죄 확증(마27:24-25), 물을 가져다가 손을 닦고 무죄 확증

빌라도는 진실을 알고 고백하였으나 올바른 것보다는 인기를 유지하기 원하였다.

요19:37, "진리가 무엇이나?"(38) 우리는 진리를 아는가?(요14:6)

예수님의 고통

막15:15, 채찍질, 로마의 채찍, 9가닥의 긴 가죽, 가죽에는 유리 조각, 뿔조각, 사기 조각
살점을 도려낸다. 군사가 지칠 때까지, 뼈가 드러난다. 심지어 채찍질로 죽는 자도 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음(사53:5), 아담의 죄로 인한 형벌

채찍: 인류의 모든 죄

가시 관(요19:2): 가시 길이 5-7센티미터, 우리의 생각의 죄, 손의 못: 우리가 만진 것,

발: 우리가 다닌 것, 옆구리: 우리의 감정, 등에 맞음: 죄 짐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그리스도(사50:6; 52:14)

우리뿐만 아니라 창조 세상이 고침을 받음

결론

사람(특히 종교인)은 온갖 수단 동원, 죄목도 바꾸고, 강도와 바꾸고, 빌라도와 헤롯의 위선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사람의 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선은 더 크다"는 것(롬5:20)

어느 정도: 만신창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십자가 고통의 의미: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눅74)

성경말씀: 눅23:26-43

유월절 만찬 후 올리브 산, 겟세마네 동산 기도, 체포되어 6차례 심문을 받음

유대인 종교 문제: 신성모독, 로마 정치 문제 빌라도: 죄를 찾지 못함, 민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함
주님의 고통: 겟세마네, 가야바, 군사들에게 채찍을 맞음(살이 찢김), 가시관을 씌, 만신창이가 됨
십자가 처형 시 여러 사람들의 반응, 처형, 구원, <십자가 고통의 의미: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구레네 시몬(26-30)

십자가 처형(26) 길: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성문 밖(히13:12), 600-800미터, 제자들 다 도망감
군사가 죄명을 적은 명패를 들고 앞에 나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죄수는 십자가 혹은 가로 빔을 지고 가야 함(26), 약 50킬로그램, 만신창이라 도저히 할 수 없음
군사들 중 하나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취해 뒤에서 지고 가게 함(26)

유대인 세 명절: 행2의 오순절을 보면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과 개종자가 몰려옴. 시몬도 그중 하나

구레네: 아프리카, 지금의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옆, 1200킬로

그는 갑작스레 붙잡혀 큰 수치를 당하고 있다. 섭리: 실제로 주님의 치욕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는 주님을 만났다. 회심하였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막15:21), 롬16:13에서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한다.

시몬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아마도 좋은 그리스도인

주님을 만나기 전: 열심을 가진 종교인, 만나 후: 구원받아 소망을 가진 채 십자가를 지는 성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이후 스스로 결단하고 믿음

공관복음이 다 기록함: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눅9:23).

예루살렘 여인들(27-31)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 많이 보러 옴

이 가운데 공개적으로 울며 애통하는 여인들(27), 메시아,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3년 반 공생애, 여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눅8:2-3). 주님도 저주를 퍼부은 적이 없다.

여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위엄을 주었다(수가성, 수로보니게, 마르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

수태고지: 비천한 한 소녀, 십자가 죽음: 여러 여인들, 부활: 여러 여인들, 초대 교회(행1:13-14)

주님의 말씀(28),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다시 한 번 눅19:41-44, 예루살렘의 멸망,

로마의 타이투스 143일 동안 포위, 110만 명 살해, 10만 명 포로, 성전 붕괴

이런 일이 생기면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장 고생함, 그래서 29절 말씀을 주심

남자들이 굶어죽게 되자 여인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자기 아이들을 먹음, 그 결과 30절 말씀을 주심

예수님과 이스라엘(31):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예수님과 이스라엘

예수님은 푸른 나무: 물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제 그분의 승천 이후에 이스라엘은 마른 장작, 주후 70년 유랑 생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겔37),

1948년 부활, 눅13:34-35

"로마 사람들이 죄 없는 내게 이런 일을 한다면 죄 있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십자가 처형(32-37)

32절: 이사야서 대언(사53:12: 눅22:37), 두 명의 강도(마27:38)

갈보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라틴어 칼바리아), 해골의 장소, 아람어로는 골고다(막27:33)

33절: 십자가에 못 박음, 3명, 원래 신성모독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함

성경의 예언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신21:23; 갈3:13), 손과 발을 찢는다(시22:16)

십자가의 고통: 못의 길이 18센티미터, 망치로 증추신경이 지나가는 손목 부근, 복숭아 뼈 아래

무릎에 의해 팔은 15센티미터 늘어나고 어깨는 탈구됨, 팔에 힘이 빠지고 고통과 경련, 호흡 곤란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못으로,

망치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날 그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처형(고전2:7-8)

바울의 고백(고전2:1-2), 갈6:14 ,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전한다.

바로 이때에 놀라운 일: 34절: “저들을 용서하소서”, 누가복음 기록의 목적

자신의 말 입증(눅6:27-280, 예언 확증(사53:12)

알지 못한 것이 용서의 근거가 아니다. 주님의 기도로 자동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희생물로 용서되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정죄한다.

주님의 기도: 40년간 심판 유예, 다시 구원받을 찬스(행3:17-19), 실제 백부장 구원(47)

두 강도(38-43)

명패에는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38)

주님은 유대인들의 왕(마2:2), 다윗의 후손, 메시아, 하늘의 왕국

예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두 강도는 왼쪽 오른쪽에서 그분을 볼 수 있었다(33), 동일한 기회

처음에는 둘 다 주님을 욕함(마27:44),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 조롱하고 욕하고 거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39).

다른 사람에게 변화가 생김

1. 명패를 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너무나 처참한 모습(사52:14)

2. 그럼에도 사람들을 위해 은혜롭게 생명을 내주는 것을 봄

3. ‘그리스도, 왕국, 하나님의 아들, 다른 사람 구원, 그러면 나도 구원?’, 생각해야 구원받음

4. 그의 위대한 구원 설교

a. 우리는 다 동일한 정죄(4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지옥과 사망의 정죄, 짓값을 받는다.

b.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40), 구원의 기초

c. 우리는 공정하게 정죄를 받는다(41), 지옥 정죄 받는 것은 공정한 일이다. 죄의 값은 사망 바로 이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회개와 고백

d. 이분은 잘못이 없다(41).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를 위해 대신 죽는다. 대신 속죄, 믿음

5. 용기: 친구, 백성, 종교 지도자들, 군사들의 조롱 무시

6. 믿음: 이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보통 믿음이 아니다(만신창이, 사람이 아니다): 심한 약조건 속에서 그의 믿음은 놀라운 것이다.

7. 요청(42)

예수님의 말씀(43),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 구약 성도들이 죽어서 간 곳

부활 이후에 낙원을 셋째 하늘로 옮기심(엡4:9-10)

둘째 강도의 구원 요약

1.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2. 전적으로 은혜로,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엡2:8-9)

3. 개인적인 구원, 주님의 말씀에 의해

4. 나중 것을 소망했지만 주님은 당장 구원을 주심

5.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 마지막 순간에도.

6. 그러나 이것을 믿으면 안 된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회개, 믿음

결론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가? 망치 소리, 세 개의 못,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이 내 것이 된다.

십자가 처형: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땅을 덮음(막15:25, 33)
이때에 주님은 일곱 번 말씀하신다. 누가복음에는 3번 기록되어 있다. 오늘 34, 43절

예언의 성취

1. 백성의 말: 남을 구원하였으니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하라(35)
2. 군사들도 마찬가지로(37), 왕이라면

1. 제비(34, 시22:18), 2. 조롱(시22:6-8), 3. 식초(시69:21)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신다.

나와 교회 국가,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눅23:44-49)

성경말씀: 눅23:44-49

마지막 하루, 유대인들의 신성모독 정죄, 빌라도: 죄를 찾지 못함, 민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함
주님의 고통: 겹세마네, 가야바, 군사들에게 채찍을 맞음(살이 찢김), 가시관을 씌, 만신창이가 됨
눅 3개의 못, 18cm, 손목 부근, 복숭아 뼈 아래, 팔은 15cm 늘어나고 탈구. 경련, 호흡 곤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하소서”(34)
양 옆의 두 강도, 본인의 죄 확신(40), 죄 없는 분(41), 주여 고백(42), 주님의 위로(43),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

십자가 죽음(44-45)

십자가 처형 오전 9시(막15:25)부터 오후3시까지 6시간, 특히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
여기 어둠은 일식이 아니다. 유월절에는 만월이라 불가능, 그 지역에 있던 어둠, 구름 등
예수님 출생: 그분 집 근처에만 별이 있었다(마2).
구약의 어둠: 하나님의 표적 심판과 백성의 애통(암8:9-10)
주님의 예언: 어둠의 때(눅22:53), 어둠의 권세가 임하는 때, 마귀들의 조롱
돋보기 하얀 초점, 점을 태운다.
이처럼 우리의 죄들이 주님 위에 놓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조준 됨: 고후5:21; 뱀전2:22-24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멸시거리”(시22:6)
아버지와 아들 간의 영원한 약속, 업무 처리
사53:6, 10-12, 우리의 죄들로 인해, 아버지는 그분이 고통받고 죽는 것을 원하셨다.

주님의 외침(46)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침(46), 요19:30의 ‘다 이루었다’(it is finished). ‘테테레스타이’
달리기, 마라톤, 결승 지점 통과, 다 끝남. 과거, 현재, 미래 포함 ‘영원히 끝난 상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침(요17:4): 구속 사역
구약의 예표들이 신약의 실체들로 성취됨: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요1:29; 고전5:7)
단 한 번에 영원한 희생 예물, “빛이 완전히 청산되었다.”, “마귀의 일이 끝남”
어떻게: 1. 순종하며(빌2:8), 2. 자발적으로(요10:17), 3.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행10:38), 4. 완전
하게: 율법의 모든 요구 만족, 율법의 끝마침(롬10:4)

마지막 기도(46)

시31:5의 성취, 다윗의 시,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유대인 아이들의 취침 기도, 의미: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러 간다. 다시 일어난다.”
예수님의 확신: 죄가 되었으나 영원한 사망 No!(히5:7)
여기서 유의해야 할 단어: ‘아버지’(Father), 유대인들은 결코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다.
예수님 사역의 특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심

1. 12살 성인식,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눅2:49)
2. 침례 후 성령 충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눅3:22),
3. 공생애 전 사역,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요10:30), 특히 요한복음
4. 겹세마네 “아버지여, 가능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눅22:42)
5.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눅23:34),
6. 죽기 전 마지막 기도,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눅23:46)
7. 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증언하심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마6:9; 롬8:14-15; 갈4:6)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평안히 고후5:1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고 외칠 수 있다(롬1:16-17; 3:22).

의와 구원의 목표: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성전 휘장이 찢어짐(45)

죽는 순간 발생함(마27:50-51)

성전의 휘장: 가장 비싼 실, 그룹들을 새김, 두께가 15cm, 지성소와 성소 분리, 대제사장만 1년 1회
막15:38, 칼로 찢기듯 한중간이 위에서부터 둘로 찢어짐,

그날 오후 3시, 향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이 얼마나 놀랐을까?

어둠 속에 있던 언약궤, 피를 뿌린 긍휼의 자리, 그룹들이 공개됨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직통 길이 열림(히10:19-22)

휘장이 곧 예수님의 몸, 이것이 찢어지며 직통 길이 열림(히6:19-20)

히10:11-12

더는 이 땅의 성전, 예물, 제사장, 의식, 규례 불필요(히9:9-10)

이제는 구약 시대가 마감되고 신약 시대가 열림

그래서 신약 교회를 해야 함

백부장의 증언(47)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아들(마27:54; 막15:39)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십자가 처형 전 과정을 유심히 지키고 살펴봄

여인들 위로, 죄인들 위해 기도, 한 강도 구원, 어둠, 지진(마27:54)

주님의 모습과 언행, 천체와 땅의 변화, 사람의 일이 아님

주님은 십자가 처형 전에도 강도 구원, 후에도 백부장 구원(구원이라고 하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함: 시므온의 예언(눅2:30-32)

백부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마27:54),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감(48), 120명

또 여인들도 그 자리에 있음(49): 예수님의 사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인들이 함께함

예수님 십자가 죽음 정리

우리라면 우리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할까?

분명한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아들이 수용하신 것(22:42)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

1. 예루살렘 여인들, 2. 구레네 시몬, 3. 강도, 4. 로마의 군인들과 백부장, 5. 예루살렘의 회개하는 무리들, 6. 11제자, 7. 120명, 8. 그 이후 수십억 명, 9. 우리에게도

고후5:18-21

주님과 화해하게 되었는가? 5:17의 새로운 창조물

화해의 사역을 하는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분은 부활하셨느니라(눅21)

성경말씀: 눅23:50-24:12

마지막 하루, 드디어 십자가 처형, 6시간 동안, 어둠, “다 이루었다”, “내 영을 맡기나이다”, 성전 휘장이 갈라짐(신약), 지진, 백부장의 증언,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언약, 원하신 것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제거됨,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거저 주어짐, 고후5:21

주님을 장사하는 일(50-56)

주님의 복음의 핵심: 고전15:3-4, 복음: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심 그러므로 묻히는 것도 확실해야 한다(50-56).

아리마대 요셉(50-51)

요셉과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요19:38-42), 은밀히 주님을 따름

이들은 구약성경 시편 22, 사53 등을 통해 예언을 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 그대로 실행함 요셉의 돌무덤(53): 골고다 근처, 새 돌무덤(요19:41),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림(사53:9)

빌라도에게 몸을 달라고 하려면 정치인이 필요하다.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이사야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그러나 주님은 부자, 공부 한 사람, 정치인도 필요로 한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유능한 사람, 베드로와 바울, 바울의 위대함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 내 신분, 위치에 상관없이 무엇으로 섬길 수 있는가 연구해야 한다.

다만 주님의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려야 한다(51). 성경 신자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재림, 창조 세상도 이 날을 기다린다. 우리는 어떤가? 이것이 믿음 생활

예수님의 부활

6일 창조, 안식 6시간 고통, 안식, 이제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부활은 기독교만의 특징: 1. 창시자가 살아 있는 종교, 2. 다른 종교 사후 멸절 혹은 윤회, 배타적(행4:12)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이 모두 헛것, 열매 없는 빈 껍데기

1. 사도 바울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고전15 부활 장(58절)
2. 로마서 1장 1-4,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
3. 사람의 문제(히2:14-16), 죽음을 두려워하고 속박에 매임, 죽어야 한다. 부활해야 한다.
4. 고전15:12-19,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5. 십자가를 빼고(약화하고) 부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십자가에서 죄들의 제거, 산 소망=부활
6. 3년 반 공생애의 목표: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의 핵심(행17:30-31)

거짓 이론

1. 제자들이 흠쳐갔다. 불가능, 1. 파수꾼들(마27:62-66), 2. 현장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두려워 숨은 제자들이 흠쳐가는 것 불가능, 3. 제자들은 심지어 그분이 부활 자체를 의심함
2.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빌라도는 죽었는지 확인하게 함(마15:44; 요19:31-34). 이미 죽었음(요19:31), 다리를 꺾지 않음,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옴

부활의 확실성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즉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고전15:1-8)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을 보고 확신한 뒤 목숨을 내놓고 부활 증언(행1:22), 행전의 주제: 부활 벨릭스 앞에서 바울의 고백(행24:14-15, 21)

증명하려면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복음서 기자들의 내용

부활한 날 1. 막달라 마리아(요20:11-18), 2. 다른 여인들(마28:1-10)

3.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눅24:13-35), 4. 베드로(눅24:34)

5. 야고보(고전15:7), 6. 사도들(눅24:36-49), 도마 제외(요20:19-25)

7. 여드레 뒤 사도들과 도마(요20:26-31), 8.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일곱 명의 제자들(요21)

9. 승천 전 40일 동안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에게(행1:1-12), 오백여 형제(고전15:6)

10. 다마스쿠스 도상의 사도 바울

무덤이 열림

부활 시간: 나는 목요일 오후3시에 돌아가셔서 일요일 오전 6시경에 부활하신 것으로 믿는다.

김바이블: <예수님이 죽으신 날과 부활하신 날>

누가 돌무덤을 열었는가?(1-2) 지진과 천사(마28:2-4), 두 남자(눅24:4), 천사는 젊은 남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수님이 아니라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눅24:10), 간 이유: 장례를 마무리하려고(1)

그런데 뜻밖의 결과:

1. 몸이 없다. 2.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눅24:4), 3. 천사의 말(5-7)

1.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the living, 언제나 살아계신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 내 아버지, 장모님, 피어스 형제님

구원받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 범법과 죄들 가운데(엡2:1)

2.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가장 좋은 소식,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부활 불가능 요11:25, 부활이요, 생명, 죽어도 산다.

3.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몇 차례나 이야기하셨느냐?”(7), 마16:21; 17:22-23; 20:17-19; 눅9:22, 44; 18:31-34

4. 그런데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낙망하고 실망한 채 애통하고 장례를 마무리하러 온 천사들이 무덤을 연 이유: “와서 보고 다시 가서 전하라”, 우리의 도전

말씀과 성취

주님의 부활 약속 성취는 말씀에 근거를 둔다.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마24:35).

말씀이 있기에 1. 부활과 휴거가 있다(고전15:50-53).

2.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계21). 3. 계21:3-4대로 된다.

다행히 지금은 주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요14:26).

여인들은(10) 곧바로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돌아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9).

교회의 존재 이유: 바로 이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개인과 교회

부활의 결과

1. 구약 시대 의인들: 눅16의 아브라함의 품, 이 낙망과 이들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셋째 하늘로 옮겨짐(엡 4:8-10). 마27:51-53

2.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 다가오는 수확, 부활 수확이 있다.

3. 첫째 부활: 첫 열매, 수확, 이삭줍기(구원받은 모든 자들)

4. 둘째 부활: 1,000년 뒤,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계20:11-15), 둘째 사망

5.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의 교회 탄생

그런데 처음에 믿지 않는다(11), 주님의 책망(마16:14)

베드로의 확인 차 방문(요한과 함께), 놀라며 떠나감(12)

확실한 사실: 몸이 없어짐, 침입의 흔적이 없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극적으로 변화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뿌리를 내린 뒤 사도행전 2장 설교: 열린 무덤, 주님을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행2:22-24

고전15:3-4

열린 성경, 닫힌 마음의 해결책: 엠마오(눅24)

성경말씀: 눅24:13-35

마지막 하루, 드디어 십자가 처형, 6시간 동안, 어둠, “다 이루었다”, “내 영을 맡기나이다”
복음의 핵심: 고전15:3-4, 복음: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심
장사: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사야서 53장 성취, 여인들의 증언, 천사의 말(눅24:5-6)
부활의 증인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근본, 우리 믿음의 근간, 이분이 우리 주님, 찬119

제자들의 의심과 혼란과 낙망

13절: 부활하신 그날, 주일 오후, 12사도는 아닌 두 사람이 실망에 잠겨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

엠마오: 예루살렘 북서쪽 60스타디온, 12킬로미터 3시간 거리

한 사람은 글로바(18), 다른 사람은 모름, 그냥 ‘나’라고 생각하자.

사실 낙망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기뻐해야 함

들려오는 소문: 빈 무덤, 부활, 그러나 믿지 못함

이유: 1.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21절). 메시아 예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추종

2. 왕국의 위엄과 영광을 보았음(19), 3. 그런데 고난을 이해하지 못함(20)

이들은 아마도 서로 뜨겁게 이야기하며 걸어감(14), 왜!, 왜!, 왜!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도저히 십자가 처형과 부활 등이 이해되지 않음

1. 그분은 메시아인가? 2. 실패, 성공인가? 3. 왜 죽으셨는가? 3. 이스라엘에 미래가 있는가?

이들이 의문과 혼란에 빠져 낙심하며 슬픈 모습으로(17) 갈 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접근하심(15-16)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이들을 염려하는 분이 있다. 예수님(시139:1-3), 선한 욕구

우리의 선한 의문, 주님으로 인한 혼란, 낙심, 주님이 다 아신다!!!

예수님의 질문(17)과 글로바의 대답(18), 다시(19)

유모의 센스: “무슨 일들이냐?” 주님이 주인공, 꾸지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심(롬8:34; 히4:16)

또 다른 이유: 고통은 지나갔다(히12:2).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솔직히 아뢰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1. 여자들의 증언(22-23), 2. 다른 사람들이 빈 무덤을 봄(24)

이런데도 믿지 못한다. 이유는 그들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25, 32).

모든 말이 다 부정적으로 들린다. 열린 무덤, 누군가가 훔쳐갔다.

본인들 말로 오늘이 십자가 사건 이후 셋째 날(21)

주님의 말씀(눅9:22; 막9:31; 요2:19, 22; 눅24:7), 이런 좋은 말씀이 다 부정적으로 들림

주님은 선한 사람들의 정직한 의문, 의심을 수용하고 대답해 주신다.

믿음과 불신

롬10:17, 믿음, 들음, 하나님의 말씀

이들에게는 구약성경이 있다. 매일 읽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합적으로 엮을 수가 없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주님의 설명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의논하고 토의해도 불가능, ‘열린 성경, 닫힌 마음’

이들에게 필요한 것: 성경 말씀의 이해, 정직한 자들에게 주님이 이것을 주신다.

성경 말씀을 열어 줌(32), 눈을 열어 줌, 주님을 보되 자기들 옆에 계심을 봄(31)

주님의 진단(25): 1. 어리석은 자들, 2. 대언자들의 모든 말을 더디 믿는 자들

1.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말씀의 이해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2.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구약성경: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삼하7; 슥14), 고난의 메시아(사53)

그런데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순서가 있다. 고난 먼저 그 뒤에 영광(26)

문제: 그들은 순서 무시, 오직 영광의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다(벧전1:10-11).

딤후2:15, 연구해야 한다.

1. 현시대 유대인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 여전히 메시아 초림, 재림의 메시아
2.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체 신학 문제도 여기에 있다. 이스라엘과 교회 비구분
3. 대부분의 이단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 아전인수식 성경 해석
4. 성장하지 못하는 이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 은사주의자들, 변영신학, WCC

어쩌면 이날 역사상 최고의 성경공부

눈이 열려 그분을 보고 마음이 열려 말씀을 받고 입이 열려 말을 전하게 됨

성경공부의 목적(요5:39-40), 행26:22-23

1. 창3:15 여자의 씨, 갈4:4, 죽음과 부활, 최후 승리
2. 창4:1-15 아벨의 피(10), 히12:24
3. 창14:17-24 멜기세덱, 히7:2, 의의 왕, 화평의 왕
4. 출12장의 이집트 탈출, 어린양의 죽음과 피(요1:29), 주의 만찬(눅22:14-20),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
5. 레위기의 모든 희생 예물,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대신 속죄
6. 시22의 고난
7. 사53의 고난받는 메시아
8. 한 마디로 그분은 자기에 관한 것들을 모두 설명해 줌(27)

결과

그들은 마을에 도달하고 그분은 더 가려고 하심(28), 이들의 초청(29)

이들의 변화: 이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름, 말씀에 의해서 변화됨(딤후4:1)

그 결과: 성경 기록을 열어 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봄(31)

즉 그분이 살아 계심을 직접 확인함

그분은 사라짐: 부활의 몸

이들의 증언(32)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경 공부와 설교: 목사와 성도들이 원하는 것

믿음은 처음에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

지식, 이 지식이 마음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는 갈망이 폭발함

1. 하나님, 2. 예수님, 3. 성령님, 4. 나의 죄성, 5. 구원, 6. 성화(죄성, 섬김), 7. 재림
배운 뒤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행8의 에티오피아 내시, 사53장 누군가가 지도해 주어야 알 수 있다(행8:31, 35, 38)

성경 공부의 유익의 증거

내가 얻은 유익을 나누는 것: 주님을 만났다. 바로 알게 되었다. 곧바로 일어나(33) 돌아가(33) 입을 열어 증언함(35)

이것이 간증이요, 전도이다.

그들이 가자 거기에는 11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의 증언(34)

즉 그들의 모임의 주제: 예수님의 부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주제: 성경의 이해, 살아 계신 예수님 증언(딤후4:15)

결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선한 의도로 의심하며 묻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알려주신다.

지금은 온전히 말씀이 주어졌다. 딤후2:15, 고난 이후에 영광, 초림과 재림

재림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다(25). 성경 공부의 유익: 지식, 감성, 예수님 증언

말씀의 상징 중 하나: 불(렘5:14; 23:29; 20:9)

부활의 확증과 사명 그리고 승천(눅23)

성경말씀: 눅24:36-53

예수님의 부활, 여러 사람들이 믿지 못함. 엠마오 두 제자, 본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다(21). 주님의 고난, 그 뒤의 영광 이해 못함. 주님의 책망: “어리석다, 모든 말씀을 더디게 믿는다.”(25)

성경 기록들을 열어 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32), 귀, 눈, 마음, 성경, 입이 열림
바르게 알게 되자 뜨거움이 생김, 지성과 이성이 감성과 연결되어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됨

부활의 확증

바로 그날, 엠마오 두 제자의 증언, 여러 제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모임, 바로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심(36)
그들은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문이 닫혀 있음(요20:19)

평강이 있을지어다(36). 기독교의 핵심은 평안이다. 마귀는 두렵게 한다.

평강의 하나님(히13:20-21) 바울의 편지(롬15:33과 빌4:9), God of peace 총 5회

롬16:20, 사탄을 멸하심

살전5:23,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히 구분해 주심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롬5:1)

하나님의 화평을 누림(빌4:6-7):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들은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유령을 본 줄로 생각함(37)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38)

내 손과 발을 보라(시22:16). 못 자국(요20:24-29), 여전히 지금도(계5:6, 9, 12)

사람의 행위 중 유일하게 천국에 존재하는 것: 못 자국과 창 자국

나는 살과 뼈가 있다(39). 만져 보라(요일1:1). 자기를 보여 주심(40)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이해하기 어려움,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요일3:1-2)

먹을 것이 있느냐(41), 생선과 별집(42), 그들 앞에서 잠수심(43)

이상한 표현(41): 기뻐서 믿지 못한다.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창45:26-28), 마음이 무너져 내림(26)

이스라엘의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 회복(시126:1-3), 꿈꾸는 자들 같음(1)

다시 한 번 성경 공부

최종적인 확증은 말씀에서 얻는다. 믿음은 경험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눅16:31).

내가 살아 있을 때 한 말(마16:21; 눅24:7),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구약성경을 펴시고 그들의 지각을 열어 주심(44): understanding, 깨닫게 하심(45)

구원과 성화 모두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주님 생전에 그분의 죽음(눅9:45; 18:34), 그들은 이해하지 못함

부활하신 날 성경 공부를 통해 드디어 이해함

결론(46):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 죽음과 그 뒤의 부활, 고난 다음에 영광(벧전1:10-12)

이것이 복음의 핵심(고전15:1-5), 이것은 이미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다(출12; 시16, 22, 사53).

베일이 제거되어야 함, 고후3:14-18, 딤후2:15

베드로의 고백(벧후1:18-19),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사명을 받음

안 뒤에, 깨달은 뒤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선포해야 함(47)

이름: 전 인격을 두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분 즉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함

회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변화를 받아 180도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1. 구원: 생명에 이르는 회개(행11:18)

2. 성화: 구원 이후에도 매일 뜻을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 계2-3의 일곱 교회

그 결과: 죄들의 사면, 히10:11-18, 히7:25

우리는 증인이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 우리(48)

증인, 순교자와 같은 말(행1:8; 4:20), 행전에만 약 30회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려주는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9:13; 막2:17; 눅5:32

마9:11-13, 11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12 예수님께서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13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증인: 개인 전도, 외국 선교 등 다 잘할 수는 없다.

우리 교회: 올바른 말씀을 올바로 알리는 것, '미디어 선교', 모여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

바로 알면 뜨거워야 한다.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가족 구원 성화, 함께 공동의 목표 이루자

어떻게 가능한가?(49)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 그분의 권능, 오순절 날(행2:1; 4:33)

1. 증언: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는 것

2. 조건: 성령님의 충만

제지들은 부활 후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49)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침례,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

예수님의 승천(50-51)

예수님의 초림에는 승천이 포함된다(50-51): 행1:9-12

눅1:1-3, 초림: 수태고지, 출생, 사생애, 공생애, 십자가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승천은 부활 후 40일 되는 날(행1:3)

승천은 다시 자기 위치로 가는 것: 주님께는 대단히 중요한 일(요17:5, 11)

승천은 그분의 모든 원수들을 발아래 두는 것(시110:1; 엡1:18-23)

1. 대제사장(히7:25): 고난의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심(히4:14-16)
2. 변호자(요일2:1; 롬8:34): 실패하고 고백할 때에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심(요일1:6-10)
3. 교회의 머리(엡4:7-16; 히13:20-21): 성도로 살 수 있는 능력
4. 현재 우리를 위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심(요14:1-6)
5. 다시 오심

예수님의 부활 확증과 승천의 결과

1. 주님의 축복(50-51):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손들을 들어 축복(50), 우리는 복 받은 자
2. 기뻐하며 그분께 경배(52)
3.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53)
4.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함(53) 23:29; 20:9)

누가복음 예수님 일대기 교훈

갈4:4, 인간의 죄,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 공생애, 긍휼의 하나님, 십자가 죽음 장사 부활 승천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증인, 이것이 교회이다.